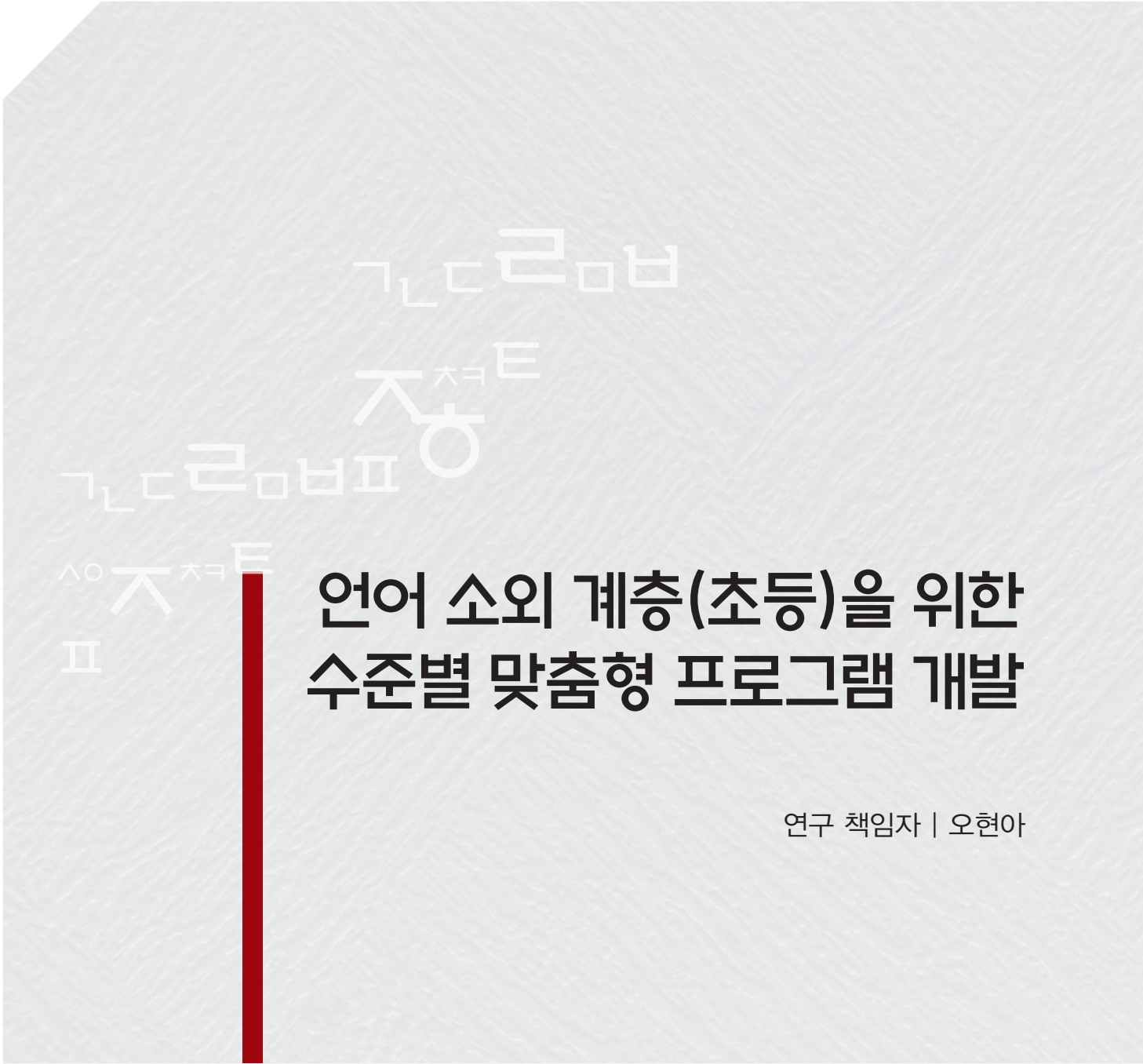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책임자 | 오현아

국립국어원 2017-01-03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52-01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책임자

오 현 아

2017. 07. 31.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귀부와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연구 책임자 : 오현아(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연구 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오현아

공동 연구원 오지혜, 조진수

보조 연구원 진가연, 김자영, 소지영, 최선희

<국문 초록>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이를 교재로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되던 기존 교재인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교실(국립국어원, 2014)>의 경우 저학년/고학년으로 이분되어 있어,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삼분되어 있는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과 구분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그램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조정하였고, 선행 연구 분석, 기존 교재 및 관련 성취기준 분석, 자문 위원 검토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구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재는 수준별 맞춤형 교재일 뿐 아니라, 핵심 역량과 정서 역량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도 기존 교재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연구 동향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언어 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 미래핵심역량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의 사회적, 교육적 위상과 지향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교재인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교실(국립국어원, 2014)>(저학년/고학년, 기본/심화)를 단원의 내적 적절성, 단원 간 위계성,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교재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듣기·말하기, 읽기와 문학 영역의 교육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원 간 위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구분된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재를 총 3권 개발하였고, 권별로 6개 단원을 제시하여 각각 15차시 수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과의 하위 영역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관련 성취 기준이 교재의 각 단원에 고루 구현되도록 하였고, 각 단원 학습을 통해 국어과 핵심 역량 중 인지적,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언어적, 인지적 측면 이외에 초등학생의 정서적 측면에서 학습자 발달을 고려한 정서 역량 강화 활동을 구안하여 단원별 마지막 부분에 정서 역량 강화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역량이 두루 신장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였다. 저학년 교재의 경우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아요!’, ‘귀를 쫓긋! 바르게 듣고 써요’, ‘재미있는 낱말 놀이’,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 ‘문장을 어떻게 쓸까요?’, ‘나와 내 짝꿍’의 6개 단

원으로 구성하였고, 중학년 교재의 경우 ‘날말이 참 많아요!’,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맞춤법,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름다운 우리말’, ‘알맞은 날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의 6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고학년 교재의 경우 ‘정확하게 읽고 써요!’,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말 나들이’,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써 보아요!’,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의 6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핵심 역량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초등 맞춤형 정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교재 내 활동으로 구현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고루 신장할 수 있게 했다는 점 역시 기존 교재와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의 실용성 및 효용성이 제고되고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언어 소외 계층(초등),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정서적 역량

<Abstract>

Development of a Level-customized Program for Linguistically Alienated Class (Element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ustomized language education program for linguistically alienated class (elementary school) according to the level of low graders (grades 1 ~ 2), middle graders (grades 3 ~ 4), high graders (grades 5 ~ 6), and produce it into a textbook. The textbook, <Ssok ssok! Korean Language Classroom together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 which was used for the linguistically alienated class (elementary) at local child centers is divided into two levels such as low graders and high graders. It was difficult to apply the program because the classification method is inconsistent with that of the current Korean language curriculum which is divided into three groups including 1 ~ 2 grader group, 3 ~ 4 grader group and 5 ~ 6 grader group. To cope with these issues, this study adjusted the education program to low graders, middle graders and high graders. And this study devised new educational programs and textbooks that corresponded to the changed reality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analysis of existing textbooks and relevant achievement standards, and consultation with advisors. The textbook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not only a customized textbook for each level, but also differentiates it from existing textbooks in that it considers core competence and emotional competence together.

The level customized program for linguistically alienated class (elementary) that this study developed is presented according to the stage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existing research trends,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regional children's center operation programs, language problems of low income family children, language problem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uture core competencies, and confirmed the social and educational status and ori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o be develop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isting textbook, "Ssok ssok! Korean Language Classroom together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4)" (low graders/high graders, basic/intensive) with the criteria such as the internal appropriateness of the units,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units, the relevance to the curriculum achievement criter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textbooks,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of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literature areas were relatively insufficient as

a whole, and that in some cases, the hierarchy between units did not matc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ee volumes of customized textbooks for linguistically alienated class (elementary) classified as low graders, middle graders, and high graders were developed. Six units were presented for each volume so that 15 classes could be balanced. The criteria of achievement related to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literature, and grammar, which are the sub areas of Korean language, were implemented in each unit of the textbook. Through learning of each lesson, critical creative thinking ability, data information utilization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ability, and cultural enjoyment ability corresponding to the cognitive and social areas of Korean language core competencies were to be raised. In addition to the linguistic and cognitive aspects, emotional competence is considered in the emotional aspec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overall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s are enhanced by suggesting emotional competency enhancement activities at the end of each unit.

In this way, we developed level customized textbooks for the linguistically alienated class (elementary). The textbook for low graders consists of 6 units such as 'Learn about the sounds and shapes of letters!', 'Put your ears up. Listen right and write', 'Play interesting words', 'Understand contents and remember with songs', 'How to write sentences', and 'Me and my partner'. The textbook for middle graders consists of 6 units such as 'There are so many words!', 'How should I speak and listen?', 'Spell, it's not difficult!', 'How should I read?', 'Beautiful Korean', 'Write a proper word or a proper reason and write it!' The textbook for high graders consists of 6 units such as 'Read it right!', 'Meet the world with various media', 'Let's learn about idiomatic expressions!', 'Korean language adventure', 'Write along with the writing process!', and 'Claim it for evidence.'

This study implies that by developing a core competence oriented level customized program for linguistically alienated class (elementary), it contributed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and writing of children at local child centers and expanded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low income people. In addition, it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textbook by devising the elementary customized emotional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and implementing it as an activity within the textbook through the design, which allowed the learners to develop their cognitive,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acticality and utility of the program for children in the local child centers will be improved an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of the low income class will be increased.

Keywords: linguistically alienated class (elementary), level customized program, cognitive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emotional competence

<차 례>

I. 서 론	1
1. 연구 배경	1
1.1. 연구 목적 및 범위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3) 연구의 전제 조건 및 특징	2
1.2. 기존 연구 동향	3
2. 연구 개요	11
2.1. 개발 대상	11
1) 사업의 주요 내용	11
2) 사업 수행 전략	11
2.2. 개발 추진 경위	12
1) 과업별 세부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12
2) 과업의 수행 체계	13
2.3. 개발 방법	15
 II.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35
1. 기존 프로그램 및 교재 분석 결과	35
1.1. 기본 교재 분석 결과	36
1.2. 심화 교재 분석 결과	65
2.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의 방향	93
2.1.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93
2.2.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102
1) 핵심 역량 활동 체계	102
2) 핵심 역량별 교재 구현 사례	105
2.3. 초등 맞춤형 정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109
1) 초등 학년군 수준별 정서 역량 강화 활동 체계	109
2) 학년군 수준별 정서 역량 관계	110

III.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의 실제	115
1. 학년군별 교재 단위 구성 및 체제	115
1.1. 학년군별 교재 단위 구성	115
1.2. 학년군별 대단원 구성 체제	116
2. 학년군별 대단원 성취 기준과 기존 교재 성취 기준과의 관계	120
3. 학년군별 교재 개발의 실제	125
3.1. 저학년군	125
3.2. 중학년군	160
3.3. 고학년군	188
 IV. 결론	 222
 참고문헌	 223

[표 차례]

<표 1> 전국 지역아동센터 경제상황별 이용 아동 현황(보건복지부, 2016)	6
<표 2> 지역아동센터 전체 아동 중 다문화 가정 아동 수(보건복지부, 2016)	8
<표 3> 지역아동센터 전체 아동 중 초등 저학년, 고학년 수(보건복지부, 2016)	8
<표 4>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지원 시설 이용 비율(통계청, 2015)	8
<표 5> 말듣쓰 영역(저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18
<표 6> 말듣쓰 영역(고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19
<표 7> 문법 영역(저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
<표 8> 문법 영역(고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21
<표 9> 읽기/어휘/문화 영역(저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22
<표 10> 읽기/어휘/문화 영역(고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23
<표 11> 말듣쓰 영역(저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24
<표 12> 말듣쓰 영역(고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26
<표 13> 문법 영역(저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28
<표 14> 문법 영역(고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29
<표 15> 읽기/어휘/문화 영역(저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31
<표 16> 읽기/어휘/문화 영역(고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32
<표 17> 분석 대상 교재 단원 구성	35
<표 18> 첫째 마당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쓱쓱! 낱말 놀이(1)’ 분석	36
<표 19> 둘째 마당 ‘쓱쓱! 즐거운 낱말 놀이(2)’ 분석	38
<표 20> 셋째 마당 ‘쓱쓱! 즐거운 낱말 놀이(3)’ 분석	40
<표 21> 넷째 마당 ‘즐거운 낱말 놀이(4)’ 분석	41
<표 22> 다섯째 마당 ‘쓱쓱! 낱말로 문장 만들기’ 분석	43
<표 23> 여섯째 마당 ‘쓱쓱! 낱말로 문장 만들기’ 분석	45
<표 24> 일곱째 마당 ‘쓱쓱!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분석	46
<표 25> 여덟째 마당 ‘쓱쓱! 왜 그럴까요?’ 분석	48
<표 26> 첫째 마당 ‘국어사전 살펴보기’ 분석	50
<표 27> 둘째 마당 ‘바르게 쓰기(1)’ 분석	51
<표 28> 셋째 마당 ‘바르게 쓰기(2)’ 분석	53
<표 29> 넷째 마당 ‘글쓰기 기초 다지기’ 분석	54
<표 30> 다섯째 마당 ‘열린 생각을 이용한 글쓰기’ 분석	56
<표 31> 여섯째 마당 ‘설명하는 글쓰기’ 분석	58
<표 32> 일곱째 마당 ‘상상하기와 글쓰기’ 분석	61
<표 33> 여덟째 마당 ‘내 의견 글로 쓰기’ 분석	63
<표 34> 1단원 ‘쓱쓱! 싱싱한 과일가게’ 분석	66
<표 35> 2단원 ‘쓱쓱! 소중한 우리의 몸’ 분석	67
<표 36> 3단원 ‘쓱쓱! 신나는 놀이, 안전한 놀이’ 분석	69
<표 37> 4단원 ‘쓱쓱! 내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분석	71
<표 38> 5단원 ‘쓱쓱! 재미있는 우리 학교’ 분석	72

<표 39> 6단원 ‘쑹쑹! 함께 쓰는 공간’ 분석	73
<표 40> 7단원 ‘쑹쑹! 위대한 사람들’ 분석	74
<표 41> 8단원 ‘쑹쑹!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나라’ 분석	76
<표 42> 1단원 ‘쑹쑹! 남남 맛있는 음식’ 분석	79
<표 43> 2단원 ‘쑹쑹! 오늘 나의 기분은?’ 분석	80
<표 44> 3단원 ‘쑹쑹! 정정당당, 스포츠’ 분석	82
<표 45> 4단원 ‘쑹쑹!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석	84
<표 46> 5단원 ‘쑹쑹! 컴퓨터와 우리 생활’ 분석	85
<표 47> 6단원 ‘쑹쑹! 나만의 위인’ 분석	87
<표 48> 7단원 ‘쑹쑹! 역사는 흐른다’ 분석	89
<표 49> 8단원 ‘쑹쑹! 돌고 도는 경제’ 분석	90
<표 50> 교재의 성취 기준 평가 및 재구성(저학년용)	93
<표 51> 교재의 성취 기준 평가 및 재구성(중학년용)	96
<표 52> 교재의 성취 기준 평가 및 재구성(고학년용)	99
<표 53> 핵심 역량과 속성	102
<표 54> 국어과 교과 역량(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74)	102
<표 55> 단위별 핵심 역량 배치(저학년)	103
<표 56> 단위별 핵심 역량 배치(중학년)	104
<표 57> 단위별 핵심 역량 배치(고학년)	104
<표 58> 단위별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저학년)	109
<표 59> 단위별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중학년)	112
<표 60> 단위별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고학년)	113
<표 61> 학년군별 교재 대단원 구성	115
<표 62> 성취 기준별 기준 교재의 관련 단위	120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목적 및 효과	1
<그림 2> 연구의 범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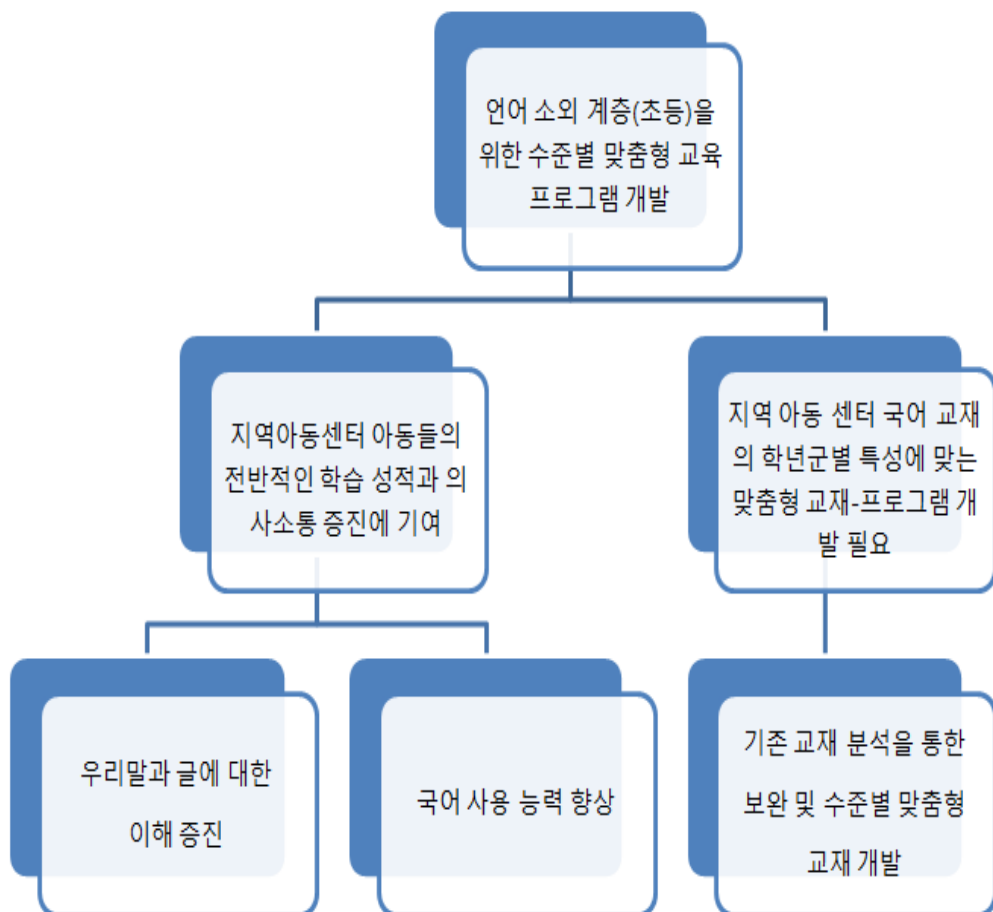
I. 서론

1. 연구 배경

1.1. 연구 목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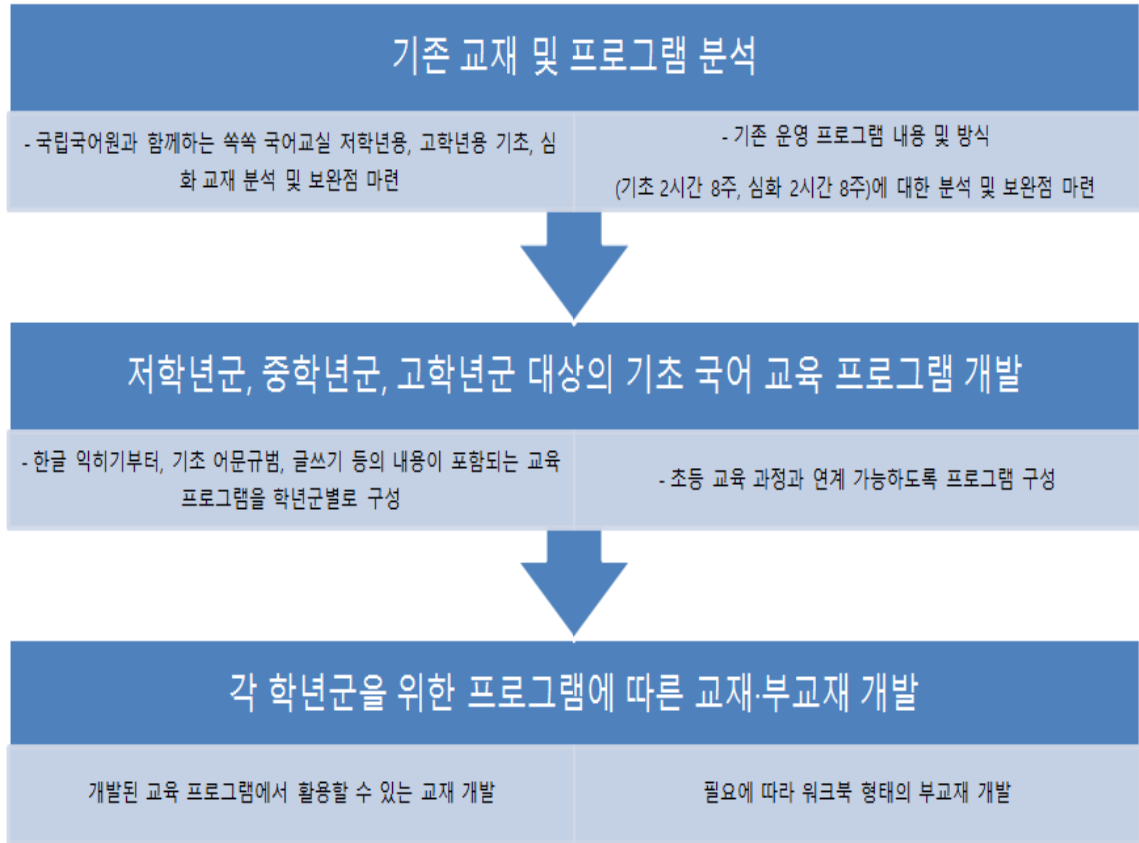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범주별·단계별로 연구 과제를 설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 교재 및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의 목적 및 효과

2) 연구의 범위



<그림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전제 조건 및 특징

(1) 연구의 좌표

-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교실> 저학년용, 고학년용 기초, 심화 교재를 분석하여 보완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기존 운영 프로그램 내용 및 방식(기초 2시간 8주, 심화 2시간 8주)에 대한 분석 및 보완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출강 강사진을 자문단에 포함한다.
- 기존의 ‘저학년-고학년’으로 구분된 학년군 구분을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의 3개 학년군으로 구분하고 학년군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교재, 필요에 따라 워크북 형태의 부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전문성, 연계성 확보

-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책임자, 공동 연구원, 보조 연구원은 모두 초등, 중등 교육 경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교재 개발 운영의 주체로서의 전문 경력을 지닌 연구진이어서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화된 인적 구성을 보인다. 이에 더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중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 문화 전공인 세명대 오지혜 교수를 연구진에 포함하였다.
- 그리고 초등 학령기 아동들의 학령별 일반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감안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양재 초등학교 최선희 선생님을 연구진에 포함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문진으로 초등 현직 교사 선생님과 지역아동센터 출강 강사진 6인을 자문단에 포함하였다.
- 이러한 기존의 교재 분석을 통한 보완점을 마련하여 학년군별 수준별 맞춤형 교재 개발을 위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2. 기존 연구 동향

1)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관련 선행 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실태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김서현·임혜림·정익중(201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이 학습습관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7,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pp.119-146.
- 노성향·서혜진(2014),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요구분석,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1),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pp.31-48.
- 박태정·박형원·이희연(2010),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한국아동복지학회, pp.75-109.
- 서원경(201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또래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부모교육연구 11(1), 한국부모교육학회, pp.5-34.
- 이유원(2015), 저소득층 아동 대상 기초 국어 능력 향상 교육의 현황과 전망 - 국

립국어원 언어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어문교육 1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pp.208-254.

이은수·이수용·홍세희(2016),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pp.59-85.

임정기·박현선·정익중(2015),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인식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한국사회복지학회 67(2), 한국사회복지학, pp.285-310.

정민희·홍성원·유서구(2016),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도움정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모형,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9,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p.99-127.

위 연구물들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높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 적응도 및 사회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서원경, 2014; 이은수 외, 2016; 정민희 외, 2016; 김서현 외, 2017).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질이 아동의 학교생활은 물론 학교 밖 생활에도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효과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제공될 필요가 있다.
-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표준화 외에도 특정 대상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특성화가 필요하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박태정 외, 2010).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 등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 지역아동센터와 그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및 요구가 매우 다양하다(노성향 외, 2014; 임정기 외, 2015).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과 내용이 기관이 아닌 대상자 중심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고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 반영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 국립국어원(국어문화학교)에서 기존에 제공해 온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유원, 2015). 국립국어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기초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어휘, 기초 문법, 글쓰기 관련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국어문화학교의 기존 교육 내용은 대부분 어문규정을 해설하고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전달하는 데 치중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순 어문 규정 지식의 전달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때 학습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언어 문제 관련 선행 연구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겪는 언어 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김미배(2014), 초등 저학년 저소득층 아동의 명사·동사 정의하기 능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한국자료분석학회, pp.3277-3287.
- 김영란·김영태(2011), 취학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한국언어치료학회, pp.73-88.
- 김자경·강혜진·김주영(2013), 저소득층 학습장애 위험군의 학습문제 유형과 인지 및 학업적 특성 비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4(4),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pp.57-80.
- 김화경·배소영·윤효진(2013), 저소득층 아동의 낱말해독 및 읽기 유창성, 언어치료연구 22(1), 한국언어치료학회, pp.55-68.
- 신후남·홍주연(2012), 초등 저학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관용어 특성 분석, 놀이치료연구 16(2),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pp.125-137.
- 이명순·박 현(2015),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언어 및 학습 능력과 센터 종사자들의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언어치료연구 24(3), 한국언어치료학회, pp.137-148.
- 허명진·박찬희(2017), 6세~11세 저소득층 아동의 어휘 및 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한국특수아동학회, pp.251-263.

위 연구물들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 초등학교급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언어 문제는 낱말 해독 능력 부족, 어휘 사용 능력 부족, 의사소통 능력 부족, 국어 학습 능력 부족, 표현력 부족, 읽기·쓰기 유창성 부족, 관용어 및 속담 사용 능력 부족 등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김영란 외, 2011; 신후남 외, 2012; 김자경 외, 2013; 김화경 외, 2013; 김미배, 2014; 이명순 외, 2015; 허명진 외 2017). 이는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저소득층 가정 아동은 중산층 일반 가정 아동과는 다른 언어 발달을 보인다(김영란 외 2011). 따라서 이러한 점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한편 전국 지역아동센터 경제상황별 이용 아동 현황을 <2015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보건복지부, 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전국 지역아동센터 경제상황별 이용 아동 현황(보건복지부, 2016)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아동수	센터당 평균 아동수
전체	97,926 (100.0)	28.2	100,233 (100.0)	27.2	104,982 (100.0)	26.3	108,357 (100.0)	26.8	109,066 (100.0)	26.9	108,936 (100.0)	26.8	109,661 (100.0)	26.7
수급권 아동	27,191 (27.8)	7.8	26,657 (26.6)	7.2	26,237 (25.0)	6.6	24,684 (22.8)	6.7	22,058 (20.2)	5.4	20,043 (18.4)	4.9	18,601 (17.0)	4.5
차상위 아동	31,792 (32.5)	9.2	37,801 (37.7)	10.2	40,147 (38.2)	10.1	34,627 (31.9)	9.6	29,824 (27.4)	7.3	25,566 (23.5)	6.3	22,558 (20.6)	5.5
기타 승인 아동	17,526 (17.9)	5.0	21,942 (21.9)	6.0	24,004 (22.9)	6.0	35,301 (32.6)	10.7	42,887 (39.3)	10.6	48,327 (44.3)	11.9	52,735 (48.0)	12.9
일반 아동	21,417 (21.8)	6.2	13,833 (13.8)	3.8	14,594 (13.9)	3.7	13,745 (12.7)	5.4	14,297 (13.1)	3.5	15,000 (13.8)	3.7	15,767 (14.4)	3.8

-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언어 문제는 비단 저소득층 가정이나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닌 언어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 있다(김미배, 2014). 또한 학령기에 접어든 저소득층 아동이 겪는 언어 문제는 취학 전부터 지속되어 점차 축적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허명진 외, 2017). 따라서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교재는 언어적 지원, 학습 지원의 일환으로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3)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 관련 선행 연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권미림·홍경훈(2012),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은유 및 직유 이해 능력, 언어치료연구 21(2), 한국언어치료학회, pp.87-105.
 박세희·황보명(2015),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에 관한 문헌연구, 언어치료연구 24(4), 한국언어치료학회, pp.57-70.
 배소영·김미배(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 연구 15(2),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pp.146-156.
 배희숙(2015),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쓰기 발달 특성 분석, 다문화

교육연구 8(4), 한국다문화교육학회, pp.161-179.

심고우니·정경희(2012), 초등학교 1-2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1(2), 한국언어치료학회, pp.93-110.

오소정(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 -친숙도와 비유정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1(2),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pp.145-164.

원진숙(2009),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4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158-187.

이효인(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연구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학회, pp.471-494.

위 연구물들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언어적 측면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예를 들어 언어 이해 능력 부족(권미림 외, 2012), 읽기 유창성 부족(배소영 외, 2010; 심고우니 외, 2012), 쓰기 능력 부족(이효인, 2012; 배희숙, 2015), 문화적 요소가 개입하는 속담 이해 능력 부족(오소정, 2012) 등이 그것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다문화 가정 아동은 학습자 변인에 따라 일반화가 어렵다. 즉, 학습자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인지, 외국인 이주자 가정의 자녀인지, 그 지역 사회, 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의 배경 언어, 인지 수준과 학습 요구, 학업 성취도,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가정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등 제반 요소를 포함한 학습자의 언어 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원진숙, 2009).
- 다문화 가정 아동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과 달리 환경적 특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중산층 일반 가정의 아동 수준으로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기본적인 언어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보일 수 있는 언어 문제 및 학습 측면의 취약점이 향후의 학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박세희 외, 2015)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한편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아동 중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은 <2015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보건복지부, 2016)>에서 발췌하였다.

<표 2> 지역아동센터 전체 아동 중 다문화 가정 아동 수(보건복지부, 2016)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다문화 가정 아동 수	3,282	4,237	5,781	6,992	8,372	10,028	12,229

- 특히 2015년 기준 전체 이용 인원 중 초등학교 저학년이 42,267명(38.5%), 초등학교 고학년이 40,113명(36.6%)으로 전체 이용 아동의 7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지역아동센터 전체 아동 중 초등 저학년, 고학년 수(보건복지부, 2016)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초등 저학년	37,407	38,030	39,293	40,425	42,267
초등 고학년	42,324	42,396	41,025	40,662	40,113

-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지원 시설 이용률에 대한 통계청 발표(2015)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이용하는 지원 시설 중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다음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표 4> 다문화 가정 아동의 지원 시설 이용 비율(통계청, 2015)

구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학교 내 방과 후 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원 시설(%)
비율	32.6	72.2	44.7	31.7
인원	16,704	50,417	25,882	15,644
여성	32.1	72.4	44.7	30.5
남성	33.1	72	44.7	32.9
9세-11세	49.5	85	55.5	32.1
12세-14세	36.9	77.2	52.2	37.3
15세-17세	24.1	70.3	42.9	36.4
18세 이상	17.5	48.8	23.9	22.7
다닌다	34.9	75.9	47.8	33.6
다리지 않는다	18.6	36.9	19.4	19.3
국내에서만 성장	29.8	72.6	43.9	32
외국 거주 경험	36.7	78.6	50.1	33.7
외국에서 주로 성장	37.6	52.8	36.6	25.7
동부	29.4	69.4	43.4	29.2
읍면부	39.1	78.7	47.8	37.6

4) 미래핵심역량 관련 선행 연구

미래핵심역량(인지·사회·정서 역량)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강명희·박소영·김보경·유지원·김혜린(2012), 고등학생의 미래핵심역량, 행동조절능력, 국어성취도 간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16(4),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pp.1143-1166.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
- 김규훈·김혜숙(2013), 국어과 창의, 인성 교육의 실행 원리 탐색 -국어과 핵심 역량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국어교육 140, 한국어교육학회, pp.409-448.
- 서영진(2015),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국어 능력과 핵심 역량의 관계, 국어교육학연구 50(1), 한국어교육학회, pp.272-305.
- 서영진·이인제·조용기·박진용·양정실·가은아·민재원·민병곤·김주환·김주영·김보람(2013),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혁·오은아(2013),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의 핵심역량 기반 국어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향, 청람어문교육 48, 청람어문교육학회, pp.7-40.
- 소연희(2008), 독서흥미, 독서활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이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0(2), 한국교육방법학회, pp.75-90.
- 신헌재(2008), 감성 소통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251-273.
- 오윤주(2016), 국어과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접근, 국어교육 154, 한국어교육학회, pp.229-256.
- 이광우·전제철·홍원표·김문숙(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홍원(2013), 핵심 역량의 관점에 기반한 국어교육의 재구조화 연구, 새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학회, pp.171-207.

위 연구물들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 현대는 물론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과거 산업 중심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강명희 외, 2012; 최홍원, 2013; 서영진, 2015). 핵심 역량(key competence)이란, 현재 사회의 상황보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견하고, 그 예견되는 미래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 혹은 소양을 말한다(이광우 외, 2009; 김규훈·김혜숙, 2013).
- 미래핵심역량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3R(Read, wRite, aRithmetic)을 기반

으로 하는 인지적(cognitive) 역량뿐 아니라 개인의 태도를 포함하는 정서적(affective) 역량과 보다 확대된 사회적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social) 역량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역량으로 볼 수 있다(강명희 외, 2012). 이러한 점에서 핵심 역량을 미래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지식’, ‘기능’, ‘태도’, ‘메타’ 등을 포괄하는 학습자의 총체적 능력으로 재개념화할 수도 있다(최홍원, 2013).

- 특히 국어교육은 단순한 문식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 정서, 사회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인지, 정서, 사회 역량의 총체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어과 핵심 역량은 타 교과와의 상호작용이나 통합 가능성, 교육적 보편성 등에 대한 지향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낸다. 요컨대 국어과 핵심 역량은 국어 능력에 새롭고 다양한 요구들을 응축한 확장적 개념(오윤주, 2016)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처럼 국어 교과는 교과의 본질적 속성상 역량 기반 교육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에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미래 사회 학습자가 함양해야 할 역량 요소들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광우 외, 2009; 서혁·오은아, 2013; 서영진 외, 2013; 서영진, 2015).
- 인지적 역량: 국어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의미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이해의 과정과 머릿속에 있는 입체적 형태의 의미를 순차적으로 계열화하여 말이나 글로 언어 표현하는 복합적인 사고과정을 포함하므로, 이해, 추론, 분석,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고차원의 인지적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강명희 외, 2012).
- 사회적 역량: 국어의 활용 자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국어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사회성, 리더십, 협업능력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소연희, 2008).
- 정서적 역량: 문학작품 감상 등을 통해 상상력의 계발, 건전한 심성 및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 또는 감성 역량과도 관련을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신헌재, 2008).

2. 연구 개요

이 연구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개요

- 사업 수행 기간: 2017. 5. 30 ~ 2017. 7. 31(약 2개월)
- 사업 수행 주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수행 장소: 강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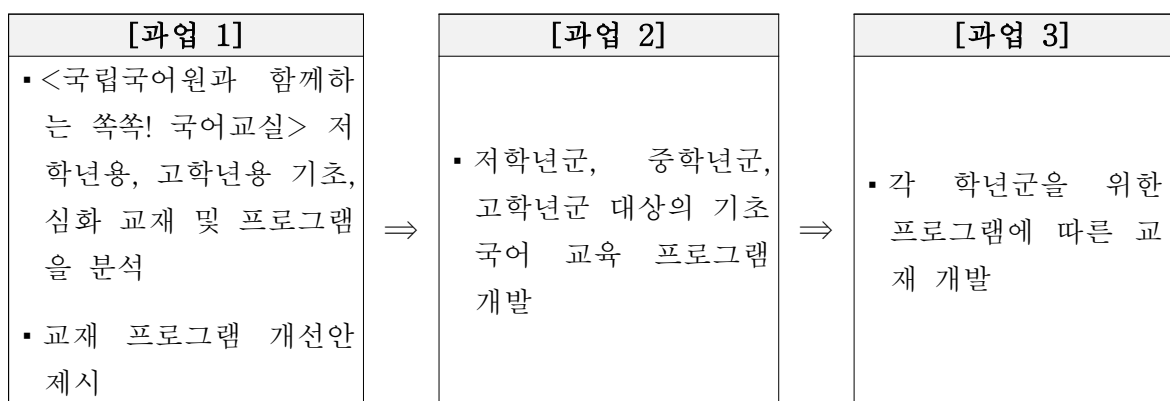
2.1. 개발 대상

1) 사업의 주요 내용

- ①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쪽쪽! 국어교실> 저학년용, 고학년용 기초, 심화 교재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보완점을 마련
- ②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③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 개발

2) 사업 수행 전략

- ① 크게 다음과 같이 과업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효율성 및 구체성을 담보한다.



- ②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한다.
- ③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연구 방향을 조율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질 높은 연구 결과를 산출한다.

2.2. 개발 추진 경위

1) 과업별 세부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과업	추진 일정	세부 사업 내용
[과업1] 기존 교재 및 프로그램 분석	5월 4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 세부 검토 작업 ▪ 분석 기준 및 지침 마련
	5월 5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에 대한 영역별, 학년군별 분석 실시 ▪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영역별, 학년군별 분석 실시
[과업2]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5월 5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강 강사진의 자문 의견 수합(국어원 제공) ▪ 프로그램 대상 학습자 특성 파악 ▪ 기존 교재 및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
	6월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강 강사진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및 일반안 도출 ▪ 각 학년군별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업3]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 개발	6월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프로그램을 반영한 저학년군 대상 교재 개발 ▪ 저학년군 원고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진 의견 수합
	6월 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프로그램을 반영한 중학년군 대상 교재 개발 ▪ 중학년군 원고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진 의견 수합 ▪ 저학년군 원고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진 의견 수렴, 반영 ▪ 저학년군 대상 수정 원고 제출
	6월 3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프로그램을 반영한 고학년군 대상 교재 개발 ▪ 고학년군 원고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진 의견 수합 ▪ 중학년군 원고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진 의견 수렴, 반영 ▪ 중학년군 대상 수정 원고 제출
	6월 4주차 -7월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년군 원고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진 의견 수렴, 반영 ▪ 고학년군 대상 수정 원고 제출 ▪ 학년군별 교재의 내적 흐름 검토 수정 의견 제안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군별 교재의 내적 흐름 검토 수정 의견 수렴

	2주차-3주차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저, 중, 고 학년군 담당 3수정 원고 제출 ▪ 대단원 학습목표와 활동 관계도 시각화 작업 ▪ 대단원 학습목표와 활동 관계도 포함된 최종 원고 제출
▪ 7월 26일 최종 보고회		
▪ 7월 31일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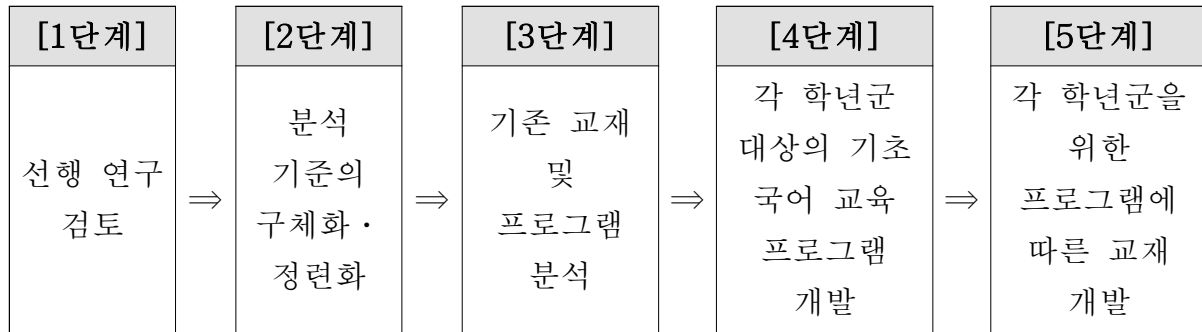
2) 과업의 수행 체계

구분	성명	소속	수행 업무
책임연구원	오현아	강원대학교	▪ 연구 총괄 - 선행 연구 검토, 연구 개념 정립 - 연구 방향 설정, 연구 일정 조정 ▪ 기존 교재 및 프로그램 분석 결과 검토 ▪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제시 ▪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 개발 방향 제시 ▪ 평가회의 참석 ▪ 최종 보고서 작성
공동연구원	오지혜	세명대학교	▪ 교재 및 프로그램 평가 지표 검토 ▪ 교재 및 프로그램 분석의 지침 마련 ▪ 읽기, 어휘/문화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평가 지표 총괄 ▪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어휘/문화 영역 교재 개발 ▪ 평가회의 참석 ▪ 최종 보고서 작성
	조진수	서울대학교	▪ 교재 및 프로그램 평가 지표 검토 ▪ 교재 및 프로그램 분석의 지침 마련 ▪ 문법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평가 지표 총괄 ▪ 교재 및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 총괄 ▪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문법 영역

			교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회의 참석 ▪ 최종 보고서 작성
연구보조원	진가연	서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어휘/문화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평가 지표 마련 보조 ▪ 읽기, 어휘/문화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분석 진행 ▪ 교재 및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 보조 ▪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읽기, 어휘/문화 영역 교재 개발
	김자영	서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듣쓰, 문법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평가 지표 마련 보조 ▪ 말듣쓰, 문법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분석 진행 ▪ 교재 및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 보조 ▪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말듣쓰, 문법 영역 교재 개발 ▪ 예산 및 행정 처리
	소지영	서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 연구 정리 및 분석 ▪ 말듣쓰, 문법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평가 지표 마련 보조 ▪ 말듣쓰, 문법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분석 진행 ▪ 교재 및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 보조 ▪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말듣쓰, 문법 영역 교재 개발
	최선희	서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듣쓰, 문법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평가 지표 마련 보조 ▪ 말듣쓰, 문법 영역 교재 및 프로그램 분석 진행 ▪ 교재 및 프로그램 개선안 마련 보조 ▪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 대상의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말듣쓰, 문법 영역 교재 개발

2.3. 개발 방법

○ 본 과업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1) [1단계]의 연구 방법

○ [1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정립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관련 선행 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실태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김서현·임혜림·정익중(201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이 학습습관과 또래에
착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7,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pp.119-146.
- 노성향·서혜전(2014),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요구분석, 방과후아
동지도연구 11(1),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pp.31-48.
- 박태정·박형원·이희연(2010),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역아동센
터의 운영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한국아동복지학회,
pp.75-109.
- 서원경(201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또래관계가 심리사
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부모교육연구 11(1), 한국부모교육학회, pp.5-34.
- 이유원(2015), 저소득층 아동 대상 기초 국어 능력 향상 교육의 현황과 전망 - 국
립국어원 언어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어문교육 17, 고려
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pp.208-254.
- 이은수·이수용·홍세희(2016),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아동의 학교적
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

구소, pp.59-85.

임정기·박현선·정익중(2015),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인식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한국사회복지학회 67(2), 한국사회복지학, pp.285-310.

정민화·홍성원·유서구(2016),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도움정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모형,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9,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p.99-127.

②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언어 문제 관련 선행 연구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겪는 언어 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미배(2014), 초등 저학년 저소득층 아동의 명사·동사 정의하기 능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한국자료분석학회, pp.3277-3287.

김영란·김영태(2011), 취약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한국언어치료학회, pp.73-88.

김자경·강혜진·김주영(2013), 저소득층 학습장애 위험군의 학습문제 유형과 인지 및 학업적 특성 비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4(4), 대구대학교 한국 특수교육문제연구소, pp.57-80.

김화경·배소영·윤효진(2013), 저소득층 아동의 낱말해독 및 읽기 유창성, 언어치료연구 22(1), 한국언어치료학회, pp.55-68.

신후남·홍주연(2012), 초등 저학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관용어 특성 분석, 놀이치료연구 16(2),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pp.125-137.

이명순·박 현(2015),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언어 및 학습 능력과 센터 종사자들의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언어치료연구 24(3), 한국언어치료학회, pp.137-148.

허명진·박찬희(2017), 6세~11세 저소득층 아동의 어휘 및 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한국특수아동학회, pp.251-263.

③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 관련 선행 연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권미림·홍경훈(2012),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은유 및 직유 이해 능력, 언어치료연구 21(2), 한국언어치료학회, pp.87-105.

박세희·황보명(2015),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에 관한 문헌연구, 언어치료연구

24(4), 한국언어치료학회, pp.57-70.

배소영·김미배(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 연구 15(2),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pp.146-156.

배희숙(2015),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쓰기 발달 특성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8(4), 한국다문화교육학회, pp.161-179.

심고우니·정경희(2012), 초등학교 1-2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1(2), 한국언어치료학회, pp.93-110.

오소정(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 -친숙도와 비유정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1(2),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pp.145-164.

원진숙(2009),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4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158-187.

이효인(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연구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학회, pp.471-494.

2) [2단계]의 연구 방법

-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분석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학년군별 일반적인 학령별 아동의 언어 특성에 따른 수준별 분석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년군별(저학년용, 고학년용), 영역별(말듣쓰, 읽기와 어휘/문화, 문법 영역)로 구분하여 교재별 분석 기준을 마련한다.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일반적인 언어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분석 기준을 마련한다.
- 전체 지역 아동 센터 이용 아동 중 다문화 가정 자녀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의 언어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분석 기준을 마련한다.
- 분석 대상인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 저학년용, 고학년용은 2012 개정 교육과정 이후 출판되어 현재까지 쓰이고 있어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아래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학년군별, 영역별 분석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말듣쓰 영역 분석 사례1(저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8단원인 <여덟째 마당 ‘쑥쑥! 왜 그럴까요?’>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초등1-3학년), 한글파크, 179-194.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말듣쓰 영역(저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여덟째 마당 ‘쑥쑥! 왜 그럴까요?’	
대단원 구성	① 왜 그런지 생각해 보기 ② 내용을 연결해 보기 ③ 이유와 결과 찾아보기 ④ 이어서 쓰기 ⑤ 순서 생각하기 ⑥ 내 생각 말하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1)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6)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알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원의 주제인 ‘원인과 결과’는 전반적으로 3-4학년군의 성취 기준과 연계된다.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등을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하는 활동 역시 3학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1-2학년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 요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1-2학년군과 3-4학년군을 구별하여 각 발달 수준에 어울리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활동의 순서가 체계적이지 않은 지점이 있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예컨대 소단원 ③에서는 제시된 텍스트에서 이유와 결과를 찾게 한 후 바로 자신이 운동회에서 즐거웠던 이유를 한 페이지 가량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소단원에서는 다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기 → 이유를 들어 의견 말하기 → 이유를 들어 한 문단 정도의 글쓰기’로 활동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유를 들어 한 편의 글을 생산하게 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마지막에 재배치하거나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다면 이유를 쓰게 하는 양과 수준을 조절하여야 한다.
- 소단원 ⑥의 ‘내 생각 말하기’에 제시된 ‘회의’의 맥락은 1-2학년군에 적절하지 않아 해당 학년군에 속하는 학습자에게는 실제성이 부족해 보인다. ‘회의’가 3-4학년군 성취 기준에 포함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역시 3학년부터 학급회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보다 학습자의 생활과 밀접한 맥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친구의 의견을 적게 하는 자료는 존재하나 반대로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자료가 없어 아쉽다. 의견에 대한 이유가 잘 드러나게 쓰는 글인 만큼 하고 싶은 말이 잘 드러났는지, 의견에 알맞은 이유를 썼는지와 같은 간단한 확인 활동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듣쓰 영역 분석 사례2(고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8단원인 <여덟째 마당 ‘내 의견 글로 쓰기’>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초등4-6학년), 한글과컴퓨터, 127-138.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말듣쓰 영역(고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여덟째 마당 ‘내 의견 글로 쓰기’	
대단원 구성	① 의견 글로 쓰기 ② 주장과 근거 그리고 해결책 ③ 주장하는 글 뼈대 만들기 ④ 설문지 작성 : 친구들의 생각 알아보기 ⑤ 내 의견 연설문으로 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적용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2012 5-6학년군 듣기·말하기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1)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2012 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 이 단원에 제시된 전반적인 내용 및 수준은 3-4학년군의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5-6학년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소단원 ⑤의 연설문 쓰기 역시 실제로는 ‘의견을 제시하는 글’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3-4학년군과 5-6학년군을 구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 주장하는 글쓰기’처럼 교육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위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연설문을 작성하기 전에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연설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학습자가 연설문이라는 글의 종류를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연설문의 특성상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5-6학년군의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과 높은 연계성을 가짐에도 이와 같은 활동이 마련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 해당 단원은 교재의 4단원부터 시작되어 쓰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쓰기의 과정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일련의 과정이 분절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습자로 하여금 한 편의 글을 생산함에 있어 쓰기의 과정에 따라 글을 쓰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개요를 조직하고 글을 쓰는 활동에서 글의 거시구조나 문단에 대한 구분이나 언급이 없어 고학년 수준에 적절하지 않다. 보다 체계적인 개요 틀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 고쳐쓰기는 쓰기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5-6학년군 성취 기준에 고쳐쓰기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존재하는 것 또한 이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교재에는 고쳐쓰기에 대한 활동이 전혀 없어 이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쓰기 단원에서도 고쳐쓰기 관련 내용을 구축해야 한다.
-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고 또 친구들의 글을 집중하여 듣게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자료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주장하는 글을 들을 때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들었는지, 가치 있고 중요한 주장인지 실천할 수 있는 주장인지 등을 판단하며 듣게 하는 상호 평가표를 삽입한다면 활동의 효과가 증진될 것이다.

[문법 영역 분석 사례1(저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1단원인 <첫째 마당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쓱쓱! 낱말 놀이(1)>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교실(초등1-3학년), 한글과컴, 7-34.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문법 영역(저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첫째 마당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쓱쓱! 낱말 놀이(1)	
대단원 구성	① 재미있는 국어사전 찾기 ↳ 낱말의 뜻을 잘 모를 때 ↳ 국어사전 사용법 익히기 ↳ 국어사전 활용하기 ↳ 낱말 찾기 놀이 ② 쓱쓱! 즐거운 동물원 ↳ 여러 동물 이름 알아보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국어사전) → 소단원②(낱말 놀이)
학습 활동 내용	여러 동물 이름 알아보기 - 동물의 모습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 - 동물 수수께끼 - 여러 낱말로 만들어진 동물 이름 - 조각 모아 동물 관련 문장 만들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3-4학년군 문법(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2012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리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 이상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다룰 내용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들 대부분이 교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재의 내용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다루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두 번째 소단원인 ‘날말 놀이’ 부분은 선행 내용인 ‘국어사전 찾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대단원 구성에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 지식 설명과 확인 활동을 결합시킨 형태의 소단원 구성은, 그 목적이 결국 ‘국어사전 찾기’로 귀결되게 되어 학습자들이 ‘날말’에 대한 지식을 얻기 어렵게 되어 있다.

[문법 영역 분석 사례2(고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2단원인 <둘째 마당 바르게 쓰기(1)>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초등4-6학년), 한글과크, pp.29-48.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문법 영역(고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둘째 마당 바르게 쓰기(1)	
대단원 구성	① 한글 맞춤법과 맞춤법 오류 ② 꼭 알아야 할 맞춤법 몇 가지 ③ 문장을 생생하게 살리는 문장 부호 ④ 수를 세는 날말과 띄어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더해보기(더알아보기1-더알아보기2)
더해보기 내용	한글 자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문장 부호의 바른 사용 - 한글 더 깊이 알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날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날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2012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 이상을 통해, 소단원 구성이 ‘지식 설명+확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연관 지어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진술

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대단원 내 소단원 교육 내용이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초등 전 학년에 걸쳐져 있어 수준별 맞춤형 교육 내용 제공이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더 해 보기>의 두 가지 교육 내용 사이에 수준 차이가 극명해, 보충-심화 학습 활동인지, 추가적인 읽기 자료의 성격을 지니는지 코너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읽기/어휘/문화 영역 분석 사례1(저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4단원인 <넷째 마당 즐거운 낱말 놀이(4)>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초등1-3학년), 한글파크, 91-110.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읽기/어휘/문화 영역(저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넷째 마당 즐거운 낱말 놀이(4)	
대단원 구성	① 우리나라의 계절 ② 흘러가는 시간
소단원 구성 체제	낱말 연상하기 +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기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 이상을 통해, 소단원 구성이 ‘낱말 연상하기+국어사전에서 낱말 찾기+확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활동들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낱말들 간의 관계를 살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진술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대단원 내 소단원 교육 내용이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적용을 고려한 실제적인 교육 내용 제공이 시급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더 해 보기> 활동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시간의 경과 및 분절 단위에 관한 어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각 소단원에서의 교육 내용을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학습 활동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읽기/어휘/문화 영역 분석 사례2(고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3단원인 <셋째 마당 바르게 쓰기(2)>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초등4-6학년), 한글파크, 49-70.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읽기/어휘/문화 영역(고학년용)의 단원 구성 및 관련 교육과정 내용

셋째 마당 바르게 쓰기(2)	
대단원 구성	① 우리가 자주 쓰는 외래어 ② 외래어와 외래어 표기법 ③ 외래어 쓰기의 달인 ④ 로마자로 바르게 적기 ⑤ 우리말로 바꾸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더해보기
더해보기 내용	우리말 다듬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2012 5-6학년군 문법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 이상을 통해, 소단원 구성이 주로 ‘외래어’에 중점을 두고 기술되어 있어, 고유어나 한자어와 같은 유관 개념과 연계하여 국어 낱말의 세계와 관련한 국어 인식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진술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학습자의 이해 과정을 고려할 때, 대단원 내 소단원을 ‘생활 속에서의 외래어 확인(① 우리가 자주 쓰는 외래어) + 외래어 표기법 및 로마자 표기법 이해(② 외래어와 외래어 표기법 / ④ 로마자로 바르게 적기) + 배운 내용 확인(③외래어 쓰기의 달인)’의 순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소단원 ⑤ 우리말로 바꾸기’와 <더 해 보기>의 활동이 내용 상 연결되어 있고,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해 보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단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③ [3단계]의 연구 방법

- [2단계]까지의 연구에서 마련한 분석 기준을 실제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사용되고 있는 교재 분석에 적용하는 핵심 단계이다.
- 학년군별(저학년용, 고학년용), 영역별(말듣쓰, 읽기와 어휘/문화, 문법 영역)로 구분하여 마련된 분석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과 교재 분석을 진행한다.
- 분석 대상인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 저학년용, 고학년용의 학년군별, 영역별 교육 내용 분석 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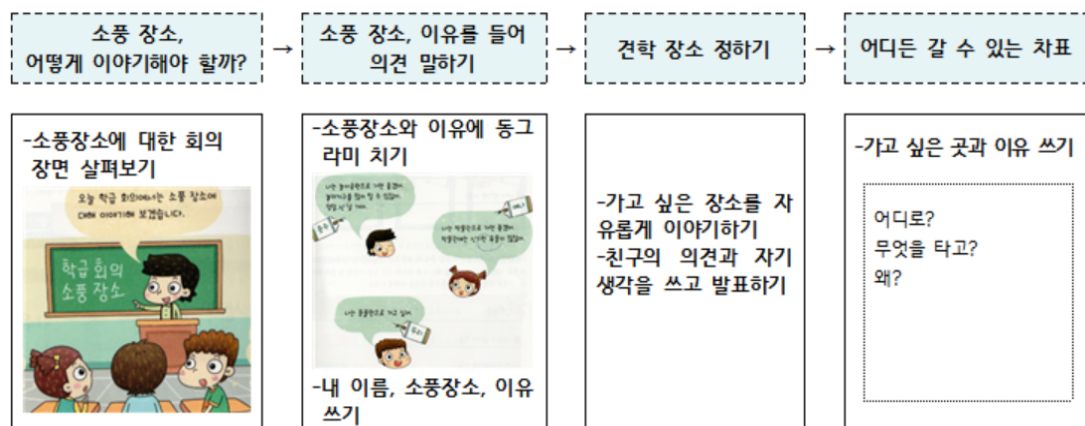
[말듣쓰 영역 분석 사례1(저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8단원인 <여덟째 마당 ‘쑥쑥! 왜 그럴까요?’>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초등1-3학년), 한글파크, 179-194.
- 분석 대상 단원 중 소단원 <⑥ 내 생각 말하기> 교육 내용 분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말듣쓰 영역(저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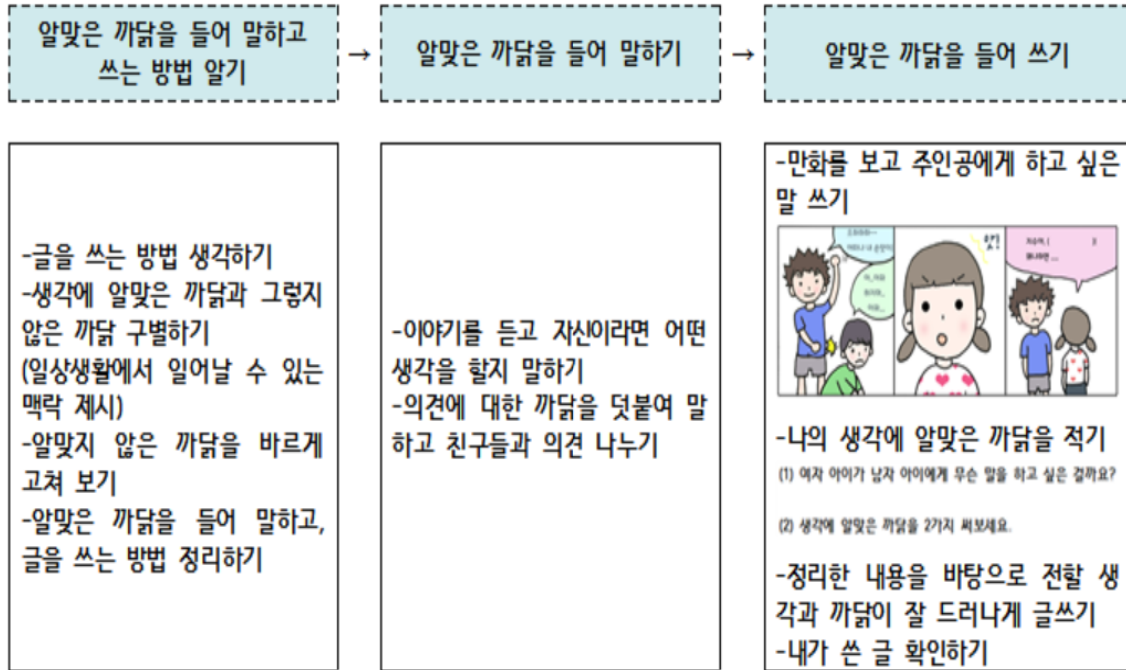
여덟째 마당 ‘쑥쑥! 왜 그럴까요?’	
대단원 구성	① 왜 그런지 생각해 보기 ② 내용을 연결해 보기 ③ 이유와 결과 찾아보기 ④ 이어서 쓰기 ⑤ 순서 생각하기 ⑥ 내 생각 말하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 <⑥ 내 생각 말하기> 교육 내용

- 기존의 교육 내용 흐름 및 활동 자료



<⑥ 내 생각 말하기> 교육 내용 수정(안)

- 1) 위와 같은 기존의 교육 내용은 3-4학년군 성취 기준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반영하여 ‘학급 회의에서 적절한 이유를 들어 말하기’,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적절한 이유를 들어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와 같이 보완하여 활용한다.
- 2) 3-4학년군의 선수학습으로 1-2학년군에서는 해당 학년군에 적합한 교육 내용(예: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아래와 같이 설계할 수 있다.



2) 일부 활동 예시(안)

① 자기평가표

☞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스스로 확인하여 보세요.

확인할 내용	확인 결과
하고 싶은 말이 잘 드러났나요?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의견에 알맞은 이유를 썼나요?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이상의 내용을 통해 기존의 <내 생각 말하기> 교육 내용은 1-2학년군 학습자의 맥락과 수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활동의 순서 역시 체계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1-2학년군과 3-4학년군을 나누어 해당 학년군의 성취 기준 내용을 기반으로 위계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말듣쓰 영역 분석 사례2(고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8단원인 <여덟째 마당 ‘내 의견 글로 쓰기’>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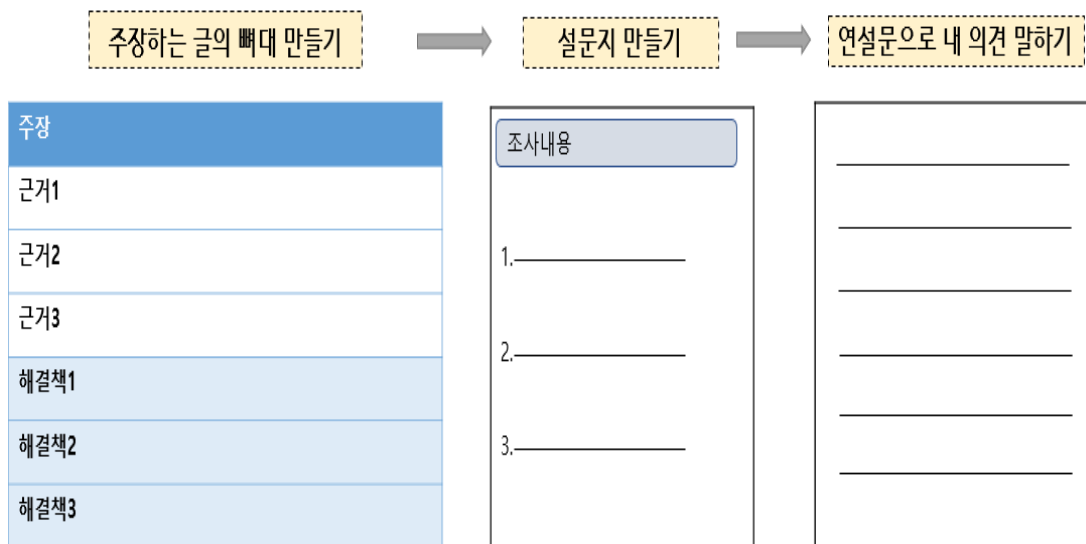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초등4-6학년), 한글파크, 127-138.

○ 분석 대상 단원 중 소단원 <⑤ 내 의견 연설문으로 쓰기> 교육 내용 분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말듣쓰 영역(고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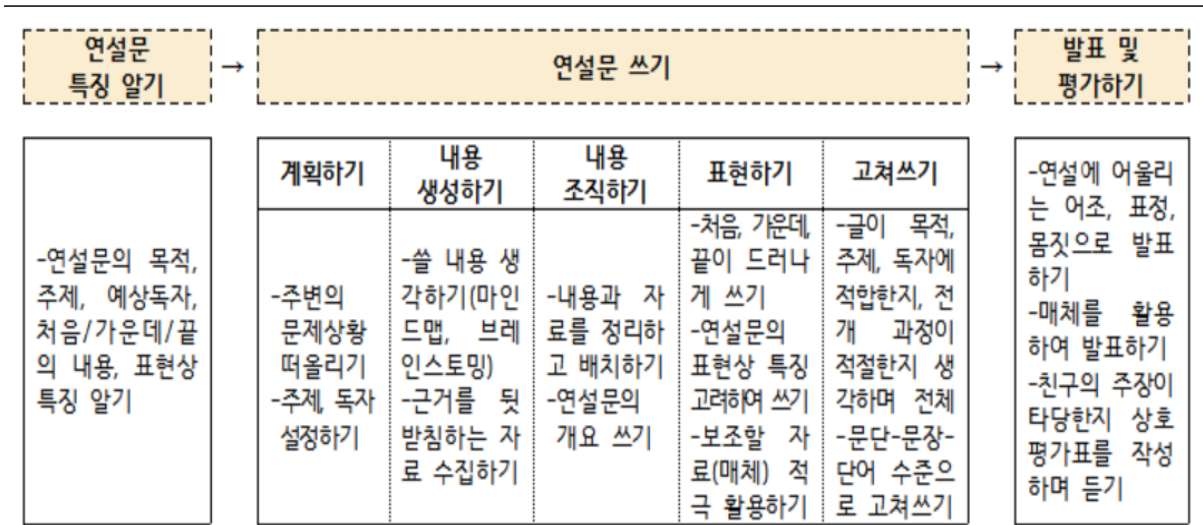
여덟째 마당 ‘내 의견 글로 쓰기’	
대단원 구성	① 의견 글로 쓰기 ② 주장과 근거 그리고 해결책 ③ 주장하는 글 뼈대 만들기 ④ 설문지 작성 : 친구들의 생각 알아보기 ⑤ 내 의견 연설문으로 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적용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
<⑤ 내 의견 연설문으로 쓰기> 교육 내용	

-기존의 교육 내용 흐름 및 활동 자료



<⑤ 내 의견 연설문으로 쓰기> 교육 내용 수정(안)

1) 전체적인 교육 내용 흐름 제안(안)



2) 일부 활동 예시(안)

① 상호평가표

☞ 친구의 발표를 들으며 아래의 평가표를 작성해 보세요.

이름	연설 주제	판단 기준				
		첫 부분에 관심을 끄는 말을 썼나요?	끝 부분에 희망적인 마무리를 했나요?	중요하고(가치 있고) 실현 가능한 주제인가요?	주장과 알맞은 근거가 잘 드러났나요?	시선은 앞을 보고 말을 또렷하게 하였나요??

② 연설문 내용 조직하기(기존의 뼈대 만들기 수정)

주장 :

처음	문제상황과 주장 제시하기	
가운데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 제시하기	근거1
		근거2
		근거3
끝	희망적인 마무리하기	

- 이상의 내용을 통해 <내 의견 연설문 쓰기> 교육 내용이 5-6학년군 수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쓰기 영역에서 강조하는 바와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해당 학년군의 성취 기준 내용을 기반으로 쓰기의 전체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법 영역 분석 사례1(저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1단원인 <첫째 마당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쓱쓱! 낱말 놀이(1)>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교실(초등1-3학년), 한글파크, 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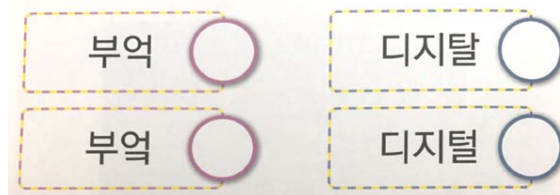
- 분석 대상 단원 중 소단원 <③ 국어사전 활용하기> 교육 내용 분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문법 영역(저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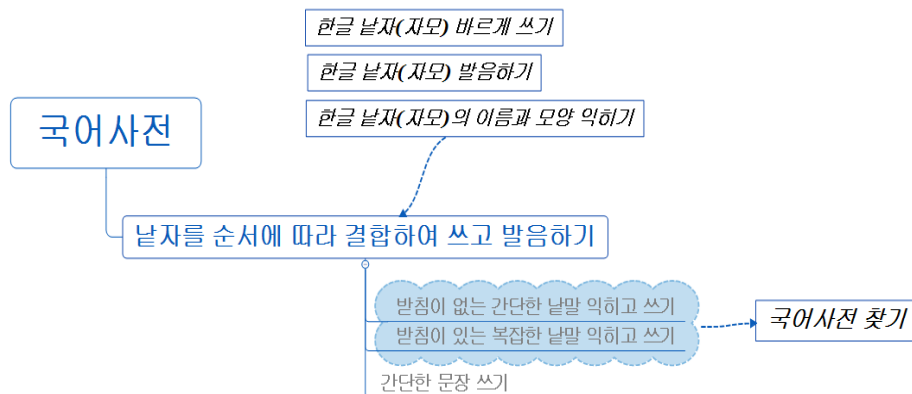
첫째 마당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쓱쓱! 낱말 놀이(1)	
대단원 구성	① 재미있는 국어사전 찾기 ↳ 낱말의 뜻을 잘 모를 때 ↳ 국어사전 사용법 익히기 ↳ 국어사전 활용하기 ↳ 낱말 찾기 놀이 ② 쓱쓱! 즐거운 동물원 ↳ 여러 동물 이름 알아보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국어사전) → 소단원②(낱말 놀이)
<③ 국어사전 활용하기> 교육 내용	

3 국어사전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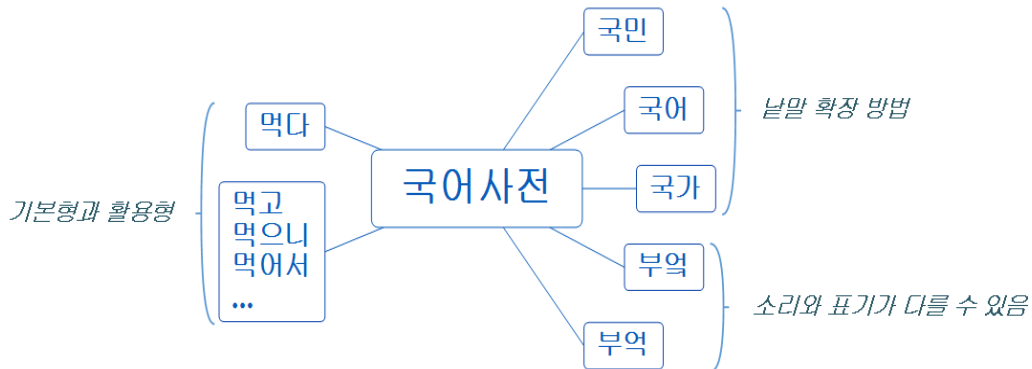
국어사전에는 낱말의 바른 정보만 실려 있어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낱말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거예요. 국어사전을 활용해 아래에 있는 두 낱말 가운데 올바르게 쓴 것에 ○ 표시를, 틀리게 쓴 것에 X 표시를 하세요.



<③ 국어사전_활용> 교육 내용 구조 수정(안) (1)



<③ 국어사전_낱말> 교육 내용 구조 수정(안) (2)



- 이상을 통해 <국어사전 활용하기> 교육 내용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특정 학년군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일차원적인 학습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어사전 관련 내용과 낱말 관련 내용은 현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 다른 학년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별개의 교육 내용 구조를 제안할 수 있다. 교육 내용 구조 수정(안) (1)은 1~2학년군에, 교육 내용 구조 수정(안) (2)은 3~4학년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 영역 분석 사례2(고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2단원인 <둘째 마당 바르게 쓰기(1)>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초등4-6학년), 한글파크, pp.29-48.
- 분석 대상 단원 중 소단원 <② 꼭 알아야 할 맞춤법 몇 가지> 교육 내용 분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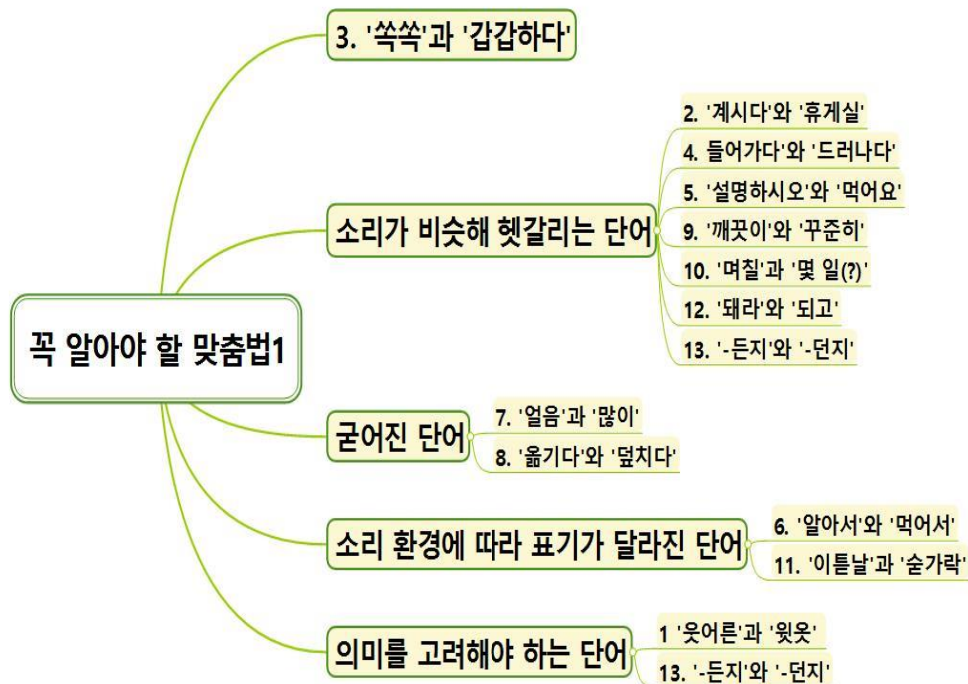
<표 14> 문법 영역(고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둘째 마당 바르게 쓰기(1)	
대단원 구성	① 한글 맞춤법과 맞춤법 오류 ② 꼭 알아야 할 맞춤법 몇 가지 ③ 문장을 생생하게 살리는 문장 부호 ④ 수를 세는 낱말과 띄어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더해보기(더 알아보기1-더 알아보기2)
더해보기 내용	한글 자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문장 부호의 바른 사용 - 한글 더 깊이 알기

<② 꼭 알아야 할 맞춤법 몇 가지> 교육 내용 구조



<② 꼭 알아야 할 맞춤법 몇 가지> 교육 내용 구조 수정(안)



- 이상을 통해 <꼭 알아야 할 맞춤법1> 교육 내용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의 단순 암기식 교육 방식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원리 중심의 맞춤법 교육 내용 제시로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읽기/어휘/문화 영역 분석 사례1(저학년용)]

- 분석 대상 단원은 3단원인 <셋째 마당 즐거운 낱말 놀이(3)>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짹짹! 국어교실(초등1-3학년), 한글파크, pp.6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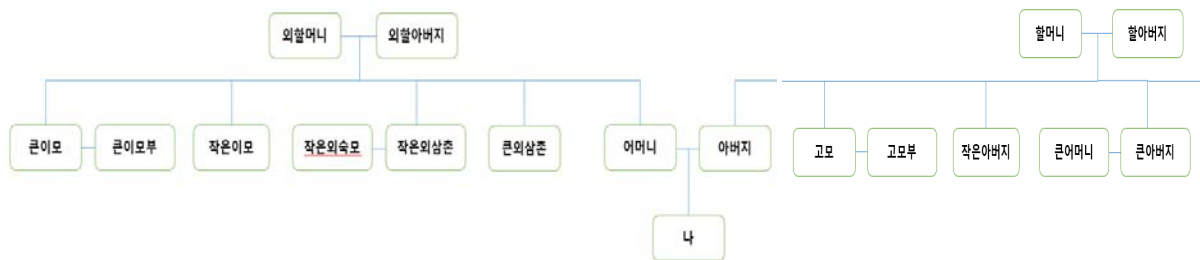
- 분석 대상 단원 중 소단원 <② 행복한 우리 가족> 교육 내용 분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읽기/어휘/문화 영역(저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셋째 마당 즐거운 낱말 놀이(3)	
대단원 구성	① 대대로 이어온 우리 문화 ② 행복한 우리 가족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더해보기(더알아보기1-더알아보기2)
더해보기 내용	인사하기 - 설명하기
<② 행복한 우리 가족> 교육 내용 구조	



<② 행복한 우리 가족> 교육 내용 구조 수정(안)



- 이상을 통해 <행복한 우리 가족> 교육 내용이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부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가족 구성원에 관한 학습자의 편협한 이해를 도모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구조화된 가계도 형태로 부계와 모계를 균형감 있게 제시하여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읽기/어휘/문화 영역 분석 사례2(고학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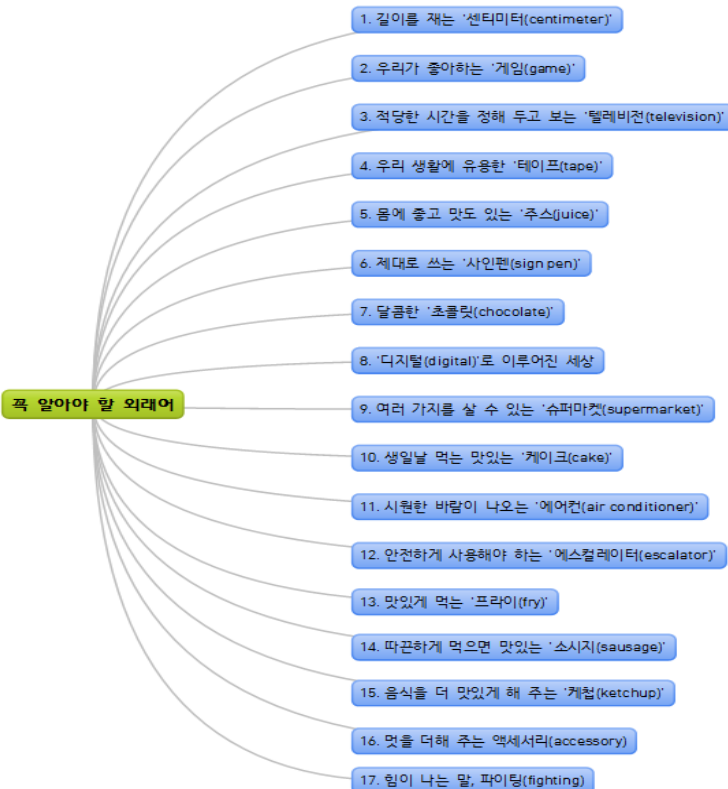
○ 분석 대상 단원은 3단원인 <셋째 마당 바르게 쓰기(2)>로 다음에 수록되어 있다.

-국립국어원(2014),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초등4-6학년), 한글파크, pp.49-70.

○ 분석 대상 단원 중 소단원 <③ 외래어 쓰기의 달인> 교육 내용 분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읽기/어휘/문화 영역(고학년용)의 교육 내용 분석

셋째 마당 바르게 쓰기(2)	
대단원 구성	① 우리가 자주 쓰는 외래어 ② 외래어와 외래어 표기법 ③ 외래어 쓰기의 달인 ④ 로마자로 바르게 적기 ⑤ 우리말로 바꾸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더해보기
더해보기 내용	우리말 다듬기
<③ 외래어 쓰기의 달인> 교육 내용 구조	



<③ 외래어 쓰기의 달인> 교육 내용 구조 수정(안)



- 이상을 통해 <외래어 쓰기의 달인> 교육 내용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표기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 학습자에게 단순 암기식 교육 방식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사례를 나열하기보다는 외래어 표기법의 각 세칙을 반영하고 있는 예시들로 양적·질적으로 선별하고, 학습자 수준에 비추어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의 경우 예외로 설정하여 이에 대해서도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원리 중심의 외래어 표기법 교육 내용 제시를 통해 학습자의 어휘 능력 신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④ [4단계]의 연구 방법

- 4단계의 기초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외부 자문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국어 사용 능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학년군별 특성에 맞는 기초 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외부 자문진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 프로그램에 출강한 이력이 있는 강사진으로부터 강의 의견을 수합하였다.
- 강사진의 명단과 강사진이 제공한 공통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명	소속
지역 아동 센터	김혜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박민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권미영	국어문화학교 외래 강사

강사	송대현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전영곤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이상옥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권순구	충북대학교 강사

- 교재의 내용이 학습자들의 학년군에 맞지 않아 수업과 활동이 어렵다: 학교 수업 진도와 전혀 다르거나, 상위 학년군의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 교재가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아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반적인 차원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학습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

예)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특정 음식을 보거나 먹어 본 적 있는지를 묻는 활동은 그 음식을 자유롭게 접할 수 없는 학습자들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지난 주말에 부모님과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를 묻는 활동 같은 경우는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여러 특수한 가정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학습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⑤ [5단계]의 연구 방법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학년군을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를 개발한다.
 - 그리고 개발된 교재에 대한 자문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현직 교사와 출강 강사진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진들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명	소속	담당 학년군 구분
현직 교사	구세민	서울 전동 초등학교	1~2학년
출강 강사	김혜지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현직 교사	김정은	서울 가주 초등학교	3~4학년
출강 강사	권순구	충북대학교	
현직 교사	김세현	서울 명신 초등학교	5~6학년
현직 교사	임문석	서울 영중 초등학교	

Ⅱ.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1. 기존 프로그램 및 교재 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교재인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교실(초등1-3학년)>(국립국어원, 2014)>(기본, 심화),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교실(초등4-6학년)>(국립국어원, 2014)>(기본, 심화)를 분석하였다.
- 분석 대상 교재별 단위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7> 분석 대상 교재 단위 구성

교재명	대상	수준	단위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쓱쓱! 국어교실	초등학교 저학년	기본	[1단위]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쓱쓱! 낱말 놀이(1)
			[2단위] 쓱쓱! 즐거운 낱말 놀이(2)
			[3단위] 쓱쓱! 즐거운 낱말 놀이(3)
			[4단위] 즐거운 낱말 놀이(4)
			[5단위] 쓱쓱! 낱말로 문장 만들기
			[6단위] 쓱쓱! 자세히 보기
			[7단위] 쓱쓱!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8단위] 쓱쓱!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심화	[1단위] 쓱쓱! 싱싱한 과일가게
			[2단위] 쓱쓱! 소중한 우리의 몸
			[3단위] 쓱쓱! 신나는 놀이, 안전한 놀이
			[4단위] 쓱쓱! 내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5단위] 쓱쓱! 재미있는 우리 학교
			[6단위] 쓱쓱! 함께 쓰는 공간
			[7단위] 쓱쓱! 위대한 사람들
			[8단위] 쓱쓱!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기본	[1단위] 국어사전 살펴보기
			[2단위] 바르게 쓰기(1)
			[3단위] 바르게 쓰기(2)
			[4단위] 글쓰기 기초 다지기
			[5단위] 열린 생각을 이용한 글쓰기
			[6단위] 설명하는 글쓰기
			[7단위] 상상하기와 글쓰기
			[8단위] 내 의견 글로 쓰기

	초등학교 고학년	심화	[1단원] 쪽쪽! 남남 맛있는 음식
			[2단원] 쪽쪽! 오늘 나의 기분은?
			[3단원] 쪽쪽! 정정당당, 스포츠
			[4단원] 쪽쪽!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단원] 쪽쪽! 컴퓨터와 우리 생활
			[6단원] 쪽쪽! 나만의 위인
			[7단원] 쪽쪽! 역사는 흐른다.
			[8단원] 쪽쪽! 돌고 도는 경제

- 교재 분석은 교재 각 단원의 내적 적절성 측면과 단원 간 위계성 측면,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의 관련성 측면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단원의 내적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단원 구성과 전개, 소단원 체계와 학습 활동 구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단원 간의 위계가 적절한지도 판단하였다. 또한, 2012 교육과정의 관련 성취 기준 내용을 기준으로 교재의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국어 교과와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였다.
- 기본 교재를 일차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단원별로 적절성, 위계성, 성취 기준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단원별로 기술하였다. 심화 교재 역시 단원별로 적절성, 위계성, 성취 기준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 기존 교재에 담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기본 교재 분석 결과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쪽쪽! 국어교실(저학년용, 기본)>

1단원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쪽쪽! 낱말 놀이(1)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계,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첫째 마당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쪽쪽! 낱말 놀이(1)’ 분석

첫째 마당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쪽쪽! 낱말 놀이(1)	
대단원 구성	① 재미있는 국어사전 찾기 ↳ 낱말의 뜻을 잘 모를 때 ↳ 국어사전 사용법 익히기 ↳ 국어사전 활용하기

	ㄴ 낱말 찾기 놀이 ② 쓱쓱! 즐거운 동물원 ㄴ 여러 동물 이름 알아보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국어사전) → 소단원②(낱말 놀이)
학습 활동 내용	여러 동물 이름 알아보기 - 동물의 모습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 - 동물 수수께끼 - 여러 낱말로 만들어진 동물 이름 - 조각 모아 동물 관련 문장 만들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한글 낱자(자모)를 바르게 발음하고 쓰는 것은 소리글자인 한글로 문자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다. 먼저 한글 낱자의 이름과 모양을 차례로 익히고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 쓰도록 하며, 이들 낱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바르게 쓰고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글에 흥미를 가지면서 한글을 소중히 여기며 문자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사전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어사전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국어사전의 유용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낱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또 ‘국민, 국어,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국(國)’이 들어가 있어 공통적으로 ‘나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익히면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 소단원 ①에서 다루고 있는 ‘국어사전 찾기’는 4학년 1학기 8단원 ‘국어사전과 함께’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저학년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3-4학년군 교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 소단원 ②의 ‘날말 놀이’ 부분은 선행 내용인 ‘국어사전 찾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대단원 구성에 교육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아울러 지식 설명과 확인 활동을 결합시킨 형태의 소단원 구성은, 그 목적이 결국 ‘국어사전 찾기’로 귀결되게 되어 학습자들이 ‘날말’에 대한 지식을 얻기 어렵게 되어 있다.
- 소단원 ②에 제시된 땅에 사는 동물, 바다에서 사는 동물 등은 과학 교과 3학년 2학기 1단원 ‘동물의 생활’과 관련성이 높다. 그러나 활동의 대부분에서는 단순히 동물의 이름만을 알고 분류하게 하고 있어 학습 목표가 모호하게 느껴질 뿐더러 국어과의 특수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특히 32-33쪽의 첫소리로 동물 이름 맞추기는 3학년 학습자 수준과는 괴리된 활동으로 학년군에 따른 교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성취 기준은 2015 개정 3-4학년군 문법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물의 이름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날말 간의 포함 관계(상위어, 하위어)의 형태로 보완하여 교과적 특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

[4국04-02] 날말과 날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이 성취기준은 날말들이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하위어에 중점을 두어 날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비슷한 말, 반대말, 상·하위어 등을 여러 상황에서 활용해 봄으로써 어휘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 27쪽에 밑줄에 들어갈 말을 쓰는 활동은 꾸며주는 말과 서술어가 함께 제시되어 어색하다. 특히 서술어를 쓰는 문장의 경우 1-2학년군 학습자가 시제를 배우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움상자에 있는 ‘기르다’, ‘뛰어가다’를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전체적인 문장 또한 부자연스러워져 활동의 초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단원 **쑥쑥! 즐거운 날말 놀이(2)**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둘째 마당 ‘쑥쑥! 즐거운 날말 놀이(2)’ 분석

둘째 마당 ‘쑥쑥! 즐거운 날말 놀이(2)’	
대단원 구성	① 편리한 탈것

	ㄴ 탈것에 대해 알아보아요. ② 쏙쏙! 다양한 직업 ㄴ 여러 가지 직업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낱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또 ‘국민, 국어,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국(國)’이 들어가 있어 공통적으로 ‘나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익히면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사전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어사전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국어사전의 유용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원의 전반적인 주제 및 내용 요소는 3-4학년군 성취 기준에 속하지만, 세부적인 활동 수준은 1-2학년군에 적합하여 1-2학년군과 3-4학년군을 구분하여 각각에 어울리도록 재배치 및 수정이 필요하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과목 간 연계가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단원 ①의 주제인 이동수단은 사회 교과 3학년 1학기 2단원 ‘이동과 의사소통’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그러므로 현 교재에 수록된 활동은 3학년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대한 내용은 3-4학년군을 위한 교재에서 사회과와 연계하여 난도를 높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울러 소단원 ②의 직업에 대한 내용은 2학년 2학기 ‘이웃’ 교과서에서 다룬다. 따라서 이 역시 1-2학년군 교재로 재배치하고, 3-4학년군 교재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옳다.
- 만일 탈것의 내용 요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첫째 마당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탈것의 이름을 알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낱말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형태로 보완하여 국어과적 특수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교재 41-42쪽에 제시된 속도의 개념은 5학년 2학기 과학 교과에 등장하는 것으로 교과목

연계와 학습자 수준을 고려했을 때 수정이 요구된다. 즉 1학년 학습자들은 ‘속도’의 낱말 뜻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빠르기’와 같이 바꿀 수 있겠다.

3단원 쪽쪽! 즐거운 낱말 놀이(3)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셋째 마당 ‘쪽쪽! 즐거운 낱말 놀이(3)’ 분석

셋째 마당 ‘쪽쪽! 즐거운 낱말 놀이(3)’	
대단원 구성	① 쪽쪽! 대대로 이어온 우리 문화 ② 쪽쪽! 행복한 우리 가족 ↳ 행복한 ‘나’는 누구와 살까요?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더해보기(더알아보기1-더알아보기2)
더해보기 내용	인사하기 - 설명하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낱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또 ‘국민, 국어,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국(國)’이 들어가 있어 공통적으로 ‘나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익히면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사전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어사전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국어사전의 유용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6)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높임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효과적이고 예절 바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높임법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으로 나누어 지도하되 특히 학생들이 잘 틀리고 혼란스러워	

하는 높임법 사례를 제시하여 올바른 높임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담화 상황에 따라 언어 예절을 지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를 길러 줄 필요가 있다.

- 소단원 ①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1, 2, 3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이 산만하게 섞여 있다. 예를 들어 세시 음식은 3학년 2학기 사회 교과에, 풍물놀이는 2학년 2학기 ‘우리나라’ 교과서에, 전통놀이, 한옥 등은 1학년 2학기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또한 현 교재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의 활동에 머물러 있어 특히 3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각각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분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교재 88-90쪽의 ‘웃어른께 쓰는 말’은 높임말에 관한 것으로 이는 3학년 1학기 4단원 ‘높임 말을 바르게 사용해요’와 4학년 2학기 3단원 국어 ‘대화를 나누어요’와 연계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저학년이 아닌 3-4학년군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 소단원 ②의 가족, 친척에 대한 내용은 2학년 1학기 ‘가족’ 교과서에 등장한다. 따라서 3학년 학습자에게 적절하지 않으며, 이 내용은 1-2학년군 교재를 별도로 구성하여 수록해야 한다.
- 소단원 ②의 교육 내용이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부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어, 가족 구성원에 관한 학습자의 편협한 이해를 도모할 우려가 있다.
- 통합교과 ‘가족’ 교과서에서는 친척을 부르는 말을 가계도 형태로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의 구조화된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부계와 모계를 균형감 있게 다루고, 교과서와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계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4단원 즐거운 낱말 놀이(4)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넷째 마당 ‘즐거운 낱말 놀이(4)’ 분석

넷째 마당 즐거운 낱말 놀이(4)	
대단원 구성	① 우리나라의 계절에 대해 알아보아요. ② 여러 가지 직업 (오타)
소단원 구성 체제	낱말 연상하기 + 국어사전에서 낱말 찾기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낱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또 ‘국민, 국어,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국(國)’이 들어가 있어 공통적으로 ‘나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익히면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사전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어사전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국어사전의 유용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 소단원 ①의 우리나라 계절에 대한 내용은 1, 2학년 통합교과인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3학년 학습자에게는 새롭지 않으며 활동의 내용 및 수준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1-2학년군과 3-4학년군 교재를 별개로 구안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 교재 102쪽 시간과 관련한 소단원 제목이 ‘여러 가지 직업’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수정이 요구된다. 또 105쪽의 요일에 대한 내용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을 쓰게 하고 있어 ‘일요일’을 적는 칸을 추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대단원 내 소단원 교육 내용이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적용을 고려한 실제적인 교육 내용 제공이 시급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단원 ②의 경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단편적인 지식 제시 및 이에 대한 확인 활동 수준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일이 일어난 순서를 생각하며 듣고 말하는 아래의 2015 개정 1-2학년군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야기를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거나 자신이 겪은 일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차례대로 적고 말하는 활동을 함께 구성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국01-02]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5단원 쪽쪽! 낱말로 문장 만들기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다섯째 마당 ‘쪽쪽! 낱말로 문장 만들기’ 분석

다섯째 마당 ‘쪽쪽! 낱말로 문장 만들기’	
대단원 구성	① 글쓰기 재료 모으기 ② 낱말 모아 한 문장 쓰기 ③ 두 문장 연결하기 ④ 문장 조각 맞추기 ⑤ 뒤에 오는 내용 쓰기 ⑥ 문장 부호로 문장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문장 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쪽쪽! 더 알기
쪽쪽! 더 알기 내용	‘손’과 관련된 재미있는 문장 - ‘발’과 관련된 재미있는 문장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올바른 문장을 생산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문장이 마침표(온점, 물음표, 느낌표)로 종결되는 구조임을 이해하고 생각의 한 덩어리를 하나의 문장으로 써 보도록 지도한다.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마침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활동을 통해 문장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의 인과관계를 따져가며 말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져 조리 있게 말함으로써 전달이나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이야기를 듣거나 말할 때에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면서 내용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력과 서사적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인과관계에 따라 재구성해 봄으로써 서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한다. 이때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으)니까, - 때문에, -의 원인은’ 등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들을 적절히 사용하게 하여 지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관용 표현에는 국어 문화의 특성이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이해는 국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관용어구나 속담 등에 담긴 국어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는 활동을 하게 지도한다. 선조들의 일화나 명언 등과 함께 지도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관용 표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표현 의도를 다채롭게 드러내려는 태도를 지니게 지도한다.

- ‘날말로 문장 만들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글쓰기 재료인 날말을 생각해 본 뒤 바로 완성형의 문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내용이 단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문장을 쓸 때는 누가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하며 끝까지 쓴다든지 문장을 짧게 쓴다든지에 대한 내용이 함께 제시되어야 올바른 문장 쓰기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 소단원 ③에 제시된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등을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는 활동은 현행 3학년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1-2학년군에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등의 이어주는 말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재에서는 이 모두를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따라서 1-2학년군 내용과 3-4학년군 내용을 구별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단원 ⑥의 문장 부호의 설명은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것에 비해 그 내용이 소략하며 온점의 경우 ‘문장을 마칠 때’라고 되어 있어 설명의 정확성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문장 부호를 쓰지 않은 글뿐만 아니라 문장 부호를 잘못 쓴 경우의 텍스트도 제시하여 문장 부호를 바르게 써야 함을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쑥쑥! 더 알기’에 제시된 내용은 5-6학년군 성취 기준인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학습은 6학년 2학기 4단원 ‘효과적인 관용 표현’에 ‘손이 크다’, ‘발이 넓다’ 등의 예가 실려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저학년 교재에 합당하지 않다. 아울러 앞의 소단원 내용과도 관련성이 떨어져 재고찰이 필요하다.

6단원 쑥쑥! 자세히 보기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여섯째 마당 ‘쑹쑹! 날말로 문장 만들기’ 분석

여섯째 마당 ‘쑹쑹! 자세히 보기’	
대단원 구성	① 이름과 별명 ② 관찰하기와 글쓰기 ③ 내가 관찰한 동물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쑹쑹! 더 알기
쑹쑹! 더 알기 내용	‘머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문장 - ‘눈’과 관련된 재미있는 문장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적, 공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여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 자세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상황에서 귀 기울여 듣는 훈련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듣기와 말하기는 연계하여 지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말하는 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귀 기울여 듣고, 친구들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하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주변의 대상에서 특징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소개할 대상은 사람이나 사물 등을 두루 다루되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글쓰기를 위한 내용 생성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날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거나 상황에 알맞은 날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 보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날말을 알맞은 날말로 고쳐 쓰는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표현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날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어휘력도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할 대상이나 개념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1-2학년군의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쓰게 하기’, 3-4학년군의 ‘알맞은 날말을 사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취 기준이다.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설명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여러 대상을 설명할 때는 그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설명 방법에 따라 내용의 전개나 글의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관용 표현에는 국어 문화의 특성이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이해는 국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관용어구나 속담 등에 담긴 국어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는 활동을 하게 지도한다. 선조들의 일화나 명언 등과 함께 지도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관용 표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표현 의도를 다채롭게 드러내려는 태도를 지니게 지도한다.

- 활동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배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단원 ①에서는 친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이어지는 활동에서는 나의 손을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 → 주변’으로 나아가는 흐름에 따라 활동의 순서를 조절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 소단원 ①의 주제는 ‘내 친구의 별명’이다. 그러나 저학년 학습자임을 감안할 때 친구의 별명을 주제로 삼는 것은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친구가 아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 소단원 ① 내에서 설명하기와 소개하기가 맥락, 특성, 순서에 관계없이 뒤섞여 쓰이고 있다. 따라서 먼저 설명하고 싶은 대상의 크기, 모양, 색깔 등을 쓰게 하고 이어서 읽는 사람을 고려하여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소개하는 글을 쓰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듣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 없어 아쉽다. 친구의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썼는지 혹은 잘 쓴 부분이나 고칠 점에 대한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재 143-145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쓰는 활동은 이 단원의 다른 활동과 연결성이 부족하다. 성취 기준에서 보듯이 공통점, 차이점은 5-6학년군 쓰기 영역과 관계있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5-6학년군 교재에서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쓰기에 앞선 활동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섯째 마당과 마찬가지로 ‘쑥쑥! 더 알기’에 제시된 내용은 5-6학년군 성취 기준인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학습은 6학년 2학기 4단원 ‘효과적인 관용 표현’에서 다루어지므로 5-6학년군 교재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7단원 쑥쑥!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일곱째 마당 ‘쑥쑥!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분석

일곱째 마당 ‘쑥쑥!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대단원 구성	① 말의 순서에 따라 문장 쓰기 (오타)

	② 말의 순서에 따라 문장 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더 해 보기1-더 해 보기2-쑥쑥! 더 알기
더 해 보기 내용	자기 경험 생각해 보기 - 경험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바꾸기 - 육하원칙 상자를 바탕으로 문장 써 보기 - 육하원칙 상자를 바탕으로 문장 써 보기(오타)
쑥쑥! 더 알기 내용	‘귀’와 관련된 재미있는 문장 - ‘입’과 관련된 재미있는 문장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쓰기 (5)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글로 쓴다.	
<p>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은 글쓰기를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다. 학생들이 쉽게 글감을 마련하여 쓸 수 있도록 인상 깊었던 일이나 자신이 경험한 재미있는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글로 쓰도록 지도한다.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처음에는 즐거웠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함께 표현하도록 한다. 또한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지속적으로 글로 쓰고 이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쓰기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쓰기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임을 깨닫도록 한다.</p>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p>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올바른 문장을 생산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문장이 마침표(온점, 물음표, 느낌표)로 종결되는 구조임을 이해하고 생각의 한 덩어리를 하나의 문장으로 써 보도록 지도한다.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마침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활동을 통해 문장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p>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p>관용 표현에는 국어 문화의 특성이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이해는 국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관용어구나 속담 등에 담긴 국어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는 활동을 하게 지도한다. 선조들의 일화나 명언 등과 함께 지도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관용 표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표현 의도를 다채롭게 드러내려는 태도를 지니게 지도한다.</p>	

- 이 단원에서는 중심 내용에 대한 하위 요소로 육하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육하원칙은 개정 전 5학년 2학기에 다루어졌던 것으로 개정 전임을 감안하더라도 육하원칙을 저학년군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중심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글에서 중심 내용 찾기, 중심 내용에 따라 이야기 간추리기 등이 내용 요소로 뒤따른다. 또한 지금까지 육하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사문과 연계하여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교재에 수록된 활동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맥락과 상관없이 육하원칙 자체만을 반영하고 있어 성취 기준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학년 학습자에게는 육하원칙이라는 말과 개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 삽입한 성취 기준은 2015 개정 1-2학년군 읽기 영역에 포함된 것 중 하나로 아래의 내용과 관련

지어 기존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국02-03]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 다섯째, 여섯째 마당과 마찬가지로 ‘쑹쑹! 더 알기’에 제시된 내용은 5-6학년군 성취 기준인 관용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5-6학년군 교재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8단원 쑹쑹! 왜 그럴까요?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여덟째 마당 ‘쑹쑹! 왜 그럴까요?’ 분석

여덟째 마당 ‘쑹쑹! 왜 그럴까요?’	
대단원 구성	① 왜 그런지 생각해 보기 ② 내용을 연결해 보기 ③ 이유와 결과 찾아보기 ④ 이어서 쓰기 ⑤ 순서 생각하기 ⑥ 내 생각 말하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적, 공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여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 자세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상황에서 귀 기울여 듣는 훈련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듣기와 말하기는 연계하여 지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말하는 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귀 기울여 듣고, 친구들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하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1)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수업, 강연 등 중요한 정보가 담긴 내용의 담화를 들을 때 중심 내용이나 인상 깊은 부분을 메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하기 어렵게 된다. 중요한 정보가 담긴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은 기록해 두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듣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며, 듣는 사람의 경험이나 가치에 따라 인상 깊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각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여러 가지 메모하는 방법을 익	

히고, 메모해 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말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의 인과관계를 따져가며 말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사건의 인과관계를 따져 조리 있게 말함으로써 전달이나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이야기를 듣거나 말할 때에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면서 내용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력과 서사적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인과관계에 따라 재구성해 봄으로써 서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게 한다. 이때 ‘그래서, 결국,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으)니까, - 때문에, -의 원인은’ 등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들을 적절히 사용하게 하여 지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정교화, 구체화하게 되며, 이러한 쓰기 경험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2학년군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용과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썼다면, 3-4학년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이때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이유를 알맞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한다.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원의 주제인 ‘원인과 결과’는 전반적으로 3-4학년군의 성취 기준과 연계된다.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등을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하는 활동 역시 3학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1-2학년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 요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1-2학년군과 3-4학년군을 구별하여 각 발달 수준에 어울리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활동의 순서가 체계적이지 않은 지점이 있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예컨대 소단원 ③에서는 제시된 텍스트에서 이유와 결과를 찾게 한 후 바로 자신이 운동회에서 즐거웠던 이유를 한 페이지 가량 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소단원에서는 다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기 → 이유를 들어 의견 말하기 → 이유를 들어 한 문단 정도의 글쓰기’로 활동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유를 들어 한 편의 글을 생산하게 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마지막에 재배치하거나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다면 이유를 쓰게 하는 양과 수준을 조절하여야 한다.
- 소단원 ⑥의 ‘내 생각 말하기’에 제시된 ‘회의’의 맥락은 1-2학년군에 적절하지 않아 해당 학년군에 속하는 학습자에게는 실제성이 부족해 보인다. ‘회의’가 3-4학년군 성취 기준에 포함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역시 3학년부터 학급회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보다 학습자의 생활과 밀접한 맥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친구의 의견을 적게 하는 자료는 존재하나 반대로 자신이 쓴 글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자료가 없어 아쉽다. 의견에 대한 이유가 잘 드러나게 쓰는 글인 만큼 하고 싶은 말이 잘 드러났는지, 의견에 알맞은 이유를 썼는지와 같은 간단한 확인 활동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쪽쪽! 국어교실(고학년용, 기본)>

1단원 국어사전 살펴보기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첫째 마당 ‘국어사전 살펴보기’ 분석

첫째 마당 ‘국어사전 살펴보기’	
대단원 구성	① 왜 바르게 써야 하나요? ② 국어사전 사용법 ③ 내가 만드는 국어사전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더해보기(더 알아보기1-더 알아보기2)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한글 맞춤법은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독자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을 쓸 때 필요한 규범을 익혀야 함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장의 각 낱말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맞게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맞춤법을 지식으로만 익히게 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들이 글을 쓰는 데에 장애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다양한 종류의 낱말을 분류하는 능력은 국어적 사고력과 국어 인식 능력의 신장을 이끌 수 있으며 사전 활용 능력은 모든 국어 공부의 기초가 된다. 사전 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낱말의 기본형과 활용을 간단한 수준에서 이해시킨다. 또한 형태나 의미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같은 품사에 속하는 낱말들을 구별해 내는 활동을 통해 국어사전 찾기에 필요한 주요 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를 변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으면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있음을 이해시키도록 한다. 국어사전에서 여러 낱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서 국어사전의 유용성을 익히고 국어사전을 즐겨 찾는 습관을 지니도록 지도한다.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원과 관련된 성취 기준은 모두 3-4학년군에 속한 것으로 5-6학년 학습자 수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이 단원의 내용은 3-4학년용 교재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 국어사전 활용법은 현행 4학년 교과서에서 다루어진다. 5-6학년을 대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다루고자 한다면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들을 대상으로 보다 깊이 있는 내용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 ‘더 알아보기’에서는 온라인 가나다, 디지털 한글박물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말샘이 시범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말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 실용적인 측면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단원 바르게 쓰기(1)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둘째 마당 ‘바르게 쓰기(1)’ 분석

둘째 마당 바르게 쓰기(1)	
대단원 구성	① 한글 맞춤법과 맞춤법 오류 ② 꼭 알아야 할 맞춤법 몇 가지 ③ 문장을 생생하게 살리는 문장 부호 ④ 수를 세는 낱말과 띄어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더해보기(더알아보기1-더알아보기2)
더해보기 내용	한글 자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문장 부호의 바른 사용 - 한글 더 깊이 알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한글 낱자(자모)를 바르게 발음하고 쓰는 것은 소리글자인 한글로 문자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이다. 먼저 한글 낱자의 이름과 모양을 차례로 익히고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 쓰도록 하며, 이들 낱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바르게 쓰고 발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글에 흥미를 가지면서 한글을 소중히 여기며 문자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올바른 문장을 생산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문장이 마침표(은점, 물음표, 느낌표)로 종결되는 구조임을 이해하고 생각의 한 덩어리를 하나의 문장으로 써 보도록 지도한다.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담아내고 마침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활동을 통해 문장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한글 맞춤법은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독자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을 쓸 때 필요한 규범을 익혀야 함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장의 각 낱말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한글맞춤법의 원리에 맞게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맞춤법을 지식으로만 익히게 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들이 글을 쓰는 데에 장애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이상을 통해, 소단원 구성이 ‘지식 설명+확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연관 지어 자연스럽게 맞춤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진술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대단원 내 소단원 교육 내용이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초등 전 학년에 걸쳐져 있어 수준별 맞춤형 교육 내용 제공이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소단원 ③의 문장부호는 2학년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내용을 중학년 혹은 고학년 수준에서 다루고자 한다면 문장의 종류를 중심으로 문장 부호를 적용한 학습 내용을 구안할 수 있겠다.
- 이 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주제로 한다. 띄어쓰기의 경우 현행 5학년 1학기 ‘대상의 특성을 살려’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은 고학년 수준에 비해 소략하다. 따라서 읽기 성취 기준 혹은 텍스트와 연계하여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 편의 텍스트를 제시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틀린 경우를 발견하고 고쳐 보는 등 보다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 ‘더 해 보기’의 두 가지 교육 내용 사이에 수준 차이가 극명해, 보충-심화 학습 활동인지, 추가적인 읽기 자료의 성격을 지니는지 코너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해 보기’의 한글 자음의 이름 알기는 1-2학년군 성취 기준과 연계되는 것으로 고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해당 내용을 저학년, 중학년 교재에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단원 바르게 쓰기(2)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 셋째 마당 ‘바르게 쓰기(2)’ 분석

셋째 마당 바르게 쓰기(2)	
대단원 구성	① 우리가 자주 쓰는 외래어 ② 외래어와 외래어 표기법 ③ 외래어 쓰기의 달인 ④ 로마자로 바르게 적기 ⑤ 우리말로 바꾸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확인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더해보기
더해보기 내용	우리말 다듬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고유어(토박이말)에는 국어 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고유어를 익히는 활동은 국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고양할 수 있다. 생활 속의 아름다운 고유어를 두루 찾아서 재미있고 다양한 말놀이 활동을 통해 익히게 하면서 고유어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	

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문법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이해는 국어 낱말의 세계와 관련한 국어 인식 능력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 국어의 상황에 대한 발전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대 국어 낱말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올바른 어휘 사용의 방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고유어에 대한 사랑, 한자어에 대한 이해, 외래어 오남용 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이상을 통해, 소단원 구성이 주로 ‘외래어’에 중점을 두고 기술되어 있어, 고유어나 한자어와 같은 유관 개념과 연계하여 국어 낱말의 세계와 관련한 국어 인식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진술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고유어와 외래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교과서에서는 국어사전에서 한글 표기 옆의 괄호 안에 다른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고유어, 외래어를 구별한 뒤 주변에서 외래어를 찾거나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다.
- 학습자의 이해 과정을 고려할 때, 대단원 내 소단원을 ‘생활 속에서의 외래어 확인(① 우리가 자주 쓰는 외래어) + 외래어 표기법 및 로마자 표기법 이해(② 외래어와 외래어 표기법 / ④ 로마자로 바르게 적기) + 배운 내용 확인(③외래어 쓰기의 달인)’의 순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소단원 ⑤ 우리말로 바꾸기’와 ‘더 해 보기’의 활동이 내용상 연결되어 있고,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해 보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단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4단원 글쓰기 기초 다지기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9> 넷째 마당 ‘글쓰기 기초 다지기’ 분석

넷째 마당 ‘글쓰기 기초 다지기’	
대단원 구성	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글쓰기 ② 짧은 문장 만들기 ③ 뜻이 비슷한 낱말 ④ 강조해서 쓰기

	⑤ 문장 이어 보기
	⑥ 제목 만들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문장 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한 편의 글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위계적으로 연관되는 의미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학습의 기초 능력이자 논리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한 편의 글을 지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해야 한다. 글쓴이가 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글의 중심 생각이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글 이해의 핵심이다. 중심 생각을 파악하려면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중심 내용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한 편의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짐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글감 또는 글의 제목에서 추론하거나 글 전체의 이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설명문이나 의견을 제시한 글에서는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생활문, 기행문, 전기문 등의 이야기 글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도록 한다.	

- 글쓰기의 기초를 다지는 단원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인 활동 수준이 고학년에 적절하지 않다. 관련 성취 기준을 살펴보다도 단원 전반의 내용이 저학년 혹은 중학년에 걸쳐 있어 고학년을 위한 글쓰기 기초 내용을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컨대 소단원 ⑤의 문장 이어보기의 경우 3-4학년군 성취 기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등을 사용하여 문장을 잇는 활동은 3학년에서 다루어지는 활동으로 5-6학년 학습자에게는 내용이 너무 평이하여 학년군 간 위계를 고려하여 활동을 구성하여야 하겠다.
- 소단원 ③의 뜻이 비슷한 말, 소단원 ④의 강조해서 쓰기 역시 저학년, 중학년군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며 고학년 교재에 다시 등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 한 편의 텍스트를 생산하기에 앞서 문장 쓰기 활동을 선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제시한 2015

개정 5-6학년군 문법 성취 기준을 적용하여 다의어, 동음이의어에 관한 교육과 함께 다의어를 활용한 문장 쓰기 활동을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6국04-03]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탐구한다.

이 성취기준은 상황에 따라 낱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고 상황에 따라 낱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낱말의 의미는 의사소통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낱말이나 다양한 의미를 갖는 낱말을 주요 학습 대상으로 하며, 낱말들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탐구하도록 한다.

5단원 열린 생각을 이용한 글쓰기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0> 다섯째 마당 ‘열린 생각을 이용한 글쓰기’ 분석

다섯째 마당 ‘열린 생각을 이용한 글쓰기’	
대단원 구성	① 팝콘처럼 터지는 생각 ② 여름이 더운 이유가 궁금한 친구에게 ③ ‘나’를 알리는 광고 만들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더 해 보기
더 해 보기 내용	열린 생각을 이용해 짝꿍 소개하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주변의 대상에서 특징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소개할 대상은 사람이나 사물 등을 두루 다루되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글쓰기를 위한 내용 생성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012 1-2학년군 문학 (6)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한다.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운율에 맞추거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표현하는 등의 간단한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고 그러한 표현 활동에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동시나 노래, 이야기의 특성이나 요건에 맞춰 표현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일상 경험을 이전에 배운 동시나 노래, 이야기를 흉내 내어 표현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글의 목적에 따른 대표적인 글의 종류와 쓰기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다양한 목적과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글을 쓰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글의 내용을 마련하고 조직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 이 단원에 제시된 내용 및 수준이 고학년 수준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연상되는 낱말 적기, 시험과 관련된 시 쓰기 등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시로 표현하는 방법은 2학년 2학기 3단원 ‘마음을 담아서’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이므로 수정이 요구된다.
- 소단원 ②와 더 해 보기의 내용은 소개하는 글 쓰기에 대한 것이다. 특히 ‘더 해 보기’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친구 소개하는 글 쓰기는 현행 3학년 2학기 4단원 ‘들으면서 적어요’에 포함된 내용으로 고학년 학습자를 고려한 활동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 아래의 성취 기준은 2012 개정 5-6학년 쓰기 영역에 속한 것으로 5-6학년 학습자에게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쓰게 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글,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설명하는 글에 관련된 활동을 담고 있는 현 교재의 내용이 모두 저학년, 중학년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할 대상이나 개념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1-2학년군의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쓰게 하기’, 3-4학년군의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취 기준이다.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설명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여러 대상을 설명할 때는 그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설명 방법에 따라 내용의 전개나 글의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 위에 서술한 5-6학년군 쓰기 영역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글을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글의 종류와 쓰기 방식을 익힐 수 있게끔 명시하고 있으나 교재에서는 편지글이든, 소개하는 글이든 글의 종류에 따른 쓰기 방법 등이 전혀 교육되고 있지 않다. 고학년 학습자 수준에 맞게 다양한 글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친구를 면담하여 친구를 소개하는 글 쓰기 대신 대안으로 아래의 2015 개정 5-6학년군 쓰기 성취 기준을 활용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차수를 거듭할수록 매체가 꾸

준히 강조되는 만큼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매체를 활용한 글 쓰기와 같은 활동을 계획해 볼 수 있다.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이 성취 기준은 글을 쓰기 전에 글을 쓰는 목적, 주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탐색하고 쓰는 자세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글의 목적, 주제 등을 고려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글을 쓸 때 글의 목적이나 주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글의 목적이나 주제를 정한 다음 그것에 따라 내용을 생성하고 선정하는 방법을 익힌 후 글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글의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매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예컨대 친교를 목적으로 글을 쓸 때에는 편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고, 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6단원 설명하는 글쓰기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여섯째 마당 ‘설명하는 글쓰기’ 분석

여섯째 마당 ‘설명하는 글쓰기’	
대단원 구성	① 할아버지께 길 안내하기 ② 동생에게 알려 주는 ‘슈퍼마켓 다녀오기 설명서’ ③ 요약해서 설명하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읽기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읽기의 기초적인 능력이다. 글의 내용은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고차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표현된 그대로의 의미를 대강 아는 수준에서 다룬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글의 경우 설명의 대상, 곧 화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화제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를 파악하며, 이야기 글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언제, 무엇을, 왜 하였는지 등에 관한 핵심적인 대상이나 어휘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글 전체의 자세한 내용까지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하고 특징적인 내용을 확인하며 읽도록 한다.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화제가 어떠한가’, ‘누가 무엇을 하였다.’와 같이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다룬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글은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알고, 글쓴이의 생

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2012 3-4학년군 읽기 (1)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리는 활동은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고,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명하는 글, 의견을 제시한 글의 경우에는 문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다. 글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핵심어 찾기,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파악하기, 각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문단의 중심 내용을 연결하여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 등을 지도한다. 생활문, 기행문 등의 이야기 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같은 이야기의 논리나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등을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한 편의 글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위계적으로 연관되는 의미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학습의 기초 능력이자 논리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한 편의 글을 지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해야 한다. 글쓴이가 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글의 중심 생각이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글 이해의 핵심이다. 중심 생각을 파악하려면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중심 내용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한 편의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짐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글감 또는 글의 제목에서 추론하거나 글 전체의 이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설명문이나 의견을 제시한 글에서는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생활문, 기행문, 전기문 등의 이야기 글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거나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 보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낱말을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는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표현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낱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어휘력도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6)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높임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효과적이고 예절 바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높임법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으로 나누어 지도하되 특히 학생들이 잘 틀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높임법 사례를 제시하여 올바른 높임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담화 상황에 따라 언어 예절을 지켜 의사소통하려는 태도를 길러 줄 필요가 있다.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글의 목적에 따른 대표적인 글의 종류와 쓰기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다양한 목적과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글을 쓰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글의 내용을 마련하고 조직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할 대상이나 개념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1-2학년군의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쓰게 하기’, 3-4학년군의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취 기준이다.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설명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여러 대상을 설명할 때는 그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설명 방법에 따라 내용의 전개나 글의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7)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쓴다.

학생들이 초고를 쓴 이후 잘못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수정하고, 내용 전개,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문제점을 찾아 교정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학생의 글이나 좋은 글을 많이 읽어 글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고쳐쓰기의 목적은 글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학생들이 고쳐쓰기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고쳐쓰기를 할 때 교사, 동료 학생, 부모님 등 여러 사람의 반응과 조언을 얻도록 지도한다.

- 고학년 학습자에게는 설명문이라는 글의 종류를 명료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명문 쓰기와 관련한 활동을 보면 문단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문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 안 내되고 있지 않다. 저학년, 중학년군에서 글의 형식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자세를 취했다면, 고학년 교재에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글쓰기로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교재에 제시된 고쳐쓰기의 내용이 학습자 수준에 비해 너무 소략한 수준이라 보충이 필요하다. 위의 성취 기준에서 보듯이 고쳐쓰기는 내용 전개,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단지 이상한 부분을 고쳐 쓰게 하고 있다. 고쳐쓰기가 쓰기의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인 만큼 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소단원 ③의 요약해서 설명하기의 내용 또한 고학년 학습자에 맞게 수준이 상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제시한 2015 개정 5-6학년군 읽기 성취 기준을 보면 요약하기를 다룰 때 ‘머리말-본문-맺음말’과 같은 글의 짜임을 고려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또한 요약 시 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글의 짜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재에서는 설명문의 짜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요약하는 활동에서도 ‘ 옮겨 쓰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성취 기준과 불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취 기준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국02-02]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이 성취 기준은 읽은 내용을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요약하기는 단순히 글의 분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주요 내용을

뽑아 이를 중심으로 간추려 정리하는 것이다. 이때 ‘머리말-본문-맺음말’, ‘서론-본론-결론’,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등 글의 형식상 구조를 고려하여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성취 기준에서는 한 편의 글을 요약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매체에서 타 교과 학습과 관련된 글을 찾아 읽고 이를 요약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교과의 읽기 활동도 자연스럽게 다루도록 한다.

7단원 상상하기와 글쓰기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 일곱째 마당 ‘상상하기와 글쓰기’ 분석

일곱째 마당 ‘상상하기와 글쓰기’	
대단원 구성	① 내 마음대로 바꾸기 ② 내 마음대로 바꾸는 나 ③ 더 편한 교실 만들기 ④ 상상해서 설명하기 ⑤ 합치면 어떻게 변할까요?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주변의 대상에서 특징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소개할 대상은 사람이나 사물 등을 두루 다루되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글쓰기를 위한 내용 생성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거나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 보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낱말을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는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표현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낱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어휘력도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할 대상이나 개념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1-2학년군의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쓰게 하기’, 3-4학년군의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취 기준이다.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설명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여러 대상을 설명할 때는 그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설명 방법에 따라 내용의 전개나 글의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 소단원 ①, ②의 바뀐 나의 모습에 대한 글쓰기는 맥락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재에서는 단순히 바뀐 나의 모습에 관한 글을 한 편 쓰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는 것은 저학년, 중학년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형태로, 고학년 학습자는 구체적인 글의 종류를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상상하기’는 고학년 학습자보다는 저학년, 혹은 중학년 학습자 발달 수준에 더 어울리는 주제로 아래의 2012 개정 1-2학년군 문학 성취 기준, 2015 개정 3-4학년군 문학 성취 기준에서 상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주제는 문학과 연계하여 저학년 혹은 중학년 교재에서 다루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2 개정 (4)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 흥미를 가지고 그 특성을 파악하며 파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동시나 동화 등의 작품을 듣거나 읽고 ‘그 상황에서 작품 속 인물은 어떤 마음이였을까?’, ‘작품 속 인물은 어떤 모습일까?’, ‘그 상황에서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은 어떠했을까?’ 등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인물을 이해하고, 그 인물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역할 놀이, 묘사하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상상한 인물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2015 개정 [4국05-0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쓰기 영역과 관련된 단원이라 할지라도 쓴 글을 발표할 때의 태도, 친구의 글을 경청하는 자세 등 듣기·말하기에 대한 활동이 없는 것은 문제이다. 듣기·말하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추가하여 함께 교육한다면 영역 간 연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활동의 효과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소단원 ⑤ 마지막 부분에 실린 글쓰기 활동에서 역시 글쓰기에 대한 과정, 방법, 구조, 등 쓰기에 대한 안내가 없어 쓰기와 관련한 지식을 학습자가 습득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 여덟째 마당 ‘내 의견 글로 쓰기’ 분석

여덟째 마당 ‘내 의견 글로 쓰기’	
대단원 구성	① 의견 글로 쓰기 ② 주장과 근거 그리고 해결책 ③ 주장하는 글 뼈대 만들기 ④ 설문지 작성 : 친구들의 생각 알아보기 ⑤ 내 의견 연설문으로 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지식 설명 + 적용 활동(문장 쓰기, 글쓰기)
대단원 전개	도입-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정교화, 구체화하게 되며, 이러한 쓰기 경험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2학년군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용과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썼다면, 3-4학년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이때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이유를 알맞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듣기·말하기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현대 사회 매체의 발달로 매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발표를 할 때 사진, 그림, 도표, 음악, 도구,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을 지도한다. 다수의 청중 앞에서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발표를 할 때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은 발표에 사용된 매체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발표를 평가해 보도록 한다. 발표에 활용된 매체가 발표의 목적과 주제에 비취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면서 발표를 듣도록 하고, 자신이 발표한다면 어떤 매체를 활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끌고 발표 효과를 높일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1)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	
글을 쓸 때 한 일들을 성찰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쓰기에는 과정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러한 과정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을 쓸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쓸 것인지 계획하고(계획하기), 쓸 내용을 모아(내용 생성하기) 정리하고(내용 조직하기), 이를 글로 쓰고(표현하기) 다시 고쳐 쓰는(고쳐쓰기)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이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고정적이고 분절적인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러 유형의 글을 쓰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쓰는 글에 따라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정과 그러한 과정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글의 목적에 따른 대표적인 글의 종류와 쓰기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다양한 목적과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글을 쓰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글의 내용을 마련하고 조직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4학년군의 성취 기준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가 좀 더 심화되어 제시된 것으로서 일상생활이나 자신의 주변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주장으로 내세우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글을 쓰도록 한다. 이러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글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주장과 근거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글쓰기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는 설득적인 말을 할 때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듣기·말하기 영역의 토론, 토의 관련 성취 기준과 함께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단원에 제시된 전반적인 내용 및 수준은 3-4학년군의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의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5-6학년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소단원 ⑤의 연설문 쓰기 역시 실제로는 ‘의견을 제시하는 글’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3-4학년군과 5-6학년군을 구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 주장하는 글쓰기’처럼 교육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위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연설문을 작성하기 전에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연설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학습자가 연설문이라는 글의 종류를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연설문의 특성상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5-6학년군의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과 높은 연계성을 가짐에도 이와 같은 활동이 마련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된다.
- 해당 단원은 교재의 4단원부터 시작되어 쓰기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쓰기의 과정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일련의 과정이 분절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습자로 하여금 한 편의 글을 생산함에 있어 쓰기의 과정에 따라 글을 쓰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개요를 조직하고 글을 쓰는 활동에서 글의 거시구조나 문단에 대한 구분이나 언급이 없어 고학년 수준에 적절하지 않다. 보다 체계적인 개요 틀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 고쳐쓰기는 쓰기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5-6학년군 성취 기준에 고쳐쓰기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존재하는 것 또한 이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교재에는 고쳐쓰기에 대한 활동이 전혀 없어 이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쓰기 단위에서도 고쳐쓰기 관련 내용을 구축해야 한다.
-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고 또 친구들의 글을 집중하여 듣게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 자

료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주장하는 글을 들을 때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들었는지, 가치 있고 중요한 주장인지 실천할 수 있는 주장인지 등을 판단하며 듣게 하는 상호 평가표를 삽입한다면 활동의 효과가 증진될 것이다.

1.2. 심화 교재 분석 결과

- 앞서 설명한 대로 심화 교재의 경우 역시 단원별로 단원 구성과 성취 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	분석 결과
영역별 성취 기준의 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쓰기, 문법 영역에 편중된 성취 기준 몇 가지가 단원별로 반복되는 양상이 보임. ○ 교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듣기·말하기, 특히 읽기와 문학 영역의 성취 기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위계성 및 연계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 수준에 맞지 않는 활동(고학년 수준에는 쉽거나 저학년 수준에는 어려운)이 존재함. ○ 하나의 목표 하에 제시된 활동 간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존재함.
다양성 부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 기준과 마찬가지로 활동 역시 하나의 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임. ○ 낱말 쓰기, 설명어 찾아 쓰기, 낱말 분류하기 등 동일한 형태로 단원마다 활동이 구현되어 있음. ○ 글쓰기(한 문단 쓰기 포함) 활동 역시 다양성이 부족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를 유발할 만한 활동이 다소 부족함. ○ 학습자가 글을 쓰기에 맥락이 부족한 경우도 존재함. (예: 구체적인 쓰기 맥락 혹은 정보의 제시 없이 ‘한 편의 글을 써 봅시다’와 같은 활동을 제시한 경우) ○ 삽화가 흑백이고, 대부분 클립아트 같은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어 실재성이 부족함.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쪽쪽! 국어교실(저학년용, 심화)>

1단원 쪽쪽! 싱싱한 과일가게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 1단원 ‘쪽쪽! 싱싱한 과일가게’ 분석

쪽쪽! 싱싱한 과일가게	
대단원 구성	① 여러 가지 과일에 대해 알아보기 ② 낱말을 써 보아요! ③ 낱말을 나누어 보아요! ④ 안는 말, 안기는 말에 대해 알아보아요. ⑤ 새로운 낱말 만들기 ⑥ 어울리는 낱말 쓰기 ⑦ 꾸며주는 말을 써 보아요. ⑧ 낱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아요. ⑨ 자유롭게 생각해 보아요. ⑩ 무엇일까요? ⑪ 상상하여 글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소단원 ⑦-소단원 ⑧-소단원 ⑨-소단원 ⑩-소단원 ⑪-쪽쪽! 더 알기
쪽쪽!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주변의 대상에서 특징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은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쓰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 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소개할 대상은 사람이나 사물 등을 두루 다루되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글쓰기를 위한 내용 생성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글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거나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 보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낱말을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는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표현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낱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어휘력도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정교화, 구체화하게 되며, 이러한 쓰기 경험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2학년군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용과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썼다면, 3-4학년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이때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이유를 알맞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낱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또 ‘국민, 국어,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국(國)’이 들어가 있어 공통적으로 ‘나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익히면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2단원

쑥쑥! 소중한 우리의 몸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2단원 ‘쑥쑥! 소중한 우리의 몸’ 분석

쑥쑥! 소중한 우리의 몸	
대단원 구성	① 우리의 몸 알기 ② 낱말로 의미 떠올리기 ③ 몸과 관련된 새 낱말 만들기 ④ 새 낱말로 문장 완성하기 ⑤ 몸을 재는 단위 ⑥ 낱말의 의미 관계 ⑦ 나는 내 몸의 00이에요. ⑧ 내 몸을 사랑해주기

	⑨ 상상속의 인물들 몸 ⑩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몸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소단원 ⑦-소단원 ⑧-소단원 ⑨-소단원 ⑩-소단원 ⑪-쑥쑥! 더 알기
쑥쑥!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1(바른 우리말을 써 봅시다.)-꼭 알아야 할 맞춤법2(날말 만들어 보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정교화, 구체화하게 되며, 이러한 쓰기 경험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2학년군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용과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썼다면, 3-4학년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이때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이유를 알맞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낱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또 ‘국민, 국어,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국(國)’이 들어가 있어 공통적으

로 ‘나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익히면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문법 (2) 낱말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됨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낱말의 의미가 결정됨을 이해하면 낱말을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의미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결정됨을 이해시키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유적 의미가 생기는 현상도 지도한다. 낱말을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3단원 쪽쪽! 신나는 놀이, 안전한 놀이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3단원 ‘쪽쪽! 신나는 놀이, 안전한 놀이’ 분석

쪽쪽! 신나는 놀이, 안전한 놀이	
대단원 구성	① 놀이와 관련된 것들 찾기 ②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③ 서로 관련 있는 낱말끼리 나누기 ④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⑤ 안전한 놀이 방법 설명하기 ⑥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놀이 ⑦ 상상하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소단원 ⑦-쪽쪽! 더 알기
쪽쪽!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비슷한 말’과 ‘반대말’)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2) 듣는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상대방의 처지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말을 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기분과 느낌을 고려하면서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대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낱말을 알고 이를 상황에 따라 사용하며 느낌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보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쓰는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8)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학생들은 거친 말이나 욕설 등 잘못된 말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운 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험한 표현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왜 나쁜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것을 따라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고 고운 말, 바른말로 바꾸어 말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고운 말, 바른 말을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오히려 욕설 등 나쁜 말을 가르치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실제 학생들의 잘못된 대화 장면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즐겨보는 만화, 동영상 등의 자료나 말 때문에 상처 받은 이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하고, 일방적 훈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말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고운 말, 바른말을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오히려 욕설 등 나쁜 말을 가르치는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실제 학생들의 잘못된 대화 장면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즐겨보는 만화, 동영상 등의 자료나 말 때문에 상처 받은 이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지도하고, 일방적 훈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거나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 보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낱말을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는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표현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낱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어휘력도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4단원

쑹쑹! 내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4단원 ‘쑹쑹! 내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분석

쑹쑹! 내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대단원 구성	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알아보아요. ②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③ 집 안의 각 공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쓰기 ④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⑤ 아래의 집안일들을 기준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⑥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⑦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상상해서 쓰기 ⑧ 20년 후에 내게 집이 생긴다면?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소단원 ⑦-소단원 ⑧-쑹쑹! 더 알기
쑹쑹!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맞춤법에 맞게 쓴 낱말)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거나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 보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낱말을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는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표현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낱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어휘력도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	

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5단원

쑥쑥! 재미있는 우리 학교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5단원 ‘쑥쑥! 재미있는 우리 학교’ 분석

쑥쑥! 재미있는 우리 학교	
대단원 구성	①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② 학교와 관련된 낱말 찾기 ③ 학교와 관련된 낱말의 끝말잇기 ④ 앞 뒤 내용을 살펴보고, 알맞은 낱말 넣기 ⑤ 즐거운 학교생활 상상하기 ⑥ 새 친구에게 학교 소개하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쑥쑥! 더 알기
쑥쑥!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자주 틀리는 말 고쳐보기)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6) 여러 가지 말놀이에 즐겨 참여한다.	
말놀이를 통하여 언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휘력, 추론력,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말놀이는 소리를 구별하고 흥내를 내거나, 시나 노래 등에 나오는 어휘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말놀이를 통하여 말을 주고받으면서 재미를 느끼도록 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놀이의 규칙을 알고 즐겨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리, 어휘뿐 아니라 문장, 재담을 이용한 말놀이 등 다양한 말놀이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거나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 보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낱말을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는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표현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낱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어휘력도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할 대상이나 개념에 따라 적절한 설명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1-2학년군의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쓰게 하기’, 3-4학년군의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취 기준이다.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설명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여러 대상을 설명할 때는 그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설명 방법에 따라 내용의 전개나 글의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6단원 쪽쪽! 함께 쓰는 공간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6단원 ‘쪽쪽! 함께 쓰는 공간’ 분석

쪽쪽! 함께 쓰는 공간	
대단원 구성	① 공공장소란 무엇일까요? ② 공공장소와 관련된 낱말 찾아보기 ③ 공공장소에 대해 이해해보기 ④ 내가 만드는 공공장소 ⑤ 장소에 맞는 공공규칙 익히기 ⑥ 나의 규칙 만들기 ⑦ 우리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소단원 ⑦-쪽쪽! 더 알기
쪽쪽!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적, 공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여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 자세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상황에서 귀 기울여 듣는 훈련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듣기와 말하기는 연계하여 지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말하는 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귀 기울여 듣고, 친구들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하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정교화, 구체화하게 되며, 이러한 쓰기 경험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2학년군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용과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썼다면, 3-4학년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이때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이유를 알맞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7단원 **쑥쑥! 위대한 사람들**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0> 7단원 ‘쑥쑥! 위대한 사람들’ 분석

쑥쑥! 위대한 사람들

대단원 구성	① 여러 위인에 대해 알아보기 ② 낱말을 써 보아요. ③ 낱말을 나누어 보아요. ④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보아요. ⑤ 어울리는 낱말을 찾아보아요. ⑥ 위인들의 훌륭한 말 찾기 ⑦ 어떤 위인일까요? ⑧ 읽고 정리해 보아요!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소단원 ⑦-소단원 ⑧-쑥쑥! 더 알기
쑥쑥!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세종대왕과 주시경의 우리말 알아맞히기 대잔치)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읽기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읽기의 기초적인 능력이다. 글의 내용은 기본적 수준에서부터 고차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표현된 그대로의 의미를 대강 아는 수준에서 다룬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글의 경우 설명의 대상, 곧 화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화제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를 파악하며, 이야기 글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언제, 무엇을, 왜 하였는지 등에 관한 핵심적인 대상이나 어휘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글 전체의 자세한 내용까지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하고 특징적인 내용을 확인하며 읽도록 한다.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화제가 어떠한가.’, ‘누가 무엇을 하였다.’와 같이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다룬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글은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알고,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읽기 (1)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리는 활동은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고,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명하는 글, 의견을 제시한 글의 경우에는 문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다. 글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핵심어 찾기,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파악하기, 각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문단의 중심 내용을 연결하여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 등을 지도한다. 생활문, 기행문 등의 이야기 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같은 이야기의 논리나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등을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한 편의 글은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 위계적으로 연관되는 의미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학습의 기초 능력이자 논리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한 편의 글을 지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해야 한다. 글쓴이가 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글의 중심 생각이며, 이를 파악하는 것이 글 이해의 핵심이다. 중심 생각을 파악하려면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중심 내용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한 편의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짐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글감 또는 글의 제목에서 추론하거나 글 전체의 이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설명문이나 의견을 제시한 글에서는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생활문, 기행문, 전기문 등의 이야기 글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낱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또 ‘국민, 국어,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국(國)’이 들어가 있어 공통적으로 ‘나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익히면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8단원 **쑥쑥!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나라**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8단원 ‘쑥쑥!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나라’ 분석

쑥쑥!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나라	
대단원 구성	① 세계 속의 여러 나라를 찾아보아요. ②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③ 애국가를 부를 수 있어요. ④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⑤ 나라의 기념일에 대해 알아보시다. ⑥ 우리나라 신화 ⑦ 빈칸에 ‘법’과 ‘규칙’ 중 알맞은 낱말 쓰기 ⑧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⑨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⑩ 행복한 나라 만들기 ⑪ 내가 동장이 된다면 ⑫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소단원 ①-소단원 ②-소단원 ③-소단원 ④-소단원 ⑤-소단원 ⑥- 소단원 ⑦-소단원 ⑧-소단원 ⑨-소단원 ⑩-소단원 ⑪-소단원 ⑫-쑥 쑥! 더 알기
쑥쑥!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맞춤법에 맞게 쓴 낱말)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학생들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말하거나 써 온 것을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대화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듣는이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말하기의 기본이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거나 설명할 때, 자신 있는 시선과 표정, 목소리, 어조 등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듣는이가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고, 자연스러운 어조와 분명한 발음으로 말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시선을 맞추고 바른 자세로 듣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읽기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읽기의 기초적인 능력이다. 글의 내용은 기본적 수준에서부터 고차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표현된 그대로의 의미를 대강 아는 수준에서 다룬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글의 경우 설명의 대상, 곧 화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화제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를 파악하며, 이야기 글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언제, 무엇을, 왜 하였는지 등에 관한 핵심적인 대상이나 어휘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글 전체의 자세한 내용까지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하고 특징적인 내용을 확인하며 읽도록 한다.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화제가 어떠한지’, ‘누가 무엇을 하였다.’와 같이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다룬다.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글은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알고,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

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읽기 (1)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리는 활동은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고,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명하는 글, 의견을 제시한 글의 경우에는 문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다. 글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핵심어 찾기,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파악하기, 각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문단의 중심 내용을 연결하여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 등을 지도한다. 생활문, 기행문 등의 이야기 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같은 이야기의 논리나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등을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3-4학년군 문학 (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자신의 말로 작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려면 우선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2학년군에 제시된 성취 기준인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시간적 순서나 인과 등 논리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현해 보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학 (4)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창작 동화나 옛이야기, 아동극 등에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줄거리가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작품을 꼼꼼하게 읽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이나 사건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파악한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알기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4학년군의 성취 기준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가 좀 더 심화되어 제시된 것으로서 일상생활이나 자신의 주변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주장으로 내세우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글을 쓰도록 한다. 이러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글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주장과 근거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글쓰기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는 설득적인 말을 할 때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듣기·말하기 영역의 토론, 토의 관련 성취 기준과 함께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문학 (5)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나와 견주어 이해하고 평가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비교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등장인물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이유를 짐작해 보거나 제시된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말해 봄으로써 문학 작품을 읽으며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체험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쪽쪽! 국어교실(고학년용, 심화)>

1단원 쪽쪽! 남남 맛있는 음식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 1단원 ‘쪽쪽! 남남 맛있는 음식’ 분석

쪽쪽! 남남 맛있는 음식	
대단원 구성	① 우리가 먹는 음식 ②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 주는 음식 ③ 여러 가지 맛을 음미해 보기 ④ 상상속의 맛 ⑤ 지글지글 음식 만들어 보기 ⑥ 지역과 관련된 음식을 찾아봅시다. ⑦ 음식 맛을 표현해 보자. ⑧ 음식 만드는 방법 정리하기 ⑨ 음식을 만드는 방법 설명하기 ⑩ 내가 만든 음식 소개하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 - 소단원② - 소단원③ - 소단원④ - 소단원⑤ - 소단원⑥ - 소단원⑦ - 소단원⑧ - 소단원⑨ - 소단원⑩ - 쪽쪽! 더 알기
쪽쪽!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1(음식과 관련된 단위 찾아보기) - 꼭 알아야 할 맞춤법2(정확한 우리말 쓰기) - 꼭 알아야 할 맞춤법3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

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할 대상이나 개념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1-2학년군의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쓰게 하기’, 3-4학년군의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취 기준이다.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설명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여러 대상을 설명할 때는 그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설명 방법에 따라 내용의 전개나 글의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단원 쪽쪽! 오늘 나의 기분은?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더해보기 내용, 관련 교육 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 2단원 ‘쪽쪽! 오늘 나의 기분은?’ 분석

쪽쪽! 오늘 나의 기분은?	
대단원 구성	①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 알아보기 ② 낱말을 써 보아요. ③ 낱말을 나누어 보아요. ④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아보아요! ⑤ 뜻이 다른 낱말을 찾아보아요! ⑥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보아요. ⑦ 어떤 감정일까요? 자유롭게 생각해 보아요. ⑧ 나 화났어요!! - 화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⑨ 꾸며주는 말 쓰기 ⑩ ‘사실’과 ‘느낌’을 구분해 보아요. ⑪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 - 소단원② - 소단원③ - 소단원④ - 소단원⑤ - 소단원⑥ - 소단원⑦ - 소단원⑧ - 소단원⑨ - 소단원⑩ - 소단원⑪ - 쪽쪽! 더 알기
쪽쪽!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5) 읽는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다른 사람과 글로 소통하려면 자기중심적인 쓰기에서 벗어나 독자의 흥미나 관심, 입장, 반응 등을 고려하여 글을 써야 한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잘 알거나 친숙한 사람을 독자로 하여 글을 쓰도록 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잘 알지 못하거나 친숙하지 않은 이를 독자로 하여 글을 쓰도록 한다. 친구, 부모님, 선생님, 이웃 등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마움, 죄송함, 기쁨, 슬픔, 사랑, 우정, 고민 등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쓰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독자를 고려하여 쓸 내용을 마련하거나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글의 목적에 따른 대표적인 글의 종류와 쓰기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

을 익히도록 한다. 다양한 목적과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글을 쓰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글의 내용을 마련하고 조직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3단원 쪽쪽! 정정당당, 스포츠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3단원 ‘쪽쪽! 정정당당, 스포츠’ 분석

쪽쪽! 정정당당, 스포츠	
대단원 구성	①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②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③ 서로 관련 있는 낱말끼리 나누기 ④ 관련 없는 낱말 고르기 ⑤ 반대말 쓰기 ⑥ 머리글자 보고 낱말 쓰기 ⑦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행사 알아보기 ⑧ 스포츠 설명하기 ⑨ ‘우리 반 올림픽대회’경기 종목 정하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 - 소단원② - 소단원③ - 소단원④ - 소단원⑤ - 소단원⑥ - 소단원⑦ - 소단원⑧ - 소단원⑨ - 쪽쪽! 더 알기
쪽쪽!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읽기 (1)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리는 활동은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고,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명하는 글, 의견을 제시한 글의 경우에는 문단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다. 글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핵심어 찾기,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파악하기, 각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 파악하기, 문단의 중심 내용을 연결하여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 등을 지도한다. 생활문, 기행문 등의 이야기 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와 같은 이야기의 논리나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정리하거나 간추릴 수 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등을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거나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어 보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낱말을 알맞은 낱말로 고쳐 쓰는 활동도 함께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대상을 정확하고 자세히 표현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생들이 낱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어휘력도 신장될 수 있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대상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설명할 대상이나 개념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1-2학년군의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쓰게 하기’, 3-4학년군의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취 기준이다. 일의 절차나 방법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설명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여러 대상을 설명할 때는 그 특징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일이 일어난 순서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설명 방법에 따라 내용의 전개나 글의 조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4단원 **쑥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4단원 ‘쑥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석

쑥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단원 구성	① 5월의 행사를 찾아봅시다. ② 기념하는 날 찾아보기 ③ 기념하는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④ 우리 집의 행사를 소개합니다. ⑤ 우리 가족의 행사에서 내가 한 일 ⑥ 우리들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 - 소단원② - 소단원③ - 소단원④ - 소단원⑤ - 소단원⑥ - 쑥쑥! 더 알기
쑥쑥!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날말이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3) 날말과 날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날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날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날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날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날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또 ‘국민, 국어,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국(國)’이 들어가 있어 공통적으로 ‘나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날말을 익히면 날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날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등과 관련된 문제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는 것은 글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직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글의 목적에 따른 대표적인 글의 종류와 쓰기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다양한 목적과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글을 쓰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목적

이나 주제에 따라 글의 내용을 마련하고 조직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지도한다.

5단원	쑥쑥! 컴퓨터와 우리 생활
------------	-----------------------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5단원 ‘쑥쑥! 컴퓨터와 우리 생활’ 분석

쑥쑥! 컴퓨터와 우리 생활	
대단원 구성	① 컴퓨터와 관련 있는 낱말 알아보기 ② 컴퓨터와 관련된 낱말 적어보기 ③ 외국어와 외래어를 이해함시다. ④ 줄여 쓰는 말은 무엇인가요? ⑤ 컴퓨터를 사용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⑥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⑦ 어떻게 말해야 할까? ⑧ 컴퓨터 사용을 위한 나의 약속 ⑨ 내가 프로그래머가 된다면?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 - 소단원② - 소단원③ - 소단원④ - 소단원⑤ - 소단원⑥ - 소단원⑦ - 소단원⑧ - 소단원⑨ - 쑥쑥! 더 알기
쑥쑥!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2) 듣는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한다.

상대방의 처지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과 느낌에 따라 말을 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기분과 느낌을 고려하면서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대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낱말을 알고 이를 상황에 따라 사용하며 느낌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쓰는 감정을 나타내는 낱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학생들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말하거나 써 온 것을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대화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듣는이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말하기의 기본이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거나 설명할 때, 자신 있는 시선과 표정, 목소리, 어조 등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듣는이가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고, 자연스러운 어조와 분명한 발음으로 말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시선을 맞추고 바른 자세로 듣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5)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평가하며 듣는다.

발표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상대방이 발표할 때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상대의 발표 능력을 평가하며 듣는 것은 발표 능력의 기초가 된다. 공적인 발표는 다수의 청중을 상대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긴장감과 내용의 기억과 전달에 따르는 인지적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긴장과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 연습이 필요하다. 발표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메모하고, 다양한 발표 경험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도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면서 듣도록 하여 듣기 능력과 함께 발표 능력도 향상되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한글 맞춤법은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독자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글을 쓸 때 필요한 규범을 익혀야함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장의 각 낱말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맞게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맞춤법을 지식으로만 익히게 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들이 글을 쓰는 데에 장애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문법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이해는 국어 낱말의 세계와 관련한 국어 인식 능력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현대 국어의 상황에 대한 발전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대 국어 낱말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올바른 어휘 사용의 방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고유어에 대한 사랑, 한자어에 대한 이해, 외래어 오남용 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단원	쑥쑥! 나만의 위인
------------	-------------------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6단원 ‘쑥쑥! 나만의 위인’ 분석

쑥쑥! 나만의 위인	
대단원 구성	① 여러 위인에 대해 알아보기. ② 낱말을 써 보아요! ③ 낱말을 나누어 보아요! ④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보아요. ⑤ 낱말을 자유롭게 이어보아요! ⑥ 나만의 위인을 설명해 보아요. ⑦ 친구의 위인이 궁금해요. ⑧ 나는 어떤 위인이 되고 싶나요?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 - 소단원② - 소단원③ - 소단원④ - 소단원⑤ - 소단원⑥ - 소단원⑦ - 소단원⑧ - 쑥쑥! 더 알기
쑥쑥!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6) 여러 가지 말놀이에 즐겨 참여한다.

말놀이를 통하여 언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휘력, 추론력,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말놀이는 소리를 구별하고 흥내를 내거나, 시나 노래 등에 나오는 어휘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말놀이를 통하여 말을 주고받으면서 재미를 느끼도록 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놀이의 규칙을 알고 즐겨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리, 어휘뿐 아니라 문장, 재담을 이용한 말놀이 등 다양한 말놀이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운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

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5)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평가하며 듣는다.

발표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상대방이 발표할 때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상대의 발표 능력을 평가하며 듣는 것은 발표 능력의 기초가 된다. 공적인 발표는 다수의 청중을 상대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긴장감과 내용의 기억과 전달에 따르는 인지적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긴장과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 연습이 필요하다. 발표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메모하고, 다양한 발표 경험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도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면서 듣도록 하여 듣기 능력과 함께 발표 능력도 향상되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1)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수업, 강연 등 중요한 정보가 담긴 내용의 담화를 들을 때 중심 내용이나 인상 깊은 부분을 메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하기 어렵게 된다. 중요한 정보가 담긴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은 기록해 두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듣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며, 듣는 사람의 경험이나 가치에 따라 인상 깊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각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여러 가지 메모하는 방법을 익히고, 메모해 둔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말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 정교화, 구체화하게 되며, 이러한 쓰기 경험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1-2학년군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용과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썼다면, 3-4학년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시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이때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이유를 알맞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하면 국어의 어휘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높이고 어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여기서 낱말 확장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개꿈, 개떡, 개머루’에는 공통적으로 ‘개-’가 들어가 있어 모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고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또 ‘국민, 국어,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국(國)’이 들어가 있어 공통적으로 ‘나라’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낱말을 익히면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다. 다양한 토박이말(고유어)와 한자어를 두루 익히게 하여 학생들의 어휘 능력을 신장시킨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

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7단원

쑥쑥! 역사는 흐른다.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8> 7단원 ‘쑥쑥! 역사는 흐른다’ 분석

쑥쑥! 역사는 흐른다	
대단원 구성	① 역사와 관련된 낱말에 O 표시하기 ②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③ 서로 관련 있는 낱말끼리 나누기 ④ 우리 역사 속 나라 이름 쓰기 ⑤ 머리글자 보고 낱말 쓰기 ⑥ 옛날 사람들의 신분과 관련된 낱말 쓰기 ⑦ 가로 세로 풀기 ⑧ 상상해서 쓰기 ⑨ 나의 역사 쓰기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 - 소단원② - 소단원③ - 소단원④ - 소단원⑤ - 소단원⑥ - 소단원⑦ - 소단원⑧ - 소단원⑨ - 쑥쑥! 더 알기
쑥쑥!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3) 듣는이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한다.	
<p>학생들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말하거나 써 온 것을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대화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듣는이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말하기의 기본이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거나 설명할 때, 자신 있는 시선과 표정, 목소리, 어조 등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듣는이가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고, 자연스러운 어조와 분명한 발음으로 말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시선을 맞추고 바른 자세로 듣도록 지도한다.</p>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p>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p>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5)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평가하며 듣는다.

발표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상대방이 발표할 때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상대의 발표 능력을 평가하며 듣는 것은 발표 능력의 기초가 된다. 공적인 발표는 다수의 청중을 상대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긴장감과 내용의 기억과 전달에 따르는 인지적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긴장과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 연습이 필요하다. 발표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메모하고, 다양한 발표 경험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도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면서 들도록 하여 듣기 능력과 함께 발표 능력도 향상되도록 한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은 국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되, 특히 한글 맞춤법 51-57항에 제시된 혼동하기 쉽고 잘 틀리는 낱말과 한글 맞춤법 41-48항에 제시된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 자료를 생활 속에서 찾아 탐구하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8단원 **쑥쑥! 돌고 도는 경제**

- 분석 대상 단원의 ‘대단원 구성, 소단원 구성 체제, 대단원 전개,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9> 8단원 ‘쑥쑥! 돌고 도는 경제’ 분석

쑥쑥! 돌고 도는 경제	
대단원 구성	① 바람직한 경제 활동에 밑줄 긋기 ② 빈칸에 알맞은 낱말 쓰기 ③ 서로 관련 있는 낱말끼리 나누기 ④ 속담 완성하기 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쓰기 ⑥ 용돈 기입장 쓰기 ⑦ 주장에 대한 이유 쓰기

	⑧ 용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쓰기 ⑨ 세뱃돈을 관리하는 방법
소단원 구성 체제	활동 설명 + 활동
대단원 전개	도입 - 소단원① - 소단원② - 소단원③ - 소단원④ - 소단원⑤ - 소단원⑥ - 소단원⑦ - 소단원⑧ - 소단원⑨ - 쪽쪽! 더 알기
쪽쪽! 더 알기 내용	꼭 알아야 할 맞춤법

관련 교육과정 내용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낱말들이 의미적으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슷한 말, 반대말, 상위어와 하위어에 초점을 두어 낱말 간의 의미 관계를 지도하고, 연상 활동이나 말놀이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말을 여러 상황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어휘 구사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문장은 글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할 때와 달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므로,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언어의 관습과 규범을 따라야 한다.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구성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5)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평가하며 듣는다.

발표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상대방이 발표할 때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상대의 발표 능력을 평가하며 듣는 것은 발표 능력의 기초가 된다. 공적인 발표는 다수의 청중을 상대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긴장감과 내용의 기억과 전달에 따르는 인지적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긴장과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 연습이 필요하다. 발표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메모하고, 다양한 발표 경험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도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면서 듣도록 하여 듣기 능력과 함께 발표 능력도 향상되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듣기·말하기(3)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광고, 연설, 홍보 등을 들으면서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말의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며 듣는 능력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특히 상업적 광고나 정치적 홍보 등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듣고, 합리적 평가를 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광고나 홍보 등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말의 주장이 신뢰성, 타당성, 가치성,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따져 보고, 논리적인 이성보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자극을 하지 않는지 평가하면서 듣도록 한다.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말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2012 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4학년군의 성취 기준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가 좀

더 심화되어 제시된 것으로서 일상생활이나 자신의 주변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주장으로 내세우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글을 쓰도록 한다. 이러한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글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주장과 근거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글쓰기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는 설득적인 말을 할 때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듣기·말하기 영역의 토론, 토의 관련 성취 기준과 함께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5-6학년군 문법 (5) 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성분을 이해하고 성분 사이의 호응 관계가 올바른 문장을 구성한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 사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면 문장 구성 능력을 효과적으로 기를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과 같은 성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알게 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게 하되, 주변의 국어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과 직접 문장을 구성해 보는 활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관용 표현에는 국어 문화의 특성이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이해는 국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관용어구나 속담 등에 담긴 국어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는 활동을 하게 지도한다. 선조들의 일화나 명언 등과 함께 지도하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관용 표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표현 의도를 다채롭게 드러내려는 태도를 지니게 지도한다.

2.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의 방향

2.1.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학년군 개념이 도입되면서 초등학교급 교육 내용이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삼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재인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은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으로 이분되어 있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의 학년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개발하여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재의 저학년, 고학년에 배치되어 있던 성취 기준을 학년군 수준을 고려하여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각 단원에 재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성취 기준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였다. 특히, 성취 기준 추가 시에는 국어과의 하위 영역 분배도 함께 고려하였다. 예컨대, 중학년의 경우 기존 교재의 성취 기준에 문학 영역이 빠져 있어서 읽기 성취 기준을 다루고 있는 4단원에 문학 성취 기준인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를 추가하여 읽기와 문학에 관한 교육 내용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성취 기준을 유지할지, 다른 단원들로 이동할지, 삭제할지, 추가할지를 판단하여 재배치하였다.
- 유지, 이동, 삭제, 추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 유지 : 새 교재에서 성취 기준이 학년군 그대로 사용한 경우
 - 이동 : 새 교재에서 성취 기준의 학년군 이동이 일어난 경우
 - 삭제 : 새 교재에서 성취 기준이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
 - 추가 : 새 교재에서 성취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경우
- 수준별 맞춤형 교재 개발을 위해 기존 교재의 성취 기준을 평가하여 재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0> 교재의 성취 기준 평가 및 재구성(저학년용)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교실 기본(저학년용)							
단원명	2012 관련 교육과정		학년군	유지	이동	삭제	추가
1단원 첫째 마당	기존 저학년 1단원	2012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1-2	√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3-4			✓	
	확정	2012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2단원 둘째 마당	기존 저학년 5단원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1-2	✓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1-2			✓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3-4			✓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5-6			✓	
	기존 저학년 6단원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1-2	✓			
		2012 1-2학년군 쓰기 (2)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1-2			✓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3-4			✓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5-6			✓	
	확정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3단원 셋째 마당	기존 저학년 4단원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1-2	✓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3-4			✓	
	확정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4단원 넷째 마당	기존 고학년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1-2			✓	

	5단원	2012 1-2학년군 문학 (6)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한다.	1-2	✓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5-6			✓	
	기존 고학년 6단원	2012 1-2학년군 읽기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1-2	✓			
		2012 3-4학년군 읽기 (1)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3-4			✓	
		2012 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3-4			✓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6)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3-4			✓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7)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쓴다.	5-6			✓	
	확정	2012 1-2학년군 읽기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2012 1-2학년군 문학 (6)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한다.					
5단원 다섯째 마당	기존 저학년 5단원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1-2			✓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1-2	✓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3-4			✓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5-6			✓	
	확정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6단원 여섯째 마당	기존 저학년 6단원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1-2			✓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1-2	✓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	3-4			✓	

		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5-6			√	
	기존 저학년 7단원	2012 1-2학년군 쓰기 (5)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글로 쓴다.	1-2	√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1-2			√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5-6			√	
	확정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2012 1-2학년군 쓰기 (5)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글로 쓴다.					

<표 51> 교재의 성취 기준 평가 및 재구성(중학년용)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속속! 국어교실 기본(중학년용)							
단원명	2012 관련 교육과정		학년군	유지	이동	삭제	추가
1단원 첫째 마당	기존 저학년 1단원	2012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1-2			√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3-4			√	
	확정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2단원 둘째 마당	기존 저학년 8단원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1-2			√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1)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3-4		√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3-4		√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3-4			✓	
	확정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1)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3단원 셋째 마당	기존 고학년 1단원	2012 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3-4			✓	
	확정	2012 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4단원 넷째 마당	기존 고학년 4단원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1-2			✓	
		2012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1-2			✓	
		2012 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3-4		✓		
	기존 고학년 6단원	2012 1-2학년군 읽기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1-2			✓	
		2012 3-4학년군 읽기 (1)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3-4			✓	
		2012 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3-4		✓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6)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3-4			✓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7)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쓴다.	5-6			✓	
	확정	2012 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2012 3-4학년군 문학 (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
5단원	기존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3-4		✓		

다섯째 마당	저학년 3단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2012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6)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3-4		√		
	기존 고학년 3단원	2012 1-2학년군 문법 (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1-2		√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3-4			√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5-6			√	
		2012 5-6학년군 문법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5-6			√	
	확정	2012 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2012 3-4학년군 문법 (6)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2012 1-2학년군 문법 (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6단원 여섯째 마당	기존 저학년 6단원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1-2			√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1-2			√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3-4		√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5-6			√	
	기존 저학년 8단원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1-2			√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1)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3-4			√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3-4			√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	3-4		√		

		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확정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표 52> 교재의 성취 기준 평가 및 재구성(고학년용)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속속! 국어교실 기본(고학년용)							
단원명	2012 관련 교육과정		학년군	유지	이동	삭제	추가
1단원 첫째 마당	기존 고학년 2단원	2012 1-2학년군 문법(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1-2			√	
		2012 1-2학년군 문법(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1-2			√	
		2012 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3-4			√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5-6	√			
	확정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2단원 둘째 마당	기존 고학년 7단원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1-2			√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3-4			√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5-6	√			
	기존 고학년 8단원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3-4			√	
		2012 5-6학년군 듣기·말하기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1)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5-6			√	
	확정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2012 5-6학년군 듣기·말하기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3단원 셋째 마당	기존 저학년 5단원	2012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1-2			√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1-2			√	
		2012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3-4			√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5-6	√			
	기존 저학년 6단원	2012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1-2			√	
		2012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1-2			√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3-4			√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5-6	√			
	기존 저학년 7단원	2012 1-2학년군 쓰기 (5)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글로 쓴다.	1-2			√	
		2012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1-2			√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5-6	√			
	확정	2012 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4단원 넷째 마당	기존 고학년 3단원	2012 1-2학년군 문법 (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1-2			√	
		2012 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3-4			√	
		2012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5-6			√	
		2012 5-6학년군 문법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5-6	√			
	확정	2012 5-6학년군 문법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5단원 다섯째	기존 고학년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	3-4			√	

마당	8단원	을 쓴다.					
		2012 5-6학년군 듣기·말하기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1)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5-6	√			
	확정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2012 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6단원 여섯째 마당	기존 고학년 6단원	2012 1-2학년군 읽기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1-2			√	
		2012 3-4학년군 읽기 (1)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3-4			√	
		2012 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3-4			√	
		2012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3-4			√	
		2012 3-4학년군 문법 (6)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3-4			√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7)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쓴다.	5-6	√			
	기존 고학년 8단원	2012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3-4			√	
		2012 5-6학년군 듣기·말하기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1)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	5-6			√	
		2012 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5-6			√	
	확정	2012 5-6학년군 쓰기 (1)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					
		2012 5-6학년군 쓰기 (7)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쓴다.					

2.2.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1) 핵심 역량 활동 체계

-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인 핵심 역량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인지적(cognitive) 역량뿐 아니라 정서적(affective) 역량, 사회적(social) 역량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역량으로 볼 수 있다.

<표 53> 핵심 역량과 속성

역량	속성
인지적 역량	◦ 국어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의미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복합적인 사고과정을 포함하므로 고차원의 인지적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사회적 역량	◦ 국어의 활용 자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국어교육은 사회성, 리더십, 협업능력 등과 같은 사회적 역량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정서적 역량	◦ 문학작품 감상 등을 통해 상상력의 계발, 건전한 심성 및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의 또는 감성 역량과도 관련을 보인다.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을 국어과 교과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54> 국어과 교과 역량(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74)

국어과 교과 역량	의미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
자료·정보 활용 역량	◦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문화 향유 역량	◦ 국어로 형성·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생산하는 능력
자기 성찰·계발 역량	◦ 삶의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탐색하며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재능과 자질을 계발하고 관리하는 능력

-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재의 성취 기준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각 단위별 성취 기준을 확정한 후, 각 성취 기준과 관련된 핵심 역량과 관련 지어 역량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였다. 단, 정서 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은 단위별로 독립된 활동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정서 역량의 체계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다룬다.
- 단원의 성격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위별로 배정된 성취 기준을 학습 목표로 재진술하고, 국어과 핵심 역량 중 인지적,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과 연결하였다.
- 국어과에서 다루는 역량은 상호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단원이 하나의 역량과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개 이상의 역량이 복수로 관여하는 경우 특히 해당 단원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중핵 역량을 선정하였다. 예컨대, 저학년 2단원의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의사소통 역량 및 대인 관계 역량과 모두 관련된다. 의사소통 역량은 대부분의 국어과 성취 기준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단원의 중핵 역량으로 대인 관계 역량을 선정하였다.
-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단위별 학습 목표와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표 55> 단위별 핵심 역량 배치(저학년)

대단원	대단원명	학습 목표	핵심 역량
1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아요!	1.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이름과 소릿값을 이해한다. 2.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쓸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
2	귀를 쫑긋! 바르게 듣고 써요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대인 관계 역량
3	재미있는 낱말 놀이	1.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다. 2. 낱말 사이의 의미 관계를 국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
4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	1.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 역량
5	문장을 어떻게 쓸까요?	1.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한다. 2.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쓸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
6	나와 내 짝꿍	1.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2.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글로 쓸 수 있다.	대인 관계 역량

<표 56> 단원별 핵심 역량 배치(중학년)

대단원	대단원명	학습 목표	핵심 역량
1	낱말이 참 많아요!	1. 낱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을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1.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할 수 있다. 2.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들을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
3	맞춤법, 어렵지 않아요!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2.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쓸 수 있다. 3.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의사소통 역량
4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1. 글에 담긴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2.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5	아름다운 우리말	1. 다양한 토박이말을 익힌다. 2.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이해한다. 3. 언어 예절에 맞게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화 향유 역량
6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거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	1.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2.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비판적 사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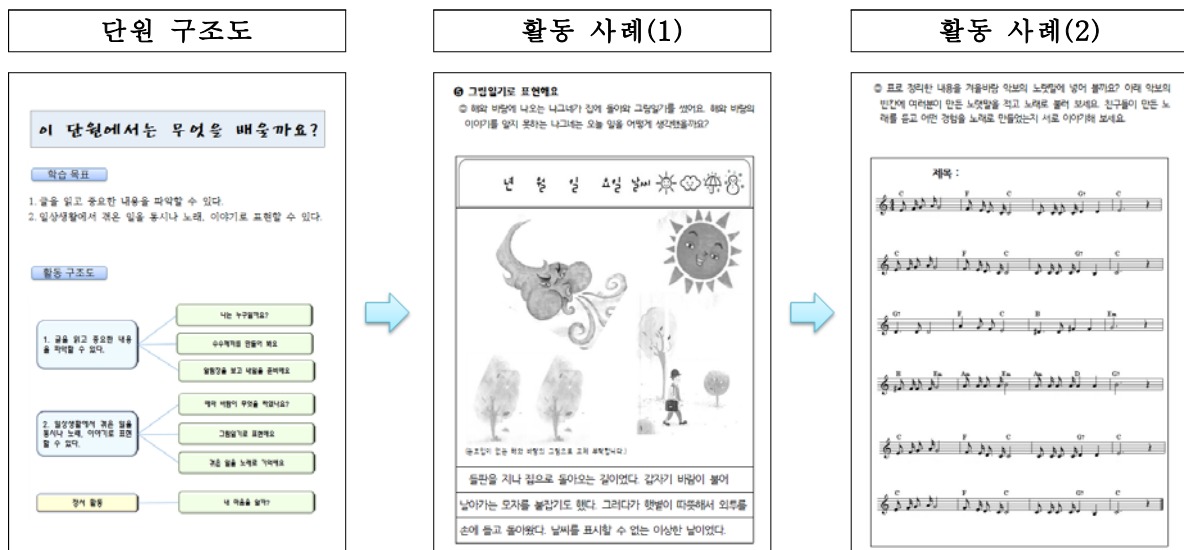
<표 57> 단원별 핵심 역량 배치(고학년)

대단원	대단원명	학습 목표	핵심 역량
1	정확하게 읽고 써요!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
2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	1.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2.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자료·정보 활용 역량
3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1. 관용 표현의 특징을 이해한다. 2. 관용 표현을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문화 향유 역량
4	우리말 나들이	1.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문화 향유 역량
5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써 보아요!	1. 쓰기의 과정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다. 2.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 쓸 수 있다.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6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	1.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2. 목적과 주제에 맞게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역량

- 중학년 6단원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거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에서는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 쓰기와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쓰기를 목표로 한다. 특히, 후자는 주장의 근거를 들어보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쓰기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 두 개 이상 적어 보기’,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알맞은 이유를 찾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기’,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 완성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창의적 사고 역량

[저학년] 4.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



- 저학년 4단원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에서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와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후자는 일상적 경험을 문학적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하기의 경우 동화 속 이야기를 파악해 보는 활동을 시작으로 그림일기로 표현하기, 노래로 표현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창의적 표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고학년] 2.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

단원 구조도

활동 사례(1)

활동 사례(2)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학습 목표

1. 대자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2. 직결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활동 구조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1. 대자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0%;"></div> <div style="width: 55%;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대자화된 뉴스 기사 활용하기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0%;"></div> <div style="width: 55%;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대자화된 뉴스 자료 정보 시제화하기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0%;"></div> <div style="width: 55%;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신문 기사 읽고 요약하는 발표하기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2. 직결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0%;"></div> <div style="width: 55%;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대장급 표현 제작하기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0%;"></div> <div style="width: 55%;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대장급 비교 글쓰기하기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0%;"></div> <div style="width: 55%;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대장급 대제 설명하는 글쓰기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0%;"></div> <div style="width: 55%;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장제, 거제, 시제 모의글쓰기 </div>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평가 활동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display: inline-block;"> 네 설명 가지고 글과 작화하기 </div>

제제를 활용하여 듣고 말하기

※ 여러분은 세상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나요? 우리는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 생각,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해요.

※ 최근에 알게 된 재미있는 소식을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아래 빈칸에 그 과정을 적어 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세요.

(재미있는 세상 뉴스)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1	.
2	.
3	.

자료
<p>★ 주의: 나무, 양화(양, 손, 집), 손, 물리스크, 휴식, 필요로 된물어인 것들은 두번이 들어갑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 • 나무 • 양화(양, 손, 집) • 물 • 종이 • 집 • 물리스크 </div> <p>◎ 사진 속 물건을 하나 골라 설명의 중심이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 10px 0;"> <p>도움말자</p> <p>오늘 익숙 재질 쓰임새</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대상 :</p> <hr/> <hr/> <hr/> <hr/> <hr/> </div>

- 고학년 2단원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에서는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하기와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쓰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전자는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해 보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자료 및 정보 활용 역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하기의 경우 텔레비전 뉴스 기사 말하기를 시작으로 텔레비전 뉴스 정보 듣고 이해하기, 신문 기사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기를 통해 자료 및 정보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대인 관계 역량

[저학년] 2. 귀를 쫑긋! 바르게 듣고 써요

단원 구조도

활동 사례(1)

활동 사례(2)

이 달원에서든 무엇을 배울까요?

학습 목표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활동 구조도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말 content, 행동 파악하기

나의 의견 표현하기

질문과 대답 표현하기

문장구분, 예외, 필요 표현

질문과 대답을 근거로

자신 표현 확고히 표현

그림을 본장으로 표현하기

보통문, 관용구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주제를 본으로 파악하기

목적의제대로 표현하기

질문, 묻기, 대답하기

나익 표현, 관용구 표현하기

관용구 표현하기

자신 표현을 근거로

질문하기, 대답하기

장기 활동

장기 활동

바르게 듣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기

바르게 듣는 자세란 어떤 걸까요?

먼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말의 시작과 끝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관심을 가지고 '큰 방금들'을 해야만 한 것입니다.

특히 말 시작과 이야기 끝까지 알아야 해요.

연극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부담없이 미소를 띠면서 들으려는 사람의 기분이 더 좋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머, 참말이야, 어머' 등의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해요.

또 친구가 말하는 것은 '기대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하면서 듣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듣기 자세를 기르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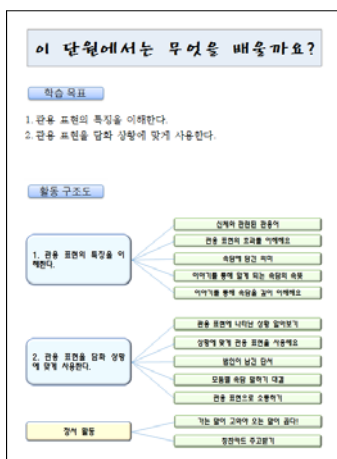
◆ 친구를 찾아라!	
<p>◎ 친구는 주로 일 이외의 시간과 두 개가 적었던 일을 자유롭게 보내요.</p> <p>친구들에게서 이해와 같은 경험을 할수록 좋아하고 친구 이름 2개 이상을 적으세요.</p> <p>한 친구의 이름을 적는 세 번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p> <p>가장 먼저 친구 이름을 적어 보세요.</p>	
전은 일	친구 이름
선생님을 칭찬한 일이 한 적어 있다.	
친구들 친구가 편지를 가져다 미사를 가서 덕후 술집인 적이 있다.	
우리는 공을 문 적이 있다.	
온갖 장소를 책 읽다.	
발레 생 적이 있다.	
친구들 친구가 씨앗과 화해한 문 적이 있다.	
부모님이 하지 않기로 했을 후에 일행 휴식한 적이 있다.	
강아에 걸린 적이 있다.	
행복(또는 자비) 체험한 사난 휴식한 적이 있다.	
논리력을 만들거나 논리력을 책 한 적이 있다.	
내가 겪은 일:	
내가 겪은 일:	

- 저학년 2단원 ‘귀를 쫓긋! 바르게 듣고 써요’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 확인하기,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대인 관계 역량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단원의 경우 의사소통 역량과도 관련되지만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구안된 다른 단원과 비교해 볼 때 특히 대인 관계 역량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정하였다.
-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 확인하기의 경우 잘 듣고 동물을 색칠해 보는 활동을 시작으로 나의 머릿속 표현하기, 친구의 머릿속 완성하기, 친구의 설명대로 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대인 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 향유 역량

[고학년] 3.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단원 구조도



활동 사례(1)

관용 표현을 적절히 활용

다음 그림에서 “관용어”와 “관용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관용어란 무엇일까요?
관용어를 알맞은 상황에 맞게 사용해보세요.

관용어란 무엇일까요?
관용어를 알맞은 상황에 맞게 사용해보세요.

활동 사례(2)

관용 표현으로 소통하기

다음 그림에서 관용 표현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여 이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어떤 뜻일까요?
관용 표현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은?

하리가 왔다 어떤 뜻일까요?
관용 표현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은?

속담 속에는 요령있는 말 사용법이 있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래 표에 있는 속담들을 보고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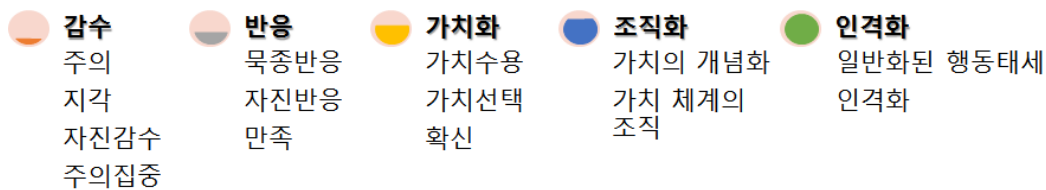
속담	친구에게 설명하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눈 밑에 기름 칠하고 고쳐준다	
눈 밑에 기름 칠하고 고쳐준다	
눈 밑에 기름 칠하고 고쳐준다	
눈 밑에 기름 칠하고 고쳐준다	
눈 밑에 기름 칠하고 고쳐준다	

- 고학년 3단원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에서는 관용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와 관용 표현을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하기를 목표로 삼아 문화 향유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관용 표현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국어를 통해 이어져 온 문화를 향유하는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다.
- 관용 표현의 이해와 사용은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를 이해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속담의 의미 파악, 이야기를 통한 속담 이해, 상황에 맞게 관용 표현 사용하기, 모둠별 속담 말하기 대결 등의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에서 관용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향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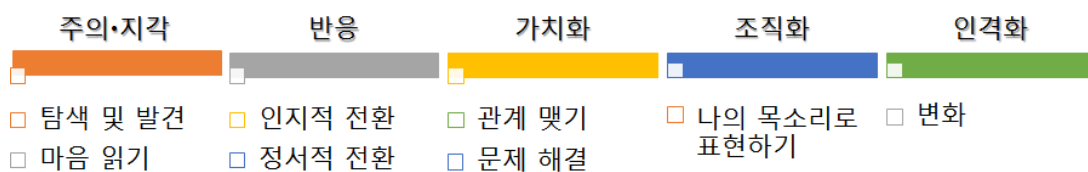
2.3. 초등 맞춤형 정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1) 초등 학년군 수준별 정서 역량 강화 활동 체계

-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학년군, 중학년군, 고학년군'의 세 개 학년군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학년별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낱말, 문장, 단락 단위에서 문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으로 구현, 개발되었다.
- 이는 학년군 수준별 국어에 대한 이해, 국어 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학업 능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함께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재>는 초등학생의 언어적, 인지적 측면 이외에 정서적 측면에서 학습자 발달을 고려한 정서 역량 강화 활동을 구안, 개발하였다.
- 학년군 수준별 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은 다음의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우선적으로 교육목표 분류학적 관점(Krathwol·Bloom·Masia, 1964)을 고려하여 정서 역량의 틀을 제안하였다.



- 정의적 측면에서 감수 - 반응 - 가치화 - 조직화 - 인격화의 틀에 따라 본 교재에서는 정서 역량을 주의 및 지각 - 반응 - 가치화 - 조직화 - 인격화의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별로 다음과 같은 정서 활동 목표를 제안하였다.



2) 학년군 수준별 정서 역량 관계

○ 학년군 수준별 정서 역량 제고를 위한 학습 목표와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저학년군 단원별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

- 저학년군 정서 역량 목표는 [주의/지각] 범주의 ‘발견’과 [반응] 범주의 ‘정서적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인격화] 범주의 ‘변화’에 있다.
- 이는 단원별로 발견(협력하기) ➡ 마음 읽기(울타리 밖으로 나오기/나의 감정 들여다보기/친구 말에 귀 기울이기) ➡ 관계 맺기(친구와 나 발견하기/입장 바꾸기/협력하기) ➡ 정서적 전환(동일시하기), 발견(입장 바꾸기) ➡ 정서적 전환(긍정적 감정 체험하기) ➡ 정서적 전환(동일시하기), 문제 해결(화해하기)로 구성된다.

<표 58> 단원별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저학년)

대단원	대단원명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	
1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아요!	[발견]	•협력하기
2	귀를 쫑긋! 바르게 듣고 써요	[마음 읽기]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기
3	재미있는 낱말 놀이	[관계 맺기]	•친구와 나 발견하기 •입장 바꾸기 •협력하기
4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	[정서적 전환] [발견]	•동일시하기 •입장 바꾸기
5	문장을 어떻게 쓸까요?	[정서적 전환]	•긍정적 감정 체험하기
6	나와 내 짝꿍	[정서적 전환] [문제 해결]	•동일시하기 •화해하기

[정서 영역 분석 사례 1- 넷째 마당 ‘내 마음을 알까?']

♥ 정서 활동

⑦ 내 마음을 알까?

◎ 지난 시간에 공부한 해와 바람 이야기에서 나그네는 해와 바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또 갑자기 내리쬐는 햇빛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변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비슷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민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래 그림을 살펴보세요.



[출처] 주인공이 겪는 정서적 변화의 원인과 원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 『엄마가 정말 좋아요.』, 길벗어린이, 2015.]

◎ 민수는 늦잠을 잤을 때 엄마가 다정한 말로 깨안아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엄마의 속마음을 어떡할까요? 아래 생각 풍선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엄마의 속마음을 써 보세요.



민수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민수가 말해 주길 기다리는 민수의 마음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도 민수처럼 평소에 서운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지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도록 해요.

- 4단원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에서는 [주의 지각] 범주와 관련하여 발견 그리고 [반응] 범주의 정서적 전환에 정서 역량의 목표를 두고 ‘이야기를 읽고 이와 관련한 일상생활 상황에 적용하기’ 과제를 통해 문학 텍스트 읽기 후 나의 이야기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 활동은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인 1-2학년군 읽기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와 1-2학년군 문학 ‘(6)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한다.’를 고려하여 읽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쓰기 활동과 연관시켜 구성되어 있다.

② 중학년군 단원별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

- 중학년군 정서 역량 목표는 [주의/지각] 범주의 ‘마음 읽기’와 [가치화] 범주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인격화] 범주의 ‘변화’에 있다.
- 이는 단원별로 마음 읽기(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인지적 전환(새롭게 느끼기) ➡ 문제 해결(트라우마, 오해 풀기, 화해하기) ➡ 마음 읽기(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 문제 해결(트라우마, 오해 풀기, 화해하기) ➡ 나의 목소리(솔직하게 표현하기) ➡ 발견(입장 바꾸기)으로 구성된다.

<표 59> 단원별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중학년)


대단원	대단원명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	
1	날말이 참 많아요!	[마음 읽기] [인지적 전환]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새롭게 느끼기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문제 해결]	•트라우마 •오해 풀기 •화해하기
3	맞춤법, 어렵지 않아요!	[마음 읽기]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4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문제 해결]	•트라우마 •오해 풀기 •화해하기
5	아름다운 우리말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기]	•솔직하게 표현하기
6	알맞은 날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	[발견]	•입장 바꾸기

[정서 영역 분석 사례 2 - 둘째 마당 ‘사과는 어떻게 할까요?']

♥ 정서 활동

㉔ 사과는 어떻게 할까요?

◎ 친구에게 실수한 일이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어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 친구에게 사과해야 할 일을 했거나 사과한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 봅시다.

◎ 친구가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면 나는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1. 사과할 대상 정하기

사소한 장난 실수 잘못일지라도 친구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과했다면도 잘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의 편지를 건네 주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세요.

2. 자신의 잘못 이야기하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상처받은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3. 사과하고 반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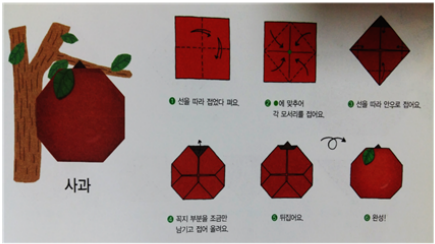
미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반성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4. 다짐하기

사과가 끝난 후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다짐을 합니다.

㉕ 사과의 편지 전달하기

◎ 친구에게 전달할 사과 편지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색종이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사과'를 완성해 보세요.



◎ 순서대로 잘 완성했나요?
그럼 사과의 앞면에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은 일과 사과의 말을 적어 보세요.
사과하는 말을 할 때에는 앞에서 배운 사과하는 방법을 떠올려 진심을 담아 써 봅시다.

◎ 다 썼으면 친구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며 사과를 전달해 보세요.

◎ 그 외에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도 죄송한 일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 2단원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에서는 [가치화] 범주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에 정서 역량의 목표를 두고 ‘사과하기’ 과제를 통해 트라우마, 오해 풀기, 화해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 활동은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인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와 3-4학년군 듣기·말하기 ‘(1)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를 고려하여 원인-결과를 생각하면서 듣기, 말하기 활동과 연관시켜 구성되어 있다.

③ 고학년군 단원별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

- 고학년군 정서 역량 목표는 [조직화] 범주의 ‘표현하기’를 중심으로 한 [인격화] 범주의 ‘변화’에 있다.
- 이는 단원별로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기(용기 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기(솔직하게 표현하기, 용기 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 정서적 전환(긍정적 감정 체험하기) ➡ 인지적 전환(회상하기, 새롭게 느끼기, 생각 변화, 확장하기) ➡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기(솔직하게 표현하기, 용기 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로 구성된다.

<표 60> 단원별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고학년)

대단원	대단원명	정서 역량 목표 및 활동	
1	정확하게 읽고 써요!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기 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솔직하게 표현하기 •용기 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3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정서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긍정적 감정 체험하기
4	우리말 나들이	[인지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 변화, 확장하기
5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써 보아요.	[인지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상하기 •새롭게 느끼기 •생각 변화, 확장하기
6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솔직하게 표현하기 •용기 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정서 영역 분석 사례 3 - 여섯째 마당 ‘쑹쑹 용기를 높여요.’]

◎ 쑹쑹! 용기를 높여요!

쑹쑹!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FM 라디오 용기를 높여요!

◎ 평소 용기가 부족해서 속상했던 일이나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익명으로 얘기해 봅시다. 아래의 사연 카드에 사연을 써 보세요. 다 썼으면 요러서
내용이 보이지 않게 잘 접은 후에 오늘의 라디오 DJ인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사연 예시>
저는 6학년이에요. 전 놀이방이가 두려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놀이방이를 하네요. 아..
정말 재밌어서 자신이 없는 저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실고 힘이 듭니다. 일단 뭐다가 다
칠까 봐 하기가 싫어요. 무엇보다 친구들이 잘 못한다고 놀릴까 봐 걱정도 되고요. 전 어떻
게 해야 할까요?

*** ‘용기를 높여요!’ 에서 ‘용기’ 와 관련된 사연을 모집합니다.**


■ 신청자 닉네임:
■ 사연 및 신청 이유

◎ 친구들의 사연을 잘 듣고 사연 중 두 개를 골라 친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근거를 들어 써 보세요. ‘한마디’ 쪽지도 잘 요러서 선생님께 전달하면 선생님께서 읽어
주실 거예요


사연을 듣고 한마디 보냅니다.	사연을 듣고 한마디 보냅니다.
닉네임: ()	닉네임: ()

◎ 아래의 두 가지 책갈피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자른 후 반으로 접어 플로 붙이세요.
마음에 드는 명언을 적고 꾸며 보세요. 용기 있는 내가 되기 위한 다짐을 적어도 좋습
니다. 책갈피 외쪽에 구멍을 뚫어 리본을 묶어 완성해 보세요. 다 만들었으면 친구들과
돌려 보고 책을 읽을 때 사용해 봅시다.

○



○



- 6단원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에서는 [조직화] 범주와 관련하여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기
에 정서 역량의 목표를 두고 ‘용기를 내어 고민되는 사연 쓰기’ 과제를 통해 솔직하고 자유
롭게 표현하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 활동은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인 5-6학년
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와 5-6학년군 쓰기 ‘(2) 목적
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를 고려하여 이유-근거를 생각하면서 쓰기
활동과 연관시켜 구성되어 있다.

Ⅲ.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의 실제

1. 학년군별 교재 단위 구성 및 체제

1.1. 학년군별 교재 단위 구성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재는 학년군별로 개발되었다. 1, 2학년을 저학년군으로, 3, 4학년을 중학년군으로, 5, 6학년을 고학년군으로 구분하고 총 3권에 걸쳐 구성하였다. 학년군별 교재는 권별로 15차시로 수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각 6단원 체제로 구성하였다.

단원마다 듣기·말하기 영역, 쓰기 영역, 문학 영역, 문법 영역을 고루 분배하되, 정서활동 및 쓰기 과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학년군별 교재의 대단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61> 학년군별 교재 대단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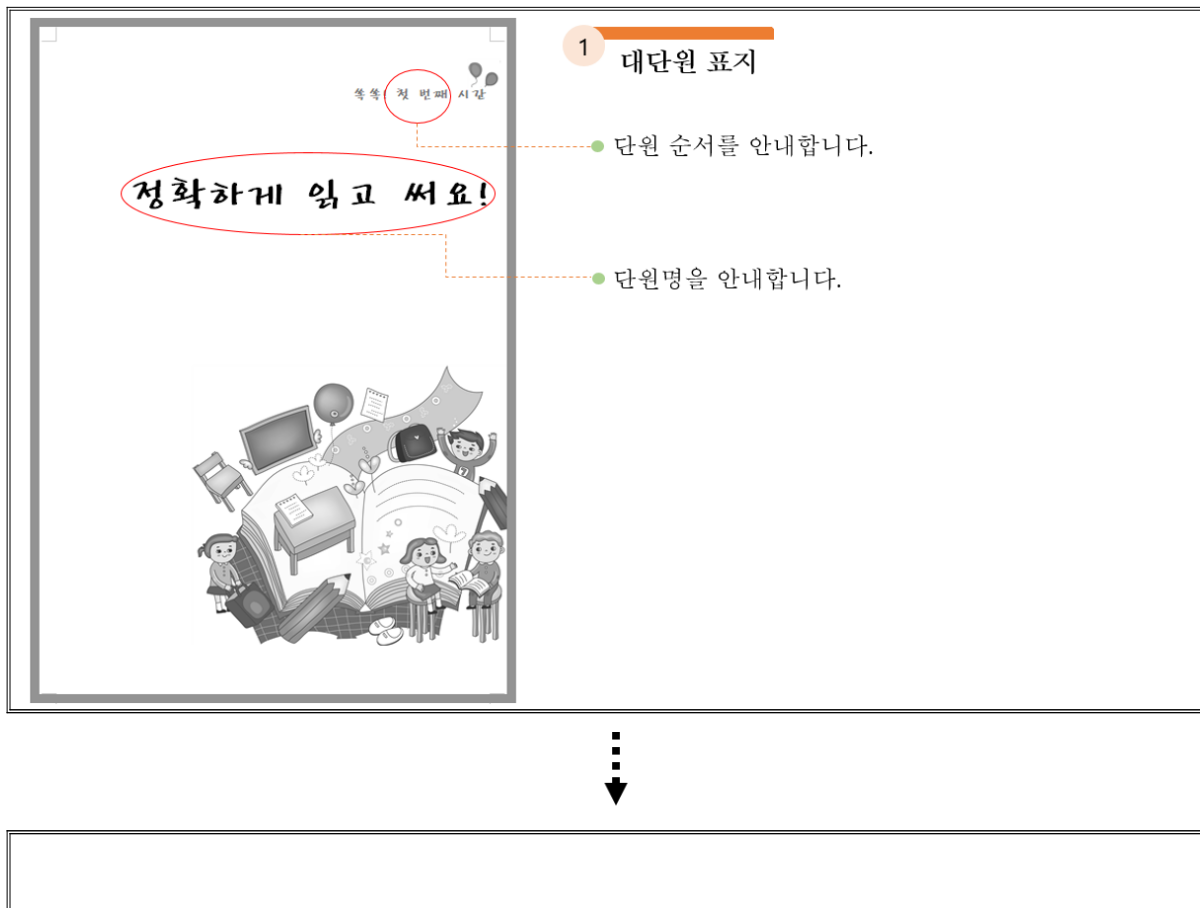
학년군	대단원	관련 영역	대단원명	집필자
저학년	1	문법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지영
	2	듣기·말하기/쓰기	귀를 좋긔! 바르게 듣고 써요	최선희
	3	문법	재미있는 낱말 놀이	오지혜
	4	읽기/문학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	진가연
	5	문법	문장을 어떻게 쓸까요?	조진수
	6	문법	나와 내 짝꿍	김자영
중학년	1	문법	낱말이 참 많아요!	김자영
	2	듣기·말하기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최선희
	3	문법/쓰기	맞춤법, 어렵지 않아요!	소지영
	4	읽기/문학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진가연
	5	문법	아름다운 우리말	조진수
	6	쓰기	알맞은 낱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	오현아
고학년	1	문법	정확하게 읽고 써요!	소지영
	2	듣기·말하기/쓰기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	오지혜
	3	문법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진가연
	4	문법	우리말 나들이	김자영
	5	쓰기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써 보아요!	오현아
	6	쓰기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	최선희

1.2. 학년군별 대단원 구성 체제

학년군별 대단원 구성 체제는 크게 ① 대단원 표지-② 단원 살펴보기-③ 활동 열기-④ 활동의 실제(1)-④ 활동의 실제(2)-⑤ 정서 활동의 5단계로 구성된다. 대단원 학습목표에 따라 4단계인 활동의 실제는 대단원별로 활동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단계인 정서 활동은 대단원 말미에 학습 목표와 연계된 활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대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원 구성 체제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학습 목표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활동 구조도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발음과 표기가 다른 단어를 정확하게 써 보아요.

띄어쓰기는 꼭 해야 하나요?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서 활동

자신 있게 나를 표현해요!

2 단원 살펴보기

단원 구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 단원의 학습 목표를 안내합니다.

학습 목표에 따른 활동명을 구조도로 제시하여 학습의 전반적인 흐름을 안내합니다.

초등학생의 정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습 목표와 연계되는 정서 활동을 배치하였습니다.



1 발음과 표기가 다른 단어를 정확하게 써 보아요.

- 책을 읽을 때 어려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헷갈렸던 적 없나요?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것이 맞춤법에 맞게 잘 쓰는 것인지 어려웠던 적은요? 이 단원에서는 발음과 표기가 달라 평소 자주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 배워 볼 거예요.

- 1) 아래에 제시된 단어들은 소리 나는 대로 쓰인 것들이에요. 교재 뒤쪽 부록에서 스티커를 떼어 맞게 쓴 것을 각 단어 위에 덧붙여 붙시다.

놀이터

1.

노 리 터

6.

파 라 케

2.

숙 켜

7.

올 려 림

3.

결 쟁

8.

웃 께 림

4.

한 제

9.

추 카

5.

깁 님

10.

살문 달걀

3 활동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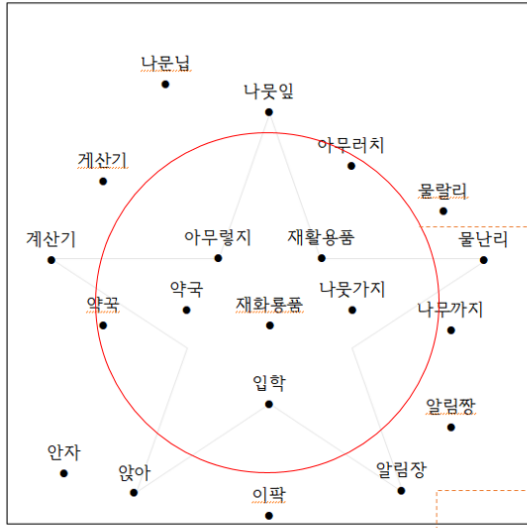
- 활동명을 안내합니다.

- 단원의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합니다.

- 간단한 활동 혹은 사진이나 삽화 등을 활용하여 학습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고 배경지식을 활성화 합니다.



- 이번에는 맞춤법에 맞게 쓰인 단어들끼리 선으로 모두 연결해 보세요.
맞게 쓰인 단어들에 먼저 ○표를 해 두면 연결하기가 훨씬 쉬워요.
(찾아야 하는 단어는 총 10개입니다.)



내가 완성한 그림을 친구의 것과 비교해 보고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왜 틀렸는지 생각해 보고 바르게 고쳐 봅시다.

4 활동의 실제(1)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기, 노래 부르기, 놀이하기 등 경험 위주의 활동들로 구안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을 돕기 위한 안내 사항 혹은 친구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띄어쓰기란 혼자 쓸 수 있는 말 사이를 띄어 쓰는 것을 뜻해요.



위 문장에서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는 각각 혼자 쓸 수 있는 말이므로 띄어 써요.

- 그럼 '은/는', '이/가', '을/를', '에', '의', '와/과'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들은 혼자서는 무슨 뜻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친구에게 준비물을 빌려줬어요.

위 문장에서 '는'이나 '을', '에게' 등은 그것만으로 의미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 '가족', '친구', '준비물'과 같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해요.

- *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는 말은 서로 띄어 쓰고, 혼자 쓸 수 없는 말은 앞말에 붙여 쓴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띄어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 활동의 실제(2)

단원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꼭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식 혹은 원리를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4 [정서 활동] 자신 있게 나를 표현해요!

- 이 단원에서 배운 맞춤법과 띄어쓰기 지식을 활용해서 아래의 원고지에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들을 여러 개 써 보세요. '틀리면 어떡하지?', '잘 못 쓸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깐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 1) 나에 대해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 도움 상자에 제시된 질문들을 참고해서 그에 대한 답을 써 봐도 좋고, 2~3명이 모둠을 만들어 서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 도움 상자 >

- | | |
|---------------------------|------------------------|
| -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 - 요즘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
| - 나의 꿈은 무엇인가요? | -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 나는 어떨 때 기분이 좋을까요? | - 내가 자주 듣는 말은 무엇인가요? |
| - 장기자랑을 한다면 무엇을 보여 줄 건가요? | -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

- 2) 나의 어떤 점들을 글로 표현하고 싶은지 주제어를 써 보세요. 표현하고 싶은 것이 많다면 주제어를 여러 개 써 보아도 좋아요.

< 주제어 >

나의 꿈: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5

정서 활동

정서 역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단원마다 학습 목표와 연계된 정서 활동을 배치하였습니다.

- 종이접기, 책갈피, 명화, 라디오 사연, 칭찬 카드, 인생 그래프 등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학년군별 수준에 적합한 정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원 부록>

1-1) 단어 스티커

- | | |
|--------|----------|
| 1. 놀이터 | 6. 파랑게 |
| 2. 숙제 | 7. 올여름 |
| 3. 결정 | 8. 웃고름 |
| 4. 한계 | 9. 축하 |
| 5. 깃앞 | 10. 삶은달걀 |

3-1) 단어 카드 (가나다 순)

- | | | | | | | | |
|----|---|----|-------|----|-----|----|------|
| 1. | 가 | 숙제 | 어려워요. | 학교 | | | |
| 2. | 를 | 숙제 | 에 | 와 | 일요일 | 친구 | 했어요. |

5

단원 부록

스티커, 낱말 카드 등 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단원 마지막에 부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학년군별 대단원 성취 기준과 기존 교재 성취 기준과의 관계

대단원별 내용은 기존 교재의 구성을 참고하되, 201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교재를 대상으로 단위별 관련 성취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성취 기준의 내용이 여러 단원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하나의 단위 내에 여러 영역의 성취 기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저학년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 고학년에서도 다루어지거나, 고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저학년에서 다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학년군별 교재 구성 시, 단위별로 관련 성취 기준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였고, 학습자의 수준과 성취 기준의 난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학년군별 대단원 성취 기준과 기존 교재의 관련 단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 성취 기준별 기존 교재의 관련 단위

학년군	대단원	관련 성취 기준	기존 교재의 관련 단위
저학년	1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아요!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교재(저학년용) 1단원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쓱쓱! 낱말 놀이(1) 기존 교재(고학년용) 2단원 바르게 쓰기(1)
	2 귀를 좋게! 바르게 듣고 써요	<p>[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p> <p>[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교재(저학년용) 5단원 쓱쓱! 낱말로 문장 만들기 기존 교재(저학년용) 6단원 쓱쓱! 자세히 보기 기존 교재(저학년용) 8단원 쓱쓱! 왜 그럴까요? 기존 교재(고학년용) 4단원 글쓰기 기초 다지기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4단원 쓱쓱! 내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5단원 쓱쓱! 재미있는 우리 학교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6단원 쓱쓱! 함께 쓰는 공간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1단원 쓱쓱! 남남 맛있는 음식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2단원 쓱쓱! 오늘 나의 기분은?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4단원 쓱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5단원 쓱쓱! 컴퓨터와 우리 생활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7단원 쓱쓱! 역사는 흐른다!

	3	재미있는 낱말 놀이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 기존 교재(저학년용) 4단원 쑥쑥! 즐거운 낱말 놀이(4)
	4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	[1-2학년군] 읽기 (6) 글을 읽고 중요한 내 용을 확인한다. [1-2학년군] 문학 (6)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 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한다.	• 기존 교재(고학년용) 6단원 설명하는 글쓰기
	5	문장을 어떻게 쓸까요?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 르게 쓴다.	• 기존 교재(저학년용) 5단원 쑥쑥! 낱말로 문장 만들기 • 기존 교재(저학년용) 7단원 쑥쑥!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 기존 교재(고학년용) 2단원 바르게 쓰기(1)
	6	나와 내 작품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 게 짧은 글을 쓴다. [1-2학년군] 쓰기 (5)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글로 쓴다.	• 기존 교재(저학년용) 6단원 쑥쑥! 자세히 보기 • 기존 교재(저학년용) 7단원 쑥쑥!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 기존 교재(고학년용) 5단원 열린 생각을 이용한 글쓰기 • 기존 교재(고학년용) 7단원 상상하기와 글쓰기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1단원 쑥쑥! 싱싱한 과일가게
중학년	1	낱말이 참 많아요!	[3-4학년군] 문법 (4) 낱말들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 아본다.	• 기존 교재(저학년용) 1단원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쑥쑥! 낱말 놀이(1) • 기존 교재(저학년용) 2단원 쑥쑥! 즐거운 낱말 놀이(2) • 기존 교재(저학년용) 3단원 쑥쑥! 즐거운 낱말 놀이(3) • 기존 교재(저학년용) 4단원 쑥쑥! 즐거운 낱말 놀이(4) • 기존 교재(고학년용) 1단원 국어사전 살펴보기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3-4학년군] 듣기·말하기 (1)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 기존 교재(저학년용) 8단원 쑥쑥! 왜 그럴까요?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6단원 쑥쑥! 나만의 위인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3	맞춤법, 어렵지 않아요!	<p>[3-4학년군]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p> <p>[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저학년용) 1단원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쪽쪽! 낱말 놀이(1) • 기존 교재(고학년용) 1단원 국어사전 살펴보기 • 기존 교재(고학년용) 2단원 바르게 쓰기(1)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2단원 쪽쪽! 소중한 우리의 몸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4단원 쪽쪽! 내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5단원 쪽쪽! 재미있는 우리 학교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6단원 쪽쪽! 함께 쓰는 공간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5단원 쪽쪽! 컴퓨터와 우리 생활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7단원 쪽쪽! 역사는 흐른다!
4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p>[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p> <p>[3-4학년군] 문학 (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고학년용) 4단원 글쓰기 기초 다지기 • 기존 교재(고학년용) 6단원 설명하는 글쓰기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6단원 쪽쪽! 함께 쓰는 공간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3단원 쪽쪽! 정정당당, 스포츠

고학년	5	아름다운 우리말	<p>[1-2학년군] 문법 (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을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p> <p>[3-4학년군] 문법 (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p> <p>[3-4학년군] 문법 (6)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저학년용) 1단원 재미있는 국어사전과 쪽쪽! 낱말 놀이(1) • 기존 교재(저학년용) 3단원 쪽쪽! 즐거운 낱말 놀이(3) • 기존 교재(저학년용) 4단원 쪽쪽! 즐거운 낱말 놀이(4) • 기존 교재(고학년용) 3단원 바르게 쓰기(2)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1단원 쪽쪽! 싱싱한 과일가게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2단원 쪽쪽! 소중한 우리의 몸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6단원 쪽쪽! 함께 쓰는 공간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8단원 쪽쪽!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나라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6단원 쪽쪽! 나만의 위인
	6	알맞은 낱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	<p>[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p> <p>[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저학년용) 6단원 쪽쪽! 자세히 보기 • 기존 교재(저학년용) 8단원 쪽쪽! 왜 그럴까요? • 기존 교재(고학년용) 7단원 상상하기와 글쓰기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1단원 쪽쪽! 싱싱한 과일가게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3단원 쪽쪽! 신나는 놀이 안전한 놀이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4단원 쪽쪽! 내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5단원 쪽쪽! 재미있는 우리 학교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3단원 쪽쪽! 정정당당, 스포츠
	1	정확하게 읽고 써요!	<p>[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2단원 쪽쪽! 소중한 우리의 몸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4단원 쪽쪽! 내가 사는 집, 함께 사는 집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6단원 쪽쪽! 함께 쓰는 공간

2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	<p>[5-6학년군] 듣기·말하기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p> <p>[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저학년용) 6단원 쑥쑥! 자세히 보기 • 기존 교재(고학년용) 7단원 상상하기와 글쓰기 • 기존 교재(고학년용) 8단원 내 의견 글로 쓰기 • 기존 심화 교재(저학년용) 5단원 쑥쑥! 재미있는 우리 학교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3단원 쑥쑥! 정정당당, 스포츠
3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p>[5-6학년군] 문법 (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저학년용) 5단원 쑥쑥! 낱말로 문장 만들기 • 기존 교재(저학년용) 7단원 쑥쑥!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8단원 쑥쑥! 돌고 도는 경제
4	우리말 나들이	<p>[5-6학년군] 문법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고학년용) 3단원 바르게 쓰기(2)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5단원 쑥쑥! 컴퓨터와 우리 생활
5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써 보아요!	<p>[5-6학년군] 쓰기 (1)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p> <p>[5-6학년군] 쓰기 (7)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고학년용) 6단원 설명하는 글쓰기 • 기존 교재(고학년용) 8단원 내 의견 글로 쓰기
6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	<p>[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p> <p>[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재(고학년용) 5단원 열린 생각을 이용한 글쓰기 • 기존 교재(고학년용) 6단원 설명하는 글쓰기 • 기존 교재(고학년용) 8단원 내 의견 글로 쓰기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2단원 쑥쑥! 오늘 나의 기분은?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4단원 쑥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존 심화 교재(고학년용) 8단원 쑥쑥! 돌고 도는 경제

3. 학년군별 교재 개발의 실제

학년군별 교재는 1차 개발 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영역별 담당자를 구분하고, 단원별로 집필하였다. 1차 교재를 대상으로 내부 연구진들 간의 교차 검토를 실시하고, 센터 강의 경험에 있는 강사와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진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2차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내부 연구진 및 외부 자문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2차 교재를 대상으로 내부 연구진들 간의 영역별 교차 검토 및 공동 연구원의 종합 검토를 실시하였다. 3차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영역별 교차 검토 및 공동 연구원의 종합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학년군별 교재 개발 과정을 개발 단계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1. 저학년군

▶ 1차 개발

대단원		관련 활동	활동 구성의 주안점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아 요!	1. 한글 자모음의 소리값 익히기 → 각 자모음이 들어간 낱말 쓰고 소리 내어 읽기	- 한글 낱자의 이름과 소리값을 연결지어 익힐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자모가 들어간 단어를 직접 소리 내어 읽어 보게 함으로써 낱자의 발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한글 자모음을 합쳐 다양한 소리 표현하기	- 다양한 소리값을 갖는 한글의 자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음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3. 한글 자모음을 합쳐 만들고 싶은 단어 만들고 소리 내어 읽기	- 한글 자모음이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 체계에 따라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됨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한글 자모음과 닮은 모양 찾아보기	- 주변에서 한글 낱자와 닮은 것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한글 낱자의 형태에 집중하여 그 모양을 새롭게 인식해 보도록 하였다.
		5. 몸으로 한글 낱자의 모양 표현하기	- 학습자가 직접 몸을 움직여 한글 낱자를 표현해 보게 함으로써 한글 낱자의 형태에 보다 집중하게 할 수 있고, 신체 활동을 통해 교사-학습자 간, 학습자-학습자 간 유대감과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6. 낱말에서 자모음 분리하기 → 국어사전 찾기	- 자모음을 합쳐 낱말을 만든 것과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낱말에서 자모음을 분리해 봄으로써 자모음 결합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이를 국어사전 찾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귀를 쫓긋! 바르게 듣고 써요	1. 잘 듣고 동물 색칠하기 2. 나의 머릿속 표현하기 3. 친구의 머릿속 완성하기 4.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상 5. 친구의 설명대로 그리기 12. 자신있게 말하고 듣기	- 듣기와 관련하여 단순히 듣고 쓰는 활동이 아닌 듣고 색칠하기, 듣고 그리기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함. - 선생님 대 학생 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의 활동도 포함하여 보다 풍부한 활동 구성이 되도록 함. - 1-2학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듣기 활동을 통해 집중하여 들을 수밖에 없

			<p>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p>
		<p>6. 그림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7. 낱말로 문장 만들기 8. 그림 주사위를 굴러 보아요 9. 또박또박 바르게 써요 10. 친구를 찾아라 11. 이런 일이 있었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림, 사진 등의 재미 있는 삽화를 활용하여 문장 쓰기에 대해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구성함. - ‘문장 빨리 만들기, 그림 주사위 놀이, 친구를 찾아라’ 등의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겪은 일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활동은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짧은 글을 발표하고 들을 때 앞에서 배운 듣기 자세를 복습하며 들을 수 있게끔 연계함.
		<p>13. 나의 모든 감정은 소중한! 14. 감정 만화 그리기 15. 어떤 표정일까요? 16. 친구에게 남기는 기분 좋은 한마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 기본적인 종류들과 나의 감정의 소중함, 더 나아가 친구의 감정을 배려해야 함을 알도록 구성함. - 1-2학년의 수준에 적합하면서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활용하여 활동을 구안함. -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친구가 나의 발표를 잘 들을 때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함.
3	나를 소개합니다.	<p>㉠ 우리 가족은 ㉡ 가족 나무 그리기 - 얼굴 그리기 - 호칭 어휘 쓰기 ㉢ 가족에게 카드 쓰기 - 호칭 어휘 쓰기</p>	<p>1. “가족 호칭을 알고, 가족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를 교육목표로 하여, 가족 호칭과 의미의 상하관계를 익히도록 어휘를 제시하였다.</p> <p>2. 학습한 가족 호칭을 활용하도록 가족 나무, 카드 쓰기를 유도하였다.</p>
		<p>㉣ 내 친구는 [취미] ㉤ 좋아하는 취미 관련 어휘 고르기 ㉥ 취미 관련 명사와 언어적 관계에 있는 동사 쓰기 ㉦ 내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휘 활용하여 메모하기 쓰기 [별명] ㉧ 별명 관련 어휘 익히고 쓰기 ㉨ 접미사 ‘-쟁이’, ‘-보’ 익히고 활용하기 ㉩ 나, 친구 소개하는 포스터 만들기</p>	<p>1. 취미 관련 어휘를 익히도록 기본적이면서도 다양한 어휘를 제시하였다.</p> <p>2. 취미 관련 명사 + 동사 간 언어 관계를 익히도록 관련 있는 어휘를 연결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p> <p>3. 통합적, 유의미적 활동으로서 학습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메모하도록 쓰기 활동을 구성하였다.</p>
		<p>㉪ 내 꿈은 ㉫ 직업 관련 어휘 익히기 ㉬ 의미 범주별로 어휘 구분하기</p>	<p>1. 직업명을 익히고 다양한 직업을 범주화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p> <p>2. 통합적, 유의미적 활동으로서 학습자 자신이 흥미를 갖는 직업에 대해 쓰도록 하였다.</p>

㉔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명 쓰기	
④ 내가 아끼는 물건 ㉕ 시각 형용사의 유의어 간 의미 차이 익히기 ㉖ 색채 형용사의 유의어 간 의미 차이 익히기 ㉗ 촉각 형용사의 유의어 간 의미 차이 익히기 쓰기 ㉘ 자신이 아끼는 물건 3가지에 대해 성상형용사를 활용하여 묘사하기 ㉙ 국어사전에서 찾기 - 유의어	1. 시각, 촉각, 미각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용사를 익히고, 유의어 간 어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통합적, 유의미적 활동으로서 학습자 자신이 아끼는 물건 3가지에 대해 묘사하는 쓰기 활동을 구안하였다. 3. 국어사전에서 2개의 유의어를 찾고,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⑤ 나는 자연을 사랑해요. [자연 일반] ㉕ 자연 관련 어휘 익히기 ㉖ 의미 범주별로 어휘 구분하기 [동물] ㉗ 동물 관련 어휘 익히기 ㉘ 의미 범주별로 어휘 구분하기 ㉙ 동물 관련 의성어 익히기 쓰기 ㉚ 동물 관련 의태어 익히기 쓰기 ㉛ 그밖에 생활에서의 의성어, 의태어 활용하기 쓰기 ㉜ 동물명 쓰고 그림 그리기	1. 자연, 동물 관련 어휘를 익히도록 다양한 어휘를 제시하고 의미 범주별로 구분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2. 동물 어휘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익히도록 하였다. 3. 통합적, 유의미적 활동으로서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의성어, 의태어를 익히고 문장 속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4. 통합적, 유의미적 활동으로서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동물을 그리고 동물명을 익히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⑥ 항상 조심해요. ㉕ 교통수단 관련 어휘 익히기 ㉖ 교통표지판 관련 어휘 익히기 ㉗ 안전수칙 관련 OX 활동 ㉘ 안전 관련 어휘를 잡지에서 글자를 오려 붙이기 ㉙ 안전과 관련하여 자신과 약속하고 그 내용을 쓰기	1. 교통수단과 교통표지판 관련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였다. 2. 유의미 활동으로서 안전과 관련하여 실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진위형 활동을 구성하였다. 3. 통합적, 유의미적 활동으로서 안전 관련 어휘를 주변에 있는 잡지 등에서 글자를 찾아 오려 붙이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4. 통합적, 유의미적 활동으로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어휘를 활용하여 안전을 위해 자신과 약속하는 쓰기 활동을 구안하였다.
⑦ 정서활동 ‘내 마음은’ ㉕ 심리 형용사 익히기 ㉖ 좋은 기분, 나쁜 기분 구분하기 ㉗ 기분과 상황 연결하기	1. 회상하기 활동 - 다양한 심리 형용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기분을 떠올리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 심리 형용사 범주화 활동을 통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㉔ 얼굴 그림에 표정 그리고 어떤 기분인지 쓰기 ㉕ 기분 전환과 관련하여 친구에게 조언하기 ㉖ 친구에게 응원의 그림 그려주기	2. 새롭게 느끼기 - 얼굴 그림에 표정을 그리고 관련되는 심리 형용사를 넣어 보는 활동을 하여 자신의 마음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 생각을 변화, 확장하기 - 통합적, 유의미적 활동으로서 친구에게 조언함으로써 다양한 기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4	중요한 내용을 노래로 기억해요	①-1) 짧은 글에서 중요한 내용 찾기 ①-2) 그림을 보고 내용 이해하기 ①-3) 이야기를 읽고 내용 간 추리기 ②-1) 어제 있었던 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기 ②-2) 겪은 일을 동시로 표현하기 ②-3) 동시로 표현한 것을 노래로 기억하기	- 주어진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활동이므로, 여러 종류의 글을 제공하여 글의 종류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메모에서부터 그림, 이야기의 순서로 글을 제시하여 짧은 글→긴 글로 보다 복잡도를 높여 심화된 활동을 제공한다. - 문자로만 구성된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 함께 구성된 그림일기와 같은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림과 글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함을 지도한다. -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선정하여, 정서적 역량(동일시하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학습자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글(알림장, 그림일기 등)을 제공한다. - 표 그리기 활동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경험한 일을 다양한 종류의 글(동시, 노래 등)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글의 종류에 따라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노래로 표현하고 이를 연행할 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학습자들이 활동을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활동을 구성한다.
5	문장을 어떻게 쓸까요?	①-1) 몸짓으로 하는 말 알아내기 ①-2) 그림에 제시된 내용 문장으로 표현하기 ①-3) 한 문장으로 맞는 스무고개 놀이 ①-4) 낱말 카드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①-5) 흉내 내는 말을 넣어 문장 써 보기 ①-6) 한 문장씩 이야기 이어	- 문장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 전 단계로,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상황이나 행동을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한다. - 낱말 카드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흉내 내는 말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말들을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상태

		만들기 ①-7) 동요 가사 바꾸어 부르기	에서 하는 적용 활동이다. 상황에 맞게 생각의 한 덩어리를 하나의 문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1) 문장 부호는 언제 사용할까요?	- 쉼표, 느낌표, 마침표, 물음표를 언제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①-2) 문장 바꾸어 보고 알맞은 문장 부호 붙이기	- 문장 변화에 따라 적절한 문장 부호를 붙이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문장 부호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6	나와 내 짝꿍	1. 나의 모습을 그려 보아요. 2. 내 짝꿍의 모습을 그려 보아요.	- 거울을 활용하여, 나의 얼굴을 그림 속 다양한 얼굴 모양들과 비교해 보며 관찰하고, 그 결과를 그림으로 그린다. - 나의 얼굴을 관찰하고 그려 본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그림으로 그린다.
		3. 나와 내 짝꿍의 닮은 점을 찾아 보아요. 4. 나와 내 짝꿍의 다른 점을 찾아 보아요.	- 서로 마주보고 앉아 관찰하게 하고, 닮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인다. - 스티커를 붙인 상태에서 닮은 부분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른 부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한다.
		5. 새 친구에게 내 짝꿍을 소개해 보아요.	- 명함의 형태로 짝꿍을 소개하는 간단한 카드를 만든다.
		6-1) 나에게 어울리는 말을 찾아 보아요. 6-2) 나에게 어울리는 말을 찾아 보아요.	- 나와 짝꿍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보도록 한다. - 나와 짝꿍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말을 고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짧은 글을 적어 본다.
		7) 나는 누구까요?	- 나를 소개하는 쪽지를 적고 찢은 후 몽쳐서 교실 가운데(또는 선생님 주변)로 던지게 하고, 선생님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쪽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수수께끼 놀이를 한다. -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수께끼 시간이 끝나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쪽지들을 주워 주인을 찾아 주도록 한다.
		8) 나와 내 짝꿍의 하루를 떠올려 보아요.	- 수업을 정리하며, 나 스스로 또는 짝꿍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오늘의 감정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2차 개발

- 외부 자문진 자문 의견 및 반영 내용

대단원	자문진	검토 의견	반영 내용
1	김혜지	1. 7쪽: ‘은혜’를 ‘예의’로 바꾸면 어떨지요? 2. 9쪽: ‘위’를 ‘웨’로 바꾸어야 합니다. 3. 10쪽: ‘무늬’를 ‘의사’나 ‘의자’로 바꾸면 어떨지요? ¹⁾ 4. 11쪽: 끝소리에서 ‘ㄷ, ㅁ, ㅂ’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²⁾ 5. 18쪽, 19쪽: 첫 번째 줄에 쓰인 반점을 삭제하는 것이 좋	1. 7쪽 ‘은혜’를 ‘예의’로 수정 2. 9쪽 ‘위’를 ‘웨’로 수정 3. 10쪽 ‘무늬’를 ‘의자’로 수정 4. 단어 퍼즐 활동으로 수

		했습니다.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 5. 18쪽, 19쪽 첫째 줄 반점 삭제
	구 세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한글 낱자를 나타내는 활동의 단계가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자음 학습의 예에서 ㅇ, ㅈ만 목표 자음이 첫소리로 되어 있지 않은데(모음은 첫소리와 첫소리 아닌 것의 수가 비슷함), 통일해서 첫소리로만 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ex. 야구, 축구) · 사진 찾기는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직접 찾는 것보다 사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 자음 학습 내용 중 ‘ㅇ’과 ‘ㅈ’이 포함된 단어 예시를 각각 ‘야구, 축구’로 수정 2. 사진 찾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사진 이미지를 추가하여 수정
2	김 혜 지	1. 2단원에는 쪽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2. 1쪽: ‘옆의 사진처럼 들을 때’ → ‘옆의 사진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3. 1쪽: ‘언제나 말에 귀를’ →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4. 1쪽: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 표정으로’ →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5. 1쪽: ‘그리고 말하는 도중’ →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에는’ 6. 1쪽: ‘또 친구가 말하는 도중’ → ‘또 친구가 말하는 도중에는’ 7. 6쪽: 첫 번째 칸 ‘동그라미표를’ → ‘동그라미 표시를’ 8. 6쪽: ‘동그라미를’ → ‘○ 표시를’ ³⁾ 9. 8쪽: ‘만들어 쓰세요.’ → ‘만들어 보세요.’ 10. 8쪽: ‘더 빨리 문장을 찾아 쓰는지’ → ‘더 빨리 문장을 만드는지’ 11. 9쪽: ‘주사위를 굴리며’ → ‘주사위를 굴려서’ 12. 11쪽: 첫째 줄 ‘겪은 일’, 둘째 줄 ‘친구 이름’ 13. 11쪽: ‘빈 칸’ → ‘빈칸’ 14. 11쪽: ‘한 친구의 이름은 최대 세 번’ → ‘한 친구의 이름은 세 번’ 15. 11쪽: ‘가장 먼저 친구 이름을’ → ‘가장 먼저 친구의 이름을’ 16. 11쪽: ‘너무 슬펐다.’ → ‘너무 슬펐던 적이 있다.’ 17. 11쪽: ‘싸웠다가 화해했다.’ → ‘싸웠다가 화해해 본 적이 있다.’ 18. 11쪽: ‘엄청 혼났다.’ → ‘엄청 혼난 적이 있다.’ 19. 11쪽: ‘나만 혼났다.’ → ‘나만 혼난 적이 있다.’ 20. 12쪽: ‘겪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 ‘겪었던 일을 3가지 정도 떠올려 보고’ 21. 13쪽: ‘앞에서 그린 그림과 관련하여’ → ‘앞에서 그린 그림을 글로 설명해 보세요.’ 22. 13쪽: ‘짧은 글로 완성해 보세요.’ → ‘짧은 글을 써 볼까	-쪽수 표시하였습니다. -2번~30번까지의 표현 관련 내용을 의견대로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인사이드아웃 동영상과 관련한 문제는 7분 정도의 특별 영상 출처를 밝혀 두었는데 저작권 문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p>요?’</p> <p>23. 13쪽: ‘미술시간’ → ‘미술 시간’</p> <p>24. 13쪽: ‘제목 :’ → ‘제목:’</p> <p>25. 14쪽: ‘자신있게’ → ‘자신 있게’</p> <p>26. 14쪽: ‘친구의 발표에 귀 기울이며 잘 들어 봅시다.’ → ‘그리고 다른 친구의 발표를 귀 기울여 잘 들어 봅시다.’</p> <p>27. 14쪽: ‘칭찬이 :’ → ‘칭찬하는 사람:’</p> <p>28. 15쪽: 상자 다섯 번째 줄 ‘마음속에 큰 변화가’ → ‘마음 속에는 큰 변화가’</p> <p>29. 15~16쪽: 해당 활동은 영화를 보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쑹쑹! 국어 교실’ 수업은 90분~120분 정도 이어지며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거나 아이들에게 다른 활동 시간을 주면 영화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10분 이내로 편집하여 CD 자료를 배포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사이드 아웃’과 관련된 내용은 주어진 시간 내에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또 센터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컴퓨터나 노트북을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곳도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p> <p>30. 16쪽: 상자 다섯 번째 줄 ‘훨씬 중요하겠지요.’ → ‘중요하겠지요.’</p>	
	구세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관련 활동들이 매우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 활동이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잘 녹아 있습니다. · 활동 평가가 짜임새 있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 2번 활동. 나의 머릿속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이 전체적으로 흥미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내 머릿속‘엔’ → 내 머릿속‘은’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나요? - 흥부 머릿속 ‘인생은 한방’ 괜찮은지요? · 2~5번 활동 전체: 잘 듣는 것보다 잘 설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어도 (설명을 잘 못하면) 못 쓰거나 못 그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p>-표현 관련 내용은 수정하였습니다.</p> <p>-흥부의 머릿속 그림 예시를 선생님의 머릿속 그림으로 대체하였습니다.</p>
3	김혜지	<p>1. 3단원의 말투가 앞 단원에 비해 지나치게 구어적입니다. 적절하게 섞어 사용해야 합니다.</p> <p>2. 1쪽: ‘나를 소개합니다.’ 단원에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0분~120분에 끝낼 수 없을뿐더러 ‘시각, 미각, 촉각과 관련된 어휘’, ‘동물 어휘, 의성어, 의태어’, ‘안전과 관련된 어휘’는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큰 제목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단원을 나누어 제시하거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3. 1쪽: ‘가족관계’ → ‘가족 관계’</p> <p>4. 1쪽: ‘취미와 관련한 어휘, 별명과 관련하여 접미사를 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하신 내용은 크게 방대한 내용 즉 학습량의 문제와 성취 기준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구성 방향의 문제로 나뉩니다. - 이에 우선적으로 기존의 7개 주제별로 제시한 구성을 대폭 바꾸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낱말의 의미 관계를 구성의 틀로 삼아 ‘유의어 및 반의어’, ‘상의어

- 해할 수 있다.’ → ‘취미와 관련된 어휘, 별명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이해할 수 있다.’
5. 1쪽: 이 책이 교사용 교재라거나 단원 목표가 책에 직접 제시되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보는 교재에 ‘접미사’라는 단어를 직접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1쪽: ‘동물 어휘를 익히고,’ → ‘동물 어휘를 익히고’
 7. 1쪽: ‘안전과 관련하여’ → ‘안전과 관련된’
 8. 4쪽: ‘위에서 고른 낱말을 써 보세요.’ → ‘위에서 고른 낱말과 어울리는 낱말을 골라 보세요.’
 9. 6쪽: ‘내 친구는 별명이 있어요? 내 별명은 뭐예요?’ → ‘내 별명은 무엇인가요? 내 친구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나요?’
 10. 6쪽: ‘다른 별명은 뭐가 있어요?’ → ‘친구들의 다른 별명은 무엇이 있나요?’
 11. 8쪽: ‘아래 직업 중에서 알고 있는 직업이 있어요? 혹시 모르는 직업이 있나요? 써 보세요.’ → ‘아래의 직업 중에서 알고 있는 직업이 있나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직업은 없나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써 보세요.’
 12. 8쪽: ‘위의 직업 이외에 꿈이 있어요?’ → ‘위의 직업 이외에 또 다른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3. 9쪽: ‘찾아서 빈칸에 각각 써 보세요.’ → ‘안전과 관련된 직업, 건강과 관련된 직업, 예술 활동과 관련된 직업을 나누어 써 봅시다.’
 14. 9쪽: ‘여러분은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가장 갖고 싶은 직업 순으로 써 보세요.’ → ‘여러분은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가장 하고 싶은 직업을 세 가지만 써 보세요.’
 15. 10쪽: ‘아래 낱말들은 무슨 뜻일까요? 서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아래의 낱말들은 무슨 뜻인가요? 서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전에서 찾아 봅시다.’
 16. 10쪽: ‘뜻을 읽고 상자에서 색깔 낱말을 찾아 써 보세요.’ → ‘아래에 나온 단어의 뜻을 읽고 어떤 색깔의 뜻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17. 11쪽: ‘중 어느 것이 가장 강한 느낌이 있어요?’ → ‘중에서 가장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18. 12쪽: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은 뭐예요?’ →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19. 12쪽: ‘대해 설명해 주세요.’ → ‘대해 설명해 봅시다.’
 20. 12쪽: ‘두 낱말은 뜻이 같아요, 달라요?’ → ‘두 낱말은 뜻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21. 13쪽: ‘아래 낱말을 보면서 자연에 대해 생각해 봐요.’ → ‘자연을 표현하는 낱말들을 살펴봅시다.’
 22. 13쪽: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으로


및 하의어’의 두 부분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교재 원고를 재검필하였습니다.

- 말씀하신 감각 형용사, 안전, 별명, 의성어 및 의태어 등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 지적하신 지시문 관련 부분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 이와 함께 잡지 오리기 등의 활동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p>나누어 빈칸에 써 봐요.’ → ‘위의 낱말들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빈칸에 써 봅시다.’</p> <p>23. 14쪽: ‘낱말을 쓰고, 같이 소리를 내어 봐요.’ →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인지 써 보고 같이 소리를 내어 볼까요?’</p> <p>24. 15쪽: ‘어느 동물의 행동일까요? 낱말을 쓰고, 따라 해 봐요.’ → ‘아래의 행동은 어떤 동물이 하는 행동인지 써 보고 따라 해 볼까요?’</p> <p>25. 15쪽: ‘더울 때는 물에 _____ 들어가 수영하면’ → ‘더울 때는 물에 들어가 _____ 수영하면’</p> <p>26. 16쪽: ‘아래 그림에 동물 이름을 쓰고,’ → ‘아래 그림에 나온 동물의 이름을 쓰고’</p> <p>27. 17쪽: ‘아래 낱말 중 타 본 적이 있으면 ○ 표시해 보세요.’ → ‘아래의 상자에서 타 본 적이 있는 것에 ○ 표시해 보세요.’</p> <p>28. 17쪽: ‘위의 교통수단’ → ‘여러 교통수단’⁴⁾</p> <p>29. 17쪽: ‘도로공사’ → ‘도로 공사’</p> <p>30. 17쪽: ‘보행금지’ → ‘보행 금지’</p> <p>31. 18쪽: ‘아래 행동에서 올바른면 ○, 잘못되었으면 ×’ → ‘아래의 그림을 보고 올바른 행동이면 ○, 잘못된 행동에는 ×’</p> <p>32. 18쪽: ‘잡지에서 글자를 오려서’ → ‘잡지에서 오린 글자를’</p> <p>33. 18쪽: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잡지가 필요하고 가위, 풀 등의 재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센터의 사정상 잡지를 일일이 준비하기 어렵고 가위는 잘못하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끼리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활동을 넣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p> <p>34. 19쪽: ‘자신하고 약속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 ‘자신과 약속해요.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p> <p>35. 19쪽: ‘건널 때 손 들고 가기’ → ‘길(또는 횡단보도)을 건널 때 손 들고 가기’</p> <p>36. 19쪽: ‘손 씻기’ → 삭제⁵⁾</p> <p>37. 20쪽: ‘어느 것이 좋은 기분이고,’ → ‘어느 것이 좋은 기분을 나타내고’</p> <p>38. 22쪽: ‘친구에게 방법을 한 가지씩’ → ‘친구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을 한 가지씩’</p>	
구 세 민	<p>·4번 활동: 활동명과 활동의 관련성이 없습니다.(4번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인 필요)</p> <p>- ‘동글다’, ‘둥글다’ 단어 뜻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글다는 ‘작은 것’이 원, 공과 모양이 비슷, ‘둥글다’는 ‘작은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표준국어대사전)</p> <p>- 센 느낌, 약한 느낌으로 구분해도 되는지요? 주관적이라</p>	- 위의 사항 참조

		<p>조금 애매합니다.(파랗다/퍼렇다, 크다/커다랗다, 길다/길쭉하다/기다랗다 역시 가장 강한 느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p> <p>- ‘노랗다’ 색깔 낱말 찾아 쓰는 활동: 가르쳐주지 않고 찾아 써보라고 하여 어려울 듯합니다.</p> <p>· 전체적으로 학습 없이 활동만 있는 느낌입니다.(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없이 하라고 하는 경우 & 활동이 맥락 없이 제시됨-학습의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음), 예를 들어 명절에 가족이 모였는데, 누구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누구는 어떤 취미를, 누구는 어떤 별명을 가졌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왔는지 등과 같이 전체 활동이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구성되면 더 자연스러울 듯합니다.</p> <p>· p. 11 아래 활동 - 여러 개의 답이 가능하도록 의도한 건지요?</p> <p>· p. 18  아래 낱말 옆에 잡지에서 글자를 오려서 붙여 보세요. - 무슨 활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아래 낱말을 잡지에서 찾아 오려서 붙여 보세요?)</p> <p>· p. 22 맨 위 활동 - 표정을 그리는 건지, 기분을 쓰는 건지, 둘 다인지요?(현재 표정이 다 똑같음)</p> <p>· 발문이나 예시문을 좀 더 명확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내 친구는 별명이 있어요? 내 별명은 뭐예요? 아래 낱말 중 타 본 적이 있으면 0 표시해 보세요. 건널 때 손들고 가기(무엇을 건널 때?))</p>	
4	김혜지	<p>1. 단원의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목을 수정해야 할 듯합니다.</p> <p>2. 3쪽: ‘답해봅시다.’ → ‘답해 봅시다.’</p> <p>3. 4쪽: ‘싶은 말이 있으면,’ → ‘싶은 말이 있으면’</p> <p>4. 4쪽: ‘전달해봅시다.’ → ‘전달해 봅시다.’</p> <p>5. 5쪽: ‘답해봅시다.’ → ‘답해 봅시다.’</p> <p>6. 5쪽: ‘.’ → ‘:’</p> <p>7. 5쪽: ‘ 그리고’ → ‘ 그리고’</p> <p>8. 6쪽: ‘적어봅시다.’ → ‘적어 봅시다.’</p> <p>9. 6쪽: ‘① 숙제와 ② 내일 필요한’ → ‘①숙제와 ②내일 필요한’</p> <p>10. 6쪽: ‘생각해봅시다.’ → ‘생각해 봅시다.’</p> <p>11. 7쪽: ‘연결해봅시다.’ → ‘연결해 봅시다.’</p> <p>12. 7쪽: ‘학급회의’ → ‘학급 회의’</p> <p>13. 7쪽: ‘더럽혀진’ → ‘더러워진’</p> <p>14. 8쪽: ‘해봅시다.’ → ‘해 봅시다.’</p> <p>15. 9쪽: ‘말풍선 1 :’ → ‘말풍선 1:’</p> <p>16. 9쪽: ‘말풍선 2 :’ → ‘말풍선 2:’</p> <p>17. 9쪽: ‘말풍선 3 :’ → ‘말풍선 3:’</p> <p>18. 9쪽: ‘말풍선 4 :’ → ‘말풍선 4:’</p> <p>19. 9쪽: ‘정리해봅시다.’ → ‘정리해 봅시다.’</p> <p>20. 10쪽: ‘떠올려보고’ → ‘떠올려 보고’</p>	<p>-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p> <p>- 2-26: 맞춤법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활동이 전면 재수정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새로 작성된 원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p> <p>- 27: 말씀해 주신 대로 이야기의 흐름이 드러나는 다른 제재로 교체하였습니다.</p> <p>- 28-44: 맞춤법 관련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활동이 전면 재수정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새로 작성된 원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p> <p>- 45: 관련 활동을 동요의</p>

21. 10쪽: ‘그림일기로 쓴다면,’ → ‘그림일기로 쓴다면’
22. 10쪽: ‘그림을 통해’ → ‘그림으로’
23. 11쪽: ‘위 활동을 바탕으로,’ → ‘위 활동을 바탕으로’
24. 12쪽: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어느 따뜻하고 밝은 날
월리가 공원에 가기로 했을 때였어요.’ → ‘이 모
든 게 시작된 건 어느 따뜻하고 밝은 날, 월리가
공원에 가기로 했을 때였어요.’
25. 12쪽: ‘점점 더워지면서, 숨이 막혀 왔어요.’ → ‘점점 더
워지면서 숨이 막혀 왔어요.’
26. 12쪽: ‘우르릉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 ‘
우르릉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7. 12쪽: 본문에 실린 이야기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요
약하기에는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주인공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정도
는 가능하겠지만 요약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
다. 조금 더 이야기의 흐름이 뚜렷한 글로 대체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28. 14쪽: ‘출처 :’ → ‘출처.’
29. 15쪽: ‘골라보세요.’ → ‘골라 보세요.’
30. 16쪽: ‘생각해봅시다.’ → ‘생각해 봅시다.’
31. 17쪽: ‘생각해보고, 아래 표에 작성해봅시다.’ → ‘생각해
보고, 아래 표에 써 봅시다.’
32. 17쪽: ‘정리해봅시다.’ → ‘정리해 봅시다.’
33. 18쪽: ‘일을 골라, 친구에게 말해봅시다.’ → ‘일을 골라
친구에게 말해 봅시다.’
34. 19쪽: ‘생각해봅시다.’ → ‘생각해 봅시다.’
35. 19쪽: ‘읽어봅시다.’ → ‘읽어 봅시다.’
36. 20쪽: ‘위의 동시의 ‘비눗방울’처럼’ → ‘위의 동시 ‘비눗
방울’에 표현된 것처럼’
37. 20쪽: ‘써봅시다.’ → ‘써 봅시다.’
38. 21쪽: ‘불러보고,’ → ‘불러 보고’
39. 21쪽: ‘생각해봅시다.’ → ‘생각해 봅시다.’
40. 21쪽: ‘읽어보고,’ → ‘읽어 보고’
41. 21쪽: ‘도움상자’ → ‘도움 상자’
42. 21쪽: ‘써봅시다.’ → ‘써 봅시다.’
43. 22쪽: “‘시계’” → “시계”
44. 22쪽: ‘써 넣어봅시다.’ → ‘써 넣어 봅시다.’
45. 22쪽: 아래 악보에 어떤 가사를 써 넣어 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계’의 가사를 써 넣으라는 것
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동요의 가사를 써 넣으라
는 것인지, 혹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본 노래의
가사를 써 넣으라는 것인지 밝혀 써 주십시오.
46. 22쪽: ‘도움 :’ → ‘도움.’

노랫말을 바꾸는 활동으
로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
고, 과정을 나누어 세부
활동들로 해당 내용을 수
정하였습니다.

- 46-54: 맞춤법 관련 사항
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활동이 전면 재수정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
항들이 새로 작성된 원고
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법을 다시 한 번 검
토하였습니다.

		<p>47. 22쪽: ‘생각풍선’ → ‘생각 풍선’</p> <p>48. 22쪽: ‘불러봅시다.’ → ‘불러 봅시다.’</p> <p>49. 22쪽: ‘선생님 :’ → ‘선생님:’</p> <p>50. 22쪽: ‘노래로 표현하게 되면’ → ‘노래로 표현하면’</p> <p>51. 23쪽: “‘비눗방울’” → “‘비눗방울’”</p> <p>52. 23쪽: ‘만들어보았던’ → ‘만들어 보았던’</p> <p>53. 23쪽: ‘불러봅시다.’ → ‘불러 봅시다.’</p> <p>54. 23쪽: ‘출처 :’ → ‘출처:’</p>	
	구 세 민	<p>· 활동들이 학습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p> <p>· 겪은 일을 동시에 표현하기에서 빈 칸을 원고지로 주는 것보다 ()로 주면 좋을 듯합니다.(글자 수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 듯)</p>	<p>- 감사합니다. 여러 검토 의견들을 반영하여 활동을 재조정하였습니다.</p> <p>- 동요의 노랫말을 바꾸는 활동으로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고, 또한 동시 체제가 아닌 노래이니만큼 글자수 제한 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p>
5	김 혜 지	<p>1. 5단원에는 쪽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p> <p>2. 1쪽: ‘스무고개 놀이’ → ‘스무고개’</p> <p>3. 1쪽: ‘한 문장씩 이야기 이어 만들기’ → ‘한 문장씩 이야기 만들기’</p> <p>4. 5쪽: ‘그려보고,’ → ‘그려 보고,’</p> <p>5. 6쪽: ‘스무고개 놀이’ → ‘스무고개’</p> <p>6. 6쪽: ‘적어둡니다.’ → ‘적어 둡니다.’</p> <p>7. 6쪽: 아래 칸 ‘자 이제 시작할게.’ → ‘자, 이제 시작할게.’</p> <p>8. 8쪽: ‘빈 칸’ → ‘빈칸’</p> <p>9. 9쪽: ‘문장 만들기’에 숫자가 10까지 있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듯합니다. 5개로 줄여 주시고 칸을 더 넓게 써 주십시오.</p> <p>10. 10쪽: ‘활용하여,’ → ‘활용하여’</p> <p>11. 10쪽: ‘써 보자.’ → ‘써 봅시다.’</p> <p>12. 10쪽: ‘제2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 “제2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p> <p>13. 10쪽: ‘쿨쿨 잠을 자고 계세요.’ →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p> <p>14. 10쪽: ‘가만히’가 쓰인 문장보다는 ‘살금살금’이 쓰인 문장이 ‘흉내 내는 말’을 학습하는 단원에서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p> <p>15. 12쪽: ‘한 문장씩 이야기 이어 만들기’ → ‘한 문장씩 이야기 만들기’</p> <p>16. 12쪽: ‘발표 시 모둠 구성원들이’ → ‘발표를 할 때에는 같은 모둠의 친구들끼리’</p> <p>17. 14쪽: 문장 부호의 쓰임을 설명하는 ‘쓴다.’ → ‘써요.’</p> <p>18. 15쪽: ‘바꾸어 본 후,’ → ‘바꾸어 본 후’</p> <p>19. 15쪽: ‘붙여 보자.’ → ‘붙여 봅시다.’</p>	<p>1. 쪽 번호 표시</p> <p>2. 1쪽: ‘스무고개 놀이’ → ‘스무고개’</p> <p>3. 1쪽: ‘한 문장씩 이야기 이어 만들기’ → ‘한 문장씩 이어 이야기 만들기’</p> <p>4. 5쪽: ‘그려보고,’ → ‘그려 보고,’</p> <p>5. 6쪽: ‘스무고개 놀이’ → ‘스무고개’</p> <p>6. 6쪽: ‘적어둡니다.’ → ‘적어 둡니다.’</p> <p>7. 6쪽: 아래 칸 ‘자 이제 시작할게.’ → ‘자, 이제 시작할게.’</p> <p>8. 8쪽: ‘빈 칸’ → ‘빈칸’</p> <p>9. 9쪽: ‘문장 만들기’에 5개로 줄이고 칸을 더 넓게 조정함.</p> <p>10. 10쪽: ‘활용하여,’ → ‘활용하여’</p> <p>11. 10쪽: ‘써 보자.’ → ‘써 봅시다.’</p> <p>12. 10쪽: 제2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 “제2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p> <p>13. 10쪽: ‘쿨쿨 잠을 자고</p>

		<p>계세요.’ →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p> <p>14. 10쪽: [미반영] 그림에 ‘가만히’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를 사용한 문장은 그대로 두고, ‘살금살금’을 활용한 문장을 추가로 제시한 것임. 그림에 제시된 말을 활용해도 좋고 새롭게 만들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경우를 모두 제시한 것이어서 현행 유지.</p> <p>15. 12쪽: ‘한 문장씩 이야기 이어 만들기’ → ‘한 문장씩 이어 이야기 만들기’</p> <p>16. 12쪽: ‘발표 시 모둠 구성원들이’ → ‘발표를 할 때에는 같은 모둠의 친구들끼리’</p> <p>17. 14쪽: 문장 부호의 쓰임을 설명하는 ‘쓴다.’ → ‘써요.’</p> <p>18. 15쪽: ‘바꾸어 본 후,’ → ‘바꾸어 본 후’</p> <p>19. 15쪽: ‘붙여 보자.’ → ‘붙여 붙시다.’</p> <p>20. 15쪽: ‘읽어 보자.’ → ‘읽어 볼까요?’</p>
	구세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소재(만화)가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게 적절하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 문장 이어 만들기, 문장 바꾸어 쓰고 문장 부호 쓰기 활동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낱말카드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성취 기준은 주어+(목적어) + 서술어, 정도일 듯합니다. 현재 예시(신발을 신고 달렸다, 학교에서 우유를 마셨다)는 주어가 없고, 부사어 등이 있어서 부적절하게 여겨집니다. 성취 기준 해설 또는 교과서 학습 활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김	<p>1. 1쪽: ‘6-2) 나에게’ → ‘6-2) 짝꿍에게’</p> <p>- 지적하신 오타자, 어색한</p>

	<p>2. 3쪽: ‘나는 어떻게 생겼나요?’ → 삭제</p> <p>3. 4쪽: ‘나는 어떻게 생겼나요?’ → ‘내 짝꿍은 어떻게 생겼나요?’</p> <p>4. 4쪽: ‘거울을 보며’ → ‘짝꿍의 얼굴을 보며’</p> <p>5. 4쪽: ‘나의 모습과’ → ‘짝꿍의 모습과’</p> <p>6. 5쪽: ‘나의 모습을 그려 봅시다.’ → ‘짝꿍의 모습을 그려 봅시다.’</p> <p>7. 5쪽: ‘나와 그림을 번갈아 보며’ → ‘서로의 그림을 번갈아 보며’</p> <p>8. 6쪽: ‘[볼에 스티커를 붙이고] 기분’ → ‘[볼에 스티커를 붙이고] 볼’</p> <p>9. 6쪽: ‘나도 오늘 기분이 좋고 내 짝꿍도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다.’ → ‘나도 볼이 하얗고 내 짝꿍도 볼이 하얗다.’</p> <p>10. 6쪽: ‘기분’은 눈으로 확인하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신체 부위에 스티커를 붙이고 ‘기분’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p> <p>11. 8쪽: ‘새 친구에게,’ → ‘새 친구에게’</p> <p>12. 8쪽: ‘다른 점을 떠올리며,’ → ‘다른 점을 떠올리며’</p> <p>13. 8쪽: ‘나와 다르게’ → ‘나와 다르게’</p> <p>14. 9쪽: ‘동그랗게 표시해’ → ‘동그랗게 표시해’ → ‘○ 표시를 해’</p> <p>15. 11쪽: ‘빈 칸’ → ‘빈칸’</p> <p>16. 11쪽: ‘떠올려 보며,’ → ‘떠올려 보며’</p> <p>17. 11쪽: ‘가장 마음에 드는 말 :’ → ‘가장 마음에 드는 말:’</p> <p>18. 13쪽: ‘쪽지로 만든 종이 뭉치를 선생님 쪽으로 던지세요.’ → ‘그리고 종이 뭉치를 선생님께 드리세요.’</p> <p>19. 13쪽: ‘하나를 주워’ → ‘하나를 골라’</p> <p>20. 13쪽: ‘다같이’ → ‘다 같이’</p> <p>21. 13쪽: 두 번째 ●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던지는 활동을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무언가를 던질 때 선생님의 얼굴이나 특정한 신체 부위를 겨냥하여 던지는 경우가 있고,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 친구들끼리도 서로 종이 뭉치를 던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교실 안이 통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p> <p>22. 14쪽: ‘오늘,’ → ‘오늘’</p> <p>23. 14쪽: ‘이미 알고 있었거나,’ → ‘이미 알고 있었거나’</p>	<p>표현 등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쪽의 예시를 구체적인 사례로 수정하였습니다. - 13쪽의 활동은 던지는 활동에서 제비뽑기 형태의 활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구세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특징이나 친구의 특징을 문장으로 표현하기 전에 충분한 활동으로 대상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 수수께끼 쪽지를 통해 나를 소개하는 활동 아이디어가 적절합니다. · 2. 내 짝꿍의 모습을 그려 보아요! 발문 확인 ‘나는 어떻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하신 오타자, 어색한 표현 등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 활동을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p>생겼나요?’→‘내 짝꿍은 어떻게 생겼나요?’</p> <p>· 7. 나는 누굴까요? 오타: 수수께끼 - 수수께끼</p> <p>· 전체적으로 흥미 있으면서도 학습 목표에 부합하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p>	
--	--	--

- 내부 연구진 검토 의견 및 반영 내용

대단원	검토의견	반영 내용
1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아 요!	<p>- 14쪽에서 한글 낱자의 모양과 닮은 사물을 찾아 보는 활동이 재미있긴 한데, 교육적 의미가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배울 한글 문자 상형의 의미가 잘못 이해될 소지는 없을까요?</p> <p>- 정서적 역량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관계 형성’이나 ‘발견’에 대한 아이디어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p> <p>- 귀여운 이미지나 삽화 성격의 것들이 저학년이니 만큼 보충되면 좋을 것 같아요.</p> <p>●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는 각각 다른 소리가 나요. 한글의 자음은 어떻게 읽을까요?> 활동은 첫소리가 들어가 낱말을 찾아야 하는 활동인지요? 1과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어진 낱말 없이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위에서 다양한 어휘를 주고 찾아 각 해당 첫소리에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p> <p>●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더 다양한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함께 연습해 볼까요?> 활동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p>	<p>1. 한글 낱자의 모양과 닮은 사물을 찾아보는 활동과 별개로 한글 상형에 대한 간략한 학습 내용을 <더 알아보기> 상자로 제시함. (16쪽)</p> <p>2. 선생님, 친구들과 관계형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를 정서 활동으로 추가함. (17쪽) 몸으로 낱자를 만들며 몸의 움직임과 형태를 서로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발문을 명시적으로 수정함.(18쪽)</p> <p>1. 각 자모가 포함된 낱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되 학습자가 해당 자모를 직접 채워 쓰고 읽어 보도록 수정. (1~10쪽)</p> <p>2. 단어 퍼즐에서 초-중-종성 결합 찾기 활동으로 수정. (11쪽)</p> <p>3. 활동 순서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과 예시를 추가</p>

- 1)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예, 레’ 이외의 ‘ㄷ’은 [ㄷ]로도 발음할 수 있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은혜/은혜]로 발음할 수 있고 ‘무늬’는 ‘무니’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왕에 한글 자모의 소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라면 그 자모의 음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초등학교 저학년은 교재에 있는 모든 자모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끝소리에 사용되지 않는 ‘ㄸ, ㅃ, ㅆ’을 이용해서도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들어간 글자를 만들어 보려고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글자는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3) 이 책의 단원들에 ‘동그라미’ 혹은 ‘○’가 나오는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로 책 전체에 쓰인 표현을 통일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4) ‘인라인스케이트’, ‘힐리스’ 등을 타고서는 도로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교통 표지판과 관련이 없으며 이것을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을 듯합니다. 따라서 ‘위의 교통수단’을 ‘여러 교통수단’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5) 다른 행동들은 모두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들인데 ‘손 씻기’는 ‘교통안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아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다른 유형으로 바꾸면 어떨까요?</p> <p>●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활동은 학습자나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좀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지침이나 보기 박스를 주는 것이 좋겠어요.</p> <p>● <한글 낱자와 닮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활동은 그림만 그리기보다 쓰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p>	<p>함. (13쪽)</p> <p>4. 닮은 것을 찾아보기 전에 한글 낱자의 모양을 정확하게 써 보도록 발문을 명시적으로 수정함. (16쪽)</p>
	<p>○ 국어사전을 찾는 방법이 조금 더 구체적 예시와 함께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자모 각각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쓸 때 위치에 따라 자음의 모양이 약간씩 달라지므로 이런 부분도 연습할 수 있는 장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1. 사전 찾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사전 이미지를 추가하여 수정. (21~23쪽)</p> <p>2. 초, 중, 종성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자모음의 모양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단어 쓰기 활동으로 수정. (1~10쪽)</p>
	<p>- 1쪽~10쪽에 제시된 활동을 통해 나의 이름이나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도입 부분을 마련해주면, 활동의 의미가 보다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20쪽 사전 찾기 활동을 제시할 때, 사전 사진을 첨부하여 사전 찾기 예시를 보다 세분화하여 보여주면 아이들이 사전 찾기 활동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1. 각 자모가 포함된 낱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되 학습자가 해당 자모를 직접 채워 쓰고 읽어 보도록 수정. (1~10쪽)</p> <p>2. 사전 찾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사전 이미지를 추가하여 수정. (21~23쪽)</p>
	<p>1쪽. ‘한글 낱자의 소릿값을 알아보아요!’에서 ‘소릿값’이란 표현이 저학년 아동들에게 낯설지는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초등 1학년이면 한글 자모 정도는 온전히 습득했다고 가정하긴 하지만, 1학년 첫 단원임을 감안하여, 예시나 단서를 좀 더 많이(한 가지 이상) 제공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11쪽. 전체 자모를 한눈에 보이는 것도 유의미하겠으나, 모든 자모를 나열해 두니 선뜻 시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스티커 사용이 가능하다면, 각 자모를 떼어 첫-가운데-끝소리 칸에 붙이는 활동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p> <p>13쪽. ‘토’가 ‘티을’과 ‘오’의 결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보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작성하는 칸도 예시와 같이 구분을 지어 주면 아이들이 (두 글자 혹은 세 글자 정도로) 작성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단어를 만들고 나서 만든 단어로 발표를 하거나, 누가 더</p>	<p>1. 예시를 추가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자모의 소릿값을 고려하여 낱말을 읽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수정. (1~10쪽)</p> <p>2. 단어 퍼즐에서 초-중-종성 결합 찾기 활동으로 수정. (11쪽)</p> <p>3. 학습자가 작성하는 부분도 예시와 같이 실선으로 경계선을 표시하여 수정함. 각자 만든 단어를 발표해 보고 다른 친구들이 만든 단어를 적어 보는 활동을 추가함. (14쪽)</p>

2	귀를 종긋! 바르게 듣고 써요	<p>많이 만들었는지 등을 겨루어 보는 활동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p> <p>-“ㄱ’이 들어간 낱말을 써 보고...”와 같은 활동에서 아이들이 다른 단어나 도움 낱말이 없으면 생각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 보며’라든지 혹은 여러 개의 낱말 등을 제시해 준다든지, 아니면 뒤에 국어 사전에 대해 다루니 국어 사전에서 ‘ㄱ’ 부분을 찾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함께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p>-아울러 1-2학년 아이들은 사전 찾기를 어려워 하니 사전을 찾아가는 모습을 차례대로 조금 더 친절하게 보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교재 편찬 시 사진을 찍어서 넣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p> <p>-전체적으로 저의 의견이니 참고만 해 주세요^^</p>	<p>1. 각 자모가 포함된 낱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되 학습자가 해당 자모를 직접 채워 쓰고 읽어 보도록 수정. (1~10쪽)</p> <p>2. 사전 찾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사전 이미지를 추가하여 수정. (21~23쪽)</p>
		<p>◎ <앞에서 그린 그림과 관련하여 내가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짧은 글로 완성해 보세요>에서 <예시>의 목표가 글의 구조나 문형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시>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p> <p>◎ ‘정확한’ 문장 쓰기과 관련하여 활동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p>	<p>-예시는 아이들이 겪은 일 자체를 어떻게 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듯하여 글의 구조와 문형을 가르치려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p> <p>-그림 주사위 놀이 후에 정확한 문장을 써 보는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p>
		<p>○ 14쪽에서 문단 정도의 짧은 글을 쓸 수도 있으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할 때, 그림의 내용과 관련된 문장을 세 개 정도 써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p> <p>○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활용한 정서 활동의 내용은 좋습니다.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로인데, 사진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를 추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p>	<p>-5줄 정도의 짧은 글을 쓰도록 학습자 수준에 맞게 조건을 제한하였습니다.</p> <p>-말씀하신 대로 저작권 문제는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p>
		<p>- 4쪽 ‘나의 머릿속 표현하기’ 활동은 공유된 그림이 발표한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는 틀로 작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구성된 재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시로 제시한 ‘홍부’ 사례는 자칫 동화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한 요약처럼 보이는 데, 지금처럼 모든 부분을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빈칸을 마련해두고 선생님께서 예시를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나’를 표현하는 활동의 목표를 유지한 채 듣기 활동을 위한 공유된 틀로서의 역할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 13쪽~14쪽 겪은 일을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한 뒤 그림을 그리고 짧은 글쓰기를 하는 활동에서, 생</p>	<p>-홍부의 머릿속 그림 예시를 선생님의 머릿속 그림으로 대체하였습니다.</p> <p>-13쪽 그림 아래에 말풍선을 추가하였습니다.</p>

		<p>각 풍선 등을 활용해서 ‘겪은 일’을 문장으로 쓴 부분이나, 그림으로 그린 부분 주변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까닭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발문을 함께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보다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4-5쪽. ‘나’의 머릿속과 ‘친구’의 머릿속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주어진 예시는 ‘홍부’의 머릿속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주인공의 머릿속을 짐작하여 그리는 것과 나와 내 친구의 머릿속을 그리는 것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사가 동화나 일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인물의 머릿속을 상상하여 그려 보는 활동은 어떨까요?</p> <p>- 4쪽 발문의 ‘가득차’는 ‘가득 차’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p> <p>- 4쪽 발문 중 ‘나를 알릴 수 있는 머릿속 그림’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한 듯합니다. ‘나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그려 보라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요?</p> <p>- 5쪽 3번 활동의 발문에 자신의 머릿속 그림을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고 발표한다는 조건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14쪽 <예시>에서 ‘빌려 줘’, ‘빌려 준’은 각각 ‘빌려줘’, ‘빌려준’으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p> <p>- 15쪽 12번 활동의 발문 중 ‘자신있게’는 ‘자신 있게’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p> <p>- 16쪽 영화 소개 상자 내용 중 ‘어느때보다’는 ‘어느 때보다’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p>	<p>- 가장 가까운 자신과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안한 것이므로 홍부의 머릿속 그림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p> <p>- 아울러 학생들이 머릿속에 어떤 항목들을 채워야 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아끼는 것, 좋아하는 책, 나의 장점 및 단점, 좋아하는 가수, 듣기 좋은 말과 싫은 말,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의 특기,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나의 별명 등’의 항목을 예시로 적어 두었습니다.</p> <p>- 표현 및 발문 관련 내용을 의견대로 모두 수정하였습니다.</p>
3	재미있는 날말 놀이	<p>- 이미지들이 넘 귀엽습니다.</p> <p>- 단원 목표가 양이 많아 보입니다. 상하의 관계 차원에서 1번 목표, 주제별 어휘망 차원에서 2-7번 목표로 보이는데, 2-7번 목표 활동 중 양을 조절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p> <p>- 안전 주제는 아이들 안전 의식 확보 차원에서도 넘 좋은 것 같습니다.</p> <p>-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어휘 활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6쪽에서 별명 사례 중 부정적인 인상이 드는 별명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p> <p>- 정서 역량 활동이 둘째 마당과 겹치는 느낌이 듭니다.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p> <p>- 전체적으로 발문을 ‘~있어요?’, ‘뭐예요?’보다는 ‘~있나요?’, ‘무엇인가요?’ 등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p>	<p>- 기존에 7개의 주제별로 구성하였던 것을 대폭 수정하여 날말의 의미 관계를 구성 틀로 삼아 유의어 및 반의어 - 상의어 및 하의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성취 기준과 수업 차시당 수업량에 맞췄습니다.</p> <p>- 감각 형용사, 의성어 및 의태어는 교재에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p>

	<p>-10쪽: ‘둥글다’와 ‘둥글다’, ‘둥그랗다’와 ‘둥그렇다’가 각각 뜻이 같게 제시되어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정의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10쪽: 위의 ‘오, 우’의 느낌 차이만으로는 아이들이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를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p> <p>-물건을 묘사하는 낱말, 촉감과 관련된 낱말, 동식물과 관련된 낱말, 의성어, 의태어 등은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단원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성취 기준이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에 대한 것이니 단원명을 약간 수정하거나 교재 내에서 소단원을 두 개 혹은 세 개 범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p> <p>-18쪽: 잡지에서 글자를 오려 붙이는 활동은 1-2학년 아이들이 가위질이 서툴러 잡지 내에 큰 글자가 아니라면 오리기 힘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크게 제시된 낱말 카드를 주고 그것을 오려서 붙이게 하거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p> <p>-전체적으로 저의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해 주세요요^^</p>	<p>- 잡지에서 오려내는 활동 역시 삭제하였습니다.</p>
	<p>○ 어휘에 대한 학습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p> <p>○ 가족 나무 그리기에서 ‘아버지’, ‘어머니’ 칸을 기본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나’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그리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p> <p>○ 현재 순서도 좋지만, 내용 제시 순서를 ‘나 관련 (내 꿈, 내가 아끼는 물건)->가족->친구->자연, 안전’과 같은 순서로 제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가족을 포함한 7개 주제를 모두 없었습니다. (위 사항 참조)</p>
	<p>-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단원명에 맞게 제시하신 활동들을 조정하고 다른 소단원 활동들을 추후 중학년 교재에 수록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p> <p>- 4쪽~7쪽 ‘내 친구는’ 소단원의 경우 모둠을 구성하여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게 하면 어떨지요.</p> <p>- 18쪽 교통수단 이용 시 조심해야 할 사항을 O/X로 표시하는 활동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 소단원 활동을 대부분 삭제하였습니다.</p>
	<p>1쪽. 한 단원 안에 가족, 취미, 직업, 감각, 동물, 어휘 등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롭습니다만, 분량이 조금 많지는 않을까</p>	<p>- 위의 사항 참조 바랍니다.</p>

		<p>요. 분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안전이나 동물과 같은 주제는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해당 내용들을 동학년 교재의 다른 단원으로 옮겨 녹여 내거나, 추후 중학년 등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혹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면 2~3쪽의 가족 나무 그림의 예시가 불편감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구성원의 예를 자유롭게 제시해 주고 그중에서 각자 선택하여 가족 나무 그림을 그려 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 이 교재가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된다면 7쪽의 연습 활동에서 나와 내 친구를 소개하는 항목 중 '사는 동네'에 관한 질문은 삭제되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0쪽의 '동글다-동글다', '동그랗다-동그렇다'의 차이를 보여 주는 그림 예시에서 중앙의 '오, 우'는 'ㄱ, ㅌ/ㅊ, ㅋ'와 같이 모음 날자만 제시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사항 참조 바랍니다.
4	<p>중요한 내용을 노래로 기억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역량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정서적 전환>동일시하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 귀여운 이미지나 삽화 성격의 것들이 좀 더 보충되면 좋을 것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문의 문체를 초등 수준으로 수정하면 좋겠어요. 예) 1) 위의 그림은 어떤 종류의 글인가요? 2) 위의 동시에서 글쓴이는 어떤 경험을 표현하려고 한 것일까요? ● <짧은 글에서 중요한 내용 찾기>에서 3)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의 활동을 좀 더 쉽게 바꾸면 좋겠어요. 빈칸으로 누가/누구/무엇을/ 등등 ● <2> 그림일기에서 알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표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활동의 의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도는 살리되 활동 유형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 <3> 위의 동시의 '비눗방울'처럼 동시로 표현하고 싶은 재미있는 경험을 써봅시다.>의 활동 유도가 좀 더 과정 중심적이고 친절하면 좋을 것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역량 부분을 따로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확대하였고, 이야기 글을 제시하여 (상황 속) 인물에 대한 동일시하기 및 입장 바꾸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삽화와 이미지를 보충하였습니다. - 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수정된 관계로 해당 지시문은 삭제하였고, 전체적으로 발문 형태를 점검하였습니다. - 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수정된 관계로 해당 지시문은 삭제하였고, 전체적으로 도움 상자나 예시를 두어 활동을 보다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 소단원의 구성이 '대상 중심' / '이야기 중심'으로 초점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문항은 삭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동요의 노랫말을 바꾸는

	<p>활동으로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고, 과정을 나누어 세부 활동들로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p>
<p>○16쪽 원고지 양식을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p> <p>○20쪽에서 동시에 표현하고 싶은 경험을 쓰는 과정을 조금 더 단계화 하여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원고지 양식에 관해 주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글 형태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p> <p>- 동요의 노랫말을 바꾸는 활동으로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고, 과정을 나누어 세부 활동들로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p>
<p>3쪽. 앞서 집필하신 단원들과 순서대로 연달아 보다 보니, 4단원에서부터 교재의 수준이 다소 높아진 느낌이 듭니다. 친구가 남긴 메모를 보고 ‘어떤 종류의 글’인지 대답하게 한다면 저학년 아동들이 쉽게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p> <p>15쪽. 저도 저학년 아동들의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말씀드리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동들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한 쪽 분량의 글을 읽고 ‘요약’하는 것이 다소 어렵지는 않을까요? 몇 가지 보기나 예시를 주고 골라서 순서대로 적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다른 단원들과 수준을 맞추고자 활동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글의 종류를 묻는 해당 활동 또한 삭제하였습니다.</p> <p>- 요약하기 활동이 1-2학년 군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반영하여 요약 활동은 삭제하고 추천해 주신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활동으로 수정하였습니다.</p>
<p>-12쪽: 앤서니 브라운의 책은 1-2학년 수준에 적합하지만, 교재에 실린 이야기를 읽고 아이들이 14쪽의 윌리에게 있었던 일어났던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쓰기 어려워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6쪽의 이야기를 간추려 쓰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나 주인공의 행동의 변화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여야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p>-16쪽: 원고지로 분량을 제한한 의도가 있어 보이거나 1-2학년 아이들이 제한된 분량에 맞게 원고지에 쓰기를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글자마다 칸이 나뉘어진 쓰기는 간단한 그림일기 정도이며 원고지 사용법도 5학년 정도에 이르러 배우는 것을 감안하면 줄로 된 칸으로 제시하고 ‘5개 정도의 문장으로 써 봅시다. 또는 5줄로 써 봅시다’ 등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p> <p>-20쪽: 이 역시 동시에 표현할 때 칸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 다양한 예시를 보여 주고 형식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을</p>	<p>- 앤서니 브라운의 지문은 정서적 역량 및 이야기 글에서의 내용 파악 모두를 고려하느라 활동이 초점화되지 못하였습니다. 활동을 전면 재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이나 주인공의 감정 변화가 두드러지는 제재로 수정하였습니다.</p> <p>- 원고지 양식에 관해 주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글 형태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p> <p>- 동요의 노랫말을 바꾸는 활동으로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고, 또한 동시 제재가 아닌 노래이니만큼 글</p>

		<p>듯합니다. 그런데 적고 보니 비눗방울 노래 가사와 연계가 되네요.. 그러나 아무래도 글자수를 맞추기 힘들어할 것 같아 꼭 한 음표에 한 글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견도 참고만 해 주세요.^^</p>	<p>자수 제한 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의 과정을 나누어 세부 활동들로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p>
		<p>- 18쪽 활동 2)의 발문이 ‘친구에게 소개해 봅시다.’ 또는 ‘적어 봅시다.’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아래에 빈 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습자가 직접 써 보는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p> <p>- 20쪽 활동 4)에서 학습자들이 4-3 구조로 동시를 쓰는 것을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줄글로 써 보게 하거나, 아니면 23쪽 활동 3)의 가사 쓰기 활동을 조금 앞당겨서 이 부분에서 함께 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수정된 관계로 해당 지시문은 삭제하였고, 전체적으로 발문 형태를 점검하였습니다.</p> <p>-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요의 노랫말을 바꾸는 활동으로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고, 또한 동시 제재가 아닌 노래이니만큼 글자수 제한 사항도 삭제하였습니다.</p>
5	아름다운 우리말	<p>- 7-8쪽의 <준비하기> <연습하기> <활동하기> 단계가 중학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p>	<p>◦ 단계명을 삭제하고 활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노래 연습 활동에서 빈 악보와 제목 넣는 칸 ‘제목: ()자로 (끝나는/시작하는) 말은’을 삽입함.</p>
		<p>1) 아름다운 토박이말로 대화하기 좀 더 게임, 놀이 형식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추측하여 말하기, 뜻과 연결하기 등으로요.</p> <p>2) 낱말 확장하기 놀이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어(현재도 그런 구성인 거지요?) 먼저 설명, 예시를 제시하고 다양한 예시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면 더욱 좋겠어요. 첫글자 주고 단어 말하기처럼 게임식 활동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p> <p>3)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 알기 높임을 정확히 쓰고 있는지 오류 문장과 섞어서 골라내고, 고치는 활동을 추가하면 어떨까요?</p> <p>4) (2) 상황에 맞게 대화를 구성해 보고 높임말을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보자. 학습자들이 과제를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여쭙봐요.</p> <p>5) 정서활동 자유롭게 표현하기 솔직하게 표현하기 등의 틀을 가져와서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적 표현활동을 넣으면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p>	<p>◦ 토박이말의 뜻을 추측하여 말한 후 뜻 찾기로 수정함.</p> <p>◦ 낱말 확장하기 놀이 앞부분에 설명과 예시 추가함.</p> <p>◦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 알기 활동의 예문을 일부 조정하여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한 문장을 수정하는 활동이 포함되게 하였음.</p> <p>◦ 높임말을 활용한 간단한 역할극은 본 교재와 형식은 다르지만 교과서에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활동은 그대로 두었음. 단, 대화 구성은 칸을 줄여서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p> <p>◦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 쓰기’를 주 활동으로 하되 대상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할 수 있는 ‘솔직한 마음을</p>

		<p>답아 편지쓰기'를 부차적 활동으로 추가함. 솔직하게 표현하기의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활동이 있지만, 높임 표현이라는 단원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감사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주 활동으로 처리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번호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른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문체를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0쪽 활동이 재미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모둠원 모두가 박수를 쳐야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지요? 기타 상황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0쪽 오타(물어보았다 → 물어 보았다), 14쪽 글씨체 통일 여부 확인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 번호를 넣었음. ◦ '보자'는 모두 '봅시다'로 수정함. ◦ 모둠 친구들 모두가 박수를 쳐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물어보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으로 통일함. ◦ 글씨체 통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쪽. '멋-', '햇-' 등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산적으로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원 구성의 순서에 따르면 1단원에서 사전 찾는 방법을 학습하였으니(^^;) 사전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간단한 발문을 주거나, 도움 상자 등을 통해 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시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3쪽. 제시하신 점검 표에서 표현을 '-는가?'와 같은 표현은 좀 더 친근하게 '-나요?'로 모두 통일하면 어떨까요? - 14쪽. 높임말 활동이므로 '선생님, 부모님 등 웃어른에게'를 '웃어른께'로 수정하면 '께'에 대한 학습도 동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멋-'으로 시작하는 낱말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삭제함. 그 외 단어는 국어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13쪽: 점검표 표현을 '-나요?'로 수정함. ◦ 14쪽: '웃어른에게'를 '웃어른께'로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에서 학생들이 제시된 토박이말 말고는 따로 아는 것이 없을 것이므로 토박이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화의 맥락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문장을 서로 얘기해 보는 활동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6쪽에서 '꾼-', '쟁이-'는 '-꾼', '-쟁이'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10쪽에 "묻다"이 적힌 카드 → "묻다"가 적힌 카드'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박이말로 대화하기 활동은 토박이말로 문장 만들기 활동으로 수정함. ◦ 6쪽: '꾼-', '쟁이-'는 '-꾼', '-쟁이'로 수정함. ◦ 10쪽: "묻다"이 적힌 카드'는 "묻다"가 적힌 카드'로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쪽. '적어 보자'는 '적어 봅시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4쪽. '씨 보자'는 '씨 봅시다'로 수정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쪽: '적어 보자'는 '적어 봅시다'로 수정함. ◦ 14쪽: '씨 보자'는 '씨 봅시

		<p>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쪽. ‘웃어른에게’는 ‘웃어른께’로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p>다’로 수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쪽: ‘웃어른에게’는 ‘웃어른께’로 수정함.
6	나와 내 짝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목표가 짧은 글을 쓰는 것인데, 글쓰기 활용이 약해 보여요. - 정서적 역량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제출했던 다음 활동들이 오지혜 선생님 전체 역량 틀 중 무엇과 관계된 역량인지를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 나와 친구를 서로 마주보며 관찰하게 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스티커 붙이기. - 스티커를 붙인 곳과 그 이유(예, 이마에 스티커를 붙이고, 친구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는 등)에 대해 짧은 글 쓰기. - 마지막에 나의 기분을 적어보는 활동은 2, 3 단원과 겹쳐 보여서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결된 짧은 글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쓰기 활동을 보완하였습니다. 나의 기분을 적어 보는 활동이 정서적 역량 관련 활동이었는데, 내용을 교체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전학 온 새 친구에게, 내 짝꿍을 소개하려고 해요. 나와 내 짝꿍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떠올리며, 다른 친구에게 내 짝꿍을 소개하는 카드를 만들어 볼까요?>에서 문장이 열려 있어서 학생들이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기 등의 방법으로 유연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 <오늘, 나와 내 짝꿍은 서로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림도 그리고 카드도 만들어 보았어요. 혹시 내가 내 짝꿍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없었나요? 내 짝꿍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적어 보아요.>에서 문장이 열려 있어서 학생들이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내가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에서 ‘속이 상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등은 학생들이 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스스로 뒷부분을 찾아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 보기로 다양하게 제시하면 어떨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려 있는 느낌을 준다고 말씀하신 활동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활동을 보완하였습니다. 나의 하루에 대한 느낌 적기 활동을 2, 3단원과 겹치는 것 같아 언어 순화와 관련된 활동으로 내용을 교체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꿍 이외에 다른 대상의 특징을 관찰하여 짧은 글을 써 보는 예시와 활동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전체 흐름으로 보았을 때 ‘나는 누구까요?’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 활동 추가하여 보완하고, ‘나는 누구까요?’ 활동의 경우 수수께끼 상자를 활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명이 ‘나와 내 짝꿍’인데 전체적으로 ‘나’에 초점을 맞춰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쪽~8쪽으로 이어지는 짝꿍 소개 활동에서 ‘나’와 비교해서 같거나 다른 점이 아닌 내 친구만의 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 활동을 추가 보완하면서 친구와 관련된 글을 지어 보도록 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도 가지도록 유

	<p>별한 점을 찾도록 하는 활동을 구성하면 어떨지요? 아니면 9쪽~10쪽에 제시된 ‘나에게 어울리는 말을 찾아보아요!’ 활동을 친구를 대상으로도 구성하고, 활동 결과들을 정리하게 한 후에 글을 쓰도록 하면 어떨지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죄송하네요. 참고만 해 주세요.)</p> <p>- 짧게나마 완결된 글을 써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글쓰기 활동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p>	<p>도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p>
	<p>-4쪽: 나는 어떻게 생겼나요? → 짝궁은 어떻게 생겼나요? / 나의 모습과 → 짝궁의 모습과</p> <p>-5쪽: 나의 모습을 그려 봅시다. → 짝궁의 모습을 그려 봅시다.</p> <p>-6쪽: 볼에 스티커를 붙이고 닮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나도 짝궁도 기분이 좋은 것 같다’라는 예시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동그란 볼의 모양이 닮았다든가, 볼이 빨갳다든가와 같은 특징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9쪽: 단어 중 ‘경솔한’은 1-2학년 아이들에게 어려운 단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유지한다면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p> <p>-12쪽: 나를 소개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과정에서 간단한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앞에서 얼굴을 관찰하고, 어울리는 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으니 ‘나는 안경을 씁니다. 나는 용감한 어린이입니다. 나는 이름 때문에 000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와 같이 수수께끼를 낼 때 어떤 항목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언급해 주거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p>-12쪽: 종이를 구겨서 던지는 활동이 참신하나 자칫 1-2학년 아이들이 절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잘라서 반으로 두 번 접고 상자에 넣은 후 나와서 한 명씩 뽑아 본다든지, 한 곳에 종이를 모아 놓고 그 중에 고른다든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친구들이 없는 쪽으로 날려 본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해 봅시다.</p> <p>-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재미있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마지막에 오늘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나를 소개하는 글 또는 친구를 소개하는 글 등 한 가지 정도의 짧은 글을 쓰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p>	<p>- 오탈자, 어색한 표현, 저학년 학생들에게 어려워 보이는 표현 등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개별 활동들을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 예시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3쪽의 쪽지 던지기 활동은, 수수께끼 상자에 쪽지를 접어 넣어 제비뽑기 형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p>
	<p>- ‘찾아 보아요’는 ‘찾아보아요’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p> <p>- 목차상에서 활동 6-1과 6-2는 제목이 같아 동일한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활동이 동</p>	<p>- 오탈자, 어색한 표현, 저학년 학생들에게 어려워 보이는 표현 등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활동 6-1과</p>

	<p>일한 목표 아래 묶일 수 있는 것이라면 ‘활동 6’ 하나로 통일되어도 좋을 것 같고, 활동의 성격이 서로 조금 다르다면 제목을 수정하여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소한 것입니다만, 2쪽에 제시되는 여러 그림 중 ‘눈 모양’에는 ‘눈썹’도 포함되도록 삽화가 그려져야 할 듯합니다. - 4쪽 발문에서 ‘나는 어떻게 생겼나요?’, ‘나의 모습과’는 ‘나의 짝궁은 어떻게 생겼나요?’, ‘짝궁의 모습과’로 수정되어야 할 듯합니다. - 5쪽 발문에서 ‘나의 모습을’은 ‘짝궁의 모습을’로 수정되어야 할 듯합니다. - 6쪽과 7쪽의 첫 번째 발문에서 ‘마주보고’는 ‘마주 보고’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 9쪽 발문에서 ‘둥그렇게’는 ‘둥그랗게’ 또는 ‘둥그렇게’가 좀 더 자연스러운 듯합니다. - 9쪽, 10쪽 단어들의 예시에서 ‘경솔한’과 같은 단어는 다소 부정적이어서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 11쪽 두 번째 발문에서 ‘이야기 해 보아도’, ‘물어 보아도’는 ‘이야기해 보아도’, ‘물어보아도’로 써야 할 듯합니다. - 12쪽과 13쪽 발문의 ‘수수께끼’는 ‘수수께끼’의 오타인 듯합니다. - 13쪽 두 번째 발문의 ‘다같이’는 ‘다 같이’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p>6-2도 통일하여 수정하고, 글쓰기 활동을 보완, 추가 하였습니다.</p>
--	---	--

▶ 3차 개발

- 공동 연구원, 책임 연구원의 내부 종합 검토 내용

대단원		검토의견
1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 전체 표지를 넣어 주세요. - 14쪽에서 한글 낱자의 모양과 닮은 사물을 찾아보는 활동이 재미있긴 한데, 교육적 의미가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배울 한글 문자 상형의 의미가 잘못 이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 정서적 역량 부분이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관계 형성’이나 ‘발견’에 대한 아이디어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 귀여운 이미지나 삽화 성격의 것들이 저학년이니만큼 보충되면 좋을 것 같아요.
2	귀를 좋긋! 바르게 듣고 써요	- 수정 의견 없습니다.
3	재미있는 낱말 놀이	- 수정 의견 없습니다.

4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	- 수정 의견 없습니다.
5	문장을 어떻게 쓸까요?	- 대단원 전체 표지를 넣어 주세요. - 활동 번호 붙이는 방식을 다른 원고와 통일해 주세요.
6	나와 내 짝꿍	- 대단원 전체 표지를 넣어 주세요.

- 저학년군 교재 최종 활동 내용

대단원	성취 기준	관련 활동	활동 구성의 주안점	지도 시 유의점
1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 아요!	1-2학년군 문법 (1) 한글 낱자 (자 모)의 이름과 소 릿값을 알 고 정확하 게 발음하 고 쓴다.	1. 한글 낱자 숨은 그림 찾기 (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한글 낱자의 모양에 집중하여 숨은 그림을 찾도록 지도한다. ● 찾은 글자에 ○ 표만 하기보다는 글자의 모양을 따라 써 보게끔 한다.
		2. 한글 자모음의 소릿값 익히기 → 각 자모음이 들어간 낱말 쓰 고 소리 내어 읽기 (3~12쪽)	한글 낱자의 이름과 소릿값을 연결지어 익힐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자모가 들어간 단어를 직접 소리 내어 읽어 보게 함으로써 낱자의 발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자의 이름과 소릿값은 다른 개념이므로 이들을 구별하여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가 단어를 발음하기 어려워하거나, 잘못 발음할 경우에는 교사가 정확한 발음으로 소릿값을 알게 해 준다.
		3. 한글 자모음을 합쳐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단 어들을 퍼즐 놀 이로 익히기 (13쪽)	한글의 자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단어를 쓸 수 있음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모음 낱자로 구성된 퍼즐로 단어 찾기 놀이를 하며 자모음 낱자 수준에서 단어가 형성됨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모음 낱자들 사이에서 단어를 찾는 것이 헛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준다. ● 단어 상자에 제시된 단어들 외에도 퍼즐판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추가로 찾아보도록 한다.
		3. 한글 자모음을 합쳐 다양한 소리 표현하기 (14쪽)	다양한 소릿값을 갖는 한글의 자모음을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음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익숙한 소리를 의성어 형태로 나타내 보게 한다. ●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자모음을 자유롭게 조합해 보도록 격려한다.
		4. 한글 자모음을 합쳐 만들고 싶은 단어 만 들고 소리 내 어 읽기 (15~16	한글 자모음이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 체계에 따라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됨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아무 단어를 만들어 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소리+가운뎃소리+끝소리 체계에 맞게 자모음을 결합하여

			쪽)	<p>단어를 만들어 보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직접 만든 단어를 자모음의 소릿값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발음해 보도록 유도한다. ● 부록에 실린 주사위 도면을 자르고 만드는 데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 학습자가 각 자음자를 초성으로 하는 낱말을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 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주사위를 던진 후 바로 말을 이동시키기보다 해당 낱말을 소리 내어 읽고, 교재에 낱자 수준으로 구분하여 적어 보게끔 지도한다. ● 말놀이의 기본 규칙은 윷놀이와 같으며 교사 재량으로 흥미도 제고를 위한 추가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5. 낱말 주사위 놀이 (17~18쪽)	<p>각 면에 ‘ㄱ’~‘ㅎ’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적어 넣은 14면체 주사위로 말놀이를 하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사위 각 면에 학습자가 직접 떠올린 낱말을 적어 넣도록 하였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낱말을 다시 초/중/종성 수준으로 분리해 보게 하여 한글 낱자의 모양과 소리에 대해 고려해 보도록 하였다.</p>
			6. 단어를 자모음 수준으로 분리하기 → 국어사전 찾기 (19~2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이 국어사전 찾기를 어려워할 수 있어, 교사의 충분한 도움과 단계별 안내가 필요하다.
			7. 몸으로 한글 낱자의 모양 표현하기 (23~25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시범은 학습자들이 쉽게 맞힐 수 있는 단순한 낱자를 위주로 한다. (학습자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다소 복잡한 낱자는 학습자들의 몫으로 남겨 둔다.) ● 학습자 간 짝/모듬 활동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인쇄하여 나눠 줄 수 있다. (교재 해당 부분에 붙이도록 한다.)
2	귀를 종긏! 바르게 듣고	[1-2학년군] 듣기말하기 (1) 다른 사 람의 말이	1. 잘 듣고 동물 색칠하기(p.2) 2. 나의 머릿속 표현하기(p.3)	<p>-듣기와 관련하여 단순히 듣고 쓰는 활동이 아닌 듣고 색칠하기, 듣고 그리기 등의 다양한</p> <p>-각 활동 시 듣기자세 및 중요성에 대해 교사가 계속적으로 언급하여 학습자가 단순히 놀이가 아닌</p>

3	씨요	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	3. 친구의 머릿속 완성하기(p.4) 4. 동그라미, 세모, 네모 세상(p.5) 5. 친구의 설명대로 그리기(p.6) 12. 자신있게 말하고 듣기(p.14)	활동으로 구성함. -선생님 대 학생 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친구 들끼리의 활동도 포함하여 보다 풍부한 활동 구성이 되도록 함. -1-2학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듣기 활동을 통해 집중하여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듣기의 중요성을 느끼고 듣기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
		[1-2학년군] 쓰기 (2)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6. 그림을 문장으로 표현하기(p.7) 7. 낱말로 문장 만들기(p.8) 8. 그림 주사위를 굴러 보아요(p.9) 9. 또박또박 바르게 써요(p.10) 10. 친구를 찾아라(p.11) 11. 이런 일이 있었어요(p.12-13)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림, 사진 등의 재미 있는 삽화를 활용하여 문장 쓰기에 대해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구성함. -‘문장 빨리 만들기, 그림 주사위 놀이, 친구를 찾아라’ 등의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겪은 일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활동은 듣기·말하기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짧은 글을 발표하고 들을 때 앞에서 배운 듣기 자세를 복습하며 들을 수 있게끔 연계함.	-간단한 수준의 문장일지라도 가급적 학습자가 완전한 문장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 주사위 활동, 친구를 찾아라 등의 활동 전에 교사가 시범을 보이도록 함.
	재미있는 낱말 놀이	[1-2학년군] 문법 (3) 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알고 활용한다.	1. 유의어 찾아 쓰기(p.2) 2. 유의어 아닌 낱말에 색칠하기(p.3) 3. 첫소리 글자 보고 낱말 쓰기(p.3) 4. 알고 있는 낱말 찾기(p.4) 5. 반의어 쓰기(p.5) 6. 반대되는 말 연	- 유의어, 반의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먼저 관련 낱말들을 익히고 확인하는 1차 활동, 그림 그리기 혹은 쓰기 등을 통한 주 학습 활동인 2차 활동, 이를 응용한 3차 활동으로 구성함. - O 표시, 연결하기, 사전에서 찾기 등 단순히 쓰기에서 탈피하여 다	- 1차-2차-3차 활동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이 단순히 놀이하듯이 활동하지 않고 낱말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결하기(p.5) 7. 사전에서 낱말 찾기(p.6) 8. 문장에 맞는 낱말 고르기(p.6)	양하게 흥미를 끌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함.	
			9. 상의어와 하의어 연결하기(p.7) 10. 낱말 분류하기(p.8) 11. 가로 세로 낱말 짝 맞추기 게임(p.9)	- 1-2학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낱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활동에 있어서 도움상자를 통해 학습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가능한 다양한 의미 범주의 낱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습자와 같이 이야기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도록 구성함.	- 상의어, 하의어 학습 활동의 경우, 교재에 제시된 낱말 이외에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상의어와 하의어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함.
4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	[1-2학년군] 읽기(6)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1-2학년군] 문학(6)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을 동시나 노래, 이야기로 표현한다.	㉠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나요? ㉠-1) 나는 누구일까요?(pp.1-2)	- 해당 성취 기준이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달리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각각 두 개의 소단원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음 - 본 소단원은 핵심 대상 및 화제 중심의 글을 읽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음 - 1-2학년군 학습자에게 설명문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짧은 글을 선정하였음	- 해당 제재가 놀이일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글이라는 데 유의해야 함 - 2쪽 활동의 경우, ‘가을’과 ‘겨울’의 초성이 동일한데 사다리타기 활동까지 끝낸 후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2) 수수께끼를 만들어 봐요(pp.3-4)	- 설명문과 유사한 수수께끼를 만들어 봄으로써 읽기와 쓰기 활동을 간접적으로나마 연계하여 구성하였음	- 다른 친구들과 수수께끼 맞추기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미리 수수께끼 카드 만드는 시범을 보여 주어야 함 - 다른 친구의 수수께끼 정답을 미리 보지 않도록

5	문장을 어떻게 쓸까요?	[1-2학년군] 문법 (4)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년군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알립장을 제재로 선정하여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구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과 후 활동 신청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 경우 설명해 주도록 함
			<p>①-3) 알립장을 보고 내일을 준비해요(pp.5-6)</p>		
			<p>② 누가 무엇을 하였나요? ②-4) 해와 바람이 무엇을 하였나요?(pp.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소단원은 주인공과 사건이 나타나는 이야기 글을 읽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음 - 주인공이 관여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음 - 이야기 글의 특성상 시간의 흐름(순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리 제시하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글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였음 - 이야기 글이 시간의 흐름(순서)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이는 추후 3-4학년군 읽기 활동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p>②-5) 그림일기로 표현해요 (pp.1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차시에 읽어 본 제재를 대상으로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그림과 글을 함께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이해 및 표현 범주에서)해 보는 경험을 초기적인 단계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칸을 모두 채운 것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유도함 - 작성한 그림일기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거나, 선생님이 그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함
			<p>③ 겪은 일을 노래로 기억해요 ③-6) 겪은 일을 노래로 기억해요(pp.12-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로 표현하는 것의 효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육하원칙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노랫말을 구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 활동을 구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에게 동요를 들려주고 직접 불러 보는 활동을 제공하도록 함 - 그림일기로 표현했던 인상 깊은 경험을 노래로 만드는 활동으로, 이전 소단원과의 연결이 전제되어 있음
			<p>1. 몸짓으로 하는 말 알아내기 2. 그림에 제시된 내용 문장으로 표현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 전 단계로,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상황이나 행동을 문장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를 통해 상황이나 행동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친숙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3. 한 문장으로 맞히는 스무고개	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만든 문장을 교정하기 보다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만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낱말 카드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	- 낱말 카드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문장의 기본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 낱말 카드를 칠판에 붙여서 문장의 기본 구조가 어떠한지 학습자들이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흉내 내는 말 넣어 문장 써 보기	- 흉내 내는 말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말들을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황에 맞게 흉내 내는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문장 부호는 언제 사용할까요?	- 쉼표, 느낌표, 마침표, 물음표를 언제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장 부호의 명칭과 사용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
			7. 문장 바꾸어 보고 알맞은 문장 부호 붙이기 8. 문장 부호 카드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 문장 변화에 따라 적절한 문장 부호를 붙이는 활동과 문장 부호에 맞는 문장을 작성해 보는 활동을 해 봄으로써 문장 부호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생들이 문장 부호를 정확히 익힌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나와 내 짝꿍	[1-2학년군] 쓰기 (3)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짧은 글을 쓴다.	1. 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 내 짝꿍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나의 모습과 친구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별로 나의 특징을 찾아 그리거나 적는 활동을 통해 섬세하게 관찰해 보는 경험을 하게 한다.	- 나와 짝꿍의 모습을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얼굴 부위로만 제한하지 말고 몸 전체나 특정 동작을 묘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 주도록 한다.
			3. 나와 내 짝꿍의 닮은 점을 찾아 보아요. 4. 나와 내 짝꿍의 다른 점을 찾아 보아요.	- 마주보며 서로를 관찰하고, 닮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여 본다. - 스티커를 붙인 상태	-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비교하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

				에서 닳은 부분과 닳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른 부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다.	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 새 친구에게 내 짝궁을 소개해보아요.		- 인터뷰 형식으로 짝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짝궁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짓는다.	- 활동 후 서로 바꾸어 읽게 하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한다.
	[1-2학년군]] 쓰기 (5)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을 글로 쓴다.	6. 나에게 어울리는 말을 찾아보아요.		- 나와 짝궁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일기를 작성하게 한다.	-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어울리는 말과 짝궁이 생각하는 나에게 어울리는 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 어울리는 말에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비롯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와 짝궁의 감정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7. 나는 누굴까요?		- 나를 소개하는 쪽지를 적어 자른 후 접어서 수수께끼 상자 안에 넣으면, 선생님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쪽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히게 한다. -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수께끼 시간이 끝나면 나머지 쪽지들을 꺼내어 자유롭게 주인을 찾아 주도록 한다.	- 이름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나의 쪽지가 뽑힐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글짓기에 집중하게 한다. - 누구의 쪽지를 뽑게 될 것인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실 분위기를 형성한다. - 다소 산만하더라도 교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하여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단원		관련 정서 활동		정서 활동 구성의 주안점	지도 시 유의점
1	글자의 소리와 모양에 대해 알아보	- 정서 활동명: 함께 몸으로 나타내요. 몸으로 한글 낱자 모양 만들어 보기 (23~25쪽)		학습자들이 모둠을 이루어 교사와 함께 낱자를 직접 몸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고, 이때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몸으로만 활	● 학습자 모둠을 여러 개 만들어 시간을 겨루는 게임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 교사의 몸짓을 그대로

		<div>아요!</div> <div>- 정서 활동 주제:</div> <table><tr><td>발견</td><td>협력하기</td></tr></table>	발견	협력하기	<div>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이라기보다 놀이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div> <div>학습자가 다른 친구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협력하여 낱자의 모양을 몸으로 만들어 보며 성공적으로 낱자를 표현하기 위해 친구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배려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div>	<div>따라 하기보다 교사가 표현하고자 한 낱말을 본인이 주체적으로 몸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div> <div>● 학습자가 어떤 낱자를 표현한 것인지, 왜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몸으로 표현하고자 한 낱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하는 것도 좋다.</div> <div>● 학습자들끼리 직접 몸을 쓰는 활동이므로 안전 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div> <div>● 활동 전에 친구와 어떤 글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div>		
발견	협력하기							
2	<div>귀를 종긋! 바르게 듣고 써요</div>	<div>-정서적 주제</div> <table><tr><td rowspan="3">마음 읽기</td><td>울타리 밖으로 나오기</td></tr><tr><td>나의 감정 들여다보기</td></tr><tr><td>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기</td></tr></table> <div>13. 나의 모든 감정은 소중한!(p.15-17)</div> <div>14. 감정 만화 그리기(p.18)</div> <div>15. 어떤 표정일까요?(p.19)</div> <div>16. 친구에게 남기는 기분 좋은 한마디!(p.20)</div>	마음 읽기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기	<div>-감정의 기본적인 종류들과 나의 감정의 소중함, 더 나아가 친구의 감정을 배려해야 함을 알도록 구성함.</div> <div>-1-2학년의 수준에 적합하면서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활용하여 활동을 구안함.</div> <div>-듣기·말하기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친구가 나의 발표를 잘 들을 때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함.</div>	<div>-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주가 아닌 그 후의 감정에 대한 여러 활동이 초점화될 수 있도록 유의함.</div>
마음 읽기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기							
3	<div>재미 있는 낱말 놀이</div>	<div>- 정서적 주제</div> <table><tr><td rowspan="3">관계 맺기</td><td>친구와 나 발견하기</td></tr><tr><td>입장 바꾸기</td></tr><tr><td>협력하기</td></tr></table> <div>12. 친구와 나 사이의 우정(p.11)</div> <div>13. 친구가 이럴 때 나는?</div>	관계 맺기	친구와 나 발견하기	입장 바꾸기	협력하기	<div>-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 친구에 대해 발견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함.</div> <div>-1-2학년생이 흥미를 느끼도록 게임, 카드 쓰기 등의 활동을 구안함.</div> <div>-말하기, 쓰기의 표현 활동</div>	<div>-교재에 제시된 사례 이외에 실제 학습자의 사례에 주목하여 유의미한 활동 지도가 되도록 유의함.</div>
관계 맺기	친구와 나 발견하기							
	입장 바꾸기							
	협력하기							

		내가 이럴 때 친구는?(p.12) 14. 친구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 표현하기(p.13) 15. 친구에 대해 알아보기(p.14)	과 연계하여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내면화되도록 함.					
4	내용을 파악하고 노래로 기억해요	- 정서적 주제 <table><tr><td>정서적 전환</td><td>동일시하기</td></tr><tr><td>발견</td><td>입장 바꾸기</td></tr></table> 7) 내 마음을 알까? (pp.16-19)	정서적 전환	동일시하기	발견	입장 바꾸기	- 이야기 형태로 상황을 제시하여 해당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당 인물의 감정에 대해 살펴보는 방법으로 동일시하기와 입장 바꾸기를 제시하였음	- 자신의 감정에 대해 바라보는 활동을 구안하였으나,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한 상태에서의 활동임에 유의해야 함 - 타인의 상황에 비추어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학습자 본인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사례에 비추어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정서적 전환	동일시하기							
발견	입장 바꾸기							
5	문장을 어떻게 쓸까요?	<table><tr><td>정서적 전환</td><td>긍정적 감정 체험하기</td></tr></table> 9. 동요 가사 바꾸어 부르기	정서적 전환	긍정적 감정 체험하기	- ‘동요 가사 바꾸어 부르기’는 ‘긍정적 감정 체험’을 통한 정서적 전환을 목표로 구성된 활동이다. - 가사를 바꾸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각자 즐거웠던 경험을 떠올리고 모둠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게 된다. 또한, 경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 감정으로 정서가 전환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 학생들이 즐거웠던 경험을 노래 가락에 맞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이 활동의 목적은 경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여 노래로 부르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체험하고 이러한 정서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데 있으므로, 가락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한다. 학생들이 가락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어려운 활동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 되도록 한다.		
정서적 전환	긍정적 감정 체험하기							
6	나와 내 짝꿍	[정서 활동] 친구들아, 화해하자. <table><tr><td>정서적 전환</td><td>동일시하기</td></tr><tr><td>문제 해결</td><td>화해</td></tr></table>	정서적 전환	동일시하기	문제 해결	화해	-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한다. 욕을 들어 본 경험, 욕을 해 본 경험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 하게 한다.	-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는 나쁜 말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 욕설이나 거친 말 외에
정서적 전환	동일시하기							
문제 해결	화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활동 후 발표하게 하여, 친구들을 화해하게 할 때 중재자로서 할 수 있는 언어 표현들을 직접 말해 보도록 한다. 	<p>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많을 이해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자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안내한다.
--	--	--	---	--

3.2. 중학년군

▶ 1차 개발

대단원		관련 활동	활동 구성의 주안점
1	날말이 참 많아요!	1-1. 시장에 가면~ 1-2. 학교에 가면~ 2. 이어 말하기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채소, 과일, 과자, 옷 등), 학교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만나게 되는 사람, 학교의 시설 등)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떠올려 가며 마인드맵을 그린다. -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친구와 날말 이어 말하기 놀이를 한다('00에 가면~ 00도 있고~'와 같은 식의).
		3. 스파이 날말을 찾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날말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게 한다. 기준은 용도, 장소, 모양을 비롯하여 품사 분류 기준과도 연결된다. -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스파이 날말인지 적게 하여, 짝궁과 비교해 보고 발표하게 한다.
		4. 날말의 모양이 바뀌어요. 5. 똑똑한 국어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말의 기본형 개념을 이해하고, 모양이 바뀌는 날말의 기본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사전 찾는 방법을 안내하며 실제 단어를 찾아 보게 한다.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1. 동화 속 이야기 떠올리기(p.2) 2. 원인과 결과 파헤치기(p.3-4) 3. 원인과 결과 찾기(p.5) 4.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문장으로 표현하기(p.6) 5.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도록 쓰기(p.7) 6. 재미있는 원인과 결과 만들기(p.8) 7. 원인과 결과를 찾아라!(p.9-11) 8. 원인과 결과 말판 놀이하기(p.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 전체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구안하였으며 메모하며 듣기는 부차적인 성취 기준으로 다루고자 하였음.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함.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삽화뿐만 아니라 문장 짝 찾기 놀이, 말판 놀이, 재미있는 원인과 결과 만들기 등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9. 잘 듣고 메모하기(p.14-15) 10. 역할을 나누어 메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삽화를 통해 동기를 유발함. -동기 유발의 이야기와 그 뒤의 활동들이 하나의

		(p.16-17) 11. 메모의 중요성 알아보기 (p.18) 12. 친구의 글을 듣고 메모하기 (p.19)	텍스트를 통해 연계될 수 있도록 활동의 흐름을 고안함. -‘지식채널e’와 같은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메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메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 -앞선 원인과 결과에 대한 활동과 메모하며 듣기의 활동을 연계하여 학습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지도록 함.
3	맞춤법, 어렵지 않아요!	1. 소리와 표기가 같은/다른 예시: 소리 내어 읽고 소리 나는 대로 써 보기 (1~2쪽)	소리와 표기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모두 제시하여 ‘소리와 표기가 다르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 단어와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써 보기 (3쪽)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단어와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써 보게 함으로써 그것이 생각보다 불편하고 어려우며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 노래를 듣고 노래 가사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 →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노래 가사를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고쳐 써 보기 (6~7쪽)	소리 나는 대로 적힌 노래 가사를 노래를 들으며 순서대로 맞추는 활동을 통해 어떤 단어가 어떤 소리로 나는지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을 맞춤법에 맞게 다시 고쳐 써 봄으로써 소리와 표기를 달리 하여 적는 방식의 효용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소리 나는 대로 쓴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고쳐 써 보기 (4쪽)	자신이 직접 소리 나는 대로 문장을 적어 보고, 짝꿍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 봄으로써 소리와 표기가 달라지는 낱말을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 짝꿍이 쓴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고쳐 쓰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맞춤법 지식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5. 친구에게 좋아하는 노래 (가사) 소개하기 → 친구가 들려주는 노래 가사를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받아 써 보기 (8~9쪽)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며 노래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여 들려주고, 다른 친구가 들려주는 노래 가사를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받아 써 보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소리와 표기의 차이를 알도록 하고,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글의 종류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요	1) 제목을 먼저 살펴보아요 1. 가게 이름 보고 알아맞히기(p.2.)	-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글의 중심 생각과 제목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우리 반 달력 만들기 (pp.3-5.)	- 특정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름붙이기 활동을 통해 직접 의미 부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제목을 보고 내용 추론하기(p.6.)	- 제목과 글의 중심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목을 통해 글의 내용을 추론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2) 이 글을 왜 썼을까요? 1. 우리 초롱이를 찾아주세요.(pp.7-8.)	-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글을 제재로 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2. 경희루 찾아오기 (pp.9-10.)	- 순서를 고려해야 하는 제재를 선정하여 다음 소단원의 이야기 제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주인공을 따라가요 1. 걸리버 여행기(pp.11~14.)	- 이야기 글의 특성에 따라 인물에 초점을 두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 이야기 글에서는 내용을 간추릴 때 시간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5	아름다운 우리말	- 아름다운 토박이말로 대화하기	-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유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을 통해 고유어의 뜻과 예문을 확인한 후, 실제 대화에서 고유어를 활용해 보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고유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
		- 낱말 확장하기 놀이(1): 낱말 카드 이어 붙이기 - 낱말 확장하기 놀이(2): ♪ ‘-쟁이’로 끝나는 말은 ♪	- 낱말 카드 이어 붙이기는 합성법과 관련된 활동이고, <♪ ‘-쟁이’로 끝나는 말은 ♪>은 파생법과 관련된 활동이다. - 모둠별 놀이를 통해 국어의 단어가 확장되는 두 가지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 알기	- 높임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높임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문장을 쓰도록 한다. - 예사말과 높임말의 관계를 이해하고 높임말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역할극을 통해 높임말 익히기	- 앞서 배운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적용 학습으로 실제적 상황에서 높임말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6	알맞은 낱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	1. 설명할 대상이나 사물 정하기	- 설명할 대상이나 사물을 학습자 스스로 정하게 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2. 설명할 대상에 알맞은 낱말 찾기	- 설명할 대상에 알맞은 낱말을 학습자가 마인드 맵 형태로 수정 확장해 나감으로써 학습자 주도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3. 설명할 대상에 알맞은 단어로 문장 만들어 보기	- 선택한 단어들로 한 문장씩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긴 글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4. 설명할 대상의 설명 순서 정하기	- 완성한 문장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할 것인지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신이 정한 배열 순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일관된 논리적 흐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설명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글 완성하기	- 설명하는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인 글 완성하기로, 이어주는 말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긴 글을 스스로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6. 하나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 초등 3-4학년군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제시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7.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 적어 보기	- 자신의 의견 혹은 주장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다른 친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알맞은 이유를 찾았는지	- 말놀이판을 활용해 이유를 말하는 순서를 정하고, 친구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게임을 활용함으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기	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9.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 완성하기	-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의 최종 완성 단계로, 알맞은 이유와 주장을 적절히 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자신 있게 말하고 바르게 듣기	-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11.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 의견도 소중해!	- 영화 ‘보스베이비’를 활용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 보도록 하였다.

▶ 2차 개발

- 외부 자문진 자문 의견 및 반영 내용

대단원	자문진	검토 의견	반영 내용
1	권순구	<p>- ‘시장에 가면’보다 문구점이나 놀이공원처럼 아이들이 더 자주 갈 만한 곳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요즘 전통 시장을 따라가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 게다가 지난 번 저학년 심화교재의 과일과 채소 구분하기는 어른들도 어려운 것(토마토, 참외, 수박 등은 채소류)이었는데, 이번 교재에 있는 채소 낱말 쓰기에서도 채소의 범위는 아이들에게 어려울 것이므로 차라리 과일과 채소라고 묶으면 나을 듯싶다. 이 어말하기에는 과일, 채소 구분의 어려움도 동일하다.</p> <p>- ‘학교에 가면’ 6쪽, 오타 ‘우리하→우리가’ / 교실이나 음악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제시된 예가 너무 포괄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이 섞여 있다. 예를 들어 ‘연주하기>피아노 치기>악보보기’는 층위가 너무 다르다. 연주에는 피아노, 드럼, 오카리나 등 다양한 악기의 연주가 포함되는데, 연주하기가 예시 되면 음악듣기, 노래부르기, 곡만들기, 지휘하기 등 비슷한 층위의 어휘를 제시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길 듯하다. 따라서 너무 포괄적인 어휘 제시는 피했으면 좋겠다.</p> <p>- 스파이 낱말 찾기에서 7번 홍수, 소나기, 천둥(비 내림)과 무지개(비 그침)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홍수, 소나기, 무지개(물 관련)와 천둥(전기 작용)으로 구분 가능한 것을 교재 운용자가 판단하게 할 것인지 집필진에서 논의할 것인지 궁금. 심지어 극단적으로 분류하자면 8번 오징어, 멸치, 조개(해산물)와 배추(농산물)도 오징어, 멸치, 배추(취식 대상 곁면 노출)와 조개(껍데기 제거 후 취식 가능)도 가능한데 분류 이유를 아이들이 비교적 영뚱하게 대더라도 가능하다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인정해 주는, 운용 교사의 재량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오분류의 여지가 10% 이상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집필진에서 걸러낼 것인지를</p>	<p>- 지적하신 오타자, 어색한 표현 등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p> <p>- 6쪽의 예시를 구체적인 사례로 수정하였습니다.</p> <p>- 쪽의 ‘시장에 가면’의 경우 활동 배경을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학교에 가면’의 경우 포괄과 세부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예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도 시 유의점에 추가 기술하였습니다.</p> <p>- 9쪽의 스파이 낱말 찾기 활동의 경우, 지도 시 주의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정답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낱말을 이해하고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홍수, 소나기, 무지개, 천둥’을 물과 관련된 것과 전기</p>

		<p>여부가 궁금했다.</p> <p>-마지막에 있는 ‘정서 활동’의 편성 이유는? 첫째 마당에서부터 ‘사과하기’의 정서 활동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다. 앞 내용과의 연관성을 모르겠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교재를 운용할 교사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오해 풀기(또는 사과하기)가 뒤에 다른 마당에 또 있는데 굳이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그리고 정서 활동 중에 감사하기, 축하하기(칭찬하기), 공감하기(동의하기) 같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다루면 좋겠고, 아울러 위로하기, 용기 내어 고백하기(솔직한 감정 표현하기) 등의 정서 활동도 있으면 좋을 듯하다. 5과에서 감사하기는 다루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편지로 감사를 표현하는 데는 익숙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구두로 짧게 할 수 있는 감사 표현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p> <p>-21쪽 정서 활동 대화 예시에서 ‘종일’ 같은 단어는 아이들이 알기는 해도 잘 쓰는 용어가 아니다. 차라리 ‘하루 종일’이 나을 듯하다.</p> <p>-7쪽 알아 보다→알아보다, 넘어 갑니다→넘어갑니다</p>	<p>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창의성을 칭찬해 주도록 추가 기술하였습니다.</p> <p>- 정서 활동의 경우 타학년 교재와의 중복을 고려하여 수정하였습니다.</p>
	김정은	<p>- 11-12쪽에 스파이 단어를 찾는 활동에서 7번 활동(홍수, 천둥, 소나기, 무지개)이 다른 특성의 단어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p> <p>- 14쪽에 여러 낱말들의 바뀌지 않는 부분과 바뀐 꼬리 부분 찾기 활동은 낱말의 수를 조금 줄이고, ‘걷고, 걷지, 걷자’처럼 기본형의 변형 낱말을 여러 개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학생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p> <p>- 18쪽 세 번째 활동에 오탈자가 있습니다. 문제에는 ‘술’을 검색하라고 되어 있는데, ‘숯’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p>	<p>- 지적하신 오탈자, 어색한 표현 등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p> <p>- 스파이 낱말 찾기 활동의 경우 세부 예시를 수정하였고, 용언 활용 활동의 경우 단계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세분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p>
2	권순구	<p>-1쪽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한 까닭을 ‘원인’ → 일이? 일을? (일이 일어나게 된, 일을 일어나게 한)</p> <p>-4쪽 공기 놀이→공기놀이, 5쪽 가져 가다→가져가다, 튼튼해 졌습니다→튼튼해졌습니다, 6쪽 바래다 주었습니다→바래다주었습니다</p> <p>-6쪽 친구과→친구와, 7쪽 우리집→우리 집, 14, 17쪽 들려 주다→들려주다</p>	<p>-표현 관련 내용은 수정하였습니다.</p>
	김정은	<p>- 6쪽의 활동 중 첫 번째 문제에도 이어주는 말(그래도)의 예시를 결과 문장 쓰는 칸에 제시해 주시거나 보기로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배우긴 하지만 이어주는 말이 무엇인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p> <p>- 7쪽 두 번째 활동에서 ‘결과 ⇐ 원인’으로 화살표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현재는 ‘결과 ⇒ 원인’으로 되어있습니다.</p> <p>- 8쪽과 12쪽의 자기평가 두 번째 기준은 의도적으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지요?</p>	<p>-표현 관련 내용은 수정하였습니다.</p> <p>-화살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p> <p>-평가 기준은 하나는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는 친구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다르게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p>
3	권	<p>- ‘더 알아보기 2’는 표준어 규정인데, 주로 맞춤법을 언급하</p>	<p>- 두 개의 <더 알아보기></p>

4	순 구	다가 표준어에 대한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예로 제시되었다.	를 조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단원 전체의 흐름이나 목적에 잘 부합하지 않는 <더 알아보기 2>를 삭제함.
	김 정 은	- 10쪽 단원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적는 활동에서 ‘어려움’에 대해 적는 문항이 2개(1, 3번) 있는데, 학생들이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둘 중 하나의 문항은 긍정적인 감정을 묻는 질문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1번 문항을 ‘맞춤법에 맞게 적으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나 3번 문항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해당 활동에서 제시되는 질문 중 하나를 맞춤법에 맞게 적을 때의 장점을 묻는 것으로 수정함.
	권 순 구	- ‘이 글을 왜 썼을까요?’에서 ‘이 글을 읽게 될 사람은 누구 일까요?’라는 질문 문항은 제목의 기능이나 이야기의 흐름 파악, 중심 생각 파악과는 동떨어진 문항인 것 같다.	- 해당 문항을 삭제하고, 중심 화제를 묻는 문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총평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 단원과 편집 양식을 통일하였습니다.
5	김 정 은	-3쪽에 글은 아직 수록되지 않은 것이 맞지요? -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기’ 성취 기준과 관련하여 제목과 내용의 관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에서 중심내용을 찾는 내용도 조금 보강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당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 글의 중심 내용을 찾는 활동을 보강하였습니다. (pp.9-10)
	권 순 구	-2쪽에서 사전에서 뜻 찾아 써 보자는 토박이말의 사례들을 기왕이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면 좋겠고, 솔직히 말하자면 토박이말을 살려 쓰자는 취지는 좋지만, 아이들에게 억지로 그 뜻을 암기시키는 것도 그렇고, 게다가 예문을 작성하게 시키는 것은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아이들에게는 아름다운 토박이말이라기보다 들어보지도 못했거나 생소한 이상한 토박이말을 외국어 단어처럼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에 지나지 않는다. - 대체로 ‘봄시다’ 같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다가 8, 9, 13, 14 쪽에서 ‘보자’ 같은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미 사용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기실 다른 마당에서는 비격식체의 명령형(소위 두루높임)이나 격식체 중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소위 아주높임)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 그정도 어미 바꿈은 허용할 만하나 5과에서의 하십시오체가 아닌 해라체 사용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10쪽 놀이 예시에서 물어 보다→물어보다	◦ 토박이말 순서 조정함. 주로 교과서에 제시된 토박이말을 활용한 것이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 수준에서 특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토박이말 일부는 삭제하였음(‘우두망찰히다, 주전부리 삭제). ◦ ‘보자’를 모두 ‘봄시다’로 수정함. ◦ 10쪽 놀이 예시에서 물어 보는→물어보는
	김	-2쪽 활동에 토박이말을 활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활동까	◦ ‘아름다운 토박이말로 대

	정은	<p>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문장을 만들어 서로 공유해보는 활동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p> <p>-6쪽 준비하기에 ‘-꾼’, ‘-쟁이’로 ‘-’표시가 앞으로 옮겨져야 하고, ‘멋-’의 경우에는 예시로 제시된 ‘멋지다’외에 ‘멋쟁이’, ‘멋들다’ 정도의 예시가 생각나는 데 학생들이 적기에 ‘멋’으로 시작되는 합성어나 파생어를 떠올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p>	<p>화하기’ 활동을 ‘아름다운 토박이말로 문장 만들기’로 수정함.</p> <p>◦ 6쪽 준비하기 접미사 ‘-꾼’, ‘-쟁이’로 수정함.</p> <p>◦ ‘멋-’ 삭제하고, 접사를 지도 선생님이 상황에 맞게 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함.</p>
6	권순구	<p>-3쪽 “설명문을 읽고 싶은 대상을 고른 친구가 있나요?” → 문장 호응 안 됨.</p> <p>-8, 9, 10, 11쪽 한번→한 번 : 같은 쪽에서 제대로 표기한 것도 혼재되어 있다.</p> <p>-10쪽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알맞은 이유를 찾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해 보기” → 문장의 의미 모호</p> <p>-정서 활동에 나오는 ‘보스베이비’의 띄어쓰기 통일 필요./ 15쪽 맨 마지막 글에서 ‘입장이나’에서 ‘나’ 빼기</p>	<p>- ‘설명문을 읽고 싶다는 호기심이 들 만큼 매력적인 설명 대상을 고른 친구가 있나요?’로 수정하였음.</p> <p>- ‘한 번’으로 표기 수정하였음.</p> <p>- 띄어쓰기 반영하였음.</p> <p>- 오타 수정하였음.</p>
	김정은	<p>-7번 활동(주제를 정해 자신의 주장과 근거적기 활동)에서 근거를 적는 활동에 근거를 두 개 이상 쓸 수 있도록 ‘1, 2’와 같이 적는 칸을 나누어 주시거나 활동 설명에 ‘두 개 이상’과 같이 조건을 적어주시면 글로 이어 쓰는 활동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근거를 많이 생성해 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p>	<p>- 발문에 ‘두 개 이상’으로 조건 추가하였음.</p>

- 내부 연구진 검토 의견 및 반영 내용

대단원	검토의견	반영 내용
1	<p>날말이 참 많아요!</p> <p>- 12쪽까지 주제 중심의 어휘 분류 양이 형태나 의미 중심의 단어 분류보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아 보여요.</p> <p>- 13쪽 ‘날말의 모양이 바뀌어요’ 활동을 3-4학년 친구들에게 어렵지는 않을까요?</p> <p>- 의미나 기능 중심의 단어 분류가 보충될 필요는 없을까요?</p> <p>- 정서 활동이 ‘날말 분류’라는 대단원 성취 기준과의 관련성이 약해 보여요.</p> <p>1) 1-1, 1-2, 2, 3</p> <p>날말을 분류하는 놀이 활동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학년 원고에서 생각한 것인데 날말 단원에서 여러가지 날말을 입력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단원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날말 분류가 유의어, 상하의어, 동음이의어, 다의어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제 원고도 그래서 수정이 더 필요한데 날말 단원은 자칫 활동</p>	<p>- 지적하신 오타자, 어색한 표현 등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p> <p>- ‘시장의 가면’과 ‘학교에 가면’ 활동의 경우, 가급적 많은 어휘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지적하신 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은 자유롭게 모둠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p> <p>- 10-12쪽의 ‘스파이 날말 찾기’ 활동의 경우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되, 날말을 분류하는</p>

	<p>지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나눠요.</p> <p>2) 4의 낱말 모양이 바뀌어요에서는 학습자 입장에서 완전히 활용 연습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학습 목적이 불분명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선에서 좀 더 활동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게 수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p> <p>3) 정서활동에서 ‘역할극’ 부분은 대화 예시를 주기보다는 상황을 몇 가지로 주거나 게임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상황을 이야기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요?</p>	
	<p>○ 용언의 활용과 국어사전 찾기 활동이 단계적으로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p> <p>○ ‘시장에 가면’에서 공간을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분식집으로 모두 주지 말고, 두 개 정도는 공간을 제시하고 하나 정도는 시장 내 공간을 모둠별로 정해서 적어보고 발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에서도 ‘운동장’, ‘교실’, ‘음악실’ 중에서 음악실은 빈칸으로 두고 모둠별로 적어서 발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13쪽 어간과 어미에 하이픈 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p>	<p>활동이 품사 분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제 중심, 형태 중심, 의미 중심, 기능 중심으로 고루 조정하였습니다.</p>
	<p>- 10-12쪽 활동이 재미있고 풀어 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파이 낱말 찾기 문제 중 5번과 7번의 경우 저의 상상력의 빈곤 탓인지 선불리 답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도시 유의점에 작성하신 부분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기들을 열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p> <p>- 16쪽 국어사전을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를 캡처하신 것처럼 종이(책) 사전의 실물 페이지를 보여주면 설명된 내용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p>	<p>- 13쪽의 ‘낱말의 모양이 바뀌어요’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의 3학년 성취기준에서 다루고 있던 내용입니다. 국어사전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국어사전을 찾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활용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습니다. 난도를 고려하여 활동 내용을 다소 수정하였습니다. 하이픈 표시의 경우 기존 교재들에서도 하이픈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p>
	<p>- 3쪽에 학생들이 생선 이름을 고등어, 멸치를 제외하고 5개나 더 쓸 수 있을지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p> <p>- 5쪽에 ‘우리는 모두 거의 매일 학교에 갑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수정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p> <p>- 7쪽에 ‘알아 보는’ → ‘알아보는’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 7쪽에 ‘맞추지 못 하거나’ → ‘맞추지 못하거나’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지 못하다’)</p> <p>- 11쪽의 ‘홍수, 천둥, 소나기, 무지개’에서는 아이들이 답을 쓰기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p>	<p>- 16쪽 국어사전의 종이 실물 그림을 추가하였습니다.</p> <p>- 정서 활동의 내용은 감정 어휘와 함께 사전 찾기 활동과 관련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p>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p>-18쪽 세 번째 활동에 “술’을 검색하면’ → “숯’을 검색하면’으로 수정해야 할 듯합니다.</p> <p>-21쪽에 ‘내것’ → ‘내 것’으로 수정해야 할 듯합니다.</p> <p>-21쪽에 ‘해보니’ → ‘해 보니’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탈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5쪽. ‘많다구요?’ → ‘많다고요?’ • 6쪽. ‘우리하’ → ‘우리가’ • 7쪽. ‘넘어 갑니다’ → ‘넘어갑니다’ • 12쪽. ‘이야기 해’ → ‘이야기해’ • 12쪽. ‘홍내넨’ → ‘홍내 낸’ • 20쪽. ‘챙겨오지’ → ‘챙겨 오지’ • 20쪽. ‘슬퍼 했어요’ → ‘슬퍼했어요’ • 21쪽. ‘이야기 해’ → ‘이야기해’ 	
		<p>- 학습자 수준에 맞는 활동 구성 인상적이네요.</p> <p>- 정서 역량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좋습니다.</p> <p>- 정서 활동이 1단원과 겹칩니다.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p>	<p>-내부 연구진 의견에 따라 ‘사과하기(2)’로 수정하였습니다.</p>
		<p>1) ❷ 원인과 결과 파헤치기와 ❹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연결하고, ‘담화 표지어’를 대표적으로 몇 개를 정하고 제시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p> <p>2) <◎ 답을 다 적을 수 있었나요? 어떤 부분을 메모하지 못해서 답을 적지 못했는지 살펴봅시다.>에서 읽기 텍스트 대신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직접 표시 혹은 점수를 매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p> <p>3) ❶ 메모의 중요성 알아보기 ‘지식채널e 감상’과 관련하여 실제 수업에서 활용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능한가요?</p> <p>4) 정서활동에서 첫 부분에 사과/오해와 관련한 학습자 에피소드를 먼저 듣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어떨까요?</p>	<p>-교재의 2번 활동과 4번 활동이 연계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놀이 활동에서 원인과 결과 표지어를 사용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p> <p>-제시하신 2번 의견과 관련하여 메모하는 방법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조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p> <p>-지식채널e 동영상에 길지는 않은데 실제 수업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정서활동에서 사과와 관련한 경험 이야기하기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p>
		<p>○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p> <p>○ 메모하기 단원도 단계적으로 잘 구성되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놀이 형식의 재미있는 활동이 포함되도록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10번 활동을 놀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2번 활동에서도 친구가 내는 문제의 답을 맞히는 것과 관련하여 놀이 형식이 될 수 있게끔 수정하였습니다.</p>
		<p>- 마지막에 색종이로 사과를 접어서 주는 재미있는 활</p>	<p>- 빨간 사과를 ‘사과의 편</p>

	<p>동이 있을 줄 몰랐네요. 그런데 24쪽에서는 사과 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사과를 ‘사과의 편지’라고 하 는데 20쪽에서는 ‘빨간 사과’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지요?</p> <p>- 중복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오타(2쪽 고쳐주었습 니다 → 고쳐 주었습니다)와 3쪽의 글씨체 통일 및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서 ‘좋았습니다’를 굵게 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p>	<p>지’로 수정하였습니다.</p> <p>- 띄어쓰기 및 글자체 수 정하였습니다.</p> <p>- ‘좋았습니다’와 관련하여 서는 그 위에 굵게 표시한 것과 동일하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에만 굵게 표시한 것이라 반영 하지 않았습니다.</p>
	<p>- 3쪽. ‘그래서’로 이어지는 문장을 연결어미로 대체하 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법 지식인 것으로 같습니다. 문법 단원에서 쓰기 활동 으로 강조하겠지만, 말든 단원의 특성을 살려, 문장 을 이어서 말해 보도록 하는 놀이나 활동을 추가하 여 조금 더 초점화할 수 없을지요.</p> <p>- 6쪽. 저의 이해 능력이 부족하여, 그림과 원인 문장 을 보고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조금 어 려웠습니다. 결과가 가시적으로도 분명히 드러나게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p> <p>- 6, 7, 8쪽. 대체로 쓰는 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무래도 교재이다보니 말하는 활동을 위한 공간을 표 현하기는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만, 말하기 활동을 좀 더 부각시켜 가시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17쪽: 토순이네 반 선생님의 안내 사항의 내용이 많 은 것 같습니다. 듣기 자료로만 제공되고 메모를 한 다고 하더라도, 중학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며 따라 올 수 있는 수준인지요?</p> <p>- 20쪽. 정서활동이 앞 단원(제가 쓴 1단원^^)의 내용 과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수정 시에 단계적인 활동 으로(사과하기1, 사과하기2 등) 수정하면 어떨까요?</p>	<p>-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활동 을 각 활동 끝에 조금 씩 추가하였습니다.</p> <p>- 6쪽에 원인, 결과 그림 카드에 분명하지 않은 그림들은 밑에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p> <p>- 각 활동 밑에 말하기 발문 및 활동 칸을 조 금씩 추가하였습니다.</p> <p>- 17쪽의 듣기 자료는 중 학년 수준에서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듣기 자료가 1 분 30초대인 것을 감안 하면 비슷하게 보이지 만 의견에 따라 몇 개 의 문장을 삭제하였습 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쪽. 발문의 양식(띄어쓰기, 글자체)이 조금씩 다릅 니다. 추후 수정 시 확인해 주세요. • 5쪽. 카드 놀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해당 활동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나, 활동이 조금 더 구조화되면 좋을 듯합니다. 뒤집은 상태에서 한 장씩 가지고 가면 고루 나뉘지 않고 누군가는 원인 에 해당하는 문장을 많이 가져가거나 결과에 해당 하는 문장만을 많이 가져가게 될 텐데, 서로 교환 을 하는 등 활동을 보다 심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 7-8쪽. 글로 적은 것이 있어야 발표하거나 말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쓴 것을 보고 읽는 것과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능력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말하·듣기 단원인 만큼 말하기 활동이 부 각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0쪽. 2단원의 정서활동 주제와 1단원의 정서활동 	<p>- 표현 및 발문 관련 내 용을 의견대로 모두 수 정하였습니다.</p> <p>- 5쪽에 카드 놀이는 그 후에 이어지는 원인, 결과 그림카드 활동에 앞서 원인과 결과를 따 로 나누지 않은 채 가 볍게 빨리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안한 것이 라 일부러 나누지 않았 습니다. 이어지는 ‘원인 과 결과를 찾아라!’에서 는 원인과 결과 카드가 나뉘어 있습니다.</p> <p>- 각 활동 밑에 말하기</p>

		주제가 모두 '사과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야기의 내용도 모두 연필이네요. 마침 두 단원이 연달아 있으니, 시리즈처럼 구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단원에서는 사과하는 것과 관련된 어휘 중심으로 꾸리고 2단원에서는 활동 위주로 꾸미면 연계성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발문 및 활동 칸을 조금씩 추가하였습니다. - 정서하기 활동을 '사과하기(2)'로 수정하였습니다.
3	맞춤법, 어렵지 않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쪽에 제시된 자주 헛갈리는 맞춤법이 활동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4맞춤법에 맞게 써 보아요 활동만으로는 맞춤법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정서 활동은 다른 단원에서 단원 끝으로 위치를 잡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쪽의 <더 알아보기 1> 내용을 "3. 왜 소리나는 대로 쓰지 않을까요?"의 주요 활동으로 포함시킴. (7~9쪽) - 노래 가사 적기 활동 대신 맞춤법이 헛갈리는 단어를 포함한 짧은 문장 짓기 활동으로 대체함. (10~11쪽) - 정서 활동 위치를 단원 끝으로 조정함. (13~14쪽)
		<p>1) 전반적으로 소리와 표기의 관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단어 차원과 문장 차원의 활동들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p> <p>2) 1, 2쪽에서 ● 위의 단어들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그 발음을 써 보세요.</p> <p>제시된 낱말의 순서가 있는지요? 소리와 표기의 관계를 고려해서 순서를 제시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받침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음운현상 등)</p> <p>3) 2, 3쪽 단어 차원과 문장 차원으로 따로 구분시켜 활동하면 어떨까요?</p> <p>4) 정서 활동은 4 맞춤법에 맞게 써 보아요. 앞에 있던데 혹시 의도한 것인지요? 그리고 정서 활동에서 목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겠어요~ (정서활동 관계 표에서도요)</p> <p>5) 4 맞춤법에 맞게 써 보아요. 의 가사 듣고 쓰는 활동은 학습자에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여쭙습니다.</p> <p>6) 4. 맞춤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는 학습자에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에게는 학습자들의 반응, 대답을 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와 표기의 관계를 '단순한 것/쉬운 것'에서 '복잡한 것/어려운 것' 순으로 나누어 제시함. (1~3쪽) - 단어와 문장 차원을 구분하여 활동을 제시함. (1~3쪽) - 정서 활동 위치를 단원 끝으로 조정하고, 활동 유형을 고려하여 목표(노래 가사로 내 마음 전달하기)가 두드러지도록 수정함. (13~14쪽) - 노래 가사 적기 활동 대신 맞춤법이 헛갈리는 단어를 포함한 짧은 문장 짓기 활동으로 대체함. (10~11쪽) - 기존에 정서 활동으로 구성했던 것을 "5. 맞춤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에 포함하여 소단원의 활동을 구체화함. (13~14쪽)
		○ '맞춤법에 맞게 써 보아요'에서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적게 할 때, 선택되는 노래에 따라 노래 가사의	- 노래 가사 적기 활동 대신 맞춤법이 헛갈리

	<p>내용이나 표현이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습 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p> <p>○ 더 알아보기 1의 내용이 설명 없이 제시되어 있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p>	<p>는 단어를 포함한 짧은 문장 짓기 활동으로 대체함. (10~11쪽)</p> <p>- <더 알아보기 1> 내용을 별도의 활동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을 제공함. (7~9쪽)</p>
	<p>- 6쪽의 노래 가사 소리 나는 대로 쓰기 활동이 재미 있습니다. 다만 활동의 도입 성격으로 8마디 정도의 짧은 동요를 예시로 맞춤법에 따라 쓴 가사와 소리 나는 대로 쓴 가사 모두를 보여주는 것은 어떨지요? 그리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활동에서 쪼개진 가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나뉜 것은 아닌데, 애초에 질서 없이 쪼개진 것을 의미하신 걸까요? 박자나 형태소 등 동일한 기준은 아닌 것 같아 여쭙습니다.</p> <p>- 친구에게 노래 가사를 소개하는 활동을 정서 활동으로 마련하셨는데, 해당 활동이 정서 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띠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감정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이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 활동의 도입 성격으로 동요의 예시를 제시함. (13쪽)</p> <p>- 정서 활동으로서 성격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마음 노래 가사로 전달하기’ 활동으로 수정함 (13~14쪽)</p>
	<p>- 2쪽. 음운 변동이 발생하는 예시들이 중학년 수준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앞말의 종성이 뒷말의 초성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연음 수준 외에 ‘꽃’과 같은 발음의 음운 규칙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지요. 좀 더 단순하고 기본적인 예시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10쪽. 맞춤법의 어려움과 함께 맞춤법에 맞게 적었을 때의 좋은 점 등을 함께 적도록 구성하면 어떨까요? 어려운 점만 적는 것보다 교육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p>	<p>- 단순하고 기본적인 예시로 수정. (1~2쪽)</p> <p>- 맞춤법에 맞게 적을 때의 장점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수정함. (12쪽)</p>
	<p>- 2쪽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활동에서 ‘꽃밭에’가 ‘꼬바테’라고 되어 있는데 ‘꼰빠테’로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p> <p>- 아울러 ‘꽃밭에’와 같은 예시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밭에’만 제시하는 경우 연음이 되기 때문에 쉽지만 ‘꽃’을 발음할 때 받침이 ‘꼰’처럼 되는 끝소리규칙을 학생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의 학습과 관련하여 연음,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등을 배우기는 하지만 애초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대표음에서 벗어나는 받침이 오는 낱말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를 ‘밭에’로 바꾸거나 ‘밭이’, ‘국수’ 등과 같은 기본적인 예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 예시 중 ‘꽃밭에’를 ‘밭에’로 수정. (3쪽)</p> <p>- ‘밭이’, ‘국수’ 등의 예시도 추가함. (2쪽)</p>

4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을 먼저 살펴보아요’ 활동 중 6쪽까지는 도입으로 보이는데, ‘글의 종류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파악한다’는 대단원 목표와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양을 조절해 본 활동이 중심이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 비문학과 문학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접근 방법의 차별화가 좀 더 두드러지면 좋겠어요. 제목은 공통적으로 보이고, 이야기는 ‘인물’에 초점이 놓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글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접근 방법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정서 역량의 ‘오해는 대화로 풀어요’가 대단원 목표와 좀 더 연관성이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긴 상황이 상대가 말하는 의도나 중심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벌어졌단지 하는 상황으로 구체화가 필요해 보여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명을 포괄적으로 수정하였고, ‘제목’과 관련된 사항들도 도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방법과 관련한 독자적인 소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라 다른 부분들을 보충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 일반 글에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보충하였습니다.(pp.9-10) -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언어 표현에 대한 오해상황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p>1) 현재의 틀에서 수정하면 어떨까요? 읽기 텍스트 장르별로 꼭지를 나누고, 그 안에서 혹은 읽기 텍스트 장르에 따라 읽기 활동 난이도를 높이면서요.</p> <p>2) 읽기 텍스트 장르별로 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간판, 달력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저학년 수준의 텍스트 장르로요. 예를 들어, 일기, 편지, 기행문, 관찰일지, 감상문 등</p> <p>그리고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 비판적 읽기 순서로 활동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p> <p>3) 게임 놀이의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진지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p> <p>4) 정서 활동의 경우, 앞서 2과의 오해 활동과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학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어진 틀에서 목표를 잡다 보니까 원고가 진행될수록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각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텍스트를 장르별로 제시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겠으나, 이번 수정 시에는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보다 초점화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 글쓰기 등 다른 활동들도 추가하였습니다. - 앞선 검토 의견에서 제시해 주신, 언어 표현에 대한 오해상황으로 보다 구체화·초점화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요령이 간단하게라도 제시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걸리버 여행기에서 조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붙인 후에, 그 내용을 활용하여 짧게 요약문을 써 보게 하는 활동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쪽. 댓글 중 빈칸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직접 쓰게 하는 부분인지요? 교재에서 채워져야 하는 부분이라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더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해당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p>여 자신만의 비법을 소개해 보는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적게 하거나 따로 적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15쪽 글에서 ‘주변’은 ‘청소당번’ 정도로 바꾸는 것이 학습자와 더 친숙할 듯합니다.</p> <p>-글을 읽고 중심생각을 찾는 성취 기준과 관련한 활동이 추가되면 좋을듯합니다. 짧은 글에서 문단별로 학생들이 중심 내용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활동 정도여도 적당할 듯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쪽. ‘왜 그런지 글을 읽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에서 글을 삽입하기 전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 12쪽. 조각들을 시간 순서대로 붙이는 칸에 옆으로든, 아래로든 붙이는 순서에 맞는 번호를 부여해서 학생들이 일관적으로 조각들을 붙일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p>- 수정하였습니다.</p> <p>- 보완하였습니다.</p> <p>- 해당 글을 삽입하였습니다.</p> <p>- 수정하였습니다.</p>
		<p>- 7-8쪽의 <준비하기> <연습하기> <활동하기> 단계가 중학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p>	<p>◦ 단계명을 삭제하고 활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노래 연습 활동에서 빈 악보와 제목 넣는 칸 ‘제목: ()자로 (끝나는/시작하는) 말은’을 삽입함.</p>
5	아름다운 우리말	<p>1) 아름다운 토박이말로 대화하기 좀 더 게임, 놀이 형식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추측하여 말하기, 뜻과 연결하기 등으로요.</p> <p>2) 낱말 확장하기 놀이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어(현재도 그런 구성인 거지요?) 먼저 설명, 예시를 제시하고 다양한 예시와 함께 활동하는 것이면 더욱 좋겠어요. 첫글자 주고 단어 말하기처럼 게임식 활동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p> <p>3)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 알기 높임을 정확히 쓰고 있는지 오류 문장과 섞어서 골라내고, 고치는 활동을 추가하면 어떨까요?</p> <p>4) (2) 상황에 맞게 대화를 구성해 보고 높임말을 바르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보자. 학습자들이 과제를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여쭙봐요.</p> <p>5) 정서활동 자유롭게 표현하기 솔직하게 표현하기 등의 틀을 가져와서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적 표현활동을 넣으면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p>	<p>◦ 토박이말의 뜻을 추측하여 말한 후 뜻 찾기로 수정함.</p> <p>◦ 낱말 확장하기 놀이 앞 부분에 설명과 예시 추가함.</p> <p>◦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 알기 활동의 예문을 일부 조정하여 높임 표현을 잘못 사용한 문장을 수정하는 활동이 포함되게 하였음.</p> <p>◦ 높임말을 활용한 간단한 역할극은 본 교재와 형식은 다르지만 교과서에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활동은 그대로 두었음. 단, 대화 구성은 칸을 줄여서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p> <p>◦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 쓰기’를 주 활동</p>

	<p>으로 하되 대상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할 수 있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 편지쓰기’를 부차적 활동으로 추가함. 솔직하게 표현하기의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서적 활동이 있지만, 높임 표현이라는 단원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감사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주 활동으로 처리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번호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른 단원들과 마찬가지로 문체를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0쪽 활동이 재미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모둠원 모두가 박수를 쳐야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지요? 기타 상황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0쪽 오타(물어보았다 → 물어 보았다), 14쪽 글씨체 통일 여부 확인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 번호를 넣었음. ◦ ‘보자’는 모두 ‘봅시다’로 수정함. ◦ 모둠 친구들 모두가 박수를 쳐 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 ‘물어보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으로 통일함. ◦ 글씨체 통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쪽. ‘멋-’, ‘헛-’ 등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산적으로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원 구성의 순서에 따르면 1단원에서 사전 찾는 방법을 학습하였으니(^^;) 사전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간단한 발문을 주거나, 도움 상자 등을 통해 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시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3쪽. 제시하신 점검표에서 표현을 ‘-는가?’와 같은 표현은 좀 더 친근하게 ‘-나요?’로 모두 통일하면 어떨까요? - 14쪽. 높임말 활동이므로 ‘선생님, 부모님 등 웃어른에게’를 ‘웃어른께’로 수정하면 ‘께’에 대한 학습도 동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멋-’으로 시작하는 낱말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삭제함. 그 외 단어는 국어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13쪽: 점검표 표현을 ‘-나요?’로 수정함. ◦ 14쪽: ‘웃어른에게’를 ‘웃어른께’로 수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에서 학생들이 제시된 토박이말 말고는 따로 아는 것이 없을 것이므로 토박이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화의 맥락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문장을 서로 얘기해 보는 활동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6쪽에서 ‘꾼-’, ‘쟁이-’는 ‘-꾼’, ‘-쟁이’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10쪽에 “문다’이 적힌 카드’ → “문다’가 적힌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박이말로 대화하기 활동은 토박이말로 문장 만들기 활동으로 수정함. ◦ 6쪽: ‘꾼-’, ‘쟁이-’는 ‘-꾼’, ‘-쟁이’로 수정함. ◦ 10쪽: “문다’이 적힌 카드’는 “문다’가 적힌 카드로 수정함.

		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쪽. ‘적어 보자’는 ‘적어 봅시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4쪽. ‘써 보자’는 ‘써 봅시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4쪽. ‘웃어른에게’는 ‘웃어른께’로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쪽: ‘적어 보자’는 ‘적어 봅시다’로 수정함. ◦ 14쪽: ‘써 보자’는 ‘써 봅시다’로 수정함. ◦ 14쪽: ‘웃어른에게’는 ‘웃어른께’로 수정함.
6	알맞은 날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	<p>1) 1쪽 도입에서 같은 내용의 두 가지 텍스트를 주고 비교해 보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하나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다른 하나는 부분에서 전체로...</p> <p>차이를 생각해 보고 이야기하는 활동은 어떨까요?</p> <p>2) ❶ 설명할 대상이나 사물 정하기 정한 대상에 대해 그 이유를 이야기하거나 쓰게 하는 것을 추가하면 어떨까요?</p> <p>3) ❷ 설명할 대상에 알맞은 날말 찾기 특징을 쓰게 하는 표를 넣어서 과정 중심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p> <p>4) ❹ 설명할 대상의 설명 순서 정하기 보기로 예시를 주면 어떨까요?</p> <p>5) ❸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알맞은 이유를 찾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기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알맞은 이유’의 지시문을 수정하면 좀 더 명확히 전달될 것 같아요.</p> <p>6) ❻-❿까지의 활동이 학습자가 선택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관통하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지요?</p> <p>7) 정서 활동 혹시 보스 베이비를 못 보는 환경이라면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칫 정서 활동보다 영화 감상에 무게가 실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❶ 설명할 대상이나 사물 정하기’에서 정한 대상에 대해 그 이유를 이야기하도록 발문 수정하였습니다. - ❹ 설명할 대상의 설명 순서 정하기 보기로 예시 추가하였습니다. - ❸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알맞은 이유를 찾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기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알맞은 이유’의 지시문을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는 활동들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설명 순서 정하기에도 ‘토끼’를 활용한 간단한 예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번호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6쪽에 순서 정하기 활동과 관련하여 5쪽에서 예문으로 제시한 글을 해당 순서 정하기 표에 맞추어 예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10쪽에서 말판 활동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말판에 대한 부가 설명(해충과 이로운 동물을 말판의 배경색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말판에 뒷면에 이름이 쓰여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 번호 추가하였습니다. - 6쪽에 순서 추가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쪽. 설명할 대상을 고르는 일로 아이들이 매우 고민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주제 제한을 두지 말고, 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어떠한 주제로 묶을 수 있는 큰 제목을 하나 정도 던져 주는 것은 어떨지요? - 8쪽. 초등학생들의 생활을 전혀 알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키번호'라는 표현은 키 순서대로 정하는 번호인가요? '키번호'나 '1인 1역'이라는 표현을 초등학교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요. 사소한 것이나, 짝꿍 정하기 질문에서 '한 번'은 띄어야 할 것 같습니다. - 12쪽. 영화 '보스 베이비'를 시청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오감으로 즐겼을 아이들이지만 영화와 관련된 설명을 더 친절하게 기술해 주면 아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예시일 뿐, 설명 대상이나 사물은 맘껏 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 추가하였습니다. - '키번호'나 '1인 1역'은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기했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쪽. "확장하다"라는 표현은 중학년에서 조금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거나, '쓰고 싶은 만큼 써도 된다'와 같은 식의 설명으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어요. • 5쪽. 마인드맵에서 쓴 단어가 하나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쓴다거나, 항목당 한 문장씩을 써야 한다거나 등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풍선을 추가로 만들어가며'로 표현 수정하였습니다.

▶ 3차 개발

- 공동 연구원, 책임 연구원의 내부 종합 검토 내용

대단원		검토의견
1	날말이 참 많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쪽 줄넘기 -> 줄넘기줄 - 5쪽 교실, 음악실, 체육관, 과학실 관련 낱말 도움상자를 주면 어떨지요? - 14쪽 낱말들 제시 순서를 어간이 '양성모음'인 것(받침 없는 것 > 받침 있는 것), '음성모음'인 것(받침 없는 것 > 받침 있는 것), 그리고 '-하다'(받침 없는 것 > 받침 있는 것)로 끝나는 낱말 순서로 제시하면 좋겠어요. - 정서활동에서는 성취 기준이 '낱말 분류'라는 점과 연관지어 20쪽 낱말 분류 카드의 낱말들을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낱말로 나누기 연습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 정서 활동 목표가 현재는 조금 많은 것 같으니, 직접 관련되는 목표로만 2개 정도로 추리면 좋겠어요.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성취 기준이 '말하기/듣기'인 것을 감안하여 지시문(발문)에서 '찾아봅시다' -> '생각하고 이야기해 봅시다'로 바꾸면 어떨까요? - 5쪽 문장을 완성하고 이야기해 봅시다로 바꾸면 어떨까요? - 6쪽 ㉠ 원인과 결과 찾기에서 찾는 활동에서 끝나나요? 말하기 활동을 넣으면

		<p>어떨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활동 - 1단원을 수정했기 때문에 사과하기 '(2)'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사과는 어떻게 할까요?' - 활동이 모두 다 너무 좋은데 전반적으로 활동 양이 많은 것도 같아요. 고학년까지 집필해 보니 새삼 저학년, 중학년 활동 양이 많게 느껴지네요.
3	맞춤법, 어렵지 않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 단어? 다른 단원들과 통일해야 할 것 같아요. - 2쪽 만화 중복 제시 - 2쪽 위의 활동과 아래 설명이 일치하지 않아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의 예시는 받침 있는 낱말이 소리와 표기가 다른 경우인데, 아래 설명은 받침 있는 낱말이 소리와 표기가 같다는 내용이에요. - 4쪽 발문 중 ㉠ 혹시 모든 단어와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쓰면 훨씬 쉽지 않을까요? 부분의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 8쪽 맞춤법에 대한 설명 내용이 매우 좋아요. 다만, 여섯 덩이의 글로 되어서 중학년 학생들이 읽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글 대신 도식을 섞어서 간결하게 전달하면 어떨까요? - 정서활동 내용과 목표인 '새롭게 느끼기' 사이에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그리고 정서활동에서 꼭 소리 나는 대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노래를 듣고 쓰기 활동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p>또한 14쪽 활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보다는 내 스스로 생각나는, 부르고 싶은 혹은 듣고 싶은 노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감정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이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슬플 때 듣고 싶은 노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 기준과 활동 관계표에 있는 관련 활동과 수정 원고의 활동명이 일치하지 않아요.
4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생각 찾기 활동 추가(현재는 '제목 - 화제'의 구성이지요? 제목 부분을 좀 줄이고 중심생각 찾기를 추가?) - 3쪽 달력 활동과 '제목' 찾기? 활동과의 연관성이 더 드러나면 좋겠어요. - 이와 함께 다른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나 사진보고 제목 붙이기 등 - 6쪽 제목 보고(찍어쓰기) 추론하기에서 끊어진 부분을 좀 더 쉽게 바꾸면 좋겠어요. 외래어인 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7쪽에서 화제와 주제(중심생각)가 구분되지 않는 건지요? - 7쪽 절 제목 '화제를 찾고 문단별로 파악해요'과 발문에서 '문장의 내용을 자유롭게 늘어놓아 보세요.' 표현이 어색한 것 같아요. - 9쪽 첫 번째 활동에 대한 발문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이어 읽으라는 것이지요? 텍스트에 있는 번호는 무엇인지요?(뒤에 있는 활동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 12쪽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림 위에 화살표를 그리고 도움상자에 있는 장소를 따로 써 주면 어떨까요? - 3) 주인공을 따라가요 제목? 이 부분은 사건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것 맞지요? - 14쪽과 15쪽 활동 순서를 바꾸면 더 좋겠어요. 먼저 그림조각으로 이야기 순서 찾고, 다음으로 글로 써 보는 것으로요. - 18쪽 이름을 네모로 처리한 것을 아이다 혹은 애칭으로 만들어 넣어 주면 어떨까요?
5	아름다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쪽 다음은 아름다운 우리의 토박이말이다. -> 토박이말입니다.

	<p>우리말 - 국어의 낱말과 높임법</p>	<p>- 2쪽 ○ 문장을 만들 때 활용할 토박이말을 세 개 선택해 봅시다. -> 토박이말을 세 개 선택하여 세 문장을 만드는 것인가요?</p> <p>- 6쪽에서 각 접두사, 접미사 관련 만들어야 하는 낱말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p> <p>- 7쪽 아래 있는 활동에서 '릿자'대신 넣을 낱말을 도움상자로 제시하면 어떨까요?</p> <p>- 8쪽 (단, 높임 표현이 잘못된 문장을 바르게 고칠 것.)을 따로 떼어서 활동을 만들면 어떨까요?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 알기 도입 부분인데다가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p> <p>- 9쪽 게임에서 4-5명이 총 18장, 즉 각각 3-4장을 갖는 건가요? 그중에는 명사, 동사가 섞여 있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짝으로 해서 한 명에게는 명사를 다른 한 명에게는 동사를 주고 서로 맞추어 한 문장을 만드는 등의 활동이 어떨까요?</p> <p>- 11쪽 상황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대화 나누는 상황에서 중학년생이 높임이 들어간 대화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p> <p>- 13쪽 선생님, 부모님 등 웃어른께 감사함을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 감사함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등으로 바꾸면 어떨지요?</p> <p>- 14쪽 발문 (3) 높임말을 적절히 사용하여 편지를 써 봅시다.에서 적절히를 빼도 좋을 것 같아요.</p> <p>- 14쪽 위 활동과 아래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여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대신 과정 중심으로 활동을 단계별로 구성하고요.</p> <p>- 정서활동 목표가 '솔직하게 표현하기'인가요? 목표 박스를 넣어 주면 좋겠어요.</p>
6	<p>알맞은 낱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p>	<p>- 단원 제목 알맞은 낱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보다 더 매끄러운 제목이 있으면 좀 손 봐도 좋을 것 같아요.(같이 고민해 봐요.^^)</p> <p>- 5쪽 앞에서 어휘 맵으로 생각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활동이지요? 보기에서 단어 하나를 제시하고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몇 개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토끼 - 귀엽다 => 토끼는 귀여운 동물이에요(동물이다.) 등으로요.</p> <p>- 7쪽 아래 그림은 순서를 바꾸고 이유를 쓰는 활동이니까 동일한 그림 대신 표나 박스로 보여 줘도 될 것 같아요.</p>

- 중학년군 교재 최종 활동 내용

대단원		성취 기준	관련 활동	활동 구성의 주안점	지도 시 유의점
1	낱말이 참 많아요 !	[3-4학년군] 문법(4) 낱말들 을 분류해 보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본 다.	1-1. 시장에 가면~ ♫ 1-2. 학교에 가면~ ♫ 2. 이어 말하기 놀 이~♫	-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채소, 과일, 과자, 옷 등), 학교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만나게 되는 사람, 학교의 시 설 등)의 이름을 최대 한 많이 떠올려 가며 마인드맵을 그린다. -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친구와 낱말 이어 말 하기 놀이를 한다('00	- 중학년이나 첫 단원 임을 고려하여 놀이 를 중심으로 활동하 되, 아이들이 자연스 럽게 다양한 어휘에 많이 노출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 '이어 말하기 놀이' 를 할 때에는 교사 재량으로 동작 및 리듬을 부여할 수

				에 가면~ 00도 있고~와 같은 식의).	있다. 시끄럽더라도 즐겁게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3. 스파이 낱말을 찾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낱말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게 한다. 기준은 용도, 장소, 모양을 비롯하여 품사 분류 기준과도 연결된다. -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스파이 낱말인지 적게 하여, 짝공과 비교해보고 발표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별로 한 명의 학생이 자신이 찾은 스파이 낱말에 대해 발표하게 하여, 교실 내 모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유도한다. - 낱말을 나누는 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교사가 판단해 주되, 자유롭게 분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낱말의 모양이 바뀌어요. 5. 국어사전은 알고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의 기본형 개념을 이해하고, 모양이 바뀌는 낱말의 기본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사전 찾는 방법을 안내하며 실제 단어를 찾아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언의 활용 개념보다는 다소 기계적이지만 기본형의 개념을 이해하는 선에서 학습한다. - 국어사전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3-4학년군] 듣기·말하기 (3) 일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1. 동화 속 이야기 떠올리기(p.2) 2. 원인과 결과 파헤치기(p.3-4) 3.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문장으로 표현하기(p.5) 4. 원인과 결과 찾기(p.6) 5.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도록 쓰기(p.7) 6. 재미있는 원인과 결과 만들기(p.8) 7. 원인과 결과를 찾아라!(p.9-11) 8. 원인과 결과 말판 놀이하기(p.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원 전체적으로 원인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구안하였으며 메모하며 듣기는 부차적인 성취 기준으로 다루고자 하였음.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함.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삽화뿐만 아니라 문장 짝 찾기 놀이, 말판 놀이, 재미있는 원인과 결과 만들기 등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 활동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분위기가 너무 경쟁적이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교사가 유의하여 지도함. -‘-그래서’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등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모두 활용하게끔 지도함.

				마련하고자 함.	
		[3-4학년군] 듣기·말하기 (1)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을 메모하며 듣는다.	9. 잘 듣고 메모하기(p.14-15) 10. 역할을 나누어 메모하기(p.16-17) 11. 메모의 중요성 알아보기(p.18) 12. 친구의 글을 듣고 메모하기(p.19)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삽화를 통해 동기를 유발함. -동기 유발의 이야기와 그 뒤의 활동들이 하나의 텍스트를 통해 연계될 수 있도록 활동의 흐름을 고안함. -‘지식채널e’와 같은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메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메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 -앞선 원인과 결과에 대한 활동과 메모하며 듣기의 활동을 연계하여 학습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지도록 함.	-들을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하여 메모해야 하는지와 같이 메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사가 반복적으로 지도함.
3	맞춤법, 어렵지 않아요!	문법 (1)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발음하고 쓴다.	1. 소리와 표기가 같거나 다른 낱말 및 문장을 소리 내어 읽고 소리 나는 대로 써 보기 (2~4쪽)	소리와 표기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낱말의 난이도에 따라 제시하여 ‘소리와 표기가 다르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이나 문장의 경우, 소리를 너무 정확히 표기로 옮길 필요는 없고, 다만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낱말의 경우 ‘받침이 없는 것/받침이 있는 것’, ‘음운 변동이 없는 것/음운 변동이 있는 것’ 순으로 제시되어 있어 지도 시 이러한 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써서 글로 대화하기 → 소리 나는 대로 쓴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고쳐 써 보기 (5~6쪽)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낱말과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써 보게 함으로 써 그것이 생각보다 불편하고 어려우며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임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이 자칫 맞춤법을 파괴하는 데에만 흥미를 느껴 집중하지 않도록 교사가 적절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주 헛갈리는 맞춤법 익히기 (8~10쪽)	소리에 이끌려 표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문장으로 익힘(8쪽)으로써 자주 헛갈리는 맞춤법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였고, 헛갈리는 맞춤법에 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정답(9쪽)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다리 타기 놀이(10쪽)를 통해 표기가 헛갈리는 맞춤법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이 원 문장에서 어느 부분의 맞춤법이 틀린 것인지 잘 찾지 못한다면 교사가 나서 도움을 준다. ● 사다리 놀이는 짝이나 모둠을 만들어 학습자들끼리 토의를 하며 정답을 찾아 나가도록 지도할 수 있다.
[3-4학년군] 쓰기 (1) 맞춤법에 맞게 문장을 쓴다.	4. 맞춤법이 헛갈리는 낱말을 넣어 문장 짓기 (11~12쪽)	‘들어내다/드러내다’, ‘가르치다/가리키다’, ‘어떻게/어떡해’, ‘다르다/틀리다’ 등 맞춤법이 헛갈리는 낱말의 의미를 고려하여 직접 문장을 써 보게 함으로써 소리와 표기의 차이는 물론 각 낱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이 문장을 지어 보기 전에 각 낱말의 뜻을 알려 준다. ● 문장의 길이는 길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낱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의미에 맞게 잘 쓰였는지 확인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본다. ● 학습자들이 어떤 문장을 만들었는지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5. 자신의 감정을 노래 가사로 표현하기 (14~15쪽)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를 노래 가사를 인용하여 표현해 보는 활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연습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때 노래 가사를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적어 보게 함으로써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로 제시된 ‘나의 친구’는 인터넷상(네이버 동영상,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동요이다. ● 학습자들이 노래를 듣고 가사 적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노래를 여러 번 충분히 들려준다. ● 학습자가 직접 노래를 선정할 때 해당 노래의 가사로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

					<p>이나 감정을 잘 고려하여 노래를 선택하도록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노래 가사를 쓸 때 맞춤법을 어려워한다면 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필요할 경우 학습자가 선택한 노래를 교사가 찾아 들려줄 수도 있다.
4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3-4학년군] 읽기 (4)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한다.	<p>1) 제목을 먼저 살펴보세요</p> <p>1. 이름표 역할을 하는 간판(p.1)</p>	<p>-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글의 중심 생각과 제목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p>	<p>- 글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제목이 읽기 활동에서 효용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제시된 그림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보일만한 그림·사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2. 제목보고 추론하기(p.2)</p>	<p>- 제목과 글의 중심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목을 통해 글의 내용을 추론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p>	<p>- 생략된 부분의 내용을 제목과 관련지어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3. 우리가 만드는 달력(pp.3-5)</p>	<p>- 특정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름붙이기 활동을 통해 직접 의미 부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p>	<p>-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여 달력을 만들되 태어난 친구가 없는 달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같이 이름을 붙여보도록 지도한다.</p>
			<p>2) 화제를 찾고 문단별로 파악해요</p> <p>4. 화제를 찾아라(pp.6-7)</p> <p>5. 화제를 찾아 문단 나누기(pp.8-10)</p>	<p>-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글을 제재로 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p> <p>- 화제 찾기와 문단 나누기를 각각 활동으로 구성하여 읽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 활동 내</p>	<p>-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을 독자와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다른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화제 찾기, 문단 나누기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진행하도록 한다.</p>

5	아름다운 우리말			용을 구성하였다.	
			3) 순서를 생각해요 6. 경회루 찾기 !(pp.11-12)	- 순서를 고려해야 하는 제재를 선정하여 다음 소단원의 이야기 제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글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른 예들도 함께 제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3-4학년군] 문학 (3)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3) 주인공을 따라가요 7. 걸리버를 따라가요(pp.13~18)	- 이야기 글의 특성에 따라 인물에 초점을 두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 이야기 글에서는 내용을 간추릴 때 시간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에도 주목할 수 있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중심인 주인공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주인공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 순서에 맞게 배치되어야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1-2학년군] 문법 (2)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1. 아름다운 토박이말로 문장 만들기	-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유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고유어의 뜻을 추측해 본 후, 사전을 통해 고유어의 뜻과 예문을 확인하고 고유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고유어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 이 성취 기준은 초등학교 1-2학년군에 해당하지만, 단원의 성격상 낱말과 관련된 3-4학년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중학년에 다루고 있다. - 학생들이 국어사전을 통해 고유어의 뜻을 찾은 후에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교사가 설명해 준다.
		[3-4학년군] 문법(3) 국어의 낱말 확장 방법을 알고 다양한 어휘를 익힌다.	2. 낱말 확장하기 놀이(1): 낱말 카드 이어 붙이기 3. 낱말 확장하기 놀이(2): ♪ ‘-쟁이’로 끝나는 말은 ♪	- 낱말 카드 이어 붙이기는 합성법과 관련된 활동이고, <♪ ‘-쟁이’로 끝나는 말은 ♪>은 파생법과 관련된 활동이다. 모둠별 놀이를 통해 국어의 단어가 확장되는 두 가	- 교과서 해당 단원에서 합성어, 파생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국어 단어의 확장

				지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방법을 이해함과 동시에 어휘력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3-4학년군] 문법(6)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4.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임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높임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문장을 쓰도록 하였다. 또한, 예사말과 높임말의 관계를 이해하고 높임말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용어(주체 높임, 객체 높임 등)를 사용하지 말고 제시된 내용 수준에서 설명한다. 	
5. 역할극을 통해 높임말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배운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적용 학습으로 실제적 상황에서 높임말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극의 목적이 높임 표현을 익히는데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초점을 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서 활동	6.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편지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함을 느꼈던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함을 느꼈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쓰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함께 쓰도록 지도한다. 	
6	알맞은 낱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 !	[3-4학년군] 쓰기 (3) 알맞은 낱말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1. 설명할 대상이나 사물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할 대상이나 사물을 학습자 스스로 정하게 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수준에서 설명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등장할 수 있는 대상은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시된 대상 외에도 스스로 대상을 확장해서 생각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설명할 대상에 알맞은 낱말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할 대상에 알맞은 낱말을 학습자가 마인드 맵 형태로 수정 확장해 나감으로써 학습자 주도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가 설명할 대상에 알맞은 낱말을 마인드맵에 자유롭게 수정,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3. 설명할 대상에 알맞은 단어로 문장 만들어 보기	- 선택한 단어들로 한 문장씩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긴 글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 한 문장에 하나의 주된 생각을 담도록 한다.
		4. 설명할 대상의 설명 순서 정하기	- 완성한 문장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열할 것인지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신이 정한 배열 순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일관된 논리적 흐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5. 설명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글 완성하기	- 설명하는 글쓰기의 마지막 단계인 글 완성하기로, 이어주는 말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긴 글을 스스로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 앞의 활동과 연속성을 유지한 채, 학습자가 스스로 설명하는 글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4학년군] 쓰기 (4)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6. 하나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 초등 3-4학년군에서 관심을 가질법한 주제를 제시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제시된 주제 외에도 스스로 주제를 확장해서 생각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7.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 적어 보기	- 자신의 의견 혹은 주장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다른 친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래 친구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나 흥미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8.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알맞은 이유를 찾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기	- 말놀이판을 활용해 이유를 말하는 순서를 정하고, 친구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게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 말놀이판 게임에 치우쳐 활동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알맞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 완성하기	-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쓰기의 최종 완성 단계로, 알맞은 이유와 주장을 적절히	- 예시의 글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자신 있게 말하고 바르게 듣기	-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 친구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단원		관련 정서 활동		정서 활동 구성의 주안점	지도 시 유의점				
1	날말이 참 뽕아요 !	[정서 활동] - 표정으로 말해요. <table border="1"><tr><td>마음 읽기</td><td>나의 감정 들여다보기</td></tr><tr><td>인지적 전환</td><td>새롭게 느끼기</td></tr></table>		마음 읽기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인지적 전환	새롭게 느끼기	- 감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어휘들을 사전에서 직접 찾아 보게 한다. - 감정과 표정을 연결해 가며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개인별로 한 날말씩 담당하여 사전의 뜻을 찾게 하고, 모듈 발표를 통해 그 뜻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 사전 활용 시간을 충분히 준다. - 다양한 감정 어휘가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도 다양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 맨 앞사람이 날말을 정하여 두 번째 사람에게 전달할 동안, 다른 학생들은 이를 보지 못하도록 뒤돌아 서 있게 한다. 표정을 전달하는 데에는 5~10초 정도 제한 시간을 두어 놀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마음 읽기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인지적 전환	새롭게 느끼기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	-정서적 주제 <table border="1"><tr><td rowspan="3">문제해결</td><td>트라우마</td></tr><tr><td>오해 풀기</td></tr><tr><td>화해</td></tr></table> 13. 사과는 어떻게 할까요?(p.20) 14. 역할극을 해 보아요(p.21) 15. 사과의 편지 전달하기 (p.22)		문제해결	트라우마	오해 풀기	화해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3-4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법 및 사과의 의미에 대해 알게 하는 기회를 제공함.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며 종이접기를 통한 사과 편지 쓰기를 실시하여 학습자가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함.	-역할극 및 사과 편지 쓰기 활동 시 단순히 “미안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함.
문제해결	트라우마								
	오해 풀기								
	화해								
3	맞춤법 , 어렵지 않아요 !	- 정서 활동명: 내 감정을 노래 가사로 표현해요. (14~15쪽) - 정서 활동 주제: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를 노래 가사를 인용하여 표현해 보는 활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연습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때 노래 가사를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적어 보게 함으	● 예시로 제시된 동요 ‘나의 친구’는 인터넷상(네이버 동영상,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 학습자들이 노래를 듣고 가사 적는 것을				

		<table><tr><td>마음 읽기</td><td>나의 감정 들여다보기</td></tr></table>	마음 읽기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로써 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어려워한다면 노래를 여러 번 충분히 들려준다. ● 학습자가 직접 노래를 선정할 때 해당 노래의 가사로 표현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잘 고려하여 노래를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 학습자가 노래 가사를 쓸 때 맞춤법을 어려워한다면 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필요할 경우 학습자가 선택한 노래를 교사가 찾아 들려줄 수도 있다.	
마음 읽기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4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정서적 주제 <table><tr><td rowspan="2">문제해결</td><td>오해 풀기</td></tr><tr><td>화해</td></tr></table> -오해는 대화로 풀어요 (pp.19-21)	문제해결	오해 풀기	화해	- 친구와의 오해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이 언어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함.	- 학생들과 함께 오해가 왜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야기해 보고, 비슷한 경험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함. -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함.
문제해결	오해 풀기						
	화해						
5	아름다운 우리말	<table><tr><td>나의 목소리</td><td>솔직하게 표현하기</td></tr></table> 6.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편지 쓰기	나의 목소리	솔직하게 표현하기	- 웃어른께 감사함을 느꼈던 경험을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게 한다. -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의 의미도 깨닫게 한다.	- 학생들이 주로 감사함을 느꼈던 사건만을 편지에 쓸 경우에는 사건뿐 아니라 그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쓰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함께 쓰도록 지도한다. - 높임말을 적절히 사용하면 자신의 마음	
나의 목소리	솔직하게 표현하기						

				을 예의바르게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지도한다.						
6	<p>알맞은 낱말이나 이유를 들어 글을 써 보아요</p>	<p>-정서적 주제</p> <table border="1"> <tr> <td rowspan="5">발견</td> <td>입장 바꾸기</td> </tr> <tr> <td>울퉁불퉁 내 모습</td> </tr> <tr> <td>그림자 찾기</td> </tr> <tr> <td>자존감 회복</td> </tr> <tr> <td>협력하기</td> </tr> </table> <p>11.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 의견도 소중해!(13-15쪽)</p>	발견	입장 바꾸기	울퉁불퉁 내 모습	그림자 찾기	자존감 회복	협력하기	<p>-대인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3-4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함.</p> <p>-영화 <보스베이비>를 활용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 보도록 하였음.</p>	<p>-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와 티격태격한 이야기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함.</p>
발견	입장 바꾸기									
	울퉁불퉁 내 모습									
	그림자 찾기									
	자존감 회복									
	협력하기									

3.3. 고학년군

▶ 1차 개발

대단원		관련 활동	활동 구성의 주안점
1	정확하게 읽고 써요!	1. 맞춤법에 맞게 쓰인 단어 식별하기 (1~2쪽)	스티커 활동, 선 긋기 활동 등을 통해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맞춤법에 맞게 쓴 표기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발음과 표기가 다른 단어 들 유형별로 학습하고 문제 풀기 (3~6쪽)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가 소리 나는 단순한 단어에서부터 거센소리, 된소리, 겹받침이 사용되어 발음과 표기가 까다로운 단어의 순으로 학습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문제의 발문에는 해당 유형에 대한 지식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어 문제를 풀기 전 발음과 표기의 차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잘못 표기된 단어 고쳐 써 보기 (7쪽)	한글 맞춤법에 아직 능숙하지 않은 동생이 그림일기를 썼다는 가정 하에 소리 나는 대로 쓰인 단어를 학습자가 직접 맞춤법에 맞게 고쳐 써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잘못 쓰인 단어를 바르게 고쳐 쓰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단어 상자>를 제시하였는데, <단어 상자>에는 올바른 표기와 잘못된 표기가 함께 섞여 있어 학습자가 한 번 더 선별해 보도록 하였다.
		4. 띄어쓰기의 원리 학습하기 (9~11쪽)	문장에서 앞말에 붙은 조사 찾아보기,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장 찾기 등의 활동을 통해 띄어쓰기는 어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과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는 띄어쓰기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나에 대한 글을 원고지에 써 보기 (12~13쪽)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학습자가 스스로를 소개하고 표현하는 한 편의 글 또는 여러 개의

			문장을 원고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	<p>1. 텔레비전 뉴스 듣고 말하기 (p.3)</p> <p>2. 텔레비전 뉴스 정보 듣고 이해하기 (p.4-5)</p> <p>3. 두 개의 뉴스를 듣고 비교하기(p.6-8 8)</p>	<p>-단원의 전반부는 텔레비전 뉴스를 활용하여 듣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함.</p> <p>-텔레비전 뉴스를 중심으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듣고 말하기를 유도함.</p> <p>-텔레비전 뉴스에 핵심적인 부분을 잘 듣고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특히관점이 다른 두 개의 뉴스를 비교, 대조하는 활동을 구성함.</p>
		<p>4. 신문 기사의 특성 이해하기 (p.10)</p> <p>5. 신문 기사에 나타난 문장 표현하기 (p.11)</p> <p>6. 관점에 따라 표현하기 (p.12)</p> <p>7. 뉴스에 나타난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p.13)</p> <p>8. ‘우리 반 3대 뉴스는?’ 기사 작성하기 (p.14-15)</p>	<p>-후반부는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읽고 쓰는 활동으로 구성함.</p> <p>- 학습자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가능한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주제와 그림을 활용함.</p> <p>-신문 기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표현을 익히는 활동을 구성함.</p> <p>-헤드라인 작성하기,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관점에 따라 신문 기사의 내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하도록 유도함.</p> <p>-가능한 어린이 신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NIE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함.</p>
3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p>1) 이럴 때 관용 표현을 사용해요 도입(p.2)</p> <p>1. 모둠별 속담 말하기 대결 (p.3)</p>	<p>- 도입 부분에서의 그림을 보고 스스로 의미를 추론해 보도록 한다.</p> <p>- 알고 있는 속담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통해 학습자에게 익숙한 속담이 관용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한다.</p>
		2. 속담에 담긴 의미(pp.4-5)	<p>- 속담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답을 마련해가는 활동을 구성하였다.</p> <p>- 관용 표현에서 스스로 낱말을 바꾸어 보고 의미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관용 표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p>
		3. 관용 표현의 뜻을 이해해요(p.6)	- 관용 표현의 뜻을 이해하고, 관용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효용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 이해한다.
		4. 상황에 맞게 속담을 사용해요(pp.7-8)	- 상황이 드러나는 그림을 제시하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5. 이야기를 통해 속담을 깊이 이해해요(pp.9-10)	- 속담에는 옛 이야기에 담긴 국어 문화의 특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관용 표현을 적용해 봐요 도입(p.11)	- 다양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6.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 (pp.12-14)	- 관용 표현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표현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7. 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 쓰기(pp.15-16)	- 관용 표현의 의미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이야기 등 상황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8. 범인이 남긴 단서(p.17)	- 조성 퀴즈를 통해 앞에서 배운 관용 표현을 복습하고, 놀이 형식의 활동을 구안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9. 내가 만드는 관용 표현 (p.18)	- 관용 표현을 실제로 만들어 봄으로써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 확인 및 학습한 내용이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우리말 나들이	1. 무얼 먹을까? 2. 차림표 완성하기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구별하기	-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식 이름을 통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익힌다. - 우리말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구별해 본다. 국어사전을 활용하여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 본다.
		4. 노래 가사에 쓰인 우리말을 살펴보아요. 5. 노래 가사를 바꾸어 보아요.	- 노래 가사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찾고, 어종을 바꾸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본다. - 어종을 바꾸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함께 적어 보며 바꾸어 쓴 결과를 짝끼리 비교해 보고 발표한다.
5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	1. 동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p.1-2) 2. 광고를 보고 주장 찾아보기 (p.3-4) 3. 주장하는 글에 대해 알아보기(p.5) 4. 주장하는 글의 짜임 파악하기 (p.6-7) 5. 순서를 찾아라!(p.8-9) 6. 적절한 근거 판단하기(p.10) 7. 근거 말하기(p.11) 8. 주장하는 글 조직하기 (p.12-13) 9. 주장하는 글 쓰기(p.14) 10. 주장하는 글 평가하기(p.15)	-단원 전체적으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쓰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음. 목적과 주제를 고려한 글 쓰기에 대한 성취 기준은 주장하는 글쓰기와 연계하여 부수적인 성취 기준으로 다루었으며, 내용상 활동을 구별하여 다루는 것보다는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목적, 주제, 독자를 고려하게끔 융합하여 구안하였음. -단순히 주장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장하는 글의 구조, 특성, 적절한 근거 등이 무엇인지 알고 쓸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지면 광고,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는 흥미 있고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순서를 찾아라, 근거 말하기 등과 같은 단원 주제에 맞는 놀이 활동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쓰기 단원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였음.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주제를 선택한 후 마인드맵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떠올리고, 글의 짜임에 맞게 개요를 작성한 후에 이어서 한 편의 글을 쓰게 하는 등의 쓰기 과정의 흐름을 따르고자 하였음. 아울러 글을 쓴 후에 스스로 자신의 글을 평가해 보며 고쳐쓰고, 친구들과 돌려 읽게 함으로써 쓰기 후의 활동을 간과하지 않으려고 하였음.
6	쓰기 과정에 따라	1. 쓰고 싶은 주제 정하기	- 쓰고 싶은 주제를 학습자 스스로 정하게 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2. 주제에 대해 쓸 내용 생각	- 주제에 대해 쓸 내용을 학습자가 마인드 맵 형태로

글을 써 보아요!	해 보기	수정 확장해 나감으로써 학습자 주도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3.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과 활용하지 않을 내용 정하기	-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과 활용하지 않을 내용을 정하고, 이를 한 문장씩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긴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4.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들의 순서 정하기	-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들의 순서를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신이 정한 배열 순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일관된 논리적 흐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정한 순서에 따라 글 완성하기	- 정한 순서에 따라 글을 완성하는 단계로, 이어주는 말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긴 글을 스스로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6. 불필요한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 없는지 살펴보기	- 완성한 글에서 불필요한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 내용 차원에서 고쳐쓰기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7.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 없는지 살펴보기	-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 없는지 표현 차원에서 고쳐쓰기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8. 자신의 주제가 잘 드러나게 내용과 표현 고쳐쓰기	- 내용 차원과 표현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학습자가 고쳐쓰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다.
	9. 자신 있게 말하고 바르게 듣기	-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10. 거리 두고 대상 바라보기	-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봄>를 활용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대상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주고자 하였음.

▶ 2차 개발

- 외부 자문진 자문 의견 및 반영 내용

대 단 원	자 문 진	검토 의견	반영 내용
1	김 세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쪽 : ‘헛갈린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무엇이 옳은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번 활동은 표준 발음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쓴 낱말의 원형을 밝히는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준 발음으로서의 [알랏]뿐만 [알낙]과 같이 혼동되는 여러 발음의 예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쪽 : 예시 중 8번은 잘못된 표기가 아닌 ‘~까지’라는 올바른 표기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교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 3쪽 : ‘어떤 단어들은 받침이 그대로 넘어가 소리가 나요’를 ‘어떤 낱말들은 받침을 이루는 소리(또는 받침 소리)가 뒤따르는 소리와 그대로 이어져요’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형태의 문제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헛갈리기 쉬운 단어’를 ‘혼동하기 쉬운 단어’로 수정함. 1)번 활동에 제시된 소리 나는 대로 쓴 단어의 예시는 수정하지 않음. (1쪽) - ‘나무까지’를 ‘나뭇가지’로 수정함. (1쪽) - 해당 내용을 ‘어떤 단어들은 받침소리가 그대로 넘어가 소리가 나요.’로 수정함. (3쪽) -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p>보다 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연음 규칙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술을 좀 더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쪽 : 2번 활동에서 ‘이와 비슷한 단어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로 활동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제시된 문제들은 그러한 단어들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른 표기를 찾는 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 5쪽 : 4번 활동은 “ㅅ’ 뒤에 무엇이 오는지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로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제시된 첫 두 문제들은 그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 6쪽 : 6번 활동의 ‘알약’에 대한 기술은 ‘음의 첨가’와 관련된 현상이고 제시된 문제들은 ‘음의 동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의 음운 현상은 서로 다릅니다. • 7쪽 : ‘아래는 동생이 쓴 그림 일기입니다. 잘못 표기된 낱말을 단어 상자를 참고하여 고쳐 주세요.’와 같이 수정합니다. • 7쪽 : 구개음화에 대한 활동은 앞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9쪽 : ‘낱말은 혼자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라는 자립성의 기준으로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p>‘조사’를 초등학교에서 가시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p>	<p>라는 것은 유사한 조음 환경에 있는 단어들을 의미함. (4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번 문항의 발문과 예시를 수정함. (5쪽) - 해당 활동 자체가 음운 현상 각각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렇게 구성할 경우 난이도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음. (6쪽) - 수정함. (7쪽) - 앞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를 삭제하고 다른 사례로 수정함. (7쪽) -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낱말의 정의를 삭제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수정함. ‘조사’ 관련 내용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함. (10쪽)
	임문석	<p>♣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활동이 구성되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p> <p>♠ 3~6페이지 활동: 문법 설명에 대한 줄글과 함께 줄글에 대한 예시는 따로 박스 안에 예시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주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5페이지 4번 설명에는 ‘나뭇잎’과 ‘나뭇가지’의 예를 들며 ‘뭇’의 ‘ㅅ’ 뒤에 무엇이 오는지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고 예시를 들었는데 학생들의 문제도 하나의 글자에 대한 예시 2개씩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p> <p>♠ 12페이지 도움 상자의 예시 중에 ‘나의 성격은 어떤가요?’,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는 학생들의 학년 수준보다 다소 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또, 다음의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의 질문은 학생들의 학년 수준에서는 질문의 의미가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과 같이 수정함. (3~6쪽) - 4번 문항의 발문과 예시를 수정함. (5쪽) - 질문의 수준과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함. (13쪽)
2	김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정보 역시 인터넷이니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쪽 : 의미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처음 뉴스를 들은 후’를 ‘우선 뉴스를 한 번만 듣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둘째 활동은 뉴스를 듣는 순서 이전에 아래의 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4쪽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6쪽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8쪽, 9쪽의 관련 학습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전반부의 기

		<p>화된 질문을 먼저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활동은 메모장에 무엇을 적으라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쪽 : 학습자들은 내용을 들으면서 핵심 단어라 생각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아 적기 때문에 단어를 적는 공간이 더 넓어야 합니다. • 8쪽 : ‘표현’ 항목에 대해 예상 답안이 모호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이라면 뒤의 ‘관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 9쪽 : 초등 교육에서 신문 기사를 서두(lead)라는 용어로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학습자에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 10쪽 : 자료에서 ‘누가’에 해당되는 것을 ‘광주시 퇴촌면’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습니다. • 11쪽 : 주제부 / 서술부 / 인용문이라는 용어가 역시 현재로서는 초등 학습자에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 12쪽 : ‘무슬림’, ‘라마단’과 같은 종교적 관점이 드러난 자료는 제재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의 사회 이슈로 볼 때 부정적인 교육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13쪽 : 현재도 많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상 답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시된 사실 역시 설득을 위해 차용된 주관적 의견의 일부라는 것이 주된 논지입니다. • 13쪽 : 뉴스 거리를 고르는 기준을 ‘재미’로만 두었을 때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이 조금 약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미’보다 ‘알릴 가치’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실의 수업 상황을 가정할 때, ‘재미’ 일변도일 경우 누군가를 놀리거나 누군가의 비밀을 캐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p>존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후반부에 비교하여 설명하기를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쪽 반영하였습니다. • 11쪽, 12, 13쪽의 관련 학습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전반부의 기존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후반부에 비교하여 설명하기를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 13? 14쪽 과제를 삭제했습니다.
입문석		<p>♣ ‘우리 반 3대 뉴스는’과 ‘내 인생의 깜짝 뉴스’ 기사 작성하기 활동은 고학년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적절한 활동 같습니다.</p> <p>♠ 8페이지: (가)와 (나)의 뉴스의 다른 점을 쓰는 표 안의 ‘표현’에 무엇을 써야할지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p> <p>♠ 11페이지: ‘주제부’와 ‘서술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준다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p> <p>♠ 12페이지: ‘관점에 따라 표현하기’에 대한 예시를 짧게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인데 첫 번째 ㉠에는 제목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에는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13페이지: 개인 활동이라면 쓸 내용이 많아 기사 부분을 중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둠 활동의 경우 가능)</p>	<p>♠ 8쪽, 11쪽, 12쪽의 관련 학습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전반부의 기존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후반부에 비교하여 설명하기를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p> <p>♠ 13? 14쪽 삭제했습니다.</p> <p>♠ 16쪽 삭제했습니다.</p>

		<p>♣ 16페이지: 평가하기 칸의 ‘신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p>	
3	김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쪽 : 속담 말하기 대결과 같은 경우는 모든 학습의 마지막 단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생들이 알고 있는 속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속담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속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쪽 : 속담도 보편적인 일상 생활과 연관지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은 특정한 일화가 바탕이 된 속담입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 중 가장 최선의 방법은 관련된 설화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 5쪽 : 앞의 지적과 같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 그 의미를 알고 난 후 파생된 활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 7~8쪽 : 그림으로 제시된 상황은 속담의 언표 내적 의미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속담 자체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번과 같은 장면은 도움상자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호합니다. • 12쪽 : 큰 문제는 아니지만 현 추세에 따라 여아의 신체를 제시하고 각 부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교통 신호등과 같이 간략화된 신체 기호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4쪽 : ‘배가 고팠던 진호는 <u>눈 깜짝할 사이</u> 밥 한 송이를 다 먹었다.’로 빈칸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 15쪽 : 7번 활동의 경우 학습 시기 상 도입 활동과의 거리가 멍니다. 도입 활동에 이어서 나오도록 하거나 도입에 제시된 장면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 16쪽 : 섬에 갇혀 있는 것은 ‘발이 묶이다’도 되지만 상황에 처한 심리적 특성에 따라 ‘발을 구르다’도 가능합니다. • 18쪽 : 기존 관용 표현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대상 명사구를 바꾸는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아무 단어나 교체해 버리는 비교육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활동을 학습의 마지막 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 관련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영상을 연결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속담 이해의 단계를 나누어 구성하는 것으로 조정, 보완하였습니다. - 수정하였습니다. - 수정하였습니다. - 수정하였습니다. - 활동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 수정하였습니다. - 학습자가 새로 만든 표현의 용례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추가하여 관용 표현의 적용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임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속담 말하기 대결’, ‘범인이 남긴 단서’, ‘내가 만드는 관용 표현’ 등의 활동은 고학년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데 적절한 활동 같습니다. ♣ 동기유발에 사용했던 속담이 4~5페이지 활동으로 이어지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활동 간 연계성이 있어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5페이지 속담 속 낱말을 바꿔보면서 속담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활동도 학생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이야기를 접할 수

		<p>의 속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 2페이지: 그림 자료와 ‘고양이 목에 방울’ 관용 표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기 어려워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림 자료 안에 ‘고양이 목에 방울’ 관용 표현을 써야 할 상황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 14페이지: 원래의 뜻으로 쓰였다가 관용 표현으로 그 뜻이 확대되거나 바뀐 경우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를 몇 개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있는 영상을 연결하여 보완하였습니다.</p> <p>-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p>
4	김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 어휘를 구별하는 활동이 다음의 6쪽부터 시작되는 구별법에 대한 학습에 선행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도움 상자 역시 이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추후의 학습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8쪽 : 이전까지의 학습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외래어와 외국어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지에 대한 학습이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느냐와 관련된 물리적 기준만으로 본다면 사전마다 등재된 표제어가 서로 다르다는 점, 사적 역시 시간에 따라 외국어가 외래어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외국어도 일단은 한글로 적힌다는 점에 있어서 그 구분 기준이 분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어였던 것이 외래어로 치환되어 사전에 실리게 되는 과정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9쪽 :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쪽 :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는 낱말은 이미 앞에서 사전을 제1 기준으로 한 분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하신 오타자, 어색한 표현 등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 5쪽부터 시작되는 활동 2와 3의 순서를 조정하여, 사전 활용 활동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 간판 활동도 고려한 바 있으나, 다소 관련된 범주가 넓을 것으로(한자어+외래어 구성, 고유어+한자어 구성 등) 예상되어 음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음식 이름의 경우에도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유래가 보다 분명한 예시로 수정하였습니다. -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국어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p>♣ 2페이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음식에 대한 대화로 이끌어낸 점이 인상적입니다. 학생들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p> <p>♣ 5페이지: ‘한자어’에 관련된 도움상자 글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p> <p>♣ 9~12페이지: 노래가사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찾기 활동, 가사 바꾸기 활동 등은 고학년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p> <p>♣ 7페이지: 국어사전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도 앞 페이지에 나온 순서에 맞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순으로 설명해주고, 아래 예시(표준국어대사전 검색)도 이 순서에 따라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 13페이지: 정서활동이 마당 주제(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와 관련된 활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p>	
5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 1번 질문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 	<p>- 1번 질문의 경우 주장하</p>

	세 현	<p>할 소지가 있습니다. 후속되는 질문으로 미루어 보아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p> <p>6번 질문은 첫 활동으로서 답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안내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 ‘수식어 / 논리 정연 / 간결’이라는 표현 역시 어려운 용어입니다. • 6쪽 :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교육 대상이 언어 소외 계층임을 고려할 때에 가정과 관련한 제재글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편부모 가정의 비율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1쪽 : 단순 3가지의 발화가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기준(주장과 관련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근거인가 등)을 제시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13쪽 : 개요 쓰기와 관련한 활동 칸은 다음에 이어지는 실제 글쓰기 활동보다 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번 활동과 4번 활동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18쪽 : 활동의 안내문 같은 경우는 ‘일 문장 일 지시’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가 있는 활동의 경우 간단하게 박스로 묶어서 한 문장씩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19쪽 : ‘의리’, ‘역경’, ‘덕’에 대한 용어가 어렵습니다. 	<p>는 글의 독자 설정과 연계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혹은 동영상과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답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p> <p>-5쪽의 표현들을 수정하였습니다.</p> <p>-6쪽에 가정 관련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로 대체하였습니다.</p> <p>-11쪽에 기준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습니다.</p> <p>-13쪽 칸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p> <p>-18쪽 발문을 수정하였습니다.</p> <p>-19쪽과 관련한 내용은 명언에 들어 있는 단어들이고, 실제로 초등과정에서도 다루어지는 단어이므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p>
	임 문 석	<p>♣ 종이카드를 이용한 문단 순서 찾기(9페이지), 주장 카드 놀이(11페이지) 등 학생들이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구성된 점이 좋았습니다.</p> <p>♠ 5페이지: 주장하는 글의 특징 설명에서 ‘합리적’, ‘조리’ 등의 표현이 학습자의 수준에서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장하는 글의 특징의 예시를 각각 짧게 들어줄 수 있다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6페이지: ‘관계지수’라는 말이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 내에서 부인과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버지들이 가정 내에서 부인과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기사를 보았다.’등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16페이지: 정서활동이 마당 주제와 관련된 활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또는 동생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상황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찾아보는 활동 등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합니다.</p>	<p>-2학년 2학기에 ‘조리 있게 말하기’를 배우고, 5-6학년 군 실과에서도 ‘합리적으로 용돈 관리하기’에 대해 배우므로 관련 표현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p> <p>-6쪽 가정 관련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로 대체하였습니다.</p> <p>-정서 활동에서 근거를 들어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p>
6	김 세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 ‘손이 가는 대로 한 번에 쓴 글이 마음에 들었던 적이 있나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쪽 : ‘취기, 운동, 여행’의 범주와 ‘강낭콩’의 범주의 지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식물, 또는 동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p>- 모두 반영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 본 개발 자료의 성격에 미루어보아 ‘행복행~~!’과 같은 언어 표현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 6쪽 : 제시된 그림의 경우 4쪽 활동에 ‘순서’를 더한 것인데 위 아래로 갈리도록 표현한 까닭이 궁금합니다. 하단의 가상 필자의 발화를 ‘이유’로 명명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학생의 아이콘에 말풍선을 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 7쪽 : 마찬가지로 순서를 적는 모형이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인 까닭이 궁금하며, 학생들의 경우 글씨를 기울여서 써야 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8쪽 :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생각이 담기게’라는 표현이 모호합니다. 성인 독자의 경우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언어 소외 계층이면서 초등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어렵습니다. • 10쪽 : ‘내용 차원에서 고쳐쓴 글’보다 ‘내용을 고쳐 쓴 글’로 수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 11쪽 : ‘표현 차원에서 고쳐쓴 글’보다 ‘잘못된 표현을 고쳐 쓴 글’로 수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 11쪽 : 표현차원이라고 보았을 때, 제시된 글이 ‘한 문장이 한 문단을 이루는 것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문단의 구분은 독자의 이해를 위한 편의 제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 차원에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문석	<p>♣ 9~11페이지: 도움 상자와 생각 상자를 사용해서 고쳐쓰기 과정의 머릿속 생각을 직접 보여주어 학생들이 고쳐쓰기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p> <p>♣ 13페이지: 단순히 발표를 가장 잘한 사람을 적는 게 아니라 나의 발표를 가장 잘 들은 사람을 적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듣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점이 좋았습니다.</p> <p>♣ 고학년의 특성 상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한 예시에 ‘강낭콩’보다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춘기’, ‘수학여행’ 등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낭콩’의 경우 4학년 과학에 ‘식물의 한 살이’ 단원이 있기 때문에 4학년의 글쓰기 주제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p> <p>♣ 6~7페이지: 글 쓸 내용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도식)이 학생들이 보기에 어떤 순서로 적어야 할지 어려워 할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림에 쓰여 있는 순서를 보았을 때 아랫부분에 적힌 내용의 순서가 특히 헷갈려할 것 같습니다.</p>	

- 내부 연구진 검토 의견 및 반영 내용

대단원		검토의견	반영 내용
1	정확하게 읽고 써요	- 3쪽, 5-6학년군이기는 하지만 겹받침 관련 내용이 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을까요?	- 초등학교급에서 겹받침은 1~2학년군에서 ‘같은 두 개의 자음자’, ‘다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쪽, ‘된소리’ 용어가 초등학교에서 노출이 되나요? 초등 문법 교육에서는 되도록 문법 용어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쭙어 봐요. - 5쪽, 사잇소리 현상 관련 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려워 보여요. - 9쪽, “위 문장에서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는 각각이 낱말이므로 띄어 써요.”가 ‘낱말’ 정의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 9쪽, ‘조사’ 용어는 중1 때 처음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어를 노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p>두 개의 자음자’로 다루어진다고 함. 중학년 교재의 발음과 표기 관련 단원과 비교했을 때 겹받침 관련 내용은 고학년 교재에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된소리’, ‘겹받침’과 같은 용어 대신 해당 현상을 풀어 쓰거나 ‘자음이 두 개인 받침’과 같이 표현을 수정함. - 4번 문항의 발문을 수정함. (5쪽) -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낱말의 정의를 삭제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수정함. (10쪽) - ‘조사’ 관련 내용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함. (10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쪽 지시문을 좀 더 간결하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4-6쪽 1)~7)에서 정보 내용과 연습문제 지시문을 구분해서 제시하면 가독성이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정보 내용의 경우, 박스 처리해서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예시를 아래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연습문제의 경우, 연음 연습에 대한 취지가 보다 잘 드러나는 문제이면 어떨까요? 현재는 연음보다는 추론을 통한 어휘 활동의 색깔이 강한 것 같아요. - 2. 띄어쓰기는 꼭 해야 하나요?에서 활동은 따로 없나요? 도입성 활동이라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10쪽 첫 번째 문제가 의존형태소 찾기 활동과 띄어쓰기 인식 사이에 좀 더 연결되는 과제이면 좋겠어요. - 정서 활동에서 한 편의 글을 쓰기까지 과정 중심의 작은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소주제별 연습 활동들을 나누어 준다거나 도움되는 표현 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배경지식 활성화 활동을 준다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문의 문법 지식 설명 부분을 간결하게 다듬고, 지시문 내의 예시를 별도의 박스로 정리하여 제시하되 해당 내용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수정함. (3~6쪽) -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함. (9쪽) - 단원 내에서 ‘조사’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게 되면서 의존형태소와 띄어쓰기 인식 간 연결 역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게 되었음. - 쓰기 과정에 따른 활동들을 추가로 구성함. (14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쓰기를 꼭 해야 하나요?’에서 모든 단어가 아닌 일부 문장만 붙어 있는 단어도 활용. 또한 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문장만 붙어 있는 단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p>의미로 읽힐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가독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활용하는 방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경우 등은 제시한 사례들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듯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문들을 광고문이나 편지 등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경유하여 제시하면 어떨까요? - 다른 단원에 비해 압축적으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을 고려할 때 분량의 문제는 없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문 중 몇 가지를 학습자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수정함. - 발문의 문법 지식 설명 부분을 되도록 간략히 줄이고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수정함. (3~6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4번 문항에서 ‘ㅅ’의 역할이 다르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삭제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발음의 달라짐을 ‘ㅅ의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6번 문항에서처럼 ‘ㅅ’이 ~을 어떻게 소리 나게 ‘만든다’와 같은 방식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9쪽, ‘나는’, ‘우리’와 같이 ‘가족을’도 낱말로 분류한 다음 ‘은/는’, ‘이/가’를 따로 ‘조사’라고 칭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과 ‘조사’라는 용어 노출로 인한 혼란은 없을까요. 명사나 동사 같은 용어는 영어 학습을 통해서도 익힌 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사’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번 문항의 발문을 수정함. (5쪽) -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낱말의 정의를 삭제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수정함. 또한 ‘조사’ 관련 내용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함. (10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문항들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아이들에게 설명량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조금 줄이고 직접 선택해 보는 문항을 늘이는 방향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8쪽 ‘띄어쓰기는 꼭 해야 하나요’의 예문이 흥미롭습니다. 단원 내 활동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아이들이 직접 띄어쓰기로 인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활동 거리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그림 등으로도 상황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문의 문법 지식 설명 부분을 간결하게 다듬고, 지시문 내의 예시를 별도의 박스로 정리하여 제시하되 해당 내용을 문제 풀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수정함. (3~6쪽) -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함. (9쪽)
2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쪽,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뉴스는 개별 강사 선생님들의 재량에 맡겨질 필요는 없을까요? 5쪽에 뉴스가 교재에 수록되면 시의성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는지요? 선생님들 재량에 맡겨진다면, 뉴스 성격에 대한 안내가 <학년별 성취 기준과 활동 관계>-<지도시 유의점>에서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 4-8 번 활동, 신문 기사와 뉴스 매체 자체의 특성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3) 적절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쪽 의견 내용을 제가 잘 이해 못 했어요. 회의 때 말씀 나눌게요. • 4-8 번 활동 삭제하고 비교하여 설명하는 글쓰기 활동으로 구성하였습 <p>니다.</p>

	<p>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는 성취 기준과는 살짝 거리가 있어 보여요. 4-8번 활동을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에 포함하고, (3)번 성취 기준 성격에 맞는 활동을 구상할 필요는 없을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삽화 처리가 가능하다면 3쪽의 뉴스는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6쪽에서 핵심 단어를 찾는 것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단어들을 적어 보게 한 후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추려 보게 하는 단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텔레비전 뉴스인 것을 감안할 때 기사문을 듣거나 읽는 것뿐만 아니라 화면과 함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지요? - 3쪽. 뉴스 보도하기 활동은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아나운서와 기자의 말하기를 흉내내 보는 활동인지요. 시청각 자료를 본 후라고 하더라도 발음, 크기, 속도 등을 판단하는 데 '적절함'만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다소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을까요. 뉴스용 발음, 크기, 속도 등에 대해 부연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1쪽. 사소한 오타인데요. '~에 따르면', '~라고 밝혔다' 등에 사용된 따옴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 - 11쪽.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형', '현재형'에 대한 설명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설명할 때 '현재형'을 쓴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뉴스마다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 제공한다'라는 문장의 경우에도 앞뒤 문맥에 따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12쪽. '헤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 '제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혼용하여 쓴다고 설명할 것인지 통일할 필요는 없을까요. - 4쪽 활동은 뉴스를 듣고 메모장에 적어 본다는 것이 뉴스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어 본다는 말씀이신지요. 중요한 내용, 항목별 정리, 내용 전반 요약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메모에 관한 지시 사항이 좀 더 분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9쪽 활동에서 6학년 때 배우는 기사문의 형식적 특성의 경우, 서두 대신 '줄거리 또는 요약'이라는 말로 배웁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여 준다면 아이들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듯합니다. - 10쪽 활동에서 예시로 든 기사문은 예로만 제공하고 외에 활동을 위한 기사문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안내선 없이 스스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삽화 문제는 추후 상의 드리겠습니다. • 이 활동은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비교해서 설명하기 활동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네, 반영하였습니다. • 11쪽, 12쪽 이와 관련된 활동을 삭제하고 비교하여 설명하는 글쓰기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4쪽 반영하였습니다. • 9쪽 이와 관련한 활동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비교해서 설명하기 활동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10쪽 반영하였습니다. • 11쪽, 13쪽, 16쪽 관련 내용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비교해서 설명하기 활동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	--

		<p>하면 더욱 흥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쪽에서 주체부와 인용문이라는 용어를 노출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13쪽 사실과 칼럼에 대해서는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지요. 사실이 무엇인지 칼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가되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6쪽의 평가표에서 첫 번째 항목이 ‘신문?’이라고 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반 친구들의 소식을 기사로 작성한 후 이에 대한 평가표에서 ‘서로 다른 관점의 뉴스를 듣고 비교할 수 있나요?’라는 항목이 있어 다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예로 든 관점이 완전히 다른 신문 기사처럼 우리 반 친구들의 소식은 관점이 상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활동을 도입에서 최근에 알게 된 재미있는 소식을 아이들이 충분히 많이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학년 학생들이기는 하지만 뉴스를 보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시 자료나 교사의 안내 등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지요? • 3쪽 뉴스의 내용을 축소하여 제시한 것이 한눈에 보기 좋으나 폰트가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 9쪽 상단 신문 기사의 형식을 설명할 때 영어 원어는 노출하지 않아도 의미는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두’라는 표현보다는 ‘제목-부제목-본문’의 구성을 더 익숙하게 여길 듯합니다. • 11쪽 주체부, 취재원의 말, 인용문, 술어 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부가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지요? 각 항목들에 대한 명명도 다소 위계가 달라 보입니다. ‘주체부’를 설명하자면 ‘서술부’에 대한 설명도 상술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원’도 ‘사람’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운 내용들이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쪽, 관용 표현 사용과 관련한 카툰이 재미있는데 저작권 문제 소지는 없나요? - 재밌는 활동들이 많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 3단원에서 1) 이럴 때 관용 표현을 사용해요와 2) 관용 표현을 적용해 봐요 는 크게 속담과 관용어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해와 적용으로 나눌 것인지, 속담 학습과 관용어 학습으로 나눌 것인지가 좀 더 분명하게 좋을 것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해/적용으로 소단원을 구성하였습니다. - 소단원 구성을 다시 해서, 이해 부분에 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에서 ㉓ 관용 표현의 뜻을 이해해요는 2)부분과 더 관련 있어 보여요. - 2쪽에서 그림 아래 텍스트는 도입 질문 성격의 글인가요? 속담에 대한 개념 등의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고 지시문 형식으로 도입 질문을 따로 분리해서 제시하면 어떨까요? - 13쪽은 '머리', '14쪽은 '눈'과 관련한 관용어이지요? 14쪽 구성도 13쪽과 시각적으로 통일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15쪽 아래 ㉔가 정보 설명인 것 같은데, 다른 ㉔ 즉, 연습지시문과 다른 성격의 글이니까 기호를 달리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17쪽 활동에서 도움상자를 주면 어떨까요? 초성만 보니까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 속담 부분이나 혹은 관용어 부분에서 해당 속담 혹은 관용어를 활용하여 대화나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하는 활동은 어떨까요? 결국 이들 관용표현은 적절한 맥락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아요. 	<p>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13쪽의 활동은 관용 표현의 기존 의미와 확장된 의미를 구분하여 마련한 것이고, 14쪽은 문맥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활동이라 통일시키지 않고 각기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 수정하였습니다. -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 학습자가 새로 만든 표현의 용례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추가하여 관용 표현의 적용에 대해 보다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의 활동에서 '방울'의 기능이 다소 명확한 편이라서 '방울' 대신 '숨', '생선', '가방'을 떠올려 보는 활동이 고학년 학생들에게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활동의 성격이 강하여, 문제 형태는 그대로 두고 보기의 내용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그림 설명 중 “속담들 중에는 속담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를 읽고 속담이 지닌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해요.” 이후에 읽을거리로 이야기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사가 관련 이야기를 찾아 들려주거나 학생이 직접 찾아 오는 것인가요? 교재에서 제시해 줄 필요는 없는지요. - 14쪽. ㉔ 예시의 경우 ‘배가 고팠던 진호는 (빈칸)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15쪽. 현빈이 이야기에서 ‘현빈이 엄마’를 ‘현빈이 어머니’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칫국부터 마시다’는 표현”은 “‘김칫국부터 마시다’라는 표현”으로, ‘김칫국이라는 사물의 특징’은 ‘김칫국이라는 음식(?)의 특징’으로 수정하면 보다 자연스러울 듯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영상을 연결하여 보완하였습니다. - 수정하였습니다. - 수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쪽에 속담을 배우지 않은 채로 도움 자료 없이 바로 동물과 관련된 속담 말하기 놀이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속담을 6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것을 감안하면(1,2학년 때 배우는 속담은 날씨와 관련된 속담, 떡과 관련된 속담 정도이지만 그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 활동의 순서를 조정하였

		<p>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속담이 많지 않을 듯합니다. 도움 자료를 제시하거나 이 활동을 뒤로 배치하는 것은 어떨지요.</p> <p>-11쪽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의 원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15쪽의 이야기 상자가 11쪽에 이어 제시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p> <p>-16쪽 첫 번째 그림 카드와 그 도움말을 보면 ‘손발이 맞다’보다는 함께하면 쉬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 ‘어떤 일을 할 때 호흡이 잘 맞아요.’ 정도로 수정되면 어떨지요?</p> <p>-21쪽 정서활동에서 맥락이 제거된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가 칭찬하는 말인지 다소 의문이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말의 예시를 적어 주는 것이 어떨지요. 예컨대 ‘언제나 자신감 넘치는 너의 행동이 참 멋져!’, ‘나는 너의 친절한 성격을 닮고 싶어.’ 등과 같은 표현 등이 있을 듯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p>	<p>습니다.</p> <p>- 수정하였습니다.</p> <p>- 수정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쪽 질문 도움 상자 내용 중 “어떤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는 “용감한 쥐”, “정의로운 쥐” 등 속담의 원 의미에 잘 부합하지 않는 답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의 속뜻이 ‘탁상공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 5쪽 하단의 ‘먹어버리지’는 ‘먹어 버리지’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 10쪽 하단의 ‘이럴 때 이 속담에서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에서 ‘방법’ 앞에 ‘위기를 극복할’ 등과 같은 어구가 추가되면 이해가 훨씬 수월할 듯합니다. • 15쪽 이야기 상자에서 ‘마시지마!’는 ‘마시지 마!’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p>- 관련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영상을 연결하여 보완하였습니다.</p> <p>- 수정하였습니다.</p> <p>- 수정하였습니다.</p> <p>- 수정하였습니다.</p>
4	우리말 나들이!	<p>- 활동들이 다 재밌어 보여요.</p> <p>- 정서 활동이 성취 기준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좀 더 국어 어휘의 특징과 연관지을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p> <p>- 음식을 통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도입하는 의도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탕수육, 자장면을 중국에서 주로 먹던 음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p> <p>자칫 ‘문화 정보’가 오해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p> <p>- 생활 속 간판 등을 주제로 하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찾는 방법 등도 있을 것 같아요. 실내 수업이라서 어려울까요?</p>	<p>- 지적하신 오타자, 어색한 표현 등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p> <p>- 활동 2와 3의 순서를 조정하여, 사전에 활용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p> <p>- 간판 활동도 고려한 바 있으나, 실내 수업이고 또 간판 내용이 수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한자어+외래어 구성, 고유어+한자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쪽의 차림표 활동은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괜찮을까요? 도움상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6쪽과 7쪽 활동을 바꾸면 어떨까요? 설명이 먼저 제시되면 좋을 것 같아요. - 정서활동에서 예쁜 말로 표현하기 등의 활동은 어떨까요?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 생각을 예쁜 말로 표현하기 활동이라면 이 단위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단순한 참고사항이니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돼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수육’은 한자어이기는 하지만 한자가 너무 어려워 한자어임을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糖(엿 탕)’. ‘자장면’의 경우에도 한자어이기는 하지만 ‘짜장면’도 표준어인데 그럼 ‘짜장면’도 한자어인지 학생의 질문할 경우 선생님이 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자장면’의 한자도 다소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고 전형적인 한자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구성, 또는 부적합한 내용 등) 같아 음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3쪽의 ‘우리 나라’를 ‘우리나라로 수정해 주세요. -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사전 찾기가 다소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 2와 3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어떨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적 유래가 보다 분명하고 전형적인 것들로 음식 이름의 예시를 수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발문에서 ‘~ 왔는지 알고 있어요?’는 다른 문장들과 종결 어미를 통일하여 ‘~ 왔는지 알고 있나요?’로 수정되면 어떨까요? - 음식명을 고유어, 한자어로 나누기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순대’는 학생들이 쉽게 고유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자장(면)’은 단어의 유래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오히려 고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6쪽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발문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해서는 각각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었는데 외국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 학생들이 단어를 분류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4쪽 수민이가 되어서 동엽이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해 보는 활동에 앞서 서운한 마음을 건강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나 예비 활동이 추가되면 좋을 듯합니다. 학생들이 수민이의 감정에 몰입한 상태에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해 보게 되면 <대화 예시>에서처럼 매끄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민이 역할과 동엽이 역할을 바꾸어서 해 보는 활동도 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 활동의 내용은 감정 어휘와 함께 사전 찾기 활동과 관련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p>만큼, 친구가 자기에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첫 번째 발문의 첫 문장 호응이 어색합니다. ‘지영이는 친구들과 용돈을 모아서 함께 간식을 사 먹기로 했어요.’ 또는 ‘오늘은 지영이가 친구들과 용돈을 모아서 함께 간식을 사 먹기로 한 날이에요.’로 수정되면 어떨까요? (사먹기로 → 사 먹기로) • 2쪽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중 민영이의 ‘순대 냄새가 정말 맛있겠더라고!’는 ‘순대 냄새가 정말 맛있게 나더라고!’ 정도로 수정되면 의미가 훨씬 잘 파악될 듯합니다. • 2쪽, 3쪽 ‘우리 나라’는 ‘우리나라’로 붙여 쓰면 어떨까요? • 3쪽의 ‘건너 온’, ‘건너 와’는 ‘건너온’, ‘건너와’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 • 5쪽 ‘오랜 시간에 걸쳐’는 ‘오랜 기간에 걸쳐’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 7쪽 ‘짜꿍의이’는 ‘짜꿍이’의 오타인 듯합니다. • 7쪽 ‘실려있는’은 ‘실려 있는’으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 9쪽 ‘귀기울여’는 ‘귀 기울여’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 10쪽 ‘찾아 보아도’는 ‘찾아보아도’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 • 12쪽 ‘이야기 해’는 ‘이야기해’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 • 13쪽 이야기에 ‘지영이’가 등장해 흥미롭습니다. 괜히 집중하여 읽게 되는군요. 3문단 첫 줄의 ‘어느 날’, ‘알고보니’, ‘함께 하게’ ‘어느 날’, ‘알고 보니’, ‘함께하게’로 수정해야 할 듯합니다. 또 4문단 넷째 줄의 ‘아이 고양이’는 앞에 나온 ‘길고양이’로 통일하거나 ‘새끼 고양이’로 쓰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줄의 ‘뛰어 왔는데’는 ‘뛰어왔는데’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 • 14쪽 ‘이야기 해도’는 ‘이야기해도’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 	
5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쪽에서 주장하는 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 정리해 보는 활동도 필요하니 두 활동이 함께(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 3, 4쪽 활동과 2쪽 활동의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요? 2쪽 활동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p>-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p> <p>-활동 1과 활동 2의 순서를 바꾸어 배치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체제에 있어 글의 짜임 - 근거 - 글쓰기 - 평가하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③에서 ⑩로 번호별로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글의 짜임 - 근거 - 글쓰기 - 평가하기의 네 단계가 잘 구분되도록 시각적으로 큰 묶음 체제가 나타나면 좋겠어요. - ③에서 주제를 몇 개 제시하는 것은 어떨지요? 참고사항이니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 정서활동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고민이기도 한데 고학년의 경우 적절한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 단계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활동 8에서는 발문에서 앞서 제시한 주장 카드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서활동 분량은 회의를 통해 함께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의 순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소박한 의견이 있는데, 대단원 6이 일반적인 글을 대상으로 한 쓰기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대단원 5보다 앞에 제시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제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해 주세요. - 10쪽의 반박 의견 쓰기 활동 이전에 반박 의견이 실린 글을 먼저 보여주고 활동을 하면 어떨지요? - 11쪽 근거 말하기 활동에서 학생들이 제시하는 근거가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단원과 6단원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근거 말하기 활동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가정을 화목하게 하자’의 내용이 혹여 모자(母子) 가정 자녀나, 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불편감을 줄 여지는 없을까요? 교실 구성원을 모두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중립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 8쪽. 글의 순서를 찾는 활동에서 5개의 종이 카드 중 3개에 ‘첫째, 둘째, 셋째’처럼 순서가 매겨져 있어 글을 다 읽지 않고도 종이 카드의 순서를 곧바로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순서를 매겨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글의 순서를 맞추어 보는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첫째, 둘째, 셋째’보다는 ‘우선, 그다음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와 같은 연결어를 제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 10쪽. ‘물은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물은 변비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거나, ‘변비’가 문제 현상이고 이를 해결하는 데 ‘물’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수정되면 이해하는 데 보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관련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대체하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대신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연결어를 수정하였습니다. -10쪽 근거 관련 내용을 의견대로 수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만 5쪽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 상자 내용 중 ‘신문 사실’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은 아닌지요? • 5쪽 ‘짜여져’는 ‘짜여’로만 써도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 5쪽 ‘불러 일으키게’는 ‘불러일으키게’로 붙여 써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 및 발문 관련 내용을 의견대로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신문 사실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중심 문장에 대한 예시를

		<p>할 듯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마무리 한다’는 ‘마무리한다’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 • 6쪽 ‘가족간’은 ‘가족 간’으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 6쪽 ‘둘째, 셋째’ 뒤에 쉼표가 추가되어야 할 듯합니다. • 6쪽 ‘직접 해보려는’은 ‘직접 해 보려는’으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 8쪽의 ㉔에서 ‘생활 환경’은 ‘생활환경’으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 • 9쪽의 활동에서 도움으로 삼을 수 있는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쪽에서 ㉔ 또는 ㉕ 단락의 한 문장을 비워 놓고, 9쪽에서는 낱말을 넣어 중심 문장을 작성한 예시를 보여 주면 학습자들이 따라 하기 좋을 것 같아요. • 10쪽의 ‘심각해 지고’는 ‘심각해지고’로 붙여 써야 할 듯합니다. • 18쪽 ‘다칠까봐’, ‘놀릴까봐’는 각각 ‘다칠까 봐’, ‘놀리까 봐’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 19쪽 ‘하는데’, ‘붙어 넣어’, ‘한번’은 각각 ‘하는 데’, ‘붙어넣어’, ‘한 번’으로 수정되어야 할 듯합니다. 	<p>추가하였습니다.</p>
6	<p>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써 보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쪽 그림은 ‘강낭콩’에 대한 쓸 내용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림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 이 단원에서는 소개 혹은 설명하는 글의 종류만 다루는 것이지요? - 9. 자신 있게 말하고 바르게 듣기 활동은 ‘서로 고쳐 써 주기’로 하면 어떨까요? - 정서활동에서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봄’은 좋은 그림 같아요. 다만, 교재로 옮겼을 때 사진으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p>- 그림 수정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쪽 강낭콩 예에서 ‘강낭콩을 키우는 즐거움’과 같이 글의 예상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도 마인드맵에 예시로 넣어 주면, 5쪽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과 활용하지 않을 내용 정하기를 할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 강낭콩에 대한 소재 안에 소주제들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찾아갔으면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단원의 순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소박한 의견이 있는데, 대단원 6이 일반적인 글을 대상으로 한 쓰기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대단원 5보다 앞에 제시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저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해 주세요. - 6~7쪽에서 쓸 내용 꾸러미 앞에 번호를 붙여주면 순서가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 흥미로운 정서 활동인데요, 본 그림을 보여주기에 앞서 게슈탈트 그림 또는 숨은 그림 찾거나 다른 	<p>- 5, 6단원 순서 조정 필요해 보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p>

	<p>한편으로는 에서의 그림을 보여주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어떨지요? 정말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쪽. 강낭콩과 관련한 마인드 맵 내용과 5쪽 <보기> 내용 중 ‘뿌리 발견’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대개 흙에 심어 키우는 강낭콩의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또 5쪽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슬프다’는 ‘소식이 없는 강낭콩’과 관련된 내용인 듯한데 마인드 맵 연결선이 ‘소식이 없는 강낭콩’-‘슬프다’로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강낭콩’에 직접 ‘슬프다’가 연결되어 있어 의미 파악이 다소 어렵습니다. - 10쪽. 고쳐 쓴 글에 추가된 문장이 ‘저희 식물 과학 공원에는’으로 시작하는데 이 글은 공원 측에서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그곳을 다녀온 학생이 공원을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삭제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 13쪽. ‘자신있게 말하고 듣기’ 활동은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써보기’가 주제인 단원의 성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듯 보입니다.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쓰면 좋은 점을 생각해 보거나, 쓰기 과정에 맞추어 글을 잘 쓴 친구의 글을 칭찬해 보는 활동은 어떨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p>-3쪽부터 8쪽까지 주제나 대상을 정해 글을 쓰는 활동에서 5-6학년군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임을 감안할 때 글의 종류나 형식상 다소 자유롭다는 듭니다.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지지 않아 6쪽에서 강낭콩에 대한 글을 적기 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생이 완성하게 될 글이 결국 일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대상이나 주제를 골라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는 것이 1,2학년 혹은 3-4학년군에서 다루는 만큼 5-6학년에게는 글의 종류와 그에 따른 내용에 관한 전형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을 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이어지는 고쳐 쓰기 활동에서 자신의 글을 내용적 차원에서 고쳐 쓸 수 있을 듯합니다.(소개하기 글의 경우 내용적 차원에서 안내하는 표현을 추가한 것과 같이) 아울러 쓸 내용의 순서를 정해서 글을 쓸 때 처음 부분, 가운데 부분, 끝 부분에 대한 글의 구조적인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앞 단원인 5단원에서 주장하는 글의 주제를 정하고, 개요를 조직하고, 한 편의 글을 쓰는 활동을 하였는데 6단원에 이르러 난도가 낮아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참고만 해 주세요^^</p> <p>-위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쪽 ‘위 그림을 참고하여 친구들에게 자신이 정한 주제나 대상에 대해’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단원과 6단원의 난이도가 달라 대단원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 반영하였습니다.

	<p>‘친구들에게’는 독자가 친구들이라는 것이지요? 만일 예상 독자가 친구들이라면 자유로운 일기 형식이 아닌 친구들을 고려한 글이 되도록 관련 내용이 필요할 듯합니다.</p> <p>-9쪽, 10쪽의 식물 과학 공원 소개하는 글에서 문장 호응이 어색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 적습니다(참고만 해 주세요): 1) 영화관에서는 ~ 곳입니다. → 영화관은 ~ 곳입니다. 2) 허브 체험관은 ~ 할 수 있습니다. → 허브 체험관은 허브의 종류, 허브의 쓰임새 등 허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허브로 족욕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식물 과학 공원 발표를 ~ 것 같습니다. → 식물 과학 공원 발표를 ~ 배웠다는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한번에’, ‘그 다음에는’은 각각 ‘한 번에’, ‘그 다음에는’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할 듯합니다. • 5쪽 ‘무감감 소식’은 ‘감감소식’ 또는 ‘감감무소식’으로 수정되어야 할 듯합니다. • 6쪽 ‘글 쓸 대상인’은 ‘글로 쓸 대상인’으로 수정하면 어떨지요? • 9쪽, 12쪽 제목의 ‘고쳐쓰기’는 ‘고쳐 쓰기’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 9쪽, 10쪽 ‘발표 하겠습니다’, ‘관찰 할 수’, ‘느낀점’은 각각 ‘발표하겠습니다’, ‘관찰할 수’, ‘느낀 점’으로 수정해야 할 듯합니다. • 11쪽 ‘잘 못 썼네’는 ‘잘못 썼네’로 띄어쓰기를 해야 할 듯합니다. • 13쪽 ‘자신있게’는 ‘자신 있게’로 띄어 써야 할 듯합니다. 	-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3차 개발

- 공동 연구원, 책임 연구원의 내부 종합 검토 내용

대단원		검토의견
1	정확하게 읽고 써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 첫 대단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 부분에서 좀 더 흥미로운 활동을 하는 방안 고려 필요. ◦ 1쪽: 소리대로 적힌 단어들이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2쪽: 1)번과 동일한 단어를 활용하고 있어 중복되는 활동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 5쪽: ‘ㅅ’이 ‘ㄴ’ 소리를 덧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은 정확성 차원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5쪽: ‘혓수’, ‘숫자’는 사이시옷 표기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자어이므로, 해당 성취 기준을 다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느 수준까지 다루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ㅎ’이 ‘ㅈ’을 ‘ㅊ’으로 소리 나게 한다는 설명은 정확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ㅈ’이 ‘ㅎ’에 의해 ‘ㅊ’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ㅎ’과 ‘ㅈ’이 축약 현상에 의해 ‘ㅊ’으로 발음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에 관한 해당 단위 초등학교 교과서의 설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6쪽: ‘알’의 ‘ㄹ’이 ‘약’의 ‘ㅇ’까지 ‘ㄹ’로 소리 나게 만들었다는 설명은 정확성 차원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9쪽: ‘나 물 좀 주세요’는 다소 구어적인 표현이라 띄어쓰기 연습에 적절할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10쪽: ‘말 사이를 서로 띄어 쓰는’에서 ‘서로’ 삭제 ◦ 10쪽: ‘사랑해요.’에서 마침표 삭제 ◦ 10쪽: ‘혼자 쓰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앞말에 붙여 쓴다’는 설명의 적절성 검토 필요.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조사의 띄어쓰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 필요. ◦ 11쪽 활동은 단어 카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시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13쪽: ‘모듬을 지어’라는 표현은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재미있는 세상 뉴스>를 적는 칸을 나누어, 어떤 매체를 통해 해당 뉴스를 접했는지도 간단히 적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3쪽 ‘짜여져’는 ‘짜여’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7쪽에서 생각할 시간을 10초 정도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3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쪽: ‘할아버지 쥐가 하신 말씀을 보고’에서 ‘보고’를 ‘듣고’로 수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 9쪽: ‘발볼’이 다소 생소한 단어라서 날개나 각주에 뜻을 간단히 적어 주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단, 어려운 낱말 뜻풀이를 넣는 문제는 교재 전체 틀과 관련된 문제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18쪽: 관용 표현을 새로 만들고 성찰해 보는 활동이 의미 있기는 하지만, ‘새로 만든 관용 표현’이나 ‘내가 만든 관용 표현’이라는 용어는 ‘관용’의 개념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다듬으면 어떨까 합니다.
4	우리말 나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대’, ‘김밥’, ‘떡볶이’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지 정확성 차원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만들어 온 음식에는 순우리말 이름이 붙어 있고,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온 음식에는 한자어 이름을 붙여 주었어요.”와 같이 음식의 유래와 음식 이름의 유래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에 문제는 없을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김치’라는 단어는 ‘沈菜’에서 유래) ◦ 5쪽: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별을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초등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5쪽: 사전에 한자어가 병기되었는지로 한자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장면(←<중>zhajiangmian[炸醬麵])) 초등학교 교과서 관련 단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쪽: 기존 노래 가사에 사용된 외래어를 고유어 등으로 바꾸어 보고 느낌을 말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외래어가 더 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올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14쪽: ‘예쁜 우리 고유어’와 같이 고유어를 ‘예쁜’이라는 특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한가위’나 ‘내려받기’는 ‘예쁜’과는 다른 차원에서 가치를 찾아야 하는 고유어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5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써 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쪽: ‘글을 쓰는 데도’는 ‘글을 쓰는 데에도’로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쪽: 주장하는 글에 사용된 문장이 항상 힘찬 느낌을 주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힘차고 합리적이며 조리가 있는’과 같은 설명의 적절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장하는 글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6쪽: ‘논설문’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나와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10쪽: ‘별점제’라는 용어 대신 ‘상별점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두 용어 중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 고학년군 최종 교재 활동 내용

대단원명		성취 기준	관련 활동	활동 구성의 주안점	지도 시 유의점
1	정확하게 읽고 써요!	[5-6학년군] 문법 (1) 발음과 표기, 띄어쓰기가 혼동되는 낱말을 올바르게 익힌다.	1. 맞춤법에 맞게 쓰인 단어 식별하기 (2~3쪽)	스티커 활동, 선 긋기 활동 등을 통해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맞춤법에 맞게 쓴 표기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커 활동 시,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소리 나는 대로 쓰인 단어를 한 번씩 발음해 보고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며 정확한 표기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단어끼리 선으로 연결하는 활동의 경우, 단어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그려지는 도형이 다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도형의 모양에 집중하기보다 10개의 올바른 단어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발음과 표기가 다른 단어 유형별	앞말의 받침이 뒤로 넘어가 소리 나는 단순한 연음에서부터 거센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문항에서 정답을 고른 뒤 해당 단어를 빈칸에 바르게 적어 보

			로 학습하고 문제 풀기 (4~7쪽)	된소리, 겹받침이 사용되어 발음과 표기가 까다로운 단어의 순으로 학습 유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문제의 발문에는 해당 유형에 대한 지식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단어의 예를 제시해주어 문제를 풀기 전 발음과 표기의 차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는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 학습자가 오답을 선택하거나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적극적으로 보충 설명을 제공한다.
			3. 잘못 표기된 단어 고쳐 써 보기 (8쪽)	한글 맞춤법에 아직 능숙하지 않은 동생이 그림일기를 썼다는 가정하에 소리 나는 대로 쓰인 단어를 학습자가 직접 맞춤법에 맞게 고쳐 써 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잘못 쓰인 단어를 바르게 고쳐 쓰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단어 상자>를 제시하였는데, <단어 상자>에는 올바른 표기와 잘못된 표기가 함께 섞여 있어 학습자가 한번 더 바른 표기를 선별해 보도록 하였다.	● <단어 상자>에서 올바른 단어를 고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또박또박 바르게 써 보는 연습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단어 상자>에 제시되어 있는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도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준다.
			4.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문장 학습하기 (9~10쪽)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문장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의미의 차이를 파악하며 직접 띄어쓰기를 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띄어쓰기에 따른 문장의 의미를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 보게 하여 학습자가 해당 문장을 어떤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띄어쓰기 방법은 2가지가 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서로 다르게 띄어쓴 문장 간의 의미 차이가 잘 드러나도록 간략한 그림을 그려 보게 하고 이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5. 띄어쓰기의 원리 학습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는 말은 서로 띄어	● 낱말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혼자 쓰일 수

			하기 (11~13쪽)	쓰고, 혼자 쓸 수 없는 말은 앞말에 붙여 쓴다는 띄어쓰기의 원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있다', '혼자 쓰일 수 없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도록 한다. ● 띄어쓰기가 잘된 문장을 고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을 바르게 고쳐 써 보는 활동까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나에 대한 글을 원고지에 써 보기(14~16쪽)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학습자가 스스로를 소개하고 표현하는 한 편의 글 또는 여러 개의 문장을 원고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해당 활동이 정서 활동이기도 한 만큼 학습자들이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해 볼 수 있도록 북돋워 준다. ● <도움 상자> 및 쓰기 과정을 고려한 예비 단계를 적극 활용하여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외에 원고지 작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2	다양한 매체로 세상을 만나요	[5-6학년군] 듣기·말하기 (6)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1. 텔레비전 뉴스 듣고 말하기 (p.3) 2. 텔레비전 뉴스 정보 듣고 이해하기 (p.4-5) 3. 신문 기사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기(p.6-8)	-단원의 전반부는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듣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함. -텔레비전 뉴스를 중심으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듣고 말하기를 유도함.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구성함	-듣기의 경우, 학습자 수준에 따라 여러 번 혹은 단락별로 끊어 들려주면서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주제 파악하기, 단락별 요지 파악하기 등으로 지도함.
		[5-6학년군] 쓰기 (3)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 대상의 특성과 파악하기 (p.10-12) 5. 대상 간 비교하기(p.13) 6.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글쓰	-후반부는 특정 대상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는 글쓰기 활동으로 구성함.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해서 쓰는 활동을 유도함.	-비교하려는 두 대상이 서로 견줄 만한 대상인지 주의해서 지도함. -두 대상 간 비교의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시범적으로 예시를

			기 (p.14) 7. ‘엄마, 아빠! 이걸 모르셨죠? (p.15-16)	- 비교의 기준에 따라 두 대상 간 비교하는 글쓰기를 구성함.	제시하는 것이 좋음.
3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	[5-6학년군] 문법(6) 관용 표현의 특징을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1) 이럴 때 관용 표현을 사용해요 도입(p.1) 1.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 (pp.2-4)	- 도입 부분에서 대화 내용을 보고 스스로 의미를 추론해 보도록 한다. - 관용어를 비롯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알고 낱말이 가진 원래 의미가 확장된 경우를 확인한다.	- 주어진 관용 표현 외에도 신체 기관에 관련된 다양한 관용 표현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신체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학습할 때에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특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제공한다.
			2. 관용 표현의 효과를 이해해요(p.5)	- 그림을 통해 관용 표현의 사용 효과를 이해한다.	- 그림에 제시된 사례 외에도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관용 표현의 효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속담에 담긴 의미(pp.6-8)	- 속담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답을 마련해가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 관용 표현에서 스스로 낱말을 바꾸어 보고 의미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관용 표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스스로 질문을 마련하는 것을 어려워할 경우에는 6쪽에 있는 추가 질문들을 교사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한다. - 7쪽 도움 상자에서 제시한 단어 외에도 학습자들이 스스로 단어를 바꿔보고 의미를 형성해 보도록 유도한다.
			4.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속담의 속뜻(p.9)	- 관용 표현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표현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속담의 의미를 배경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이해하여, 속담의 속뜻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교사가 화면을 멈추고 설명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 영상 자체를 보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한다. - 의미의 전이·확장을 통해 형성되는 관용 표현이 아닌 경우(낱

		말의 원래 의미 관련 정도에 따라)에는 상황이나 배경, 이야기와 함께 이해할 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5. 이야기를 통해 속담을 깊이 이해해요. (pp.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담에는 옛 이야기에 담긴 국어 문화의 특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상황이 드러나는 그림을 제시하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이 속담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11쪽의 안내글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학습자들이 그림 속에 제시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여 준다.
2) 관용 표현을 적용해 봐요 도입(p.12) 6. 관용 표현에 나타난 상황 알아 보기 (p.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 관용 표현에서 초점화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 표현이 낱말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도출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한다. - 관용 표현이 초점화하고 있는 사건에 대응되는 학습자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되, 교사가 적절하게 피드백한다.
7. 상황에 맞는 관용 표현 쓰기 (pp.1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 표현의 의미가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이야기 등 상황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이 해당 표현과 관련 지어 생각나는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도 반응해 준다.
8. 범인이 남긴 단서(p.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성 퀴즈를 통해 앞에서 배운 관용 표현을 복습하고, 놀이 형식의 활동을 구안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성 퀴즈를 통해 알아낸 글자들을 하나씩 지워가며 마지막에 남는 단어를 조합하여 이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9. 모둠별 속담 말하기 대결 (p.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알고 있거나, 수업 시간에 배운 속담에 대해 말하는 시간을 통해 학습자에게 익숙한 속담이 관용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에서의 관용 표현은 속담과 관용어로 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되, 학습자들이 속담 말하기 대결에서 고사성어나 격언 등을 이야기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허용하여 준다.
			10. 관용 표현으로 소통하기(p.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용 표현을 쓰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습한 내용이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용 표현의 의미가 통하도록 바꾼 표현이 적절한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이 기왕에 존재하는 관용 표현의 현대적 활용 및 적용 상황들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언어활동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우리말 나들이	[5-6학년군] 문법(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1. 무얼 먹을 까? 2. 고유어, 한 자어, 외래 어, 외국어 구별하기 3. 차림표 완성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식 이름을 통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익힌다. - 우리말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국어 사전을 활용하여 구별해 본다. - 차림표 완성 활동 시, 반드시 모든 음식 이름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놀이를 하듯 활동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음식의 유래와 모든 음식 이름의 어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의 유래와 음식 이름의 유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지시킨다. - 토박이말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으나(중학년 교재 내용) 고유어에 대한 개념도 상세히 안내한다. -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4. 노래 가사에 쓰인 우리말 을 살펴보아 요. 5. 노래 가사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가사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찾고, 어종을 바꾸어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서 노래를 직접 들려주며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한다. - 어종을 바꾸는 활동 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바꾸어 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종을 바꾸었을 표현하였을 때, 외국어나 외래어가 더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왜 그러한지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한다. - 바꾸어 본 결과를 짝꿍과 나누어 보고 발표하게 한다. 	<p>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어나 외국어가 더 적절하다고 느낀다면 왜 그러한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박자, 운율 등) 유도한다.
5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써 보아요!	[5-6학년군] 쓰기 (1)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	<p>1. 쓰고 싶은 주제 정하기</p> <p>2. 주제에 대해 쓸 내용 생각해 보기</p> <p>3.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과 활용하지 않을 내용 정하기</p> <p>4.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들의 순서 정하기</p> <p>5. 정한 순서에 따라 글 완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고 싶은 주제를 학습자 스스로 정하게 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주제에 대해 쓸 내용을 학습자가 마인드맵 형태로 수정 확장해 나감으로써 학습자 주도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과 활용하지 않을 내용을 정하고, 이를 한 문장씩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긴 글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 글쓰기에 활용할 내용들의 순서를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자신이 정한 배열 순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일관된 논리적 흐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한 순서에 따라 글을 완성하는 단계로, 이어주는 말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긴 글을 스스로 완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수준에서 쓰기 어려운 주제는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시된 주제 외에도 스스로 주제를 확장해서 생각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자가 주제에 대해 쓸 내용을 마인드맵에 자유롭게 수정,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한 문장에 하나의 주된 생각을 담도록 한다. -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앞의 활동과 연속성을 유지한 채, 학습자가 스스로 글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6학년군] 쓰기 (7) 자신이 쓴 글을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고쳐쓴다.	6. 불필요한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 없는지 살펴보기	- 완성한 글에서 불필요한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은 없는지 내용 차원에서 고쳐쓰기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 주제와 쓴 내용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 없는지 살펴보기	-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나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 없는지 표현 차원에서 고쳐쓰기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 표현이나 맞춤법 차원에 주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8. 자신의 주제가 잘 드러나게 내용과 표현 고쳐쓰기	- 내용 차원과 표현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학습자가 고쳐쓰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다.	-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학습자가 글을 고쳐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9. 친구의 발표를 듣고,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잘 쓴 친구 칭찬하기	-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고, 쓰기 과정에 따라 글을 잘 쓴 친구를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 친구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근거를 들어 주장해요	<p>[5-6학년군] 쓰기 (4)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p> <p>[5-6학년군] 쓰기 (2)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여 글을 쓴다.</p>	<p>1. 광고를 보고 주장 찾아보기(p.1-2)</p> <p>2. 동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p.3-4)</p> <p>3. 주장하는 글에 대해 알아보기 (p.5) <주장하는 글의 짜임></p> <p>4. 주장하는 글의 짜임 파악하기 (p.6-7)</p> <p>5. 순서를 찾아라!(p.8-9) <주장하는 글의 근거></p> <p>6. 적절한 근거 판단하기(p.10)</p> <p>7. 근거 말하기 (p.11) <주장하는 글쓰기></p>	<p>-단원 전체적으로 적절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쓰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하였음. 목적과 주제를 고려한 글쓰기에 대한 성취 기준은 주장하는 글쓰기와 연계하여 부수적인 성취 기준으로 다루었으며, 내용상 활동을 구별하여 다루는 것보다는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목적, 주제, 독자를 고려하게끔 융합하여 구안함.</p> <p>-단순히 주장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장하는 글의 구조, 특성, 적절한 근거 등이 무엇인지 알고 쓸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p> <p>-지면 광고,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는 흥미 있</p>	<p>-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익힐 수 있도록 교사가 활동 중간중간 지식적인 부분들을 짚어줄 필요가 있음.</p> <p>-주장하는 글을 쓰기 전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근거를 판단하는 방법을 지도할 때 교사가 시범을 보이며 학습자가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함.</p> <p>-시간상의 여유가 있다면 본인이 쓴 주장하는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게 할 수도 있음.</p> <p>-주장하는 글의 구조와 특성을 학습한 만큼 실제 글을 쓸 때에도</p>

			8. 주장하는 글 조 직 하 기 (p.12-13) 9. 주장하는 글 쓰기(p.14) <주장하는 글 평 가하기> 10. 나의 글과 친 구의 글 평가 하기(p.15)	고 다양한 활동을 마련 하고자 하였음. -순서를 찾아라, 근거 말하기 등과 같은 단원 주제에 맞는 놀이 활동 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쓰기 단원에 대한 흥미 를 잃지 않도록 하였음.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에는 주제를 선정한 후 마인드맵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떠올리고, 글의 짜임에 맞게 개요를 작 성한 후에 이어서 한 편의 글을 쓰게 하는 등의 쓰기 과정의 흐름 을 따르고자 하였음. 아 울러 글을 쓴 후에 스 스로 자신의 글을 평가 해 보며 고쳐쓰고, 친구 들과 돌려 읽게 함으로 써 쓰기 후의 활동을 간과하지 않으려고 하 였음.	서론, 본론, 결론을 나 누고 본론 안에서도 문 단을 나누어 글을 쓸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 할 필요가 있음.			
대단원		관련 정서 활동		정서 활동 구성의 주안점	지도 시 유의점			
1	정확하게 읽고 써요!	<div>- 정서 활동명: 자신 있 게 나를 표현해요! (14~16쪽)</div> <div>- 정서 활동 주제:</div> <table><tr><td rowspan="2">나의 목소리</td><td>용기 있게 표현하기</td></tr><tr><td>자유롭게 표현하기</td></tr></table>		나의 목소리	용기 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자신감 을 갖고 학습자가 스스로를 소개하고 표현하는 한 편의 글 또는 여러 개의 문장을 원 고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용기 있게, 자 유롭게 언어 표현을 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들이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고 성찰 해 볼 수 있도록 북돋 워 준다.● <도움 상자> 및 쓰 기 과정을 고려한 예비 단계를 적극 활용하여 문장 또는 장문 글쓰기 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 록 한다.● 학습자들이 혼자서 글(문장)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모 듬을 만들어 친구들끼 리 서로에 대해 긍정적 인 면을 이야기해 보도 록 독려한다.● 맞춤법이나 띄어쓰 기 외에 원고지 작성과
나의 목소리	용기 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2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까요?	-정서적 주제 <table border="1"> <tr> <td rowspan="3">나의 목소리</td> <td>솔직하게 표현하기</td> </tr> <tr> <td>용기있게 표현하기</td> </tr> <tr> <td>자유롭게 표현하기</td> </tr> </table> 9. 인생 그래프 그리기 (p.16-17) 10. 내 인생의 깜짝 뉴스 기사 작성하기(p.18)	나의 목소리	솔직하게 표현하기	용기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인생 그래프를 그려 보면서 유년기 및 소년기를 돌아보고 자신이 즐거웠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들을 용기를 내어 솔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함. -이 단원의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생활하는 동안 일어났던 다양한 일들을 신문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는 활동을 구성함.	-학습자들이 개인적으로 불편하거나 예민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정서를 고려하여 지도함. 가능한 동료 학습자들과 같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함.
나의 목소리	솔직하게 표현하기							
	용기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3	관용 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정서적 주제 <table border="1"> <tr> <td>정서적 전환</td> <td>긍정적 감정 체험하기</td> </tr> </table> 10.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pp.18-19) 11. 칭찬카드 주고받기 (p.20)	정서적 전환	긍정적 감정 체험하기	- 상호 간의 주고받는 말이 대인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칭찬을 매개로 긍정적 감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 내가 먼저 긍정적인 말을 건네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 말이 갖는 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칭찬카드 주고받기를 통해 긍정적 감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칭찬카드에 들어갈 말은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심어린 칭찬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정서적 전환	긍정적 감정 체험하기							
4	우리말 나들이	- [정서활동] 고운 우리말이 많아요. <table border="1"> <tr> <td>인지적 전환</td> <td>생각 변화, 확장하기</td> </tr> </table>	인지적 전환	생각 변화, 확장하기	- 상호, 간판 관련 시각 자료를 통해 외래어와 외국어가 오용,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 외래어/외국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우리말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말과 고유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 일제강점기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 우리말의 소중함을 이해하게 한다. - 자유로운 이름 짓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인지적 전환	생각 변화, 확장하기							
5	쓰기 과정에 따라	-정서적 주제 <table border="1"> <tr> <td>인지적</td> <td>회상하기</td> </tr> </table>	인지적	회상하기	- <인지적 전환-새롭게 느끼기> 활동을 통해 대상을 거리를 두고 바라봄으로써 새롭게	- 그림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일상 생활로까지 생각을 확장시킬		
인지적	회상하기							

	<p>글을 써 보아요</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전환</td> <td>새롭게 느끼기</td> </tr> <tr> <td>생각 변화, 확장하기</td> </tr> </table> <p>11. 거리 두고 대상 바라보기(14-15쪽)</p>	전환	새롭게 느끼기	생각 변화, 확장하기	<p>게 느끼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깨달음</p> <p>-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는 5-6학년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의 이해가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사물과 사건,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p> <p>-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봄>를 활용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대상에 대한 나의 이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주고자 하였음.</p>	<p>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p>	
전환	새롭게 느끼기							
	생각 변화, 확장하기							
6	<p>근거를 들어 주장해요</p>	<p>-정서적 주제</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나의 목소리</td> <td>솔직하게 표현하기</td> </tr> <tr> <td>용기있게 표현하기</td> </tr> <tr> <td>자유롭게 표현하기</td> </tr> </table> <p>11.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p.20) 12. 쪽쪽! 용기를 높이요!(p.21) 13. 용기에 관한 명언 책갈피 만들기(p.22)</p>	나의 목소리	솔직하게 표현하기	용기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p>-5-6학년에 접어들면서 발표를 잘 하지 않으려는 학습자의 특성을 용기와 관련 지어 정서 활동을 마련하고자 함.</p> <p>-지식채널e 동영상과 다양한 삽화를 통해 진정한 용기에 대해 알아보고 되새기는 활동을 구안함.</p> <p>-‘쪽쪽! 용기를 높이요!’라는 가상 라디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익명으로 평소 용기와 관련한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아울러 또래끼리 공감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을 수 있게끔 구성함.</p> <p>-용기를 주제로 한 여러 명언들을 알아 보고 마음에 와닿는 명언을 골라 책갈피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함. 책을 읽을 때 책갈피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용기에 대한 문구를 읽고 내면화할 수 있게 함.</p>	<p>-동영상을 보고 나서 위험한 행동이 곧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함.</p> <p>-평소 용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고민과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함.</p>
나의 목소리	솔직하게 표현하기							
	용기있게 표현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IV. 결론

1.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의 의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 ①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 ②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
- ③ 아동들의 전반적인 학습 성적과 의사소통 증진에 기여
- ④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
- ⑤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에 대한 국가적 지원 증대
- ⑥ 세분화된 학년군 구분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제공
- ⑦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제공
- ⑧ 초등 맞춤형 정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제공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① 저소득층 교육 기회 증대를 통한 사회 진출 기회의 확대
- ②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증대
- ③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국가적 의지 표명
- ④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 실용성 및 효용성 제고
- ⑤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의 교재 실용성 및 효용성 제고

참고 문헌

- 강명희·박소영·김보경·유지원·김혜린(2012), 고등학생의 미래핵심역량, 행동조절능력, 국어 성취도 간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16(4),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pp.1143-1166.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집필 기준.
- 권미림·홍경훈(2012),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은유 및 직유 이해 능력, 언어치료연구 21(2), 한국언어치료학회, pp.87-105.
- 김규훈·김혜숙(2013), 국어과 창의, 인성 교육의 실행 원리 탐색 -국어과 핵심 역량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국어교육 140, 한국어교육학회, pp.409-448.
- 김미배(2014), 초등 저학년 저소득층 아동의 명사·동사 정의하기 능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6), 한국자료분석학회, pp.3277-3287.
- 김서현·임혜림·정익중(201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이 학습습관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7,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pp.119-146.
- 김영란·김영태(2011), 취학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한국언어치료학회, pp.73-88.
- 김자경·강혜진·김주영(2013), 저소득층 학습장애 위험군의 학습문제 유형과 인지 및 학업적 특성 비교,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4(4),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pp.57-80.
- 김창원 외(2015b),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 —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보고 CRC 2015-25-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화경·배소영·윤효진(2013), 저소득층 아동의 낱말해독 및 읽기 유창성, 언어치료연구 22(1), 한국언어치료학회, pp.55-68.
- 노성향·서혜전(2014),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요구분석, 방과후아동지도연구 11(1),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pp.31-48.
- 박세희·황보명(2015),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에 관한 문헌연구, 언어치료연구 24(4), 한국언어치료학회, pp.57-70.
- 박태정·박형원·이희연(2010),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한국아동복지학회, pp.75-109.
- 배소영·김미배(2010), 초등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언어, 언어청각장애연구 15(2),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pp.146-156.
- 배희숙(2015),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쓰기 발달 특성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8(4), 한국다문화교육학회, pp.161-179.
- 보건복지부(2015),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서혁·오은아(2013),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의 핵심역량 기반 국어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향, 청람어문교육 48, 청람어문교육학회, pp.7-40.

- 서영진(2015),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국어 능력과 핵심 역량의 관계, 국어교육학연구 50(1), 국어교육학회, pp.272-305.
- 서영진·이인제·조용기·박진용·양정실·가은아·민재원·민병곤·김주환·김주영·김보람(2013), 미래 사회 대비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국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원경(201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또래관계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1(1), 한국부모교육학회, pp.5-34.
- 소연희(2008), 독서흥미, 독서활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이 국어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방법연구 20(2), 한국교육방법학회, pp.75-90.
- 신헌재(2008), 감성 소통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251-273.
- 신후남·홍주연(2012), 초등 저학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의 관용어 특성 분석, 놀이치료연구 16(2),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pp.125-137.
- 심고우니·정경희(2012), 초등학교 1-2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특성, 언어치료연구 21(2), 한국언어치료학회, pp.93-110.
- 오소정(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 -친숙도와 비유정도를 중심으로 -, 특수교육 11(2),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pp.145-164.
- 오윤주(2016), 국어과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접근, 국어교육 154, 국어교육학회, pp.229-256.
- 원진숙(2009),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4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158-187.
- 이광우·전제철·홍원표·김문숙(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명순·박 현(2015),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언어 및 학습 능력과 센터 종사자들의 언어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언어치료연구 24(3), 한국언어치료학회, pp.137-148.
- 이유원(2015), 저소득층 아동 대상 기초 국어 능력 향상 교육의 현황과 전망 - 국립국어원 언어 소외 계층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어문교육 1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pp.208-254.
- 이은수·이수용·홍세희(2016),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만족도가 이용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0,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pp.59-85.
- 이효인(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연구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학회, pp.471-494.
- 임정기·박현선·정익중(2015),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인식을 통해 본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한국사회복지학회 67(2), 한국사회복지학, pp.285-310.
- 정민희·홍성원·유서구(2016),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도움정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 모형,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9,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pp.99-127.
- 최소영(2016), 문학 치료학의 이론과 실제, 고요아침.

최홍원(2013), 핵심 역량의 관점에 기반한 국어교육의 재구조화 연구, 새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학회, pp.171-207.

허명진·박찬희(2017), 6세~11세 저소득층 아동의 어휘 및 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한국특수아동학회, pp.251-263.

연구 책임자 : 오현아(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 오지혜(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조진수(서울대학교 박사수료)
보조 연구원 : 진가연(서울대학교 박사수료)
김자영(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소지영(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최선희(서울 양재 초등학교 교사)
자 문 위 원 : 구세민(서울 전동 초등학교 교사)
김혜지(이화여대 국어문화원 강사)
김정은(서울 가주 초등학교 교사)
권순구(충북대학교 강사)
김세현(서울 명신 초등학교 교사)
임문석(서울 영중 초등학교 교사)

언어 소외 계층(초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발 행 인 송철의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17년 7월 31일

발 행 일 2017년 7월 31일

인 쇄 가람문화사